

WCC 제10차 총회와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운동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WCC제10차총회준비위원회 엮음 -



목 차

1. WCC 제10차 부산 총회와 <생명·정의·평화>의 길을 향한 교단의 정책과제 3
 - － 이홍정 목사(총회 사무총장)
2. WCC 제10차 총회 소개 및 노회·교회의 참여 방안 7
 - － 변창배 목사(총회 기획국장)
3. 한국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 20
 - － 장윤재 목사(이화여자대학교 교수)
4. WCC 중심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와 신학..... 33
 - － 이형기 목사(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교수, 공적신학연구소 소장)
5. WCC 제10차 부산총회의 의의..... 71
 - － 박성원 목사(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 영남신학대학교 교수)
6. WCC 제10차 총회가 한국의 부산에서 개최되는 의미..... 83
 - － 임희국 목사(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신학)
7.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선교의 통합적 과제와 전망..... 94
 - － 한국일 목사(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학)
8. 최근 WCC에 대한 비판에 대한 역사적 고찰..... 118
 - － 정병준 목사(서울장신대학교, 역사신학)
9.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세계교회협의회..... 126
 - － 정경호 목사(영남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
10. 세계교회협의회와의 만남이 세계선교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144
 - － 김동선 목사(호남신학대학교, 선교신학)
11. 신앙과 직제(Faith&Order) 운동의 역사적 실체,
그리고 그 지속적인 신학적 대화의 의의..... 159
 - － 이승갑 목사(한일장신대학교, 역사신학)
12. 한국교회와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 183
 - － 김용복 목사(아시아태평양생명학 연구원)
13. 세계교회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과제..... 193
 - － 장상 목사(WCC제10차한국준비위원회 상임위원 겸 대회장)
14. WCC 제10차 총회 및 에큐메니즘 특강 강사 명단..... 205
15. WCC 제10차 총회 일정표..... 208

WCC 제10차 부산 총회와 <생명·정의·평화>의 길을 향한 교단의 정책과제

이홍정 목사 (총회 사무총장)

시작하는 말: 분열과 혼돈은 일치와 질서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

1. 21세기 에큐메니칼 총회/대회 주제: 치유와 화해의 관점으로 주제 읽기

- 1998 WCC 제8차 하라레 총회 주제: “하나님께 돌아와 소망 가운데 기뻐하라”(Turn to God, Rejoice in Hope!)
- 2005 WCC 아테네 세계선교와 전도대회 주제: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화해케 하소서”(Come Holy Spirit, Heal and Reconcile Us!)
- 2006년 WCC 제9차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 주제: “하나님 당신의 은총 가운데 세상을 변혁시켜 주옵소서”(God, in Your Grace, Transform the World!)
- 2013년 WCC 제10차 부산 총회 주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2. WCC 제10차 부산 총회 전후 교단의 에큐메니칼 정책과제

2.1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운동 10년” (2012년-2022년)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화해된 생명공동체로서의 교회(Church as the Healed and Reconciled Life-Community in Jesus Christ)
 - ▶ 구심적 비전: 모이는 교회의 ‘값비싼’ 친교와 일치(costly koinonia and

unity) - 선교와 디아코니아의 동력

-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치유하고 화해하는 생명공동체로서의 교회(Church as the Healing and Reconciling Life-Community to Participate in the Mission of the Trinity of God)
 - ▶ 원심적 비전: 흩어지는 교회의 선교와 디아코니아(mission and diakonia)
 -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공동체와 우주적 생명공동체의 일치
- 상호의존된 하나의 세계를 향한 복음의 온전성(Wholeness)과 총체성(Totality)의 증언
 - ▶ 영적 수직적 차원의 치유와 화해
 - ▶ 사회적 수평적 차원의 치유와 화해
 - ▶ 생태적 우주적 차원의 치유와 화해

2.2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3년 (2013년-2015년)

- 역사적 좌표: 2013년(정전협정 60주년) 부터 2015년(광복 70주년) 까지
- 목표:
 - ▶ 냉전의식을 넘어 민족의 치유와 화해의 과정을 이끄는 교회의 신학적·신양적 자리 설정
 - ▶ 분단의 상처 치유
 - ▶ 분단사회의 사회적 화해 과정 참여
 - ▶ 생명의 안전을 우선하는 평화통일 추구 등
-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생명·정의·평화> 만들기
 - ▶ 부산 총회 전후 WCC의 프로그램과 실천과제 설정
 - ▶ WCC 4개 회원교단과 NCCK의 동북아 실무(Working) 그룹 구성

- ▶ <생명·정의·평화>를 위한 동북아시아 에큐메니칼 포럼: 제2 도잔소 프로세스 추진

2.3 개혁주의에 근거한 글로벌 에큐메니칼(Global Ecumenical) 총회 지향: 선교정책의 재정립

- 총회와 노회 각 부서 사업에 글로벌 에큐메니칼 차원 담보
- 양적 선교에서 질적 영향력을 중시하는 선교로 전환
- 현지교회와 협의회적 의사결정과정 수립: 협력관계에 근거한 초대받은 선교
 - 현지선교회 중심에서 선교협의회 중심으로
- 다양성 속의 일치를 통한 에큐메니칼 배움의 기회 확장
- 노회 대 노회의 상호교류 증진을 통한 지역교회의 세계성 개발
- 세계교회와 공유할 수 있는 과정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3.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섬김의 에큐메니즘

3.1 냉전적 신학의식의 극복

- 에큐메니칼(Ecumenical)과 에반젤리칼(Evangelical)에 대한 역사적 이해: 상황신학
- 복음의 온전성(wholeness)과 총체성(totality)에 대한 본질적 이해 증진: 상황신학의 상대성(relativity)과 부분성(partiality) 인정

3.2 지역에큐메니즘의 강화: 에큐메니칼하게 지속 가능한 지역교회성장

- 지역교회생태계 생명망 강화

- 지역사회의 생명자본 증진
-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일치와 공동의 증언의 상관성

3.3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치학 실천

-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남에게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 협의회적 과정을 이끄는 리더십
- 복음의 온전성과 총체성에 대한 공동의 증언을 위해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하는 상호 배움의 자세
- 교회연합운동의 정신에 부합되는 원칙의 정립

맺는 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 자기 비움과 자기부정이 주는 존재의 힘; A Kenotic Ecumenism

WCC 제10차 총회 소개 및 노회 · 교회의 참여 방안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이끄소서”**

변창배 목사(총회 기획국장)

세상의 만물은 ‘때’가 있다. 힘 있게 자라날 때가 있고, 활짝 피는 때가 있다.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대회가 한국사회에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70,80년대의 민주화운동과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삼아서 88올림픽 이후의 한국사회는 크게 발전했다. 월드컵대회를 통해서 한민족은 식민지의식을 버리고 세계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2013년은 한국교회 역사에서 그러한 변화의 계기로 기록될 것이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가 10월 30일부터 열흘 동안 부산에서 개최되는 까닭이다.

세계사의 변화와 WCC 제10차 총회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가 개최되는 21세기 초반의 현대사회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20세기의 양차 세계대전과 냉전의 소용돌이를 지나서 20세기 말에 공산주의 블록이 몰락하고, 21세기에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대두를 목격하고 있다. 세계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세계화된 지구촌이 되었으며, 지식기반사회를 향하여 문명사적인 전환을 이루고 있다. 국경이나 문화의 제한을 벗어나서 자본의 무한 경쟁을 의미하는 시장화가 이루어졌다.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에 시작된 세속화 경향이 서구 사회에 널리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류는 인구의 폭발, 에너지의 고갈, 식량의 위기, 생태계의 위기, 새로운 질병의 대두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 2011년의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건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신화도 무너졌다.

제2차 대전 이후와 1960년대에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대거 서구의 식민지에서

독립했으나 세계 유일의 제국이 된 미국이 지배하는 신식민주의가 자본의 시장경제를 통하여 구현되고 있다. 최근 아랍 세계의 오렌지혁명이나 99%를 위한 사회를 부르짖는 미국과 서구의 오쿠파이 운동(Occupy Movement)은 미국의 세계 지배가 약화되는 조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9·11테러와 그에 따른 테러와의 전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곳곳에서 국지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불안정한 모습을 수반하고 있다.

21세기에는 중국이 세계 2대 강국의 하나로 대두하는 한편 인도, 브라질, 러시아가 새로운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은 G2 사이의 협력을 추진하면서 갈등도 불사하고 있어 동아시아 지역의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중국은 차항출해(借港出海·항구를 빌려 바다로 나간다) 전략에 따라 향후 10년간 북한 청진을 비롯한 세계 19개 항구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중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 중국과 필리핀 등의 사이에서 영토 분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갈수록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21세기 세계교회의 변화

16세기의 종교개혁 이후에 동방정교회, 로마 가톨릭교회와 더불어서 세계 교회의 한 축을 담당한 기독교 내부에도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기독교의 중심을 이루던 서구 기독교 국가 - 영국,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 의 성공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루터교회, 개혁신교회 등의 주류 교회가 1970년대 이후에 교세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회가 매년 약 5%의 비율로 교인들이 감소하여 매 10년마다 교인이 1/2로 감소하고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전성기의 약 1/10에 불과할 만큼 급격한 교세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18세기 이후에 서구 기독교의 선교에 따라서 세워진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신흥교회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성장은 한국과 인도, 미국 서부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난 20세기 초의 부흥운동의 여파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세계기독교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유럽과 북미대륙의 기독교는 급격한 교세 감소로 인해 새로운 선교적 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둘째,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신흥교회들이 급성장하면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비서구기독교인의 비율이 75%에 달하고 있다. 셋째, 20세기 초반에 시작된 오순절주의 교파는 크게 성장하였고 은사주의 부흥운동을 통해 세계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사회주의 통치 아래서 고대신앙전승을 지켜온 동방정교회가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다시 부흥하고 있다. 다섯째, 세계기독교는 ‘에반젤리칼’과 ‘에큐메니칼’ 사이의 갈등을 뛰어 넘어 수렴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여섯째, 총체적인 생명의 위기 속에서 복음에 입각하여 새로운 영성으로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수많은 여성, 청년, 원주민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 일곱째로는 주류 교파의 쇠퇴를 대신하여 교파에 속하지 않은 독립교회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의 시대에 한국교회는 퇴조하는 서구교회와 급격하게 성장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교회 사이에서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는 서구교회의 영적 유산을 갈무리하는 한편 아시아 아프리카 교회 시대를 향한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한국 사회의 경제적인 변영과 한국교회의 종교적인 열정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식민지 종주국과의 미묘한 감정의 기복을 피해서 피압박 민중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미 세계 선교 현장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3세기에 걸쳐서 서구 교회가 키워놓은 선교단체의 실무자와 책임자를 배출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영적 자산을 공유하려는 관심이 서구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회의 참여와 지도력은 글로벌 선교 영역에서 이미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그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징검다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선교 전략을 세워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난 130여 년에 얻은 부흥 성장과 사회참여의 열매를 글로벌 기독교 공동체와 나누어야 한다.

21세기 한국교회의 현실과 과제

한민족은 지난 세기에 일곱 번에 걸친 큰 전쟁에 휘말리며 고통을 겪었다. 하나하나의 전쟁이 동아시아나 세계의 패권을 바꾸어 놓은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이었다.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고통도 겪었고, 남북이 분단되어 전쟁을 치르는 비극도 경험했다. 불과 한 두 세대 만에 농업 중심의 전통사회로부터 산업화되고 정보화되는 급격한 문명의 변화도 경험하였다. 도시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족은 해체되고 핵가족이 일반화되었다. 한국 거주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섰는가 하면 해외로 이주한 한민족도 700만 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 가히 온 민족이 삶의 뿌리 뽑힌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교회의 발전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루어졌다. 130년 가까운 선교 역사에서 크게 볼 때 두 가지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는 교회가 부흥 성장한 것이고, 둘째는 교회가 민족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하나님께서 한민족

을 위해서 주신 은총임에 틀림이 없다.

첫째로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세계교회사에서 주목할 만한 놀라운 것이다. 이러한 부흥 성장은 서구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종교를 열성적으로 받아들인 초대교회 교인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한국천주교회의 순교의 피 위에서 이루어졌다. 1907년에는 부흥운동의 물결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꺼져가는 민족의 운명 앞에서 신앙을 내면화하였다. 부흥운동은 60년대의 민족복음화운동으로 다시 접화되었고,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 1985년에는 선교 100주년 기념행사에는 연인원 1,600만 명이 참가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는 90만 명의 교인과 700여명의 목회자를 기록했다. 세계 10대 교회 중에서 6개가 한국교회라는 놀라운 기록도 남겼고, 세계 여러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성장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한민족에 뿌리를 내렸다. 세계개혁교회연맹(WARC) 제22차 총회(1989)와 WCC JPIC대회(1990)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는 사실이 세계교회로부터 주목받는 한국교회의 위상을 말하고 있다.

둘째로, 한국교회는 한민족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여 민족을 섬겼다. 초기부터 애국계몽운동을 통해서 민족의 수난에 참여하였고, 교육과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봉사를 통하여 민족을 섬겼다. 1919년에는 3.1운동을 통하여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IMC(세계선교협의회)와 YMCA의 지원을 받아서 전개한 30년대의 농촌운동은 IMC를 통하여 세계 교회에 널리 소개되었다. 일제 말기에는 신사참배 불참여 운동을 전개하여 수난을 받았고, 해방이후에는 남북분단의 와중에서 순교자를 배출했다. 70년대 이후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인권운동을 전개하여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민주화인권운동 참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타이트철폐운동, 미국의 흑인해방운동, 독일의 평화운동과 함께 20세기 교회사의 두드러진 사회참여운동이었다. 80년대 이후 민족의 통일과 환경보전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사회운동과 함께 고아원 양로원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봉사를 통하여 민족을 섬겼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한국교회의 성장은 정체되기 시작했다. 서울올림픽게임 이후에 한국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교회의 민주화인권운동 참여도 퇴조하기 시작하였다. 교회의 성장을 통하여 성공적인 목회자로 사회에 소개된 지도자들도 ‘성공은 하였지만 존경을 받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민주화운동의 지도자들이 차례대로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민주화인권운동의 지도자들도 정권에 참여하면서 민주화인권운동의 성과가 사유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목회자의 과다 배출, 이단 사이버 세력의 발호, 교회 내부의

보수와 진보의 분열, 교회 지도력의 약화, 교회에 대한 지나친 비판 등으로 인하여 이 제는 ‘교회가 사회를 염려하기보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전환의 시대에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서구 기독교가 지닌 신학과 교회법, 교회 연합과 선교의 경험을 유산으로 받아서 남반 구 국가의 교회와 나누는 것이다. 대체로 급성장하는 남반구 지역의 교회는 지도력이 취약하거나 혹은 토착 종교의 배척이나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이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이 한국교회가 담당해야 할 사역이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개혁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상호존중과 신뢰회복을 통하여 분열적인 갈등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노력해 야 한다. 이는 ‘하나 되라’ 하신 그리스도의 절대명령에 순종하는 길이다. 성장의 성과 를 사유화하여 종교권력을 쌓거나 교권을 대물림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회봉 사를 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가난한 민중들을 순수하게 섬겨야 한다. 사회 참 여의 열매를 사유화하지 않고, 고통당하는 이들과 더불어 고난당하는 교회가 되는 섬 김의 길을 택하여야 한다. 목회후보생의 수를 조절하여 목회자의 질적 성숙을 기하여 야 한다. 갈수록 공격적인 양상을 보이는 사이비 이단 세력의 위협을 직시하고 초대교 회의 첫 사랑을 회복하여야 한다. 개혁교회답게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의 모습을 회 복하여야 한다. 서구사회로부터 쫓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세기와 WCC 부산 총회

20세기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세기라고 말할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에큐메니칼 운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선교의 세기’인 19세기의 결실이였 다. 19세기 말에 복음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연합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1900년 에 뉴욕에서 선교사들과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단체 대표가 모여서 에큐메니칼 선교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가 ‘에큐메니칼’과 ‘선교’를 직접 연결시킨 첫 대회였다. 대회는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11일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개회예배에는 전 세계로부 터 2,500명에 달하는 인사들이 모였다. 벤자민 해리스 미국 대통령이 참석해서 개막연 설을 했다. 이 대회의 준비모임에서 뉴욕 그레이스교회를 담임하는 윌리엄 헌팅톤목사 는 에큐메니칼을 이렇게 설명했다: “솔로몬이 말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지구의 어디에서든 지혜를 찬양합니다. ... 어디든 에큐메니칼 세계는 사람들이 거주하

는 세계입니다.” 이처럼 복음 선교를 위한 협력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토대를 이루었다.

이처럼 세상은 쉬지 않고 변화한다. 교회의 역사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16세기 초반에 종교개혁을 시작한 서구의 개신교회는 17세기에 신학과 교회 체제의 정비를 일단락지었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서구와 북미의 경계를 벗어나 세계를 향하여 나갔다. 19세기를 마칠 무렵에는 ‘땅 끝’에 위치한 한반도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로써 19세기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가 되었다. 선교 운동의 바탕 위에서 교회 연합운동이 전개되자 20세기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세기’가 되었다. 어린 나무가 자라서 거목이 되듯이 세계교회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하여 온 땅의 생명이 깃드는 큰 숲이 되었다.

20세기 에큐메니칼 운동의 꽃은 1948년에 이루어진 WCC의 창립이다. 1900년대가 시작될 무렵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위치한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거기에 있다’는 것은 알아도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교회와 교회가 서로 소식을 나누기조차 쉽지 않았다. 심지어 다른 교회에 편지를 보낼 주소조차 찾기 어려웠다. 어찌다 오가는 개척자들을 통해서 신비한 여행담을 나누고 살았다. 19세기에 점차 활발해진 미전도지역 선교도 선교단체나 교파와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때로는 교파간의 갈등이나 경제적 낭비와 같은 문제도 드러났다. 연합하고 협동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이 선교사와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1800년대 말에 런던, 리버풀, 뉴욕에서 10년을 주기로 선교대회가 개최되었다. 1900년에 모인 뉴욕대회에서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이 최초로 사용되었다.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뒤 모인 ‘에큐메니칼 공의회’ 전통을 되살려 낸 것이다. 324년부터 787년까지 일곱 차례 모인 공의회를 통해서 초대 교회는 교회의 가시적인 일치를 확인하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를 확립했다. 드디어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모인 선교대회가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를 제공했다. 교회 대표들이 선교사들과 선교단체 대표와 함께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그 결실이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이루어졌다. 암스테르담의 옛 루터교회에서 개최된 WCC 창립예배에는 네덜란드의 비트릭스 여왕을 비롯해서 모두 5백 여 명의 회중이 모였다. 이들은 147개 회원교회가 보낸 351명의 대표와 독일정부와 암스테르담 시 관계자, 유럽과 미국에서 온 방문객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비록 유럽과 북미의 개신교가 중심이 되기는 했지만, 곧 WCC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제2차 대전의 상처를 안고 있는 기독교세계를 향해서 연합을 향한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1961

년에 인도의 뉴델리에서 모인 제3차 총회에서는 제3세계 신생교회들과 2천 년 역사를 지닌 정교회들이 대거 회원교회로 가입했다. 비로소 명실상부하게 ‘세계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가 되었다. 현재는 110개 국가의 349개의 개신교회와 정교회가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의 네 교회가 회원교회이다. 한국정교회도 그리스정교회의 일원으로서 회원교회의 자격을 지니고 있다. 회원교회 교인 수가 모두 5억 6천만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기독교 협의체이다.

이런 WCC의 설립을 포함한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의 이면에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적지 않다. 에딘버러선교대회를 성사시킨 존 모트는 이를 위해서 280만 km를 여행했다. 자그마치 지구를 70바퀴나 돌 수 있는 거리이다. 미국 감리교회의 평신도였던 모트는 한국도 두 번이나 방문했다. 1907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방문했을 때 평양대부흥운동을 장대현교회에서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덕분에 1910년의 에딘버러선교대회에 한국교회 대표가 15명이나 참석하기도 했다. 이들 중에 윤치호선생이 초기한국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했다. 2010년에 모인 에딘버러 100주년기념대회에서는 윤치호 선생의 3대 후손인 윤경남 권사가 남편 민석홍 장로와 함께 참석해서 만찬 석상에서 윤치호 선생에 대한 회고담을 전하기도 했다.

WCC는 2013년 10월 30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제10차 총회를 개최한다. 회원교회 대표 825명 외에 옵저버, 참관인, 초청인사, 선교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5천 여명이 참석하는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총회를 방청하는 지역교회 교인들까지 포함하면 최대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도 공식적으로 초청을 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나 아시아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도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세기 말부터 세계 기독교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서구 교회가 약화되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급성장했다. 성령의 은사 체험을 강조하는 오순절 운동의 교회에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나왔다. WCC 부산 총회는 이러한 변화에 직면한 세계 교회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청한다.

가시적인 일치를 추구하는 WCC

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유일한 경전으로 받아들인

다. 삼위 하나님의 신비한 일치를 믿고, ‘주어진 일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일치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20세기 에큐메니칼 운동은 ‘주어진 일치’(God-given Unity)를 확인하고, 그것을 기초로 흩어진 교회의 ‘가시적인 일치’(Visible Unity)를 추구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WCC도 1948년 창립총회 때부터 교파 간의 차이를 확인하며 ‘주어진 일치’를 발견하려 노력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지향하고 있다. 이 일치가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일치이다. 이러한 ‘주어진 일치’를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은 바로 그 교회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관심이요, 또한 바로 그 관심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주님이시오, 머리되신 분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하나됨을 발견하는 것이다.” 바울의 표현과 같이 교회는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갖고 있다(고전12:12). 그 여러 지체들은 머리되시는 주님께 속해 있다. 교회는 그의 신부요 신랑 되신 그분과 연합해 있다. 이것이 일치의 진정한 기초이다.

‘주어진 일치’는 하나임을 확인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갈라진 틈을 극복하게 한다. 교회와 교회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함으로써 친교를 나누어 왔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공동의 신앙 이해와 선교를 위하여 협의하고 협력함으로써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고 있다. 동시에 교회는 세상을 섬김으로써 갈라진 인류에게 하나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었다. WCC가 추구하는 교회 일치는 결코 획일적이거나 한 교파로의 흡수 통합과 같은 일치추구가 아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일치이며, 성령 안에서 누리는 친교를 통해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치와 다양성은 한 쌍의 짝을 이루고 있다. ‘주어진 일치’는 ‘다양성 속의 일치’인 것이다.

오래 동안 한국교회는 하나의 성경책과 하나의 찬송가를 사용해 왔다.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관계없이 쉽게 교류할 수 있었다. 연합집회를 가질 때에도 큰 불편을 겪지 않았다. 때로는 서로 다른 번역의 성경책과 찬송가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곧 일치를 이루어 왔다. 한국교회 백주년을 맞이할 때나 1907년 대부흥운동 백주년 맞이할 때에도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기념예배를 드렸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연합예배를 드리며 주어진 일치를 확인해 왔다. 요즘 찬송가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하나가 되게 해 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온다. 온 땅에 흩어진 교회가 ‘주어진 일치’를 확인

하고, ‘가시적인 일치’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원한다.

WCC 부산총회는 어떤 모임인가?

WCC 부산총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의 사귀의 기회이며, 21세기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세계교회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기회이다. 이 총회에 110개국의 349개 교단이 약 825명의 총대를 보낼 것이다. 이들은 전세계 5억 6천 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대표한다. 총대 외에 옵저버, 초청인사, 총회를 운영하기 위한 실무자, 기독교계의 여러 국제기구 대표, 교회와 협력하는 국제단체 대표, NGO 대표, 해외 언론인 등 해외 참가자만 약 2천 5백여 명에 달할 것이다. 적게 잡아도 4천 여 명 이상 모이는 지구촌 기독교의 큰 잔치가 부산에서 열리는 것이다. 한국교회도 몇 년 전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WCC 부산총회를 준비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부산시 당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WCC 부산총회의 주제는 무엇인가?

WCC 부산총회의 주제에는 21세기 세계 문제에 대한 응답이 담겨 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이끄소서”라는 주제는 성경의 예언자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이사야 예언자의 ‘고난당하는 종’에 대한 예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생명의 하나님’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명이 위협당하는 세계 속에서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 ‘정의’와 ‘평화’에 대한 강조는 불의하고 평화롭지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을 담고 있다. 그 희망은 하나님의 은총을 향한 갈망이며 기도이다. 생명의 하나님께 돌아갈 때 비로소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담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을 다스리실 때 생명은 온전함에 이르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희망의 선언이다. 이는 경제위기, 생태위기, 영적 위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불의한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웃을 향한 복된 소식이다. 이처럼 총회의 주제에 정의와 평화의 문제를 다룬 것은 WCC 역사에서 최초의 일이다.

WCC 부산총회는 어떻게 진행되나?

‘총회’라고 하면 회무처리를 위한 딱딱한 회의를 연상하게 된다. 하지만 WCC 부산총회는 이전의 총회와 같이 예배와 성경공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매일 예배로 시작해서 기도회로 하루를 마친다. 성경공부는 미리 준비한 교재에 따라서 20-30명의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일곱 명의 성경공부 집필자 중에는 우리 교단 WCC 총

대인 배현주 목사(부산장신대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물론 예배와 성경공부는 총회 주제에 대한 신앙적인 성찰을 담고 있다. 예배 중에는 한국교회의 영성을 수용하여 ‘통성기도’ 순서를 담고 있고, 한국교회의 ‘새벽기도회’에도 함께 진행한다. 특이한 것은 ‘통성기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옮기지 않고 우리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배와 성경공부 외에는 7가지 주요 과제를 다루는 전체 모임과 21가지 소주제별로 진행되는 에큐메니칼 대화, 85개의 마당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2주일에 걸쳐서 독일 베를린에서부터 모스크바를 거쳐 북경까지 이어지는 평화열차순례를 기획하고 있다. 전세계 150명의 젊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2주간 동안 토론하는 글로벌에큐메니칼신학원(GETI)도 운영하고, 한국의 각 신학교 학생 220명이 모이는 한국에큐메니칼신학원(KETI)도 운영한다. 여성과 청년, 원주민, 장애인이 각각 총회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사전대회를 갖는다. 각 부문의 관심사를 총회에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WCC 헌장을 개정하거나 향후 8년간의 세계교회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무처리도 갖게 된다.

WCC 부산총회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WCC 부산총회는 세계교회가 시대의 도전 앞에 공동의 선교 과제를 확인하고 함께 헌신하는 신앙의 축제이다.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정교회 등 한국의 5개 WCC 회원교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함께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구세군이나 한국정교회, 대한성서공회도 총대를 파견한다.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약 1,50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총회를 돕게 된다. 부산장신대는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도록 도울 예정이고, 호남신학대학은 약 200여명의 신학자와 신학생을 초청하는 주말 프로그램을 가질 예정이다.

WCC 본부는 누구나 총회를 방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약간의 참가비를 부담하면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가 등록을 할 수 있다. WCC 총회를 방문하는 해외 교회의 대표를 교회로 초청할 수도 있다. 각 교회마다 WCC 총회 방문단을 구성해보면 어떨까? 적은 수라도 대표를 선정해서 참가하도록 교회가 돕고, 참가한 분들이 교회 앞에 보고하면 유익할 것이다. 마침 우리말이 총회의 공용언어 중의 하나로 채택되어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니 좋은 기회일 것이다. 해외 교회 대표를 주일학교에 초대해서 신앙 체험을 나누면 그것도 유익할 것이다. 물론 기도로 돕는 것은 기본일 것이다.

총회는 WCC 부산총회를 어떻게 준비해 왔나?

본 교단 총회는 2009년 8월에 WCC 제10차 총회 개최지가 부산으로 결정된 뒤, 그 해 11월에 제94회기 WCC제10차총회준비위원회(위원장 이용남 목사)를 조직하고 준비를 시작했다. 2010년 5월과 6월에는 전국 5개 지역에서 “WCC 제10차 총회를 준비하는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일제히 WCC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WCC 제10차 총회를 소개하는 2권의 책자를 발행하기도 했다. 또 매 회기마다 WCC제10차총회준비위원회(제95회기 위원장 이승영 목사, 제96회기 위원장 고시영 목사, 제97회기 위원장 김동엽 목사)를 조직하고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해 왔다. 그 동안 총회를 중심으로 에큐메니칼 정책 세미나 개최, 부산 경남지역 7개 노회장 연석회의 개최, WCC 총무 일행 영접, 부산장신대학교와 영남신학대학교의 WCC 모의총회 개최, 총회장 손달익 목사의 WCC 총무 트베이트 목사 방문 회담 등의 사업이 이루어졌다. 적지 않은 수의 본 교단 인사들이 WCC제10차총회한국준비위원회(KHC)에 참여하여 준비과정을 돕기도 했다. 총회는 “WCC 제10차 총회의 해”인 2013년을 맞이하여 마무리 준비를 도우며, 국내 회원교단들과 협력하여 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의 참여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WCC 총회를 위해 기도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노회는 WCC 부산총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12년 12월에 열린 제97회기 4차 총회 임원회는 본 교단 산하 65개 노회가 2013년 봄 노회 시에 WCC 총회를 위한 특별 순서를 배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1) 전국의 각 노회가 일제히 WCC 부산총회와 관련된 특강을 듣고, (2) WCC 제10차 총회 홍보동영상을 시청하며, (3) WCC 부산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총회WCC제10차총회준비위원회는 ‘WCC 총회와 에큐메니즘’을 강의할 특강 강사 명단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각 노회로 배포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또, 총회WCC제10차총회준비위원회는 2013년 봄 노회를 마친 뒤에 각 지역의 노회협의회가 WCC 부산총회와 관련된 특별집회를 개최하도록 제97회기 6차 총회 임원회에 청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총회가 요청하는 일 외에 노회가 WCC 총회 준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준비할 수도 있다. 이를 테면, 광주지역의 세 노회는 지역의 기장 노회와 감리교 지방회와 협력하여 광주지역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WCC 총회 기간 중에 호남신학대학교를 방문할 해외 신학자와 신학생을 영접하기로 하는 한편 지역 신학생들의 WCC 총회 참여를 격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각 교회는 WCC 부산총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2013년 1월에 개최된 제97회기 5차 총회 임원회는 오는 5월 19일 성령강림주일을 “WCC 주일”로 정하고 전국교회가 일제히 부산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기로 결의하였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월 24일(주일)을 WCC 주일로 지키고,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우리와 같이 5월 19일(성령강림주일)을 WCC 주일로 지키기로 하였다. 이 일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예배용 동영상 제작, 모범 설교집 제작, 성경공부 자료 제작, 포스터 제작, 현수막용 컴퓨터 파일 총회 홈페이지 게시 등의 실무를 국내 WCC 회원교단들이 연합하여 나누어서 준비하고 있다. WCC 부산총회가 한국교회의 연합정신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준비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항목 가운데 교회 형편에 따라 적당한 것을 선택하여 동참하여 기도로 섬기기를 바란다.

- (1) 2013년 5월 19일(성령강림주일)을 WCC 주일로 지키고 WCC 부산총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 (2) 성령강림주일을 전후하여 금요심야기도회나 수요기도회를 이용하여 WCC 부산총회를 위한 특별집회를 갖고, 강사를 초청하여 교인들에게 WCC를 이해하는 기회를 갖는 일. 형식은 특강, 세미나, 기도회 등 다양하게 취할 수 있음.
- (3) 교회 지도자들이 - 목회자, 당회원, 남선교회 여전도회 청년회 임원 등 - WCC 총회에 등록하여 참관하거나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돕는 일.
- (4) WCC 총회에 참가한 해외 참가자를 주말(11월 2일과 3일)을 이용하여 교회로 초청하고 교인들과 교류하거나 주일예배에서 설교하게 하는 일. 청년이나 여성 대표를 초청하여 청년회와 여전도회가 교류하게 할 수 있고, 주일학교를 방문하여 나누게 할 수도 있다.
- (5) 지역의 청년회나 여전도회가 연합하여 특별집회를 갖는 일. 이 때 부활절연합예배와 같이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집회를 가질 수 있음.
- (6) 7월 27일 무렵에 부산에서 개최될 한국 참가자 사전대회에 참가하는 일.
- (7) 교회 예배나 집회 때에 WCC 총회나 세계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우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도록 돕는 일.

세계교회는 이미 2013년 부산을 주목하고 있다. 세계 어디를 가든 교회 지도자들은 WCC 부산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 기독교의 변화양상을 보면, 이번 WCC 부산총회는 21세기 기독교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대회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 총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준비한 선교에 관한 문서나 신앙직제에 관한 문서도 20~30년

간의 논의를 모은 중요한 문서들이다. 우리는 향간의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하고 WCC 부산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기도하며 협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를 선용하여 연합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남은 기간 동안 힘써야 할 것이다. 더구나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한반도의 주변정세를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하나님께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연합정신이 한껏 고양되는 은혜의 반전이 이루어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해야 할 때이다.

한국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

- WCC 제10차 부산총회에 즈음하여

장운재 목사(이화여대 교수, 기독교학부)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논한다는 것은 ‘아직도’ 쉽지 않은 과제다. 이 세계 그 어느 곳보다 배타적이고 원리주의적인 신앙이 강한 곳이 한국이기 때문이다. 한국적 풍토에서 대화와 관용의 문화가 자리 잡기는 참 힘들어 보인다. 잘 참고 대화하다가도 ‘너 몇 살이냐?’(How old are you?)면 그것으로 모든 대화가 끝나는 게 한국적 풍토다.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인내하면서 차이를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에는 우리의 역사가 너무도 고단하고 힘들었나 보다. 상호 소통 능력이 빈약한 ‘가부장 문화’와 ‘군사주의 문화’에 배타적인 ‘근본주의 신학’이 결합하면서 한국은 에큐메니칼 운동이 꽃피우기 어려운 척박한 토양이 되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그 어느 곳에서보다 에큐메니칼 정신과 문화와 운동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한국이며, 에큐메니칼 운동이야말로 한국교회의 제2의 도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최대의 과제이며, 제10차 WCC 부산총회는 바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필자는 이 글에서 주장해 보려 한다.

Ecumenical vs Evangelical

‘에큐메니칼(ecumenical)’이라는 말은 신약성서에 15번 사용된 그리스어 ‘오이쿠메네(oikoumene)’에서 유래한 말로 ‘사람이 살고 있는 온 누리’를 뜻한다. 내 지역, 내 교파, 내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온 누리, 즉 지구 전체를 사과의 지평으로 삼으니 그것은 태생적으로 포용적이고 탈(脫)경계적이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이러

한 에큐메니칼 정신과 문화와 운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우리는 먼저 ‘에큐메니칼’ 대 ‘에반젤리칼’이라는 잘못된 도식부터 극복해야 한다. 이 잘못된 이분법은 한반도의 냉전과 분단 상황이 낳은 불행한 산물이다.¹⁾ ‘에큐메니칼’의 반대말은 ‘에반젤리칼’이 아니다. ‘에큐메니칼’의 반대말은 ‘섹테리안’(sectarian), 즉 ‘분파주의’ 혹은 ‘당파주의’다.²⁾ 분파주의/당파주의란 자신의 특정한 신앙체험과 진리에 대한 이해가 마치 보편적이고 유일하며 최고의 것인 양 주장하는 태도를 말한다. 근본주의적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분파주의/당파주의이며, 따라서 에큐메니칼한 시각이 결여된 교회는 복음을 협소하게 해석하여 편협한 공동체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긍정하는 태도와 정확히 대비되는 자세다.³⁾ 분파주의는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추구하지도 않는다. 대신 복음을 ‘사유화’(privatization) 한다. 이에 반해 에큐메니칼이란 교파적 신앙고백(confession)의 부분성을 인정하고 세계적 지평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연합을 이루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고전 12:25) 하려는 정신이고 문화이자 운동이다. 그것은 자기 초월, 자기 비움의 신앙적 결단이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에큐메니칼’은 철저한 ‘에반젤리칼’이다. 에반젤리칼(evangelical)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evangelion)을 최우선시 하고 그것에 모든 것을 헌신한다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그의 선포(Mission Statement)에 잘 나타나 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들, 즉 가난한 자에

1) 서방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가입한 세계 최대의 에큐메니칼 기관인 WCC를 용공단체로 매도하고 1959년 예장 합동이 갈라져 나간 것도 분단상황이 낳은 뼈아픈 역사입니다.

2) Wesley Ariarajah, "Some Basic Theological Assumptions of the Ecumenical Movement," in *Our Pilgrimage in Hope: Proceedings of the First Three Seminars of the Asian Movement for Christian Unity* (CCA and FABC, 2001)에서 인용.

3) 사도 바울은 참 에큐메니칼적입니다. 그가 얼마나 ‘한 성령’ ‘같은 성령’을 강조하는지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전 12:4-11)

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복음적 이상들’(evangelical ideals)은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이 추구해온 최우선의 가치다. 한국과 세계교회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 누구보다도 에큐메니칼 운동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음적 이상들의 구현을 위해 앞장 서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태 7:20)고 하셨다. 에큐메니칼은 ‘탈복음주의’도 ‘후기 복음주의’도 혹은 ‘세속주의’도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장 충실하려고 하는 지극히 복음주의적인 운동이다. 에큐메니칼을 에반젤리칼에 반대되는 말로 오해되는 이분법적 도식부터 극복해야 한다. 에큐메니즘은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과정 그 자체인 것이다.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교회됨’

“교리는 분열시키고 봉사는 일치 시킨다”(Doctrine divides, but service unites) 라는 말이 있다. 이 주장의 요지는 교리적 문제를 일단 접어두고 세계 안으로 뛰어들어 함께 선한 일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주어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교리적 문제만큼이나 사회참여와 봉사에서도 분열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정치경제 체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경제적 발전이 그들을 위해 필요한 발전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이하다. 때문에 우리는 교단 간(inter-denominational) 그리고 기독교 내(intra-Christian)의 대화와 일치의 노력, 즉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대화는 공동의 증언과 봉사를 위한 신학적 토대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깊이 분열된 세계 속에서 교회가 ‘구원의 신성한 상징’(sacrament of salvation)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신학적 · 교리적 · 예전적으로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멀리 가기 위한 토대이다.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but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하지만 교회의 ‘하나됨’이 교회의 ‘교회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된다. 필자는 일치를 위한 일치가 에큐메니칼 운동의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엇을 위한 일치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근래 교회연합운동의 위기를 말하고 또 개혁과 통합을 말하지만 교회의 일치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어야 한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묻지 않으면 분열은 물론 일치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는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⁴⁾ 조직이나 기구적 제도를 인위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총체적 위기’ 앞에서 교회의 선교적 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일치는 인위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됨을 추구할 때,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다면 에큐메니칼 운동은 다른 말로 ‘이 세계의 위기에 대한 교회의 공동대응’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겠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요 3:16) 세계다. 영어로 ‘the world’가 아니라 온 우주만물을 뜻하는 ‘cosmos’이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듯(롬 5:20), 교회사를 되돌아보면 불의가 가득한 곳에 교회일치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곤 했다. 군사독재시절 한국의 70-80년대의 교회가 그랬고, 인종차별정책(apartheid)으로 고통 받던 남아프리카의 교회들이 그랬으며, 독일교회가 바르멘 선언으로 히틀러의 폭정에 대항할 때도 그랬다. 사실 교회일치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교회 내적인 요구에서라기보다 위기에 접한 세상으로부터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게 더 정직한 성찰이다.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는 이렇게 말한다. “The saints do not see things that others do not see; rather, they see what everyone else sees but in a different way.” (성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보되 그것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남다른 눈으로, 즉 ‘신앙의 눈’으로 이 시대의 징조를 읽고 이 세계의 위기에 책임 있게 응답하려는 공동의 신앙운동이다. 실로 희망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견됐던 21세기는 전쟁과 폭력, 경제적 불의와 양극화,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종교간 갈등과 충돌, 세대 간 · 문화 간 단절, 그리고 영적 · 정신적 혼돈 등, 일찍이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 시대는 인간의 탐욕이 문명의 멸망을 재촉하고 우주적 종말까지 예견케 하는 시대이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하여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롬 8:22)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는 힘을 모아 세상 앞에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등불 들고 서있어야 한다.

4) 김동선, “일치의 딜레마에 대한 신학적 고찰과 교회의 본질,”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운동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와 공청회, 2004. 11. 1. 김동선은 “갱신 없는 연합은 분열의 죄를 계속하는 것일 뿐”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1843년 두 개의 교회로 나누어졌다가 1929년 하나가 된 스코틀랜드장로 교회의 모습이 히틀러 치하의 독일교회의 모델이 되었다는 사실은 교회의 통합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니라는 예를 듭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진지하게 묻지 않고 교회 내적인 이해관계로 진행된 일치의 한계를 경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세 종류의 에큐메니즘

에큐메니즘에는 세 종류의 에큐메니즘이 있다. ① ‘기독교 내’(intra-Christian), ② ‘기독교를 넘어선’(beyond Christian), 그리고 ③ ‘심층’(deep) 혹은 ‘우주적’(cosmic) 에큐메니즘이다. 이러한 구분은 학문을 위한 인위적 구분이 아니라 실제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적 발전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구분이다.

1948년 암스테르담 이전의 기독교는 개인 영혼의 구원을 축으로 한 기독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48년에 세계교회협의회가 창립되면서 ‘책임사회’(Responsible Society) 라는 이념이 제기되었고, 제3차 뉴델리 총회(1968)와 제4차 나이로비 총회(1975)를 거치면서 세계교회들은 제3세계의 빈곤과 억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 변혁의 가치들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밴쿠버(5차)와 캔버라(6차)와 하라레(7차) 총회를 거치면서는 이제 생명의 시각에서 신학과 선교를 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에큐메니칼의 패러다임은 ① 개인 인격의 변화와 영혼 구원에 중심을 둔 선교에서, ② 교회의 성장과 확대를 중심한 선교로, 그리고 거기에서 ③ 교회를 넘어선 세속적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로, 그리고 ④ 인간중심적 하나님 선교를 넘어선 생명 중심의 선교로 패러다임이 확대·심화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⁵⁾

첫째로 기독교내(intra-Christian) 에큐메니즘은 우리에게 익숙한 에큐메니즘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드리신 그의 간절한 고별기도에,⁶⁾ 그리고 사도

5) 박충구는 “에큐메니칼 가치와 한국 교회”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도표화 합니다.

구분	구원개념	세계관	교회의 의미	선교의 성격	신학적 패턴
1단계	영적 구원	영육 이분법에 기초한 자유주의	교회는 구원받는 자들의 공동체	신앙 의인의 교리적, 교회중심적 선교	영적 구원을 위한 보수 근본주의적 신학
2단계	사회적 구원	책임사회	사회질서의 기독교화	이성적 설득이 가능한 사회복음적 선교	사회책임과 기독교화를 지향한 자유주의 신학
3단계	해방적 구원	3세계의 인간 억압의 정황까지 인식	인간해방의 영성을 지닌 교회	인간의 해방과 평등을 확대하는 선교	인간의 사회·정치·경제적 해방을 지향한 정치신학
4단계	온 생명체의 구원	우주적 생명 파괴의 정황 인식	생명권 보호의 전사, 변호사들의 공동체	죽음의 문화에 대한 생명권 옹호적 선교	문명비판적, 우주적 창조 중심의 생명신학

6)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21-22)

바울의 권면에서,⁷⁾ 이 에큐메니즘의 성서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기독교내 에큐메니즘의 핵심적인 신학적 전제는, 웨슬리 아리아라자(Wesley Ariaraja)가 잘 지적하듯이, 교회의 일치가 ‘선물’임과 동시에 ‘목표’라는 것이다.⁸⁾ 완고한 교파주의와 개교회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풍토에서 이 ‘기독교내’ 에큐메니즘은 언제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 기독교내 에큐메니즘의 성패는 개교회와 지역교회의 참여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제 개교회와 지역교회의 참여가 없는 에큐메니칼 선언들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과거 권위주의적인 군사정부 하에서 사회 모든 부문이 숨죽일 수밖에 없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화했다. 에큐메니칼 운동 선구자들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이 이러한 변화를 이루게 하였다.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 밖’ 일부 전문가들의 운동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 개교회와 지역교회의 목회자가 일반 교인들이 참여하는 저변운동(grassroots movement)이 되어야 하겠고, 그것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실천되어야 하겠다. 교회 내 ‘에큐메니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에큐메니칼 목회론’이 개발되고 실험되어야 한다는 제안은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⁹⁾ 또한 목회자의 영향력이 서구교회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인식을 전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에큐메니칼 운동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매우 중요해 보인다.¹⁰⁾

7)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엡 4:1-6)

8) Wesley Ariarajah, "Some Basic Theological Assumptions of the Ecumenical Movement."

9) 권오성, “교회에서의 에큐메니칼 운동.” 에큐메니칼 목회론의 내용은 에큐메니칼 신학을 가진 교회란 어떤 교회이고, 성경 해석과 설교의 내용은 어떤 방향이어야 하며, 사회봉사와 증언은 개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것이라고 권오성은 제안합니다. 또한 에큐메니칼 입장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설교문, 교회 교육 자료, 교회 활동의 예를 계속 제공할 때 기존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새로운 시작을 가지고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작업은 에큐메니칼 운동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들과 또 에큐메니칼 목회연구원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제안합니다.

10) 한국일, “에큐메니칼 공동고백과 실천,” NCKK 교육훈련위원회 에큐메니칼 강좌 (2005. 6. 14) 한국일은 이런 현상은 이미 농어촌 교회에서 이미 찾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농어촌 교회에서는 에큐메니칼 신학이나 정신을 배우지 않아도 농어촌 사회의 구조상 에큐메니칼 정신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도시상황에서 철저한 개교회주의에 근거하여 경쟁적이며 물량주의적 방식을 사용하는 도시교회와는 달리, 농어촌 교회들은 지역사회와의 연대적 관계에서 지역교회들과 연합운동을 통해서 마을을 섬기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으며 발전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바람직한

둘째로 우리는 기독교를 넘어선(beyond Christian) 에큐메니즘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에큐메니즘은 대부분 기독교인들만의, 그리고 종종 개신교회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에큐메니칼 운동은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교단통합’보다 더 큰 운동이다. 원래 에큐메니칼 운동의 동력과 생명력은 교단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었다. 이 힘은 교권 밖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와 세계의 교차점에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 누리’를 뜻하는 ‘오이쿠메네’(oikoumene) 자체가 벌써 에큐메니칼 운동이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에큐메니즘은 교회 교파간의 대화와 일치를 넘어서 타종파와의 대화와 협력을 지향한다. 특히 ‘아시아의 에큐메니즘’은 교회 내적 대화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깊은 종교 문화적 전통과 대화하기를 요청받고 있다. 이 대화에서 우리는 ‘아시아의 기독교화’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기독교의 아시아화’를 배워야 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우주적(cosmic) 혹은 심층(deep) 에큐메니즘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 누리를 뜻하는 ‘오이쿠메네’(oikoumene)는 또한 ‘집’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집에는 우리 인간만 사는 게 아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이 함께 살고 있다. 그 집은 ‘창조세계’라는 큰 집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가 신음하고 있다. 지금도 날마다 이 지구상에서는 100종의 생명체가 멸종하고 있으며, 2만 헥타르의 땅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고, 8천6백만 톤의 기름진 땅들이 침식되고 있으며, 1억 톤의 이산화질소가 내뿜어지고 있다. 인류가 멸종과 자기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생태학자들의 경고는 일부러 겁주기는 아닌 것 같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6:2에서, “너희는, 저녁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궂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질타하셨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늘의 징조’ 곧 날씨가 ‘시대의 징조’가 되어버렸다. 지금 한반도가 아열대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하나님 지으신 창조세계를 등한시 하고 초자연적인 것에만 관심하는 경향이 한국교회 특히 개신교 안에 너무 강하다.¹¹⁾ 이제 우리는 ‘듣는 말씀’(성서)과 ‘보는 말씀’(자연) 사이에 끊어졌던 연결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뿐인 우리의 지구는 잠시 묵었다가는 ‘호텔’(hotel)이 아니

에큐메니칼 정신을 묵회적 차원에 연결하기 위해 농어촌 교회의 폭넓은 선교활동과 경험으로부터 배우며 신학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일은 제안합니다.

- 11) 레이건 행정부 1기 내각의 내무장관이었던 제임스 와트(James Watt)는 왜 레이건 행정부가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그런 것은 왜 필요합니까?’라고 어처구니없는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거하는 ‘집’(home)이다. 우리가 지구를 우리의 ‘집’으로 인식하지 않고 잠시 지나가는 외부인쯤으로 여기는 동안 우리의 ‘집’은 하늘에도 땅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권력과 부에 관심이 있는 자들의 손에 넘어간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은 1961년 뉴델리 총회 이후 교회중심적·인간중심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반에 깊이 관심하는 운동으로 발전해 갔다. 성서의 신앙은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God-centrism)이다.¹²⁾ 에큐메니칼은 그 폭에 있어서 전 지구적 관점과 그 깊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에 관심하는 넓고 깊은 개념이다. 때문에 에큐메니즘은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 화해와 정의와 치유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참여와 기여

그런데 제 아무리 에큐메니칼 이상이 좋고 훌륭하더라도 ‘참여’(participation)가 없는 진정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할 수 없다. 한국교회에서는 여성과 청년과 평신도의 참여와 발언과 역할이 매우 저조하다. 과거 에큐메니칼 운동이 교리나 직제의 일치에 관한 것으로 국한될 때 종종 그것은 전통적으로 신학자이며 사제이며 결정권자들이 었던 남성들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여성과 청년과 평신도들, 나아가 장애인들과 원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그들의 선교적 사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론과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실 오늘날과 같은 전문화 사회에서 교회의 대사회적 영향력은 목회자들보다 평신도의 참여를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현재의 목회자 중심구조는 교회 내 엄청난 잠재력을 구조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다양한 Talents가 꽃피게 해야 한다.

한국 에큐메니칼 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에큐메니칼 2세 지도력의 재생

12) 뉴욕의 시립도서관(Public Library)에서 보았던 한 어린이 그림동화책은 창세기 1:26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무리하게 이 구절이 성서에 최초로 나타난 삼위일체에 관한 구절이라고 하지만, 그 그림동화책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해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림책은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보여준 다음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모아 놓고 ‘원탁회의’를 여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 앞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만물의 모습을 닮을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신학자도 아닌 동화작가가 이런 참신한 해석을 할 수 있었는지 놀랄 따름이었습니다.

산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필자는 27살의 젊은 나이에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의 공동의장으로 피선되어 5년을 아시아 에큐메니칼 운동을 위해 헌신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아무 것도 몰랐지만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지도해준 에큐메니칼 선배들의 노력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에 빚진 자’가 되었다. 국제 에큐메니칼 기관에 청년이 배정 되면 왠지 ‘손해’보는 기분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것이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의 자산이 되리라 믿는다. 미래에 투자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한국 교회 안에 비전과 열정과 능력이 있는 젊은이들이 많다. 그들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신학적 소양’과 ‘자기 분야의 전문성’과 ‘해외 교회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키워주는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

WCC 총회를 앞두고

이제 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왜 WCC가 시리아가 아니라 한국(부산)을 차기 총회 개최지로 선정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번 10차 총회의 실무총책을 맡고 있는 WCC의 한 책임자는 이번 총회 개최지를 결정할 때 무엇이 한국교회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인상이었는지 소개한 적이 있다. 그에 의하면 그것은 한마디로 한국교회의 초대장 안에서 느낄 수 있었던 ‘강한 협력의 느낌’(strong sense of togetherness)이라고 한다. 한국교회가 제9차 총회 유치를 위해 보냈던 초청장과 제10차 총회 유치를 위해 보낸 초청장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난다고 한다. 10차 총회 초청장에는 WCC 회원교회를 넘어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서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중국교회와 일본교회의 지지도 크게 작용했다. 한마디로 WCC는 한국의 다음과 같은 매우 독특한 상황과 잠재성에 끌린 것이다. 아시아 국가 이면서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고, 가장 높은 개신교 비율을 자랑하면서, 종교간 평화를 이루고 있고 (유혈충돌이 없고), 가톨릭과 복음주의자들과 오순절교회와 에큐메니칼과 정교회가 협력하는, 그래서 ‘21세기 에큐메니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잠재력으로 가진 나라라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후인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30억 명의 기독교인 가운데 50% 이상은 아프리카에, 그 다음 남미와 카리브 해에, 그 다음은 아시아에, 그리고 유럽에, 마지막으로 북미에 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세계교회 지형의 거대한 변화다. 『세계기독교백과사전』(데이비드 바레트)에서 가져온 아래의 통계는 출현하고 있는 기독교의 새로운 경향을 잘 보여준다.¹³⁾

13) 사무엘 코비아 전 WCC 총무의 한 발제문 중에서.

1990년 - 20억 기독교인들

번호	대륙	기독교인 수
1	유럽	5억 6000만 명
2	라틴아메리카/캐리비안	4억 8000만 명
3	아프리카	3억 6000만 명
4	아시아	3억 1300만 명
5	북 아메리카	2억 6000만 명

2025년 - 26억 기독교인들

번호	대륙	기독교인 수
1	라틴아메리카/캐리비안	6억 4000만 명
2	아프리카	6억 3300만 명
3	유럽	5억 5500만 명
4	아시아	4억 6000만 명

2050년 30억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다수는 아프리카에 있게 될 것이고 그 뒤를 이어 남미/캐리비언, 아시아, 유럽, 북미의 순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지형변화 속에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에큐메니즘에 참여해 온 기성 교회들은 오순절 운동과 복음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교회들과 만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 간 협력과 일치에 있어서 새로운 개념과 틀 그리고 접근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WCC 안에서는 지금까지 WCC 안에서 누려온 교회 간의 친교를 로마가톨릭과 오순절교회 그리고 복음주의교회로 넓히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013년 부산총회에서는 이와 같은 에큐메니칼 운동 ‘새 판 짜기’가 계속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21세기 에큐메니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의 에큐메니칼과 에반젤리칼, 오순절과 정교회,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톨릭이 어떻게 함께 WCC 총회를 계기로 서로 협력하고 이웃종교와 대화하며 위기의 세상 앞에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기독교적 봉사의 삶을 살 것인가가 바로 21세기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의 미래인 것이다. 세계교회 지형변화의 축소판으로서의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앞에 새로운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신과 방법 그리고 모형을 보여줄 수 있다. 쫓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동심원을 넓히는 것이다. 단지 하나의 행사(event)로서의 WCC 총회가 아니라 지속적인 교회의 삶(life)의 한 표현으로서 WCC 총회가 되도록 한국교회는 지금부터 대화와 협력과 자기 비움과 일치의 에큐메니칼 삶을 살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WCC 총회 유치를 반대하는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사

실 한국교회는 1959년에 WCC 가입문제를 놓고 교회가 분열되는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부정적으로 WCC를 보는 입장은 얼마 전 한 일간지에 실린 한 교단 총회장의 담화문에 잘 나타나 있다. 거기에서 그는 “WCC와 함께 할 수 없고 일치될 수 없는” 이유를 19가지나 나열했는데, 비슷한 것끼리 묶으면 ① WCC 회원에 공산권 교회들이 대거 가입되어 있다는 점, ② WCC가 제3세계의 혁명이나 폭력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 ③ 가톨릭을 포함한 타종교에 관용적이고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한다는 점, ④ 성경무오설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등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⑤ 복음의 토착화에 관용적이고 동성애자 교회 등을 인정한다는 점들이었다.

그런데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이 지구상에는 더 이상 ‘공산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WCC의 회원 교회 가운데 동방 정교회가 가장 큰 회원 교회이긴 하지만 이 교회는 더 이상 공산권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다. 현재 WCC의 회원 가운데는 장로교(28%), 루터교(16%), 감리교(11%)를 포함해 개신교회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내 이 땅에 장로교회가 있게 한 미장로교회(PC-USA)도 현재 WCC의 정식 회원 교회다. 우리는 설사 UN에 공산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소극적 태도이기 때문이다. 현재 WCC에는 공산권 교회들이 ‘대거’ 가입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가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교회가 아직도 과거 동서냉전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미래와 선교를 위해서도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WCC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지만 그 핵심은 ‘대화(dialogue)’다. WCC는 서로 다른 배경과 역사와 교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나 그동안의 다툼과 분열과 상쟁의 역사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려는 ‘대화의 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누가 19:42)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오늘 세상보다 더욱 깊이 분열된 교회를 보시고 또한 ‘평화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겠는가.

그런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만의 주가 아니라 세상의 주가 되신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에베소 4:6) 계신다. 따라서 WCC의 대화는 교회 안에 국한되지 않고 타종교로, 인류 공동체 전체로, 그리고 모든 창조의 세계로 확장되어 나갔던 것이다. WCC는 분명 빈곤과 인권과 정의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참여’의 신학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정치적 해방으로 축소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리스도의 구원은 결코 개인의 사후 영혼 구원으로만 축소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요한 3:16)고 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이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이 ‘세상(cosmos)’, 즉 온 우주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적 사랑이고 그의 사랑은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만의 머리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기에, 그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불의와 폭력과 생명파괴로 얼룩질 수 있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이다. WCC가 해 온 교회의 ‘공적 증언’(public witness)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같은 교회가 이것을 세상 권세자의 눈으로 불온시하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수세기 동안 각 종교 전통들은 서로 고립되어 있었다. 여러 종교가 한 지역에 공존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서로 정신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화의 시대는 각 종교 공동체들이 상호 고립을 깨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을 촉구해 왔고, 그 결과 지난 3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종교 간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물론 종교 혼합주의에 대한 우려와 종교간 대화가 선교의 절박함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WCC가 종교간 대화를 꾸준히 이끌어온 이유는 오늘날 이 세상에 기독교적 대답만 요구하는 기독교적 문제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제적 불평등, 전쟁과 테러리즘, 인종차별과 성차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한 대규모 파괴 등, 오늘날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 모든 종교 공동체가, 나아가 전 인류 공동체가 ‘초당적’으로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태도다. 오늘날 많은 타종교인들과 일반인들이 한국 교회의 선교를 ‘공격적’이라고 말한다. 물론 선교는 세상의 권세에 대한 위협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마저 교회의 선교를 ‘위협’으로 느낀다면 우리는 그것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위협이 아니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래야 더 선교가 잘 될 것이다.

나아가며

이제 한국교회는 경쟁적이고 개교회적인 양적 팽창의 시대를 끝내고 질적인 성숙과 내실화를 도모할 때를 맞이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절대 절명의 위기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팽창과 성장과 경쟁의 모델이 한국교회가 나아갈

모델이 아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했지만 가장 빨리 노화 혹은 퇴화할 것으로 진단받고 있는 한국교회는 이제 질적인 성숙과 내실화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새 길을 모색해야 한다. 바로 이 질적인 성숙과 내실화의 관건이 에큐메니칼 정신이고 운동이다. 그것은 21세기 한국교회를 살리고 재도약하게 만드는 발판이 될 것이다. 2013년 WCC 총회의 한국 유치는 바로 그런 패러다임 전환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라고 믿는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주셨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이런 복된 초대 앞에 과거의 오해와 편견과 상처와 아집을 다 털어버리고 인간의 지혜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아직 한국교회가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야 한다. 그 길은 에큐메니칼로 뻗은 길이다. 그 길은 광야와 같이 거친 길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사야 41:18)이다.

WCC 중심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와 신학

이형기 목사(장신대명예교수·공적신학연구소소장)

들어가는 말

2013년 부산에서 열릴 WCC 총회를 앞두고 WCC와 WCC를 통한 에큐니칼 운동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WCC와 WCC를 통한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하여 큰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은 1951년 토론토 성명에 나타난 “무엇이 WCC이고, 무엇이 WCC가 아닌가?”를 소개한 다음에, ‘에큐메니칼’이란 말의 뜻을 밝히며, 에큐메니칼 운동의 성경적 이해에 기초하여 그것의 역사적 기원과 형성과 발전에 대하여 논하고, 끝으로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 ‘삶과 봉사’(Life and Work), 그리고 ‘세계선교와 복음전도’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I. 무엇이 WCC가 아니고, 무엇이 WCC인가?

많은 사람들은 WCC가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고, 좌경화된 사회참여 일변도로 나가며,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 ‘초대형교회’(a Super-Church)를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일찍이 1951년에 토론토에서 모인 WCC 중앙위원회는 WCC에 대한 이와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것에 대한 참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회, 교회들,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The Church, the churches and WCC: the ecclesiological significance of WCC)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교회”(the Church)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과 같은 신약성경에 증언된 하나의 교회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고백하는 “하나의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말한다. 그리고 “교회들”은 로마가톨릭교회, 동방정교회,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등 역사 속의 경험적 교회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WCC란 “교회들”의 협의체요 연합체로서 저 신약성경이 증언하고 고대 신조가 고백했

던 하나의 교회(Una Sancta)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WCC는 애초부터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추구하였다. 그리하여 본성명서는 “무엇이 WCC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WCC란 하나의 획일주의적인 초대형교회가 아니고 결코 그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첫 번째 항목에 놓았다.

이어서 본성명서는 “무엇이 WCC가 아닌가?”에 대하여 4가지 항목을 더 언급하였다. 그것을 요약하면, 첫째로 WCC는 교회들에게 연합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기구가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며, 교회들 상호 간에 생동적인 접촉을 도와주고 교회일치의 이슈들(the issues of Church unity)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도록 돕는다. 둘째로 WCC는 “교회”(the Church)에 대한 어느 하나의 특수한 개념”에 기초하지 않는다. 셋째로 그렇다고 WCC는 한 교파의 “교회”(the Church)에 대한 그 자신의 개념을 단순히 상대적인 것으로 취급하지도 않는다. 넷째로 WCC의 회원권은 “교회 일치(Church unity)의 본성에 대한 어떤 교파의 어떤 특정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성명서는 “무엇이 WCC인가?”에 대하여 8가지를 언급하였다. 그것을 요약하면, 첫째로 WCC의 회원교회들은 “그리스도께서 몸 된 교회의 신적인 머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공통의 인식에 기초하여 대화와 협력과 공동증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로 WCC의 회원교회들은 신약성경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이다.”(the Church of Christ is one)라고 믿는다. 셋째로 WCC의 회원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원권이란 자기 교파의 회원권 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고백하는 모든 교파들 하고 살아있는 교제를 추구한다. 넷째로 WCC의 회원 교회들은 상호 간에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추구하며 그것에 관계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WCC에 회원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각 교파가 타 교파들을 ”완전하고 참된 의미에서 교회들(churches)로 간주하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다섯째로 WCC의 회원 교회들은 “다른 교회들 안에 있는 참 교회의 부분적인 요소들”을 인정한다. 이와 같은 상호 인정이 없으면, 회원들 상호 간에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없을 것이고, 충만한 진리에 근거한 충만한 일치를 향하여 전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여섯째로 WCC의 회원 교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배움을 함께 추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WCC의 회원 교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증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가를 기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일곱 번째로 WCC의 회원들은 “회원들 상호 간에 연대(solidarity)하여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형제애와 어긋나는 행동들을 삼간다.” 여덟 번째로 WCC의 회원 교회들은 “영적인 관계들을 바탕으로 상호 간에 배우고 상호 간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교회들의

삶(the life of the churches)이 갱신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참고: 『세계교회 협의회와 기원과 형성』, 비서트 후프트 지음/이형기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WCC를 통한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교회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교회론이요, 이 교회론으로 말미암아 WCC에 가담할 수 없는 교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위의 “토론토 성명”은 이에 관하여 명쾌하게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WCC가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고 세상 과격한 사회참여를 실천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WCC는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 운동이 추구하는 ‘복음’, ‘삼위일체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등을 근거로 ‘삶과 봉사’(Life and Work)운동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전도(세계선교와 복음전도 위원회)를 함께 추구하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참고: 이형기,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운동의 세 흐름에 나타난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아래에서 이 글은 ‘신앙과 직제’ 운동과 ‘삶과 봉사’ 운동에 나타난 신학을 소개할 것이다.

II. 에큐메니칼이란 말의 뜻

에큐메니즘, 에큐메니시티(ecumenicity) 및 에큐메니칼이란 단어는 희랍어 오이쿠메네(oikoumene)에서 유래하였는데, 이것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 세상”(the whole inhabited world)이다. 희랍-로마 세계(the Greco-Roman World)에서 이 “오이쿠메네”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온 세상, 문명세계 혹은 희랍-로마 문화영역, 나아가서는 로마 제국을 의미했다. 2-3세기에 이르면 이 용어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 세상” 속에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세계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고, 4세기에서 5세기 동안에는 지중해 세계의 보편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381년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처음으로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제1차 ‘에큐메니칼 공의회’라 불렀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이후로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은 획기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즉, 그것은 교회들의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를 추구하는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 운동, 교회의 사회참여에 해당하는 “삶과 봉사”(Life and Work) 운동, 복음전파와 하나님의 선교를 추구하는 “복음전도와 세계선교” 운동과, 이 세 운동의 신학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세 운동이 WCC의 세 기둥인 바, 이 WCC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도구로서 세계교회들의 공식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1975년 ‘나이로비 세계교회 협의회’의 JPSS(A Just, Participatory and Sustainable Society = 하나의 정의롭고 참여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 이후

오이쿠메네의 의미는 창조세계 보전 차원에서 온 우주를 아우르고 최근엔 타 종교들과의 대화도 포함하고 있다. 1983년 벤쿠버 WCC 총회 이래 오늘날 세계교회의 중심과제는 “JPIC”(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 정의, 평화, 창조세계 보전)가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시장경제의 글로벌화와 정보통신의 세계화와 이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환경파괴, 그리고 다문화와 다종교가 지구적인 이슈들이 되면서, 에큐메니칼 운동과 공공신학에서는 오이코노미아의 3가지 어원적인 뜻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나는 ‘집안 살림살이’(oikonomia = managing of the household)요, 둘은 ‘생태학’(oikonomia = ecology), 즉 환경의 문제요, 셋은 다문화와 다종교가 함께 어우러져 거주하는 세계의 구현이다.

Ⅲ. 에큐메니칼 운동의 성경적인 의미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인류를 하나님께 화해시키시는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코이노니아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 역시 다양성 속에서 코이노니아를 누리기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구절의 끝 부분에 있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는 그의 몸 된 교회에게 복음전파를 부탁하신 것이다. 즉, 교회일체를 위한 주님의 기도 목적은 교회의 복음전파이다. 그리고 골로새서 1:13-20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구속주 되심 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우주를 하나님께 화해시키셨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대체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영역일 것이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
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위의 성경말씀에서 13절과 14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속량을 말씀하고, 15-17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사와 우주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증언하고 있으며, 끝으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씀한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3가지 뜻을 발견한다. 하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속량이고, 둘은 우리 주님께서 인류보편사와 우주만물의 통치자요, 셋은 바로 이 교회의 머리로서 역사와 우주만물의 주님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 사건에서 역사와 우주만물 까지도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 화해시키셨고, 마지막 때에 온전히 화해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점이다. 그리고 교회는 ‘이미’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화해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에베소서 1:10절 역시 같은 내용을 증언하고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의 역사는 교회들의 분열의 역사요 일치추구의 역사이다. 교파들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교리들과 직제들과 사회참여의 방법들이 다르다. 그러나 성경과 전통은 우리들에게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제시한다. 구약의 구속사를 배경으로 하는 신약의 ‘하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통일성에 해당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이야기들과 메시지들이 있고, 이것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교파들의 다양한 전통들이 있으니, 우리는 성경과 전통들 차원에서 통일성과 다양성을 찾아서, 교파들과 교파들의 신학들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룸으로써, 역사와 창조세계를 하나님께 화해케 하는 과제(골 1:20절과 엡 1:10)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성경에 나타난 에큐메니즘은 아래에서 기술할 ‘신앙과 직제’, ‘삶과 봉사’, 그리고 ‘복음전도와 세계선교’의 성경적 근거이다.

Ⅳ.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인류와 창조세계를 자신에게 화해시키셨으니, 이와 같은 화해의 복음사건 자체가 에큐메니칼 하다. 그리고 요한복음 17:21절에서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과 창조세계를 자신과의 영원한 코이노니아에 초대하심 역시 에큐메니칼 하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지향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성격 역

시 에큐메니칼 하다. 따라서 에큐메니칼 운동은 역사적 필연성에서 생기기 전에 성경 메시지 그 자체 내에 내장되어 있다.

하지만 에큐메니칼 운동은 또한 역사적인 필연성에서 생긴 것도 사실(史實)이다. 고대 지중해 세계교회 시대에는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교구가 에큐메니칼 공의회들을 통하여 이단들에 대처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단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지중해 세계의 보편교회가 분열될 위기들에 직면했을 때, 공의회들의 교리결정들이 그것을 해결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정통 삼위일체론과 정통 기독교론 같은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에큐메니칼 운동의 좀 더 근대적인 기원은 19세기 복음주의 각성운동에 힘입은 세계 복음전도에 있었다. 즉, 복음전도의 현장에서 여러 교파들은 상호 간의 협조를 필요로 하였고, 교파에 대한 정체성보다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라투렛(Scott Latourette) 교회사 교수는 1817-1914년까지의 유럽과 북미의 역사를 “위대한 세기”(The Great Century)라 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19세기에 개신교의 복음 선교가 절정에 도달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은 시기에 선교의 현장에서 교파들의 협력이 요청되었고, 교파를 초월하는 ‘복음’ 전파가 필요했다는 말이다.¹⁴⁾

그리하여 1910년 세계선교 대회(WMC)의 폐막식에서 필리핀의 선교사로서 미국의 성공회 주교인 브렌트가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운동을 제안하여, 이 운동은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신앙과 직제’ 운동이 등장하였고, 1914년 세계 제1차 대전 직전에 스웨덴의 루터교 주교인 죄더블럼이 “평화회의 호소문”을 전쟁 당사국들의 교회를 포함하는 세계 교회에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 ‘삶과 봉사’(Life and Work) 운동이 출범하였다. 그리고 1910년 ‘세계선교 대회’(WMC)가 1921년엔 ‘국제선교 협의회’(IMC)로, 그리고 1960년대에는 WCC에 가담하면서 ‘세계선교와 복음전도 위원회’(CWME)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리하여 ‘신앙과 직제’, ‘삶과 봉사’, 그리고 ‘세계 선교와 복음전도 운동’이 향후 에큐메니칼 운동의 흐름을 결정하였다. 그런즉, 결국 WCC를 통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주된 흐름은 셋인데, 이는 요한복음 17:21(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을 믿게 하옵소서)과 골로새서 1:20(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과 에베소서 1:10(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에 나오는 성경구절로 요약될

14) 참고: Kenneth Scott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ity*, Vol. II,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5, pp. 1334-1345, 1349-1380.

수 있다.

그리고 1920년엔 동방정교회가 “국제연합”(The League of Nations)에 맞먹는 “교회들의 코이노니아”(koinonia ton ecclesion)를 제안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죄더볼럼과 올드햄 역시 교회들의 연합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1925년에 스톡홀름에서 제1차 삶과 봉사 운동 세계대회가, 그리고 1927년에 로잔에서 제1차 신앙과 직제 세계대회가 열렸다. 그리고 이 두 대회 대표들이 결국 1937년 케버트(McCrea Cavert)가 제안한 WCC(세계교회협의회)란 용어를 받아들여, 네덜란드의 유트레히트에서 WCC헌장이 작성되었다. 그 교리헌장(the Basis)은 성육신 교리와 칼세돈의 정통 그리스도론을 배경으로 하였고, 1961년 뉴델리 WCC 때에는 성공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성경”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첨부하였다.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교회들의 코이노니아이다. ¹⁵⁾

세계교회협의회란 성경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고백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일체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의 공동 소명을 함께 성취하려고 하는 교회들의 코이노니아이다. ¹⁶⁾

그런즉, 대체로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상과 같이 3흐름에 의하여 결정된다. 2006년 포르트 알레그로에서 열린 제9차 WCC 총회가 새로 정립한 21세기 WCC의 프로그램 역시 이 3가지 흐름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알레그로는 6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1. WCC와 21세기 에큐메니칼 운동, 2. 일치, 선교, 복음전도, 그리고 영성, 3. 공공의 증거: 권력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평화를 주장하기, 4. 정의, 섬김, 그리고 창조세계에 대한 책임, 5. 교육과 에큐메니칼 형성, 6.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이 그것이다. 이들 중, 1은 21세기 에큐메니칼 운동의 전망에 대한 것이고, 2와 3과 4는 우리가 논한 3흐름에 해당하며, 5는 이 세 흐름과는 별도로 발전한 전통으로서 전자는 에큐메니칼 신학교육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종교 간 대화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이중에 ‘신앙과 직제’, 삶과 봉사, 그리고 ‘세계선교와 전도’ 운동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V. ‘신앙과 직제’운동의 신학에 나타난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가시적 일치 추구의 역사

15) “World Council of Churches”, Nicholas Lossky and Others(ed.), *Dictionary of the Ecumenical Movement*, Geneva: WCC Publications, 1991, p. 1084.

16) Ibid.

1. ‘신앙과 직제’운동에 나타난 교회의 정체성

1) 교회와 교회들(the Church and churches):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분열되어 있다.

로마가톨릭교회, 동방정교회, 성공회, 루터교, 개혁신교회 등이 그와 같은 분열된 교회들의 예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은 이와 같은 역사적 교회들과 불가분리하고 이와 같은 역사적 교회들 안에 존속하고 있는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하나 된 교회”(a God-given Unity)를 증언하고 있다. 1954년 에반스턴 WCC 총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들의 하나 됨을 묘사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많은 방법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교회는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갖고 있다(고전 12:12). 그 여러 지체들은 몸의 머리되시는 한 분이신 주님께 속해 있다(엡 1:22, 4:25, 5:23; 골 1:18, 2:19). 교회는 그의 신부요 신랑 되신 그 분과 연합해 있다(막 2:19; 계19:7; 그리고 마 22:2 이하, 25:10,11; 눅 12:36; 엡 1:22 이하도 참조하라). 신자들은 그의 백성이다(벧전 2:9,10; 골 3:12; 롬 11:2,11,12,32). 그분은 참 예배가 드려질 새 성전이며(요 2:19 이하; 요 4:21 이하도 참조하라), 또 그분은 믿는 이들이 산돌이 되어 이루어지는 단 하나의 건물이다(벧전 2:5; 엡2:20; 그리고 고전 3:9도 참조하라). 그분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의 가지들이며(요 15:1 이하), 또 그분은 목자이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요 10:1 이하).¹⁷⁾

그리고 이상과 같은 교회는 기독교론적이고 성령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역사적 경험 속에 있는 교회들 안에 존속하며,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이다.¹⁸⁾

이미 1951년 ‘토론토 중앙 위원회의 성명’은 그 주제를 “The Church, churches and WCC: the ecclesiological significance of WCC”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the Church”란 다른 아닌 신약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의 전”을 의미하고, 381년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의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말한다.¹⁹⁾ 이는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교회의 통일성”(a God-given Unity)을 뜻한다. 교회

17). *The Evanston Report*(Harper & Brothers, 1954), p.83

18). *Ibid.*, pp.83-84

19) 참고: 『세계교회가 고백해야 할 하나의 신앙고백』(*Confessing the One Faith on the Apostolic Faith as it is confessed in the Nicene-Constantinopolitan Creed*(381), Geneva: WCC, 1991), 세계교회협의회 역임/이형기 옮김(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119 이하.

의 모습은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 혹은 다양성의 코이노니아 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신약성경의 경우,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빌립보 지역의 교회들,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 로마 지역의 교회들 등과 같은 지역 별 교회들(ecclesia)의 다양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ecclesia) 안에서 하나를 지향하고 코이노니아를 지향했기 때문이요, 지중해 기독교 세계의 다양한 지역 교회들(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역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안에서 통일성과 코이노니아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교회들 역시 이와 같은 다양성 속에서의 가시적 통일성 혹은 다양성 속에서의 가시적인 코이노니아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가시적’이란 사도적인 복음과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로 표현된 사도적인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BEM Text”에 입각한 가시적인 교회적 삶을 실천하며, 하나의 결의기구를 만들어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복음(evangelism)을 전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2) 복음과 교회

1927년 제1차 로잔 신앙과 직제 세계대회는 복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세상을 위한 교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항상 복음이어야 한다. 복음은 현재와 미래를 향한 구속의 기쁜 메시지인 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성령은 온 인류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어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셨고, 무엇보다 구약 안에 주어진 그의 계시를 통해서 그의 오심을 준비하셨는데, 때가 차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성육하사 인간이 되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과 가르침, 그의 회개에로의 부름, 그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심판에 대한 선포, 그의 고난과 죽음, 그의 부활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로의 승귀, 및 그의 성령의 파송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베풀어 주셨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충만함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계시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보이신 완전한 사랑에 호소하시어 우리들을 신앙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기 위한 자기희생과 헌신으로 부르신다(Ⅱ. 9-11).²⁰⁾

20) *Faith and Order: Proceedings of the World Conference Lausanne*, Aug. 3-21, 1927(London:1927), 461ff.

이상과 같은 ‘복음’은 세상을 위한 “구속의 기쁜 메시지”로서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이다. 이 “복음”은 인간을 “신앙”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으로서 정통 기독교론적이고 정통 삼위일체론적인 틀 안에서 주어졌다. 바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다름 아닌 ‘교회’ 공동체이다. 그래서 1937년 옥스퍼드 신앙과 직제 제2차 세계대회는 “**칭의와 성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함으로써 교회의 복음에 대한 수용을 명쾌하게 정의하였다.

값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칭의하시고 성화시키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이 믿음 자체는 선물이다.

칭의와 성화는 죄인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동의 불가 분리한 두 측면이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자신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정죄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죄인들에게 나타내시며,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신다.

성화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전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해내시고, 우리를 그의 거룩함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삶에 동참함을 통해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신다. 우리를 지속적인 영적 행위와 악과의 투쟁으로 고무시키는 이러한 갱신은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 유지된다. 거룩함에서의 우리의 성장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항상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위에 근거하고 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계시의 지적인 수용(受容)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며, 우리의 구세주이며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위탁하는 것이다(Ⅱ. ii). 21)

21) 루카스 피셔, 『에큐메니칼 신학의 발전사(Ⅰ)』, 이형기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50-54 쪽. 로마가톨릭교회와 루터교 세계연맹(LWF)은 *The Joint Declaration of the Doctrine of the Justification*(1999)을 통하여 ‘칭의’문제 관련한 16세기에 있었던 상호 정죄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였고, 2006년엔 세계감리교 협의회 19차 총회 역시 이 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3) 교회의 본성과 표지들

1927년 로잔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본성과 표지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먼저 교회의 본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가 삶과 말씀으로써 복음의 구속하는 능력을 증거 할 것을 명하셨다. ...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령은 교회를 지속시키는 생명이다(Ⅲ. 16).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신약에 따르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시다(Ⅲ. 17).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도구이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이 도구로써 인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화해시키고, 그들의 의지들을 주님께 복종케 하여, 그들을 은혜의 방편들로 성화시키며, 그들을 사랑과 섬김 안에서 연합시킴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나라가 영광중에 도래할 때 까지 지상에서 그의 통치를 확장시키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신다(Ⅲ. 18).

오직 하나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생명,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의 성령이 있듯이, 오직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가 있을 뿐이다(Ⅲ. 19).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 이래로 적어도 교회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표지(標識)들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 1) 성경 안에 주어져 있고 성령에 의하여 교회와 개인에게 해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다.
- 2) 교회는 성육신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
- 3) 교회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용하고 있다.
- 4) 교회는 성례전을 준수하고 있다.
- 5) 교회는 목회적 직무를 위한 교역(직제), 말씀의 설교, 그리고 성례전을 시행한다.

- 6) 기도와 예배와 모든 은혜의 방편들과 거룩함에 대한 추구하고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교제를 추구한다.(IV. 31-34)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바, 어느 정도로 기독교론적이고 삼위일체론적인 ‘복음’을 주장하는 ‘신앙과 직제’는 1952년 빌링겐의 IMC가 종말론적인 비전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주장하였고, 1961년 뉴델리 WCC에 와서는 WCC 현장에 삼위일체론을 첨가하였으며, 1963년 몬트리올 제3차 신앙과 직제 세계대회는 “복음전승”(the Gospel Tradition)과 아울러 삼위일체론을 더욱 힘주어 언급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적어도 “복음”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WCC회원 교파들의 다양한 신학전통들을 한데 묶는 통일성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사도적 신앙전승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50년 이상이나 걸려서 리마에서 수립된 『세레·성만찬·직제』(BEM Text, 1982)에서 그 절정에 도달한다. 이 문서는 ‘복음’(the Gospel Tradition)과 ‘삼위일체론’을 근간으로 하여 세레와 성만찬과 직제에 대한 에큐메니칼 신학을 정립하였다. 물론, 이 문서 작성과정에 동방정교회와 로마가톨릭교회 대표들도 동참하였다.

그런데 1975년 나이로비의 JPSS, 1983년 밴쿠버의 JPIC, 1989년 바젤에서 열린 ‘유럽교회들의 에큐메니칼 총회’,²²⁾ 그리고 1989년 산 안토니오 CWME²³⁾ 이래로 ‘복음’의 개념은 창조세계를 포괄하는 화해의 복음으로 이해되었고, 1991년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로 고백된 사도적 신앙에 대한 하나의 에큐메니칼 해설』²⁴⁾ 이래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크게 부각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상에서 인류뿐만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 까지 포함하는 ‘기독교론적이고 삼위일체론적인 종말론적인 화해의 복음’이야 말로 성경의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요, 교회들과 신학들의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류, 하나님과 창조세계, 인간과 인간, 그리

22) *Peace With Justice. The Official Documentation of the European Ecumenical Assembly*, Basel, Switzerland, 15-21 May, 1989, 150 route de Ferney, CH-1211 Geneva 20: Conference of European Churches, p. 40.

23) *The San Antonio Report*, ed. Frederick R. Wilson(Geneva: WCC Publications, 1990), 52 이하(III. The Earth Is the Lord's.), 26. 참고: missio Dei는 1952년 Willingen IMC에서 시발하였고,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언급은 1982년 *Mission and Evangelism: An Ecumenical Affirmation*에서부터 발견된다.

24) 1975년 나이로비 WCC가 ‘신앙과 직제’에게 ‘사도적 신앙의 공동고백’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연구케 한 이래, ‘신앙과 직제’는 1981년부터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381)를 연구하여 1991년에 본 문서를 출판하였다. 물론, 에큐메니칼 운동에 있어서 삼위일체론은 1952년 빌링겐 IMC, 1961년 수정 보완된 WCC 현장, 1961년 몬트리올 제4차 신앙과 직제 세계대회로 까지 소급된다.

고 인간과 창조세계의 화해를 이룩하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인류와 창조세계를 하나님 아버지께 화해케 한 ‘복음’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며 종말론적이다.

4) 삼위일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교회

1990년을 기점으로 ‘신앙과 직제’와 ‘삶과 봉사’는 신학적인 제휴(solidarity)를 통하여 오늘의 글로벌 이슈들에 대응하였으니, 이 시점으로부터 양측을 대표하는 신학자들은 ‘에큐메니칼 교회론’과 ‘에큐메니칼 사회윤리’를 합류시키기 시작하였다.²⁵⁾ 그리하여 이제 필자가 2005년 『교회의 본성과 선교』(1982년 BEM Text 이후 그 중요성에 있어서 BEM Text에 버금가는)에 나타난 ‘교회론’을 소개하려고 할 때, 그것은 교회의 ‘목적’, ‘사명’, 혹은 ‘선교’를 포함하는 교회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힌다.

『교회의 본성과 선교』는 교회란 “은혜의 선물로서 말씀과 성령의 피조물”(creatura Verbi et creatura Spiritus)²⁶⁾이라 정의하였다. 그런즉, 우리가 이상에서 지적한 기독교론적이고 삼위일체론적인 화해의 복음을 성령의 역사로 믿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성령의 전’이다. 이는 다름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imago trinitatis)이다(I. A. (II) 18-22).²⁷⁾ 교회는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과 경세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체 내의 코이노니아의 반사체라고 하는 말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삼중형태 혹은 다양성 속의 코이노니아로서 교회는 교역자들이든 일반 성도들이든 모든 믿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은 상호 보완하여 교회의 의미를 충만하게 한다.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교회 개념은 동방정교회 신학전통으로부터 온 것이다.

(1) 코이노니아(Koinonia/Communion)로서의 교회: 1991년 캔버라 WCC 총회는 ‘신앙과 직제’가 제출한 “코이노니아: 은혜와 과제”를 받아들였고, 1993년 스페인의 산티에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열린 ‘신앙과 직제’ 제5차 세계대회는 “신앙과 삶과 증언에

25) 참고: 『신앙과 직제와 삶과 봉사의 합류』. 이형기·송인설 공역/한국기독교신앙과 직제위원회 편(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09). 본 역서는 두 운동이 신학적으로 한 몸을 이룬 공식문건들을 거의 다 모아서, 번역하였다. 특히, ‘역사 서문’을 참고할 것.

26) 『교회의 본질과 선교』, 신앙과 직제 문서 198. 『신앙과 직제와 삶과 봉사의 합류』, 이형기·송인설 공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앙과 직제 위원회 편(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09), 350. I. A. (1) 9.

27) Ibid., 356-358.

있어서 코이노니아를 향하여”를 총회 전체주제로 하였다. 이는 ‘사도적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BEM Text’를 중심으로 교회적 삶을 살며,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코이노니아를 바탕으로 하고, 동시에 코이노니아를 추구한다고 하는 내용이다. 이 ‘코이노니아’개념은 신약성서와 교부들과 종교개혁의 글들에서 발견되는 것으로서, “성만찬, 공동체, 연합, 참여, 사귄, 나눔, 연대성”을 뜻한다.²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내재적인 삼위의 ‘코이노니아’는 경제 차원에서 인류와 창조세계와의 코이노니아로 전개된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백성 사이의 특별한 관계인 언약을 맺으셨으니(I. A. 25), 창조세계 전체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누릴 때에만 그것은 온전성을 지닌다. 따라서 ‘코이노니아로서 교회’의 의미는 매우 심오하다(I. A. 29). 특히, 본문은 복음 설교를 통한 연합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을 통한 ‘연합’에 관련된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에 대하여 언급한 다음,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의 존재이유와 존재목적에 대하여 말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 존재하고, 이로써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인류의 화해를 위해서 봉사한다. 교회 안에서 실현된 그리스도 안의 코이노니아가 피조물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cf. 엡 1:10).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cf. 롬 8:19-21; 골 1:18-20).(I. A. 33)

(2) 교회의 선교

『교회의 본질과 선교』(2005)는 “모든 피조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모으고(cf. 엡 1:10),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코이노니아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의 코이노니아의 반영으로서, 교회는 이런 목적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I. B. 34) 라고 하면서 교회는 이 목적을 섬김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해야 한다. (요 17:21) 즉, “교회”는 이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좋은 소식인 복음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써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즉, 이는 ‘복음전도’(evangelism)에 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 목적을 위

28) “koinonia”란 participation, fellowship, sharing, solidarity, community, communion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참고: *Official Report of the Fifth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 On the Way to Fuller Koinonia*, ed. Thomas F. Best and Guenther Gassmann, Faith and Order no. 166(Geneva: WCC Publications, 1993), 230-262: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 4 분과 보고서.

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가치들을 삶으로 옮기기도 그것의 미리 맛봄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I. B. 35). 교회는 “자신의 삶으로 구원의 신비와 인류의 변형을 체험함으로써 만유를 하나님께 화해케 하고(고후 5:18-21; 롬 8:18-25), 인간 상호간의 화해를 구현하시는 그리스도의 선교에 동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런즉, 교회의 모든 본질적 기능과 역할들은 이와 같은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다(I. B. 42).

(3)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의 징표와 도구로서 교회

그리하여 본 문서(『교회의 본질과 선교』)는 교회를,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예언자적 징표요 이 하나님 나라를 역사와 창조세계 속에서 실현하는 도구라고 주장하였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는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나타내는 징표요, 그것을 일구는 도구이다. 교회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 동참하면서 자기를 넘어서서 모든 창조세계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리키는 예언자적 징표이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땅의 소금’, ‘세상의 빛’,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라 일컫고 있는 것이다(‘신앙과 직제’, 198. 43).(I. c. 43)

즉, 예배를 드리고, 세례와 성만찬을 베풀며, 기독교의 진리들을 가르치고, 친교를 나누며, 봉사와 제자의 도를 행하는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 올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는 가운데 교회 밖의 영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실현운동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본문이 교회를 “신비”(엡 1:9-10; 5:32)라고 부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초월적인 실재(이미 주어졌고, 그것의 완성이 약속된 하나님 나라: 필자 주)를 가리키기 때문이다.”(I. c. 45) 그리하여 교회 밖을 향한 종말론적인 목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복음 전도’(evangelism)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이다(I. c. 46).

결국, 이상에서 제시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교회”, “교회의 선교”,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의 징표와 도구로서 교회”는 모든 교파들의 모든 신학이 공유해야 할 교회의 본질과 목적(선교)이다. 따라서 지금 까지 이 글이 논한 교회론은 주로 어느 특정 교회(로마가톨릭교회, 동방정교회, 성공회, 루터교, 개혁신교회 등)의 교회론이 아니라 신약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성령의 전” 혹은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381)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the Church

of Jesus Christ)의 본성과 목적(선교)에 대한 이야기이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역사적 경험 속에 있는 교회들이 위에서 언급한 “교회의 본성”과 “교회의 표지들”을 지니고 있는 한, 이 역사적 경험 속에 있는 교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a God-given Unity)는 “존속(subsists in ...)하고 있다.”²⁹⁾

2. ‘신앙과 직제’ 운동이 추구하는 교회일치 모델

이제 우리는 경험적인 역사 속의 교회들과 불가 분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염두에 두면서, 그 동안 ‘신앙과 직제’ 운동이 교회일치 운동을 어떻게 전개하여 왔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자. ‘신앙과 직제’ 운동은 1927년 로잔에서 열린 제1차 세계대회로부터 1993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의 제5차 세계대회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BEM 문서와 더불어 『교회의 본질과 선교』(2005)는 장구한 전(前)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글은 잠시 교회일치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교회일치추구의 약사는 WCC 총회 별로 제시될 것이지만, 실제로는 “신앙과 직제”의 연구 결과물들이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총회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1948년 암스텔담 WCC 총회는 아직 비교교회론적 차원에 머물면서, 교회들의 “주어진 일치”(a God-given unity)를 말했다. 이는 신약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교회요, 사도 신경이나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고백하는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교회이다. 이와 같은 계시에 의하여 은혜로 주어진 교회(the Church)와 역사 속에 있는 경험적 교회들은, 구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관계처럼 결코 이분화 될 수 없다. 1952년 룬드 신앙과 직제 제2차 세계대회가 기독교 중심의 일치를 언급하였고, 1954년 에반스턴 WCC가 가시적 일치추구를 시발시킨 이래, 정식으로 가시적 일치추구가 방향 잡힌 것은 1961년 뉴델리 WCC 총회 때였다. 이 시기 동안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일치추구의 중심이 기독교론으로부터 삼위일체로 이동한 사실이다.

뉴델리는 “각 장소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all in each place)이 사도적 신앙과 복음, 세례와 성만찬, 코이노니아와 증거에 있어서 교파적인 정체성을 뒤로 하고 하나

29) 참고: 제2 바티칸 공의회 공식문서 중, Lumen Gentium(교회헌장) 제8항은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초월적인 교회가 로마가톨릭교회 안에 “존속 한다(... subsists in ...).”고 말한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로마가톨릭신학자들 사이에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제도권 로마가톨릭교회 안에만 존속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라: 이형기, “제2 바티칸 공의회 이후 로마가톨릭교회의 에큐메니즘과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연구”. 신학과 사상, 제64호(신학과 사상회: 2009/겨울), 241쪽 이하.

의 유기체적 공동체(organic union)를 지향할 것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은 일치추구는 우리가 추구하는(we seek) 가장 기본적이고 이상적인 일치추구의 모형으로서 1961년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요, 향후 이와 같은 일치모델은 계속하여 에큐메니칼 운동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일치의 모델로 남아 있게 된다. 하지만 1961년 WCC 총회 때에 동방정교회와 오순절 교회들이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1962-1965년 사이에 제2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으며, 성서연구의 결과로 신약성서 안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교회의 모습이 강조되면서, “화해된 다양성 속의 일치” 혹은 “교파 별 기독교 공동체들의 코이노니아”가 강조되었으니, 궁극적으로 교파들의 정체성을 해체시키는 뉴텔리의 “유기체적 일치”의 이상을 바라보면서도, 그 도상에서 양자 간 대화를 통한 일치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미 지적한 대로 1961년 뉴텔리와 제2 바티칸 이후 1960년대부터 시작된 양자 간 대화는 1970년대 이후 매우 활발하였다. 바야흐로 1991년 캔버라 WCC 총회를 계기로 뉴텔리적인 “유기체적 일치”는 더 이상 추진 되지 않은 경향이었고, 다양성 속의 코이노니아가 부각되었다. “코이노니아로서 교회의 일치: 은혜와 소명”이라고 하는 캔버라 진술은 교파들과 ‘교파 별 세계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의 정체성을 폐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들 상호 간의 코이노니아 속의 일치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1968년 읍살라 WCC 총회는 교회들의 정체성과 연속성과 다양성을 허용하는 교회의 보편성을 부각시켰고, 1975년 나이로비는 교회들의 일치추구에 있어서 교회의 협의화성을 강조하였으며, 1983년 밴쿠버 WCC 총회는 가시적 일치추구의 요건으로 “사도적 신앙”과 “세례·성만찬·직제”, 그리고 “공동의 결의방법과 공동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제시하였으니, 이 모든 교회일치 추구를 위한 이정표들은 모두 “주어진 일치”를 가시화시키는 바, “유기체적 일치”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것이다. 오늘에 이르기 까지 그리고 향후 “신앙과 직제” 운동은 이와 같은 “유기체적 일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그것이 약화되었고, 여러 다양한 일치 모델들 가운데 하나로 굳어졌지만 말이다.

특히, 우리는 “신앙과 직제” 운동의 금자탑과도 같은 BEM Text(1982)에 대하여 언급해야 한다.³⁰⁾ BEM Text는 1982년에 에큐메니칼 회원교회들의 다자간 수렴문서로서 에큐메니칼 교회론에 관한 것이다. 이미 여러 해 동안 회원 교회들로부터 논찬을 수렴하여 6권의 책이 출판된바, BEM 문서는 에큐메니칼 교회론으로서 반세기 동안의 신앙과 직제 운동의 결실이었다. 또한 그 동안 10년의 연구결과물인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381)로 고백된 사도적 신앙에 대한 하나의 에큐

30) 본 역사에서 번연 된 나머지 문서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각 책의 서론에 실려 있다.

메니칼 해석』(1991)이 출간되어, 로마가톨릭교회와 동방정교회를 아우를 수 있는 삼위 일체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그리고 1993년 “신앙과 직제 제5차 세계대회”는 『신앙과 삶과 증거에 있어서 코이노니아』(Towards Koinonia in Faith, Life, and Witness)를 출판하여 사도적 신앙에 있어서 코이노니아, 세례·성만찬·직제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적 삶에 있어서 코이노니아, 그리고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의 코이노니아를 그 대회의 전체 주제로 삼았으니, ‘신앙과 직제’ 운동과 ‘삶과 봉사’ 운동이 별거의 관계로부터 재연합의 관계로 돌입하였다. 이와 같은 재 연합은 JPIC를 향후 일세기 동안 세계교회의 공통의 과제임을 선포한 1990년 WCC 서울 JPIC 대회를 계기로 강화되었다.

Ⅶ. ‘삶과 봉사’(‘교회와 사회’, 혹은 ‘JPIC’) 전통에 나타난 교회의 공적책임

이어서 우리는 신앙과 직제 운동을 통해서 발견되는, 기독교적이고 삼위일체론적인 복음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에큐메니칼 교회는 ‘삶과 봉사’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God's World)에 대한 공적 책임을 수행해 왔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자. 물론, ‘삶과 봉사’ 운동은 1925년 읍살라 세계 제1차 총회로부터 서울 JPIC와 오늘에 이르지만, 지면 관계로 필자는 1968년 읍살라 WCC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삶과 봉사를 통한 에큐메니칼 교회의 공적책임수행에 대하여 예증할 것이다.

1. 읍살라 제4차 WCC 총회(1968)

1968년엔 “하나님의 선교”가 절정에 도달하였고, 교회의 공적인 사회적 책임수행이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첨예화되었다. 1968년엔 마르크시즘과 같은 사회학적 통찰이 기독교 신학에 적극 수용되기 시작하였고(1968년 메델린(Medellin) 가톨릭 주교회의), 적절한 폭력사용까지 정당화되었으며, 선교의 개념이 “인간화”와 동일시되는 측면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1948-1960년대 초까지의 “책임적 사회”(responsible society)가 “세계적 크기의 책임적 사회”로 확장되었고, 바야흐로 “해방신학”이 읍살라 WCC에서 싹터 올랐다. 이미 읍살라의 “개발”(development) 개념은 단순히 강대국이 저개발 국가들에게 “자본과 기술”을 이전하는 도움을 의미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구티에레즈(Gustavo Gutierrez)도 주제연설을 했던 1968년 메델린(Columbia)의 제2차 라틴 아메리카 주교 총회를 “해방신학”의 태동기로 보고, 1971년 구티에레즈의 “해방의 신학”(The Theology of Liberation)을 해방신학의 고전으

로 볼 수 있지만, 이미 읍살라의 보고서는 해방신학적 요소들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읍살라는 1960년대 말 “신앙과 직제”의 “창조세계” 보전에 대한 신학에는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정의와 평화와 같은 “역사”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였다. 1960년대의 세계사적(역사) 격변 때문에, “창조세계”에 대한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2. 나이로비로 가는 길목에서

1970년대에는 읍살라의 사회정의, 경제정의, 평화 이외에 창조세계의 보전문제가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나이로비 WCC 총회(1975)의 “기조연설: 기도예로의 초대”는 인간이 환경파괴로 인하여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 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교회와 사회”는 제네바 대회(1966)를 이어받아 읍살라와 나이로비 사이에 두 가지 분야의 일을 했는데, 하나는 1969년에 시작된 5년 연구 프로그램인 “과학에 기초한 기술세계 속에서 인간과 사회의 미래”였고, 다른 하나는 “폭력-비폭력”의 문제였다. 바야흐로 WCC는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제기되는 윤리적이고 신학적인 이슈들을 다룰 신학자들과 자연과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을 함께 불러 모았다.

1970년 “기술, 신앙 그리고 미래사회”라는 개척연구 제목으로 제네바에서 모인 대회에서 자연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사회를 위해서 자연과학과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들을 확정지었다. 그리고 1971년 이태리의 네미(Nemi)에서 열린 “교회와 사회” 확대회의는 새로운 에큐메니칼 초점을 위해서 회집되었고, 신학자들, 자연과학자들, 자연과학자들에 대한 비평가들 및 제3세계의 경제학자들을 포함하는 경제학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바로 이 대회에서 유전공학에 관계된 윤리적 이슈에 대한 연구계획이 세워졌고, 인간환경의 악화와 환경파괴에 대한 최초의 에큐메니칼 토론이 있었다. 그리고 특기할 사항은 MIT에서 온 과학자들 팀 중 한 과학자는 “제한성장”(Limits to Growth)을 주장했고, 제3세계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였다. 1972년 로마 클럽의 “제한성장”과 헬싱키의 “유엔인간환경 대회”는 창조세계 보전 문제에 대한 첫 이정표였다.

3. 나이로비 제5차 WCC총회(1975)

나이로비 총회는 긴장과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분출시켰던 읍살라와는 달리 “확고히 지반 굳히기”(consolidation)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나이로비가 단순히 옛것들을 되풀이했던 것은 아니었다. 나이로비는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과 사회 및 정치적 참여는 불가 분리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종전의 인권 투쟁과 불의에 대한 항거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나이로비는 1969년 이래의 해방신학 전통을 자기 것으로 삼으면서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중반의 복음주의자들의 목소리를 감안하여 읍살라의 과격성을 조정했다. 나이로비는 온 교회(the whole Church)와 전 인격(the whole Person)이 전 복음(the whole Gospel)을 전 세계(the whole world)에 전하고 증거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이로비가 공헌한 교회의 사회참여에 대한 주장은 JPSS(a Just, Participatory and Sustainable Society)에 잘 나타나 있다. JPSS는 결코 우연히 선택된 주제가 아니다. “정의”(Justice), “참여”(Participation), 그리고 “지탱”(Sustainability)은 삼 위일체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는 것으로서, 정의와 평화는 이미 에큐메니칼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것들이다. “정의”는 WCC창립 이래 에큐메니칼 관심사로서 WCC 현장에 명시되어 있는 WCC의 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제네바의 “교회와 사회”세계대회(1966)와 읍살라 때 “정의” 추구의 긴급성이 일어났고, 정의문제는 “해방신학”을 거쳐 1970년대로 넘어왔다. 나이로비는 “정의”를 “개발”(제3세계)의 주된 목적으로 보았고, 조직적 혹은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대립개념으로 보았다. 또 이 같은 부정의한 상황이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에 항상 평화개념을 요청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정의”와 “참여”를 인종주의, 여성차별, 인권문제 등에 관련시켰다.

끝으로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은 과학과 기술의 오용과 남용으로 지탱되기 어려운 인간사회가 “제한 발전”, “제한 성장”, 그리고 “생태학적으로 건강한 발전”에 의해서 지탱 가능한 사회로 바뀔 수 있음을 말한다. 이미 나이로비는 “창조세계의 보전”을 “정의”와 “평화”와 맞물린 것으로 보는 1990년 서울 “JPIC”(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대회와 “지탱”(Sustainability)과 “개발”을 창조적 긴장 관계로 본 1992년 리우(Rio)의 “유엔지구정상”(the Earth Summit)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다.

4. 밴쿠버로 가는 길목에서

나이로비의 JPSS는 밴쿠버 WCC총회(1983)에서 JPIC로 바뀌었고, 공산 동구권과 구소련의 붕괴이후, 서울 JPIC대회 “창조보전”(IC: Integrity of Creation)이 급부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캔버라 WCC총회(1991)의 전체주제 “성령이여, 오소서. 전 창조의 세계를 새롭게 하소서.”와 제1분과의 주제 “생명의 수여자시여, 당신의 창조세계를 지탱하소서.”에서 “창조보전” 문제가 강조된다. 그리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신앙과 직제” 제5차 세계대회(1993) 이후, WCC의 JPIC(Unit Ⅲ)는 “생명의 신학”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5. 나이로비에서 밴쿠버에 이르는 길목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MIT “교회와 사회” 세계대회(1979)와 암스테르담의 “핵무기와 군비축소에 대한 국제적 공청회”(1981)였다. 이 둘은 모두 오늘날 인류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는 환경문제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고, 밴쿠버 이래로 이 환경문제가 정의와 평화문제와 맞물릴 것을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선진 강대국들의 과학 기술의 발달은 제3세계의 경제와 개발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제1세계가 제3세계를 과학기술은 물론, 경제와 정치에 있어서도 자신들에게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밝혀내었다. 그래서 이미 나이로비의 JPSS는 교회개발참여위원회(CCPD)와 교회국제위원회(CCIA)³¹⁾에게 어떤 방향제시를 해야 했고, 1980년대의 밴쿠버의 JPIC 역시 제3세계의 정의와 개발 문제에 골몰해야 했다.

6. 밴쿠버 제6차 WCC 총회(1983)

밴쿠버 총회의 전체주제 “예수 그리스도 - 세상의 생명”과 그 소주제들 (1)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 (2) 죽음에 직면하여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 (3) 충만한 가운데 있는 생명, (4) 일치 속의 생명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생명” 문제가 크게 부상하고 있음을 웅변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특히, 밴쿠버는 MIT의 결과를 (1)세계의 무기경쟁, (2)경제적 지배와 착취, (3) 생태계의 위기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JPIC를 역설하고 있다.

밴쿠버가 JPSS에서 JPIC으로 전환하게 되는 데에는 오타와(Ottawa) 세계개혁교회 연맹(WARC) 총회(1982)가 크게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이 총회의 “오늘날 복음증거를 위한 소명”은 서울 WARC 총회(1989)의 제3분과의 JPIC를 위한 신학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고, 서울 JPIC대회(1990)를 준비하였다. 밴쿠버는 MIT 교회와 사회대회(1979)의 결과를 수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점을 역설하였다. (1) “하나님, 인류, 그리고 자연의 상호관계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 (2)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윤리적 결단들과 가치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3) “신학과 과학이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밴쿠버는 JPIC가 단순한 사회윤리 차원의 과제가 아니라, 전 WCC 회원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들, 나아가서 모든 비 WCC 교회들과 비 WCC 기독교 단체들 및 온 인류의 과제라고 천명하였다.

7. 밴쿠버에서 서울 JPIC대회에 이르는 길목에서.

이 길목에는 D.P. 나일즈가 제시한대로 20개 이상의 교회들의 지역별 혹은 세계적

31) CCPD = The Commission of the Church's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CCIA = the Commission of the Churches on the International Affairs.

인 JPIC대회들이 있었는데, 기술로 인한 재난(체르노빌), 태평양에서의 핵실험, 중독성 산업 쓰레기, 핵에너지, 이상기온과 적도지역의 원시림 파괴 등 자연 파괴의 문제가 두드러졌다. 이들 가운데 1988년 노르웨이 그렌볼렌에서 모인(개신교, 정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등) “창조 보전 협의회”가 지적인 “창조신학”에로의 접근과 이 신학에 대한 태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5가지 잘못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중에 셋만 열거하면, (1) 복음을 개인의 영혼구원에만 국한시키고,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관련시키지 않는 것. (2) 생태학적 위기가 과학기술적 문제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 (3) 생태학적 위기를 회개와 개선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기보다는 이 세계의 종말로 보는 신 묵시주의.

8. 서울 JPIC

서울 JPIC에서, “개발”을 끝낸 제1세계는 “IC”와 평화 문제에 집중했고, 개발을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제3세계는 “정의”와 “발전”문제에 부심하여 서로의 의견이 충돌했다. 이 대회 직후 WCC의 JPIC분과(Unit III)는 JPIC 문제가 향후 세계교회가 감당해야 할 21세기의 과제라는 점을 확실히 하였다. “생명이 지탱되는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JPIC의 과제는 “생명의 부여자시여, 당신의 창조세계를 지탱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는 경제, 정치, 사회, 및 생태학적 구조의 변혁이다. 이는 전 WCC, 아니 전 인류의 과제로서, 우리는 모더니즘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의 재구조화를 요청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9. 캔버라 WCC 제7차 총회 (1991)

캔버라 총회 제1분과에 나오는 “창조의 신학 : 우리시대의 도전”이 주장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 창조세계 속에 현존하시는 “성령”에 대한 주장은 “창조의 신학”과 “생명의 신학”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캔버라 WCC를 위해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준비대회가 밝힌 “성령”과 창조세계와의 관계는 “창조신학”에 새로운 비전을 열어 보여 주었다. 그리고 캔버라 역시 “세계적인 생태학적 위기”가 “세계적인 사회정의의 위기” 및 “세계적인 경제정의의 위기”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서 캔버라는 세계교회의 JPIC에 대한 책임을 논하면서, “교회의 신앙, 정치 및 구조”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하고, “교회의 정책들, 과제들의 우선순위들 및 프로그램의 재조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교회의 성경공부, 교리교육, 찬송, 예전, 기도, 성례 및 증거”에도 JPIC, 특히 “IC”에 대한 책임이 반영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0. 산티아고 “신앙과 직제” 제5차 세계대회(1993)

이 대회에서 “신앙과 직제”와 “JPIC”분과(Unit Ⅲ)는 매우 가까워졌다. 즉, “신앙과 직제”의 문서인 “교회와 세계: 교회의 일치와 세계의 갱신”(1990)은 교회의 사회참여를 주장하였고, “신앙과 직제” 및 “JPIC”측의 공동연구의 결과물인 “값비싼 일치”(Costly Unity)가 코이노니아를 바탕으로 교회의 사회참여를 주장함으로써, 이 두 운동의 합류가 가시화되고 있다. 바야흐로 JPIC와 같은 인류사회 및 창조세계 문제를 논하지 않는 교회 일치론은 어디까지나 값싼 일치운동라고 하는 자각에 이른 것이다. 산티아고 이후, 에큐메니칼 교회론과 에큐메니칼 사회윤리학은 매우 근접하고 있다. 그래서 1995년의 “The Ecumenical Review”는 그 특집 주제를 “교회론과 윤리학”(Ecclesiology and Ethics)으로 하였다.

11. 1995년 할키 세미나 역시 큰 교훈을 준다.

(1).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연과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 받았다. (2). 인간중심적 세계관은 극복되어야 한다. (3). 자연 파괴와 자연보전 모두에 있어서 실용주의적 가치관은 포기되어야 한다. (4) 우리는 자연의 성스러움을 인정해야 한다. (5)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위한 제사장이다. (6) 구원은 인류뿐만 아니라, 나머지 창조세계에도 일어나야 한다. (7) 소비지향적 삶을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1997년에 열린 소코니(Sokoni) “JPIC”(Unit Ⅲ) 대회는 JPIC프로그램이 향후 생명과 문화, 영성과 윤리, 그리고 지구촌 경제 문제를 계속 연구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12. 하라레 WCC 제8차 총회(1998)

짐바브웨의 하라레에서 모인 WCC 제8차 총회는 “도시에 평화를” 캠페인과 관련된 노력들에 감동을 받고 교회가 힘을 합해서 세계적, 지역적 차원에서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 함께 대처해야 할 것을 절감했다. 그리하여 총회 대표들은 “폭력극복 10년: 화해와 평화를 일구어 가는 교회, 2001-2010”을 제안하게 되었다. 하라레에서 2001-2010부터 시작하기로 결의한 “폭력극복 10년”은 ‘경제적, 생태학적, 정치적 폭력’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운동은 JPIC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2001-2010까지 이어지는 유엔의 “평화의 문화” 운동(the International Decade for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for the Children of the World)에 보조를 맞춘 것이었다.³²⁾

바로 이러한 운동이 대한예수교총회(통합)가 2002-2012년 까지 펼치는 “생명 살리기 운동 10년”의 배경이다. 그리고 2006년 포르트 알레그로는 이에 더하여 빈익빈 부익부를 가져오고 환경파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시장경제의 지구화(neoliberal globalization)에 대한 문제에 더욱 집중하였으며, 아울러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문제 등 생태학적 위기를 더욱 의식하고 있다. WARC는 2004년 아크라 총회 이래로 경제정의와 지구환경에 대한 정의 문제를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에 총 집중하고 있다. 2006년 12월 (vol. 56) “Reformed World” 지는 그 주제를 “제국”(the Empire)이라 하여, 주로 부시 정권 하의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1-12”에서 주로 “삶과 봉사”, “교회와 사회”, 혹은 “JPIC”계통의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논했다. 이러한 교회의 사회참여는 “신앙과 직제”전통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실상, “신앙과 직제” 대표들과 “교회와 사회” 대표들은 세계교회 차원에서 함께 일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1938년 위트레흐트(Utrecht)에서 WCC를 구성하였던 것이다. 그 후 이 두 운동의 관계가 좀 소원하기도 하고 별거의 관계이기도 하였으나, 1960년대부터 “신앙과 직제”와 “교회와 사회”는 계속하여 상호 접근하는 관계를 지향해 오다가, 산티아고 신앙과 직제대회(1993)에서는 그 거리를 매우 좁히고 있다. 교회의 사회참여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구도는 “신앙과 직제”전통이 “JPIC”(UnitⅢ)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에큐메니칼 운동과 WCC의 근본 성격을 규정하는 “신앙과 직제” 운동, “JPIC”(UnitⅢ) 운동, 그리고 “선교”(CWME) 운동은 서로 삼위일체적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VII. “신앙과 직제”(교회론) 및 “교회와 사회”(윤리)의 합류

나이로비(1975)의 JPSS는 밴쿠버(1983)의 JPIC로 이어지고, 이것은 곧 바로 서울 JPIC 세계대회(1990)로 연결되었다. 그리하여 1975년에서 1990년에 이르면 “IC”의 문제가 사회정의 및 경제정의 문제와 맞물려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정론으로 확립되기에 이른다. 밴쿠버로부터 서울 JPIC대회 사이에 나온 “신앙과 직제”의 공식문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서는 『BEM문서』(1983)와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1991)인데, 이 두 문서 역시 교회의 사회참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서울 JPIC를 계기로 “신앙과 직제”와 “삶과 봉사”는 매우 접근하였고, 서울 JPIC로부터 캔버라(1991)로 오면서 “생태신학”이 “경제정의”와 “세계적인 사회정의”와 더욱 긴밀하게 연

32) Janice Love, “The Decade to Overcome Violence,” *The Ecumenical Review*, vol. 53, No. 2, April 2001, pp. 135-143. 필자는 본 항목에 관하여 주로 이 글을 참고하였다.

결되었다. 그리고 산티아고 “신앙과 직제” 세계대회의 공식문서에서는 “증거”(Witness) 부분에 “값비싼 일치”(Costly Unity)문서가 전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신앙과 직제” 역사상 이 두 운동의 합류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2년부터 1996년 사이에 “신앙과 직제”(Unit I)와 JPIC(Unit III)는 연합연구를 통하여 세 가지 문서를 발표했다. 1993년 덴마크 룬데(Ronde)에서 나온 “값비싼 일치”, 1994년 예루살렘 근교 탄투르에서 확정된 “값비싼 참여”(Costly Commitment), 그리고 남아공의 요한네스버그에서 빛을 본 “값비싼 순종”(Costly Obedience)은 이 두 운동을 가교(架橋)시키는 과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길목들이다.

끝으로 하라레(1998)의 “WCC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비전”(Common Understanding and Vision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 C.U.V.)은 WCC 헌장 제3항의 개정판에서 “신앙과 직제”와 “JPIC”(Unit III)의 합류는 물론, 에큐메니칼 운동의 세 흐름 혹은 네 흐름의 유기적 통일성을 역설하고 있다. 모든 것이 세분화되고 상호 유기적 관계가 없이 고립되고 개별화되며 공동체의 해체를 경험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C.U.V.”가 이와 같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 그리고 유기체적 통전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회론과 윤리학”, 이 둘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있다. 향후 WCC의 과제인 JPIC는 말씀설교, 세례, 성만찬, 코이노니아, 사도적 전통과 성경, 신앙과 제자의 도 등 교회론적 주장들이는 빠르게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선교와 기독교 교육 역시 “신앙과 직제” 운동 없이는 매우 부족할 것이다. 교회의 본질(what it is to be the Church)과 교회의 과제(what it is for the Church to do)는 불가 분리한 관계에 있다. 교회의 가시적 일치추구(요17: 21)와 JPIC와 세계선교와 전도(엡 1:10)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기독교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VIII. 1998년 하라레 WCC와 2006년 포르트 알레그로 WCC 이후

방금 위에서 이 글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신앙과 직제”운동이 “삶과 봉사”운동과 합류하는 경향이고, 하라레에서는 세 에큐메니칼 운동 혹은 네 에큐메니칼 운동(기독교 교육과 에큐메니칼 신학교육 까지 합하여)이 하나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향할 것에 합의하였다고 지적하였으니, 오늘날 우리는 WCC의 모든 에큐메니칼 운동의 흐름들이 하나의 강(江)을 이루어 흘러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1993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 제5차 신앙과 직제 세계대회에서 출범하여 1998년에 나온 중간 결과물인 『교회의 본성과 선교』³³⁾는 1983년

33) 이 문건이 포르트 알레그로 WCC에서는 『교회의 본성과 선교』로 출판되었다. 그것은 아직도 최종

의 BEM Text 이래로 ‘신앙과 직제’가 작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건으로서, 그 전반부는 교회의 본성(본질)론을 논하였고, 그 후반부는 교회의 선교(목적)로서 사도적 기능들과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를 다루었다. 즉, “목적” 부분에서 “삶과 봉사”의 영역과 “세계선교와 복음전도” 영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하나님의 선교와 화해사역에의 참여: 교회들을 초대하기”와 “평화를 키워나가기: 폭력극복에 대한 신학적인 숙고” 등과 같은 신앙과 직제 문서 역시 ‘신앙과 직제’ 운동과 “삶과 봉사” 운동의 합류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덧붙여야 할 것은, 하라레 이후로 기독교 “포럼”이 교회일치를 위한 전(前)단계로 등장하고 있다. 그것은 WCC를 해체하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WCC를 여러 대화 파트너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면서, 로마가톨릭교회, 복음주의 교회들, 오순절 교회들, 그리스도교 세계 연맹체(Christian World Communions), 각 나라의 교회협의회들과 기타 기독교 단체들과의 “포럼”을 시도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옹알라 WCC가 바라보았던 “진정으로 보편적인 에큐메니칼 협의회”(a genuinely universal ecumenical council)의 이상을 구현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이제 필자는 ‘신앙과 직제’ 운동을 전제한 ‘삶과 봉사’ 운동 및 ‘세계선교와 복음전도’ 운동을 주장하면서 하라레로부터 포르트 알레그로를 거쳐 2013년 부산 WCC의 아젠다를 추측해 본다(물론, 앞으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모일 ‘WCC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달렸지만). 1998년 12월 짐바브웨의 하라레에서 모인 WCC 제8차 총회는 “도시에 평화를” 캠페인과 관련된 노력들에 감동을 받고 교회가 힘을 합해서 세계적, 지역적 차원에서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리하여 총회 대표들은 “폭력극복 10년: 화해와 평화를 일구어 가는 교회, 2001-2010”을 제안하게 되었다. 1998년 하라레 WCC에서 2001-2010 동안 펼치기로 한 결의한 “폭력극복 10년 운동”은 ‘경제적, 생태학적, 정치적 폭력’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운동은 JPIC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2001-2010까지 이어지는 UN의 “평화의 문화” 운동(the International Decade for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for the Children of the World)에 발맞춘 것이었다.³⁴⁾

바로 이와 같은 운동이 대한예수교총회(통합측)가 2002-2012년 까지 펼치는 “생명 살리기 운동 10년”의 배경이다. 그리고 2006년 포르트 알레그로는 이에 더하여 빈의 빈 부익부를 가져오고 환경파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시장경제의 지구화(globaliza-

문서는 아니다.

34) Janice Love, "The Decade to Overcome Violence," in *The Ecumenical Review*, vol. 53, No. 2, April 2001, pp. 135-143. 필자는 본 항목에 관하여 주로 이 글을 참고하였다.

tion of neoliberal market-economics)에 대한 문제에 더욱 부심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문제 등 생태학적 위기를 더욱 의식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 총회에서는 그 동안에 진행되어 온 신앙과 직제의 『교회의 본성과 선교』와 세계선교와 복음전도의 『오늘날에 있어서 세계선교와 복음전도』를 마무리할 것이고, 폭력극복 운동(생명의 신학 혹은 생태학적인 신학)과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제동을 거는 “AGAPE”(Alternative Globalization Addressing Peoples and Earth = 사람들과 지구를 위한 대안 글로벌화)운동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미 하라레 이래의 ‘포럼’ 성격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하여 지적하였거니와, 앞으로 열릴 부산 WCC 총회야 말로 외연에 있어서 종전의 그 어느 WCC 총회보다도 더 포괄적인 축제의 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Ⅷ. 세계선교와 복음전도의 역사 속에 나타난 ‘선교’ 개념

제8차 세계선교대회에 해당하는 1910년의 세계선교대회(WMC)는 1921년에 ‘국제선교협의회’(IMC)로 그리고 1963년부터는 ‘세계선교와 복음전도 위원회’(CWME)로 불리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아래에서 ‘선교’개념의 변천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다.

1.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1910)

이 대회는 18-19세기의 낙관주의적 하나님 나라 실현을 기대하면서 불신 족속들에 대한 복음전도를 열정적으로 밀고 나가려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에든버러는 19세기 독일의 자유주의 개신교 신학의 영향 하에서 인류의 최선의 윤리적 성취들을 새 하늘과 새 땅의 건축자제로 사용하는 데에 이견(異見)이 없었다. 하지만 에든버러는 십자가에 계시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부활을 통한 새 창조의 세계(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의 역동적인 이해를 결핍하고 있었다. 19세기 복음주의 부흥운동과 선교운동 역시 낙관주의적 인간이해,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낙관주의적 세계관의 영향 하에 낙관적인 인간의 회심과 지상에서의 도덕적 왕국 건설을 기대했다.

보쉬(D. Bosch)와 한스 쾅(Hans K[ö]ng) 등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신학일반과 선교신학에 있어서 “패러다임 이동”(paradigm shift)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칼 바르트의 「로마서 강해」(1921)와 슈펩글러의 「서구문명의 몰락」(1922-23)은 이와 같은 “패러다임 변화”의 상징적 저작들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 이동”은 예루살렘 IMC(1928)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하였다. 18-19세기적 선교개념의 유산을 물려받

은 에든버러의 선교신학과 예루살렘의 그것 사이에 패러다임 이동이 있다. 전자는 유럽의 18세기 계몽주의의 유산과 19세기 낙관주의의 유산을 물려받은 모더니즘 패러다임의 선교개념을, 후자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교개념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1910년을 계기로 선교개념의 엄청난 패러다임 이동이 온 것으로 본다.

필자는 보쉬와 한스 쾅과 더불어 모더니즘의 시대를 18세기 계몽주의로부터 제1차 세계대전과 1917년 러시아 혁명까지로 보고, 1918년 이후, 특히 1945년 이후의 시대는 그 이전의 모더니즘 시대와 확실히 구별되는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는 시대로 본다. 보쉬가 지적하는 모더니즘의 7가지 특징들과 1983년 튀빙겐에서 모인 “국제 에큐메니칼 심포지움”이 제시한 포스트모더니즘의 9가지 특징들은 확실히 시대의 패러다임 이동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한 시대구분에 따른 모더니즘 시대의 8가지 선교신학적 특징들과 1928년 예루살렘 IMC 이래의 포스트모던 시대의 선교신학적 특징들은 확실히 패러다임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³⁵⁾

2. 예루살렘 IMC(1928)

예루살렘 IMC에서는 선교신학의 패러다임 이동이 나타났다. 신정통주의 신학이 제시한 “복음”의 개념과 기독교론에 집중하는 선교신학과 복음의 대사회적인 관련성은 18-19세기의 그것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은 “인종관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산업화에 따른 문제들과의 관련된 기독교 선교의 문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농촌 문제에 관련된 기독교 선교”와 같은 제목들에서 교회의 대(對)사회적 책임을 “선교”개념에 포함시켰다.

3. 탐바람 IMC(1938)

예루살렘에서 탐바람까지 에큐메니칼 여정에서 일어난 패러다임 이동을 살펴보자. 예루살렘의 복음 이해가 탐바람에서는 삼위일체론의 틀 안으로 들어왔고, 교회의 본성론이 부각되지 않았던 예루살렘과는 달리 탐바람은 파시즘과 히틀러주의 등 1930년대의 세계사적 도전들에 대한 응전으로서 교회의 본성(“삶과 봉사 세계대회”는 ‘Let the Church Be the Church’에 집중하였음)을 신앙과 직제의 교회론적 진술에 의거하여 정립하였다. 그리고 탐바람은 18-19세기의 복음전도개념을 따라 개교회의 선교적 책

35) 이형기,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운동의 세 흐름에 나타난 신학」(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pp. 81 이하.

임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교회일치를 향한 보편교회 차원의 선교를 역설하였으며, 나아가서 교회가 일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및 과학기술의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특기할만한 것은 18-19세기적 개인의 회심과 경건을 포기하지 않고, 이를 구조악의 개선을 위한 기독교 운동들과 연결시킨 점일 것이다.

4. 빌링겐 IMC(1952)

본 협의회는 예루살렘 IMC(1928) 이래로 “하나님의 선교”의 의미에서 교회의 사회참여를 가장 강조하는 선교개념을 제시하였다. 빌링겐은 암스테르담(1948)에서 에반스턴(1954)에 이르는 “책임적 사회”론에 걸 맞는 “하나님의 선교”를 역설했다. 탐바람을 잇는 삼위일체론적 복음이해와 무엇보다도 삼위일체론적 기독교 중심의 파송의 신학(성부께서 성자를 이 세상에 파송하시고, 성자께서 그의 백성을 성령에 의하여 이 세상 속으로 파송하신다고 하는 신학논리)은 18-19세기의 복음전도 개념을 훨씬 넘어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모든 차원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빌링겐은 개인의 회심과 개교회의 개척과 성장을 소홀히 할 정도여서, 1982년 “선교와 복음전도: 하나의 에큐메니칼 선언”(Mission and Evangelism: An Ecumenical Affirmation)—이는 1990년 이전까지 에큐메니칼 선교 지침서였음—에 오면 이에 대한 큰 수정이 있게 된다. 이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복음주의의 영향과 이를 수렴한 1975년 나이로비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끝으로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에 있어서 빌링겐으로 부터 종말론적 시야가 확보되어, 에반스턴 WCC 총회는 그 전체주제를 “예수 그리스도 - 세상의 소망”이라 하였다.

물론, 빌링겐의 “하나님의 선교”는 1968년 옹살라에서 정정에 달했다가 다음에 언급할 1975년 나이로비에서 통전적인 선교개념이 확보된다. “하나님의 선교” 신학에 있어서 후켄다이크의 영향이 큰 것이 확실한데, 그의 영향을 1960년대 들어서서 극대화된 것으로 보인다. 본디, 18-19세기 복음주의 전통에 기반을 둔 선교단체들은 1961년 뉴델리 때에 WCC에 합류한 IMC(국제선교협의회)에 반대하고, 독자노선을 걸었었다. 이와 같은 복음노선의 선교신학과 선교활동은 오늘날에도 엄존하고 있으며, 복음전도에 있어서 그 역동성을 유지하고 있는바, 에큐메니칼 운동이 감싸 안아야 할 매우 훌륭한 흐름이다.

5. 로잔대회(1974)와 마닐라선언(1989).

그리하여 1960년대 말 WCC를 통한 에큐메니칼 선교개념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등장한 복음주의자들의 세계대회들은 1974년 로잔을 계기로 해서 1989년 마닐라 선언(Manifesto)에 오면 종전의 “교회 대 세상”이라고 하는 이분법을 지양하고 1952년 빌링겐의 “하나님의 선교” 이후의 에큐메니칼 선교개념을 대폭 수용한다. 그리하여 복음주의 선교개념에 있어서도 삼위일체론적 복음이해와 삼위일체론적 선교, 그리고 종말론적 시야를 가진 하나님 나라 사상이 지배적이 된다. 복음주의자들 역시 하나의 선교개념 속에 교회의 사회참여를 포함시키고 있다.

6. 방콕 “세계선교와 복음전도 위원회”(CWME, 1973) 36)

본 위원회는 한편 읍살라(1968)에서 절정에 도달했던 “하나님의 선교” 전통을 1969년에 동터 오른 해방신학과 가미시켜 더욱 추진시켰고, 다른 한편 1960년대의 복음주의 세계대회들의 비판의 소리를 인식하고 읍살라의 지나친 점들을 극복하였다. 이 같은 경향은 예루살렘 IMC(1928) 이래로 내려오는 포괄적 선교개념을 지향하는 것이며, 부정적인 의미에서 선교의 두 얼굴은 아니다. 그리하여 나이로비 WCC(1975)는 이러한 두 흐름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바야흐로 JPSS를 WCC 전체의 목표로 내세운 나이로비는 결코 “전 복음”, “전 인격”, “전 교회”를 “전 세계”로부터 격리시킬 수 없었다. 나이로비는 구조악의 문제를 읍살라 보다 더 심각하게 논하면서 예배, 말씀, 세례, 성만찬을 통한 개인의 신앙과 회심, 부활하신 주님,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하였다.

7. 멜버른 CWME(1980)

본 위원회는 방콕과 나이로비에서 발견되었던 복음주의적 요소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멜버른은 1910년 에든버러 및 18-19세기적 유산을 어느 정도 물려받고 있지만,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해방신학적 요소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크 마티, 나바산, 포터, 카스트로, 케제만 및 스탕달의 글들에서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역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신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멜버른은 하나님 나라를 지역별 해방운동과 인권운동들에 결부시켜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 문서에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36) CWME: Commissi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

8. 「선교와 복음전도: 하나의 에큐메니칼 선언」(1982)

본 선교 지침서는 멜버른 CWME의 치우침을 수정하였고, 간접적으로는 나이로비 (1975)의 통전성을 이어받았다고 보인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복음 설교, 세례, 성만찬, 가르침 등)로 불러 모으시어, 회심과 이신칭의와 성화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18-19세기적 복음주의적 전통과 빌링겐 IMC(1952)의 “하나님의 선교”와 나이로비 WCC(1975)의 해방신학적 요소와 구조약에 대한 주장들을 함께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본 문서는 빌링겐 이래로 강조되어 온 종말론적 비전을 명쾌하게 제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긴장관계를 잘 포착하고 있다.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미리 맛봄이요 징표요 이것을 이 땅 위에 실현시키는 도구인 것이다. 그런데 본 문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있어서 복음주의적 복음전도, “하나님의 선교”, 해방신학 및 구조약의 극복만을 논의할 뿐, 창조세계의 보전 문제에 관하여는 산 안토니오 CWME (1989)까지 기다려야 했다.

9. 산 안토니오의 CWME(1989)

본 선교 위원회를 이해하려면 나이로비의 JPSS, 밴쿠버의 JPIC, 서울 JPIC, 그리고 캔버라 WCC(1991)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창조보전”(IC)의 문제가 크게 부상하고 있는 것이 안토니오의 특징이다. 에밀리오 카스트로의 객관적, 우주적(보편적), 종말론적 “화해” 개념은 “IC”문제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아타나시우스의 5가지 주장들은 해방신학의 오도를 바로잡는 매우 전통적 교의적 특성들을 갖고 있다. 우리는 산 안토니오의 선교개념에 포함된 “창조세계의 보전”이 서울 JPIC대회 (1990)로 이어지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삶과 봉사” 혹은 “교회와 사회” 전통을 이어받은 서울 JPIC가 CWME전통과 거의 합류하고 있고,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제5차 신앙과 직제 세계대회(1993)가 JPIC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WCC를 구축하고 있는 이 세 기둥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으로 돌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90년 3월, 서울 JPIC가 열린지 10일 후에 JPIC를 차기 캔버라 WCC총회에서 우선 과제로 추천하였고, Unit II가 WCC 중앙 위원회에게 주는 보고서는 JPIC가 “다음 21세기 동안 에큐메니칼 비전의 심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10. 살바도르 CWME(1996)

본의 보고서는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에 대한 WCC 선교신학의 공식적인 응답이었다. 첫째로 하나의 복음과 종말론적 소망이라고 하는 통일성의 추구,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표현되고, 다양한 문화 속에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다양성의 축이야말로 살바도르의 선교적 비전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살바도르는 다가오는 종말론적 새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역사의 지평 속에 있는 다(多)문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복음에 의해서 이 다(多)문화가 개변될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살바도르는 다 문화와 다원사회에 대한 성육신 모델에 의한 개변(改變)을 주장할 때, 복음의 통일성과 보편교회 속에서의 교파들의 정체성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다(多)문화의 기독교화를 논하는 맥락에서 살바도르는 타종교들 속에서 발견되는 성령의 열매들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발자취들을 언급하고, 구원의 한계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의 거대담론은 타종교와 불신자들을 결코 구원의 가능성으로부터 배제시키지 않는다. 이미 1927년 로잔의 복음이해가 신정통주의적 복음이해였고, 1928년 예루살렘 IMC 이래의 “하나님의 선교” 전통이 보편 구원론적 함의를 가지고 내려 왔으며, 1961년 뉴델리의 지틀러 이래로 창조세계 문제가 하나님 나라 개념과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 포함되는 바, 에큐메니즘은 타종교와 이데올로기들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을 결코 구원으로부터 배제시키지 않는다.

둘째로 살바도르는 인종, 성, 종족, 나이 등 한 사회 안에 있는 특정 집단들에 관련된, 문화의 구조적 요소들, 즉 "정체성"의 문제를 "공동체성"의 문제와 결부시켜 논한다. 살바도르는 인종, 성, 종족, 나이로 인한 소외를 극복하고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살바도르는 시장경제 원리의 지구화와 정보혁명의 지구화로 집약되는 지구화(globalization)야 말로 오늘날 "지구적 인종차별(global apartheid)을 초래했다고 본다. 즉, 가난하고 약한 나라와 민족과 종족들의 소외가 진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 다는 말이다. 여기에 더 하여 인류는 자연을 소외시킨 나머지, 생태계 파괴와 이상기온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살바도르는 교회로 하여금 진정한 종말론적 ‘샬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공동체 파괴현상들에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샬롬 공동체’가 파괴되는 징후들을 보여주는 포스트모던 문화현상들에서(벨, 제임슨, 데리다, 푸코, 리오타르, 보드리야르), 우리는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이 추구하는 "샬롬" 공동체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살바도르는 여러 가지 면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처하는 선교대회였다. 그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1) 포스트모더니즘은 다(多)문화와 다원사회, 그리고 다(多)가치(價値)의 사회를 논할 뿐, 통일성과 통전성 그리고 보편성을 거부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살바도르는 복음과 종말론적 소망이라고 하는 통일성과 교회의 보편성(Catholicity)을 말하면서도, 하나의 복음이 다 문화 속에 상황화 되어야 하는 것과, 개 교회 혹은 지역교회들의 다양한 선교적 사명을 말하고 있다. 즉, 살바도르는 하나의 종말론적 소망과 하나의 복음을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와 문화에 건설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2) 뿐만 아니라 살바도르는 1989-1990년 이래의 지구화(globalization)에 대처하고 있다. 살바도르는 시장경제의 지구화와 정보혁명의 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인종, 성, 종족, 나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및 종교적인 이유로 소외 혹은 주변화(Marginalization)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화해와 사랑의 복음으로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살바도르는 교회가 지구화로 인해 나타나는 지구촌의 고통을 함께 나눌 것을 말한다.³⁷⁾

12. 새로운 선교성명서를 향하여.³⁸⁾

1989-1990년 어간에 일어난 공산 동구권과 구소련 연방의 붕괴, 그리고 시장경제의 지구화 이후, 세계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선교성명서가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하라레 WCC(1998)는 선교성명서 “선교와 복음전도”(1882)를 결코 무효화시키지 않으면서, 1990년대와 21세기 세계상황에 더 걸 맞는 새로운 선교성명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 선교성명서 “오늘날 일치 가운데 선교와 복음전도”(Mission and Evangelism in Unity Today)는 1982년 이래의 변화된 세계정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82년 이래로 세계정세는 크게 변했다. 교회들은 새로운 선교도전들을 받고 있다. 이미 WCC는 두 차례에 걸쳐 세계선교 대회(CWME)를 열었다. 하나는 1989년 산 안토니오에서 였고, 다른 하나는 1996년 엘 살바도르에서 였다. 1991년 호주의 캔버라에서 열린 제7차 WCC총회 역시 여러 중요한 선교 이슈들을 제기했다. 여러 WCC 회원교회들은 새로운 세계상황과 새로운 선교통찰과 학습의 맥락에서 새로운 선교와 전도에 대한 성명서가 작성됨으로써, 교회들로 하여금 적절하고 의미 있는 선교 프락시스(praxis)로써 함께 응답하는 일을 도와 줄 것을 요청하였다(Mission and Evangelism in Unity Today, 4).

37) 이형기,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기독교신학」, pp. 381-389.

38) 본 선교성명서는 CWME가 그 작업을 완성하여 제10차 WCC 총회에서 인준을 받을 예정이다.

이 성명서는 오늘의 세계정세를 특징짓는 것들 가운데 “지구화”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고 있다.

오늘 날 선교적 맥락의 주된 측면은 지구화이다. 이것은 상당히 최근의 현상으로서 경제발전, 지구적 통신수단을 통한 인류사회의 변화 및 이에 따르는 새로운 단일문화(a new monoculture)와 일련의 관련 가치들을 대부분의 사회들에 부과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들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80년대 말의 정치적 변혁(공산 동구권 및 구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역자 주)은 이런 흐름들로 하여금 그 어떤 지구적 대응세력에 의해서도 방해받음이 없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도록 허락했다(Ibid., 18).

이어서 위 선교성명서는 “지구화”의 과정을 통해서 “포스트 모더니티”가 확산되고 있다고 본다.

지구화의 과정을 통해서 서방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티의 가치들이 지구전체를 뒤덮고 있다. 사람들의 정체성 그 자체가, 강력하게 유혹적이고 매혹적인 단일문화 및 이와 관련된 일련의 가치들의 용광로 속에서 희석되고 있고 약화되는 위험을 맞고 있다. 민족의 개념 그 자체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다.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 보다 개인주의를 선호한다. 종전까지만 해도 공적인 가치들로 역할 해 오던 전통적인 가치들이 오늘 날 사유화되고 있다. 심지어 종교까지도 단순히 사사로운 일로 취급된다. 개인의 경험에 이성과 지식과 이해를 대치한다. 사람들이 언어보다도 이미지들을 선호한다. 이 이미지들이 광고와 ‘사실들’ 및 생산품들을 증진시키거나 전달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과거나 미래는 중요하지 않고, 현재만이 강조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도록 권유를 받으며, 따라서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것을 마음 내키는 대로 선택한다(Ibid., 23).

바야흐로 본 문서는 위와 같은 “지구화”의 상황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가 요청된다며, 여섯 가지로 “우리 시대의 선교 패러다임”을 선언하였다. 1. 교회는 삶의 충만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2.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3. 교회는 복음을 각 문화 속에 성육신시키도록 부름을 받았다. 4. 교회는 증언과 대화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5. 복음 진리를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6. 교회는 연합하여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선교’(Mission)와 ‘복음전도’(Evangelism)의 차이는 무엇인가? 대체로 전자는 이상에서 언급한 6가지 ‘우리 시대의 선교 패러다임’을 말하고, 후자는 개인들에게 복음을 말로 전하여 그들을 회심시

키고 제자의 도를 따라 살게 하는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에 유의하자.

‘선교’란 하나의 통전적인 이해를 포함한다. 그것은 첫째로 케리그마(kerygma), 다이코니아(diakonia), 기도와 예배·예전(leithurgia), 그리고 기독교적 삶을 통한 매일 매일의 증언(martyria)에 의한 복음의 기쁜 소식의 선포와 나눔이요, 둘째로 사람들을 하나님 및 인간들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세워주고 강하게 하는 가르침이요, 셋째로 삶을 온전케 하는 치유와 코이노니아를 향한 화해인데, 코이노니아란 하나님과, 사람들과, 그리고 창조세계 전체와의 코이노니아를 말한다.

‘복음전도’란 선교의 상이한 차원들을 배제하지 않지만 그것의 초점은 복음에 대한 명시적이고 의도적인 구두적인 복음전도로서, 개인을 회심으로 초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제자의 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다.(Introduction, 7. a and b.)

13. 아테네 CWME, 2005

본 총회의 전체주제가 “치유와 화해”로 정해 진 것은 2001년이였다. 본 총회는 예배예전을 배경으로 하면서, 성령론을 강조하는 가운데 “치유와 화해”란 주제를 다루었다. 그래서 첫 전체 회원총회에서 김(Kirsteen Kim)이 성령론에 대한 글을 읽었고, 두 번째 전체 회원총회에서는 “장애인”을 치유와 화해의 공동체 안으로 끌어 앉는 치유문제(Samuel Kabue)(172 이하)와 “포스트모더니티 속에 있는 갈등의 치유”문제를 다루었다. 이 두 문제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치유하는 공동체들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번 CWME의 전체주제 안에 포함되는 것이기도 하다.

포스트모더니티의 문제점에 대하여 동방정교회의 신학자(Athanasios N. Papathanasiou)가 발표하였다. 그는 단일문화로 인도하는 글로벌화(“거대담론”)와 문화들과 맥락들의 다양성과 다름, 그리고 자율성과 자족성만이 강조되는 포스트모더니티의 상황에서 “치유와 화해의 공동체”를 논구하였다(179 이하).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과 공동체로 보면서 인류와 창조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모두 이 하나님의 생명과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구원으로 보아, 글로벌화와 포스트모더니티의 문제를 풀었다(179-180).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은 결코 우리 조상들의 죄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미래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며, 인간과 만유가 새롭게 변형되어 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한다(182).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교회 안으로 변형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교회란 삼위일체 하나님

의 관계적 실존 모드를 나타내고,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183).

세 번째 전체 회원총회에서는 “선교와 폭력: 평화의 문화건설과 폭력극복 10년 운동”(DOV, 2001-2010)에 대하여 발표되었다(Pepine Iosua). 이 글은 인종주의, 식민주의, 배제, 생태계 파괴로 인한 희생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와 여성과 HIV/AIDS를 가진 자들에 대한 치유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치유하는 공동체들로 부름을 받는다. 모든 민족들과 소수 민족들, 다양한 전통들과 교파들, 남자들과 여자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젊은이들과 노인들,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그렇다 창조세계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화해되어야 한다. 우리는 메시아적 전망 안에서 우리를 자신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의 치유하는 코이노니아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이다.”(188)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슈를 포함하여 세 사람 정도의 지역별 폭력 피해 이야기와 그것의 해결책도 제시되었다.

네 번째 발표는 28세의 한 볼리비아 여성(Gracia Violeta Ross)의 간증에 대한 것이다. 이 글은 에이즈 양성으로 판정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삶의 스타일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죄를 받아 - 비록 아직도 그 병을 갖고 있으나 -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하는 증언을 실었다. 그녀는 에이즈 양성 환자가 된 후 자신의 삶이 실제로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총회의 모든 회원들은 “고도로 근대화된 사회들과 가난과 기본적인 보건의 결핍으로 황폐화된 사람들 사이에서 몸과 영혼의 치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노크하고 있지만 교회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치유란 반듯이 육체적 완쾌를 의미하지 않는다. 교회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상호간에 용납되었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느끼는 포용적 공동체들이 되도록 부름을 받는다.”(203)

끝으로 “화해”에 대한 두 글이 전체 회원총회에서 발표되었다. 하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남태평양 도서들의 피해에 대한 것이고(Pepine Iosua), 다른 하나는 화해에 대한 신학적인 주장을 펼친 글(Robert Schreiter)이다(이와 같은 화해의 신학 앞에 팔레스타인 현지사람이 팔레스타인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자는 남태평양 사람들의 창조세계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화해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선교에 대한 이해를 논하였으니, 기후변화로 인한 남태평양의 피해들을 떠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찬양을 위한 것이다. 창조세계는 필수불가결성 때문에 창조되었고 창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행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권세의 빛들을 보여주고 있다.

창세기에서 발견되는 창조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과 창조세계 사이의 하나의 이상적인 파트너십 패턴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파트너십은 오늘날 생태계로 알려진 불가피한 상호 의존성을 그려 보여주고 그것을 신빙성 있게 한다. 예수님은 창조세계의 가시적인 기본 원인이시니,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부패하였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파멸로부터 구출해 내기 위하여 파송되셨다. 여기에서 사용된 세상이란 단어는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적인 세계를 포함한다.

- 중략 -

이 세계는 우리의 글로벌 집이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의 상호 의존적인 전체로서 실존한다. 때문에 인류는 우리의 파괴된 세계에 대한 화해와 치유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기대하셨던바, 그 자신의 창조세계에 의하여 온전히 영화롭게 되시게 하는 길일 것이다. ... (204)

후자(화해)에 대하여 소개해 보자. 슈라이어는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화해”라고 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화해’ 개념이 ‘선교’에 도입된 것은 2004년에 출판된 『맥락 속에서 항수』(Stephen Bevans and Roger Schroeder)에서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1992년 데이비드 보쉬의 『변혁시키는 선교』에서도 그것이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다. “그것은 폭력적 과거와의 화해, 적대감을 청산할 필요, 깨어지고 조각난 사회들을 재건하기” 등에 대한 것이라며, 화해의 신학을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안한다(213). 슈라이어는 “화해”를 “복음의 핵심”으로 본다.

그는 “화해”란 말이 신약성서에서 14번 사용되었고,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성경은 화해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로 바울의 글에 나타난 화해개념에 집중한다(214). 그는 그것을 셋으로 본다. 하나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류를 자신에게 화해시키셨다(롬 5:1-11)며, 화해된 기독교인들은 수평적인 차원의 모든 화해문제들을 풀어가자고 하는 것이고, 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화해로 예증되는바 사회 안에서 개별 인간들과 집단 간의 화해(엡 2:12-20)요, 셋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만유와 모든 사람들을 화해시키시어(엡 1:10),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모든 창조세계를 통하여 평화가 통치하게 하신다(골 1:20). 이와 같은 화해는 종종 우주적인 화해라 불리고 마지막 때에 실현될 창조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이다.”(214)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소개한 2005년 아테네 CWME의 총 주제인 “치유와 화해”는 ‘복음전도’(evangelism)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체로 교회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참여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복음전도’에 대한 것은 이미 1990년대 이후의 에큐메니칼 선교신학 지침서에 해당하는 “오늘날 일치 가운데 선교와 복음전도”(Mission and Evangelism in Unity Today, 2000)에서 언급되었다.

맺는 말

WCC 중심의 3흐름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하나의 에큐메니칼 운동이다.

2013년 부산 WCC 총회는 우리 한국 개신교에게 엄청난 의미를 안겨다 줄 것이다. 장로교만 하더라도 100개 이상의 군소교단으로 분열되어 있는 한국 개신교의 분열상황은 교회가 사회와 국가를 향하여 일치된 예언자적 목소리를 발할 수 없게 하고, 사회와 국가에 대한 증언과 행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개신교들이 로마가톨릭교회와 동방정교회와의 에큐메니칼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기에 더하여 그 동안 우리 한국은 민주화와 평화를 향한 발자취를 많이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무한정쟁을 통한 무한성장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local) 빈익빈 부익부 및 환경파괴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한복음 17:21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는 교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룸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골로새서 1:20절과 에베소서 1:10절에 따르면, 장차 모든 교파들과 종교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사건을 통한 살롬의 생명공동체가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것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신앙과 직제’ 운동이요, (이것에 근거한) ‘삶과 봉사’ 운동이요, 나아가서 ‘세계선교와 복음전도’ 운동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현하는 과정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과정일 것이다. 놀랍게도 위의 세 성경 구절은 WCC를 통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모든 것을 잘 담아내고 있다 하겠다.

WCC 제10차 부산총회(2013)의 의의

박성원 목사(영남신학대학교 교수, 실천신학, WCC 중앙위원)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General Assembly)가 2013년 한국 부산에서 열린다. WCC는 무엇이며 WCC총회는 무엇인가? WCC는 왜 생겼는가? 한국교회 일부에서는 WCC총회를 반대하는데 왜 그런가? 한국교회는 WCC총회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WCC총회는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국교회는 WCC총회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 이 글은 WCC와 WCC총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1. WCC란 무엇인가?

에큐메니칼이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만물”(All Inhabitants on Earth)을 뜻하는 ‘오이쿠메네’(οἰκουμένη)란 말에서 왔다. 이 말에서 경제를 가리키는 Economia란 말이 나왔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는 법칙이란 뜻이다. 그리고 또한 생태를 가리키는 Ecologia란 말이 왔다. 이는 하나님의 집의 논리 혹은 이치란 뜻이다. WCC는 이 비전을 가지고 세계의 흩어진 모든 교회의 일치를 도모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대표적 기구이다. WCC는 2010년 1월 현재 전 세계 140개국의 349개의 개신교회와 정교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여기에 속한 기독교인수가 약 5억 8천만에 달하는 세계적 기독교연합기구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직 WCC의 정식 회원교회는 아니지만 WCC의 한 흐름인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위원회에는 정식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WCC는 명실 공히 전 세계 기독교를 망라한 기독교의 유엔이라고 할 수 있다.

WCC는 스위스 제네바 에큐메니칼 센터 (150, route de Ferney 1211 Geneva 2, Switzerland, <http://www.oikoumene.org>) 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WCC는 지난 60여 년 동안 시대적 과제에 따라 여러 가지 부서를 형성했으나 대체

로 다음과 같은 다섯 지류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행하고 있다.

1. 신앙과 직제 (Faith and Order)
2. 선교와 일치 (Mission and Unity)
3. 봉사와 협력 (Diakonia and Cooperation)
4. 사회와 국제문제 (Social Witness and International Affairs)
5. 신학교육 (Theological Education)

2. WCC 총회는 어떤 교회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나 사도행전 2:44-47의 일치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오래가지 못했다. 사도행전 5장부터 일련의 교회분열의 요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기적 마음(행5),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행 6장), 스테반 순교이후의 반대파의 조직적 외압(행 7-8장), 복음의 전파에 따른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행 10-11장), 이로 인한 사도들의 신학적 견해차이 등 내적, 외적 요인으로 교회는 이미 상당한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었다. 예루살렘 회의(행 15:1-29)는 바로 이런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모인 최초의 에큐메니칼 공의회였다. 흔히들 에큐메니칼운동은 20세기에 처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에큐메니칼운동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이견이 있을 때마다 대표들이 함께 모여 공의회(Ecumenical Council)를 개최하고 ‘이해의 조정’을 기하고 ‘교회의 복음 증언의 방향’을 결정해왔다. 니케아회의, 칼케돈회의, 에베소회의, 콘스탄티노플회의들이 대표적 에큐메니칼 공의회들이고 동서방교회가 분열된 이후 로마 가톨릭교회의 공의회는 라테란공의회로부터 1962년 제2차 바티칸공의회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WCC총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과 단성론의 논쟁이 쟁점인 칼케돈 회의 (451년)를 기점으로 동서방교회가 분열한 이후 부분적이긴 하지만 동서방 교회가 모두 참여하고 개신교회전체가 참여하는 공의회의 전통을 민주적 형식으로 진행하는 근대교회 공의회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10차 WCC총회는 이런 교회사적 측면에서 볼 때 예루살렘에서 열린 첫 에큐메니칼공의회의 전통을 21세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는 것이다. 특별히 부산총회는 WCC뿐만 아니라 장로교회와 루터교회의 세계연합체인 세계개혁신

회연맹(WARC)과 루터교세계연맹(LWF)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총회로 모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어서 부산총회는 세계교회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며 한국교회는 이런 역사적 정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WCC총회가 고대교회의 공의회와 다른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고대교회 공의회는 주로 교리적인 이견에 대한 조정과 공식적인 입장정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근대의 에큐메니칼 총회는 교회 일치와 교리의 공동이해를 비롯해 오늘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복음의 공동증언의 방향을 함께 정하고 공동의 선교, 공동의 봉사를 다짐하는 일을 강조한다. 그리고 세상의 일치와 정의, 평화를 위한 교회적 입장을 천명한다. 둘째 차이점은 고대교회공의회는 감독 등 성직자를 중심으로 한 대표들만 참여했지만 WCC총회는 성직자, 평신도, 여성, 청년 등으로 민주적 교회총대가 구성된다. 부산총회는 공식총대를 포함하여 약 7천여 명의 세계교회 인사들이 참여하여 이 시대를 향한 기독교의 복음증언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독교의 신앙축제가 될 것이다.

3. WCC 형성에서 총회에 이르기까지

WCC의 공식 창설은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가진 창립총회였다. 그러나 암스테르담 창립총회가 있기까지 기나긴 여정이 있었다. 근대 세계교회의 일치운동은 영국침례교회 인도선교사 윌리엄 케리가 1810년에 세계선교사들이 10년에 한번은 함께 만날 필요를 제기함으로 시작되었는데 그의 꿈은 그로부터 100년 뒤인 1910년 에딘버러에서 열린 국제선교대회(World Missionary Conference)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에딘버러 국제선교대회(WMC)가 근대 에큐메니칼 운동과 WCC의 모태이다.

이후 1919년 1월 동방정교회 총회에서 세계 제1차 대전 이후 국제정치권에서 국제연맹(*κοινωνία των εθνών*, Koinonia ton Ethnon)이 구성되는 것을 보고 교회도 교회연맹(*κοινωνία των εκκλησιών*, Koinonia ton Ekklesion)을 구성하자고 제안하면서 본격적인 WCC 창설의 여명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런 요구는 이미 시작된 “선교와 일치”지류에 이어 이후 이어진 “삶과 노동” 지류, “신앙과 직제”지류, 1780년에 로버트 레이크스(Robert Raikes)에 의해 제창된 주일학교운동으로 시작된 “신학교육”지류 등 여러 지류들이 합해져 거대한 세계교회일치 운동의 강물로 모아지기 시작했다. 이후 1938년에 WCC 현장이 초안되고 1941년에 창설될 예정이었으나 세계 제2차 대전 관계로 연기되어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창립하게 된 것이다.

4. WCC에 대한 오해와 이해

WCC에 대한 한국교회의 이해는 다양하다. 예장통합, 기장, 감리교회, 구세군, 복음교회, 정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심지어 최근에는 오순절 교회도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이나 WCC에 대해 반대하는 교단들도 있다.

한국교회 일부의 WCC에 대한 오해에는 미국의 극우적 반공 주의자이자 근본주의자인 맥킨 타이어의 영향 아래 WCC를 용공주의, 자유주의로 몰아세운 것과 7,80년대 군사정권아래 WCC가 한국의 인권과 민주화에 대한 지원을 한 것을 보고 군사정부가 WCC는 사회선교에만 관심을 두는 정치집단이라는 일방적 매도의 영향이 큰 작용을 한 것 같다. 최근에 와서는 종교 간의 대화 때문에 다원주의라고 몰아세우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비난이 정당한가는 차분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어떤 교회나 기관의 입장을 확인할 때는 그 기관의 공식입장에 근거해야 한다. 한 교단 안에 다양한 신학적 주장을 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그 교단의 공식적 입장은 교단적 차원에서 표명한 공식입장에 근거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른 이해를 위해서 WCC는 정치참여를 강조하는 진보적 신학, 종교다원주의, 용공주의, 전도와 교회성장은 등한시하는 자유주의 운동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주장들에 대해 살펴보자.

1) “WCC의 신앙고백이 의심스럽다.” 이 주장은 사실인가?

이는 WCC의 기본입장을 모르는 견해이다. WCC 헌장 1조에는 “성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주로 고백하며,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의 교제(Koinonia)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WCC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위에 굳게 선 세계교회 연합체이다. WCC는 같은 헌장에서 ‘한 믿음, 한 성례전적 교제 안에서의 가시적 일치’, ‘예배와 공동생활’, ‘세상을 향해 함께 증언하고 봉사함’으로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과 기능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WCC가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곧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17:21)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성취하기 위한 세계교회의 공동 노력이다.

2) “WCC는 선교에는 관심이 없다.” 이 주장은 사실인가?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위 현장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한다는 것이 곧 선교라는 사실도 명시되어 있지만 1910년 에딘버러에서 선교와 일치를 위해 전 세계교회가 함께 모인 세계선교대회(WMC)가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직접적 배경인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지금도 WCC안에서 ‘선교와 전도 일치국’의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3) “WCC는 용공이다.” 이 주장은 타당한가?

시대착오적 말이다. WCC는 ‘교회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념도 지향한 적이 없다. 자본주의도 지지한 적 없고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지지한 적이 없다. WCC는 그 현장에서 밝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동의 신앙고백 위에 서 있다. 중요한 것은 WCC는 냉전시대 때 공산체제 속에 있는 교회도 회원교회로 받아들였고 함께 교제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떤 정치체제 속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이기 때문이었다. 더욱 중요한 일은 공산체제아래 있던 교회들의 보존을 위해 WCC가 엄청나게 노력했고 그 노력으로 공산권이 무너졌을 때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었다. 북한 교회가 세계교회와 연결되게 한데도 WCC가 도잔소 과정을 통해 정치적 장벽을 무릅쓰고 교제를 시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약 WCC가 용공이란 주장을 한다면 지금 북한교회와 만나며 교제하며 지원하는 한국교회는 모두 용공이다. 한국교회는 북한교회를 남한교회와 연결해 준 WCC에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4) “WCC는 사회선교에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은 사실인가?

WCC를 전체적으로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WCC가 사회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WCC에는 선교와 전도, 기독교교육 이외에 거대한 양대 산맥이 있다. 하나는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 흐름으로서 신앙과 일치를 강조하는 면이고 다른 하나는 ‘삶과 일’(Life and Work)의 흐름으로서 복음의 사회적 증언을 강조하는 측면이다. 한국에는 WCC가 7, 80년대의 사회상황과 관련하여 인권과 민주화 등에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WCC의 사회선교적 측면만 부각되어 WCC는 사회선교에만 관심이 있다고 알려진 것 같다. 그러나 사실은 이 두 흐름이 팽팽하게 공존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교회가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사이에서 갈등했듯이 이 갈등과 견제가 지금도 WCC속에 상존하고 있다. 또한 사회선교에도 두 흐름이 존재한다. 하나는 인권이나 민주화와 같은 정치적 증언이고 이것과 대등하게 큰 또 하나의 흐름은 봉사(Diakonia)이다. WCC의 사회선교에는 봉사의 면도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선교의 신학적 근거인데 사회선교도 결국 일치의 측면에서 한다는 점이다. 이번 WCC 총회를 계기로 한국교회는 WCC의 신앙과 영

성, 선교와 봉사 부분에도 이해의 폭을 넓혀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양쪽 날개 모두를 통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5) “WCC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는 올바른 이해인가?

솔직히 말하면 WCC의 신학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WCC는 회원교회들의 다양한 신학이 서로 대화하고 조정하고 공통의 신학적 견해를 찾아가는 문자 그대로 ‘Council’, 즉 ‘협의체’이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한다면 WCC 고유의 신학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WCC안에는 여러 신학노선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자유주의 신학도 존재하고 엄청나게 보수주의적 신학도 존재한다. 정교회의 신학은 한국의 보수신학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이고 회원교회 중에는 복음주의교회, 성령운동인 오순절 교회도 상당히 참여하고 있다. WCC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 일변도로 비춰진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우리나라에는 WCC가 주로 인권이나 민주화 등 사회적 증언 쪽으로만 알려져서 그렇게 비춰진 면이 있다.

6) “WCC는 다원주의이다.” 여기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WCC는 종교 간의 교리를 섞은 적이 한 번도 없다. WCC의 궁극적 목적이 분열된 교회가 구조적 일치를 이루어 세상에 하나의 교회를 표방하는 가시적 일치인데 현재로는 이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WCC 밖에 있는 로마 가톨릭교회도 그렇지만 WCC안에 있는 양대 교회, 즉 정교회와 개신교회도 결코 서로의 교리를 섞을 수 없다는 입장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구조적 일치는 전혀 거론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하물며 종교 간의 교리를 섞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나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은 분명히 한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천도교, 불교, 기독교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함께 독립선언을 했듯이 정의와 평화, 그리고 인류의 화해를 위한 세계적 과제 때문에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종교 간의 협력과 다원주의는 다르다. 지금까지 WCC에는 공산권의 교회까지도 함께 참여하니 용공적이란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삶의 존엄성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 사회 참여적이란 오해를 하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종교와 대화하다 보니 다원주의라는 오해를 하는 것이다. 이런 오해들을 그야 말로 오해이며 모두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WCC안에는 엄청나게 보수적인 교회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5. WCC 총회는 어떻게 진행되나?

WCC총회는 7년 혹은 8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세계교회협의회 최고 치리구조로서 가히 ‘기독교올림픽’이라 할 수 있다. WCC총회는 세계의 다양한 전통의 교회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시대의 공동의 선교적 사명을 분별하고 공동의 증언과 공동의 봉사 과제를 설정하는 전 세계 교회의 신앙축제(Festival of Faith)이다. 그리고 다음 총회 때까지 진행할 정책을 결정하고 총회를 대표해서 이를 집행할 150명 규모의 중앙위원회(Central Committee)를 구성한다.

흔히들 ‘에큐메니칼 회의’ 하면 신학토론과 정책의 결정 토의를 연상하는데 사실 에큐메니칼 총회의 핵심은 예배이다. 성례전적 일치가 에큐메니칼 운동의 궁극적 목표이므로 함께 기도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따라서 WCC 총회의 반은 예배와 성경공부이고 나머지 반이 신학토론과 정책결정을 하는 회의이다.

WCC 총회의 일과는 통상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오전 8:30부터 1시간 진행되는 아침예배로 시작하고 아침예배가 끝나면 이어 1시간가량의 그룹별 성경공부를 한다. 그리고 휴식 후 첫 번째 회의가 시작된다. 점심시간 후에는 교회별로 기도회를 드린다든지 또는 여러 이슈 그룹 모임에 참석한다. 그리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 오후 6:30부터 30여분동안 드리는 저녁기도로 하루일과를 마친다.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공식총대의 회의 이외에도 현 세계의 다양한 이슈를 토론하는 장외프로그램이 진행된다. WCC 총회는 전통적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국가 문화 속에서 대중이 모여 함께 삶을 나누는 공간을 의미하는 틀로 총회 이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테면 8차 총회가 열렸던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는 “파다레” (Padare), 제9차 총회가 열렸던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에서는 “무치룽” (Muchirao)등의 개념이 그것이다. 한국에서는 “마당”이 그 개념일 것이다. 이 마당에는 각각 부스를 만들고 세계 모든 이슈들을 가지고 와서 홍보하고 나누는 일을 한다. 방문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WCC총회의 예배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고 미리 등록하면 공식총대만 참여하는 회의를 제외한 모든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총회 전에 청년대회, 여성대회 등 총회사전 행사(Pre-Council Events)도 가진다. 또한 총회를 초청하는 지역교회와의 교제를 위해서 총회 전후 현장견학 프로그램과 총회 기간 중 주일에 총대가 흩어져 개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는 기회도 있다.

6. WCC총회가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

“기독교선교 역사상 선교 받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전환된 것은 한국교회가 유일합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명실 공히 받는 교회(Receiving Church)에서 주는 교회(Giving Church)가 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교회가 WCC 총회를 유치한데 대해 WCC 총무 사무엘 코비아 (Samuel Kobia)박사가 첫 번째 의미로 언급한 말이다. 한국교회는 이미 받는 교회로부터 주는 교회로, 선교받은 교회(missioned church)에서 선교하는 교회(missioning church)로 전환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은 세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알려져 있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알려져 있다. WCC총회는 이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는 이제 세계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적 위치에 서게 된다. 이는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재정적으로 강한 교회라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영성과 신학 모든 면에서 지도적 위치에 처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서구신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21세기 기독교신학을 제시할 책임도 가지고 있다. WCC 총회는 한국교회를 세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한국교회의 영성, 선교, 섬김, 정의, 평화, 생명목회를 세계교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WCC 총회를 그들의 신앙축제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세계교회와 함께 하는 우리의 신앙축제와 총체적 선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7. 한국교회는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WCC는 10차 총회 장소로 한국과 시리아정교회의 초청을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했다. 지금까지 WCC는 한 번도 정교회 지역에서 총회를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결정한 데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이유들이 있다.

1. 한국교회는 강력한 영성과 선교의 동력을 가진 젊은 교회로서 새롭게 부상하는 미래형 교회이다. (시리아의 교회가 전통에 기반을 둔 과거 지향적 교회라는 개념에 대비)

2. 한국교회는 복음주의 교회와 오순절교회가 공존하는 교회로서 이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심화와 확대를 지향하는 WCC 정책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세계의 많은 전통교회는 오순절 교회의 영향으로 심각한 대립적 관계 속에 있다. 한국교회 안에서는 전통교회와 오순절교회가 서로 정체성을 지니면서도 서로의 장점을 수용하는 융합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아주 바람직하다.)

3. WCC 한국총회는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WCC의 지속적인 지원을 구체화하는 의미가 있다. (WCC는 한국의 통일의 과정에 중립적 입장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4.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타종교와 평화로운 공존과 협력을 해 오고 있으므로 종교 간의 평화를 중요한 관심사로 가지고 있는 WCC는 이를 한국에서 배우려는 의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종교 간의 갈등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는 종교 간의 평화와 협력이 절실한 문제이다.)

한국교회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부산에 찾아오는 WCC총회를 위해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나눌 여러 가지 큰 선물이 있다고 생각한다.

1) 한국교회의 강력한 영성이다.

한국교회의 영성은 세계교회에서 독특하다. 한국교회는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말씀 위에 굳게 서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선교와 봉사는 인간의 자선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사업에의 참여라고 생각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영성을 세계교회와 나눌 필요가 있다.

2) 한국교회의 강력한 선교이다.

선교역사상 선교를 받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전환된 적이 없다. 한국교회만이 유일한 경우이다. 지금 세계교회는 선교의 열정을 잃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니 선교의 능력 자체가 상실되거나 능력부족의 교회가 대부분인데 한국교회는 선교의 능력과 열정이 넘치는 교회이다. 다만 이 선교의 열정과 능력을 개 교회적으로 행하지 않고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한다면 21세기 세계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한국교회 안에 있다.

3) 한국교회의 봉사정신이다.

한국교회의 봉사는 그 규모가 서구교회만큼은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봉사는 깊은 영성에 뿌리를 둔 순발력이 뛰어나고 헌신적인 봉사이다. 예를 들면 IMF위기 이후에 노숙자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태안반도 기름 제거 봉사라든지, 이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돌보는 일이라든지, 북한동포를 지원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순발력 있고 헌신적인 봉사를 계속해 오고 있다. 이런 봉사정신과 방법을 세계교회와 나눌 수 있다.

4) 한국교회의 민족교회와 사회적 증언의 경험이다.

한국교회는 민족의 고난과 함께 걸어온 교회이다. 한국교회는 그 총체적 선교(holistic mission)의 경험, 즉 봉건사회로부터의 이행에서 사회개혁에 일조한 것이라든지, 일제침탈과 식민통치과정에서 독립운동의 중심에 선 경험이든지, 독재체제 하에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한 것이라든지, 터부시되는 통일논의의 물꼬를 튼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민족의 고난과 함께 걸어온 경험이다. 이 또한 세계교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다.

5) 한국교회의 헌신정신과 자립정신이다.

한국교회는 특이하게 자립적인 교회이다. 대외의존에 매달리기 보다는 가능하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해 내려고 하는 교회이다. 한국교회가 교회건축을 할 때 보면 온 교인이 헌금하고 어떤 교인은 집문서를 내어놓고 하면서까지 자신의 교회를 스스로 건축한다. 이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지역, 남미 지역의 교회들에게 아주 큰 용기와 전략적 사고를 던져줄 수 있는 장점이다.

이 외에도 한국교회의 평화통일운동, 다문화선교와 목회경험, 생명운동, 청년운동, 여성운동 등 다양한 은사들을 나눌 수 있다.

한국교회는 장점만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다. 단점도 많다. 한국교회의 단점 중에 가장 심각한 단점은 일치의 영성과 협력의 정신이 부족한 점이다. 만약 이 점만 고친다면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앞에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에 충분하다.

8. 한국교회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한국교회가 WCC총회를 유치하면서 몇 가지 준비할 부분이 있다.

가. 가치차원의 준비

1. WCC 총회를 통해 세계의 교회와 연결됨으로 교회의 보편성(Universality of the Church)을 이루는 교회론적 인식과 신학적 정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2. 한국교회가 WCC총회를 유치할 지도적 위치의 교회란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한번 통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선교된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전환될 만큼 거기에 걸맞은 성숙한 위상을 인식하고 갖출 필요가 있다.
3. 한국교회의 선교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의 봉사는 상당히 겸손하나 한국교회의 선교는 아주 패권적이다. 이제 한국교회의 선교를 에큐메니칼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4. WCC를 비롯하여 세계교회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WCC에 대한 오해도 극복해야 하고 편견도 극복해야 하며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세계교회, 특히 전통이 다른 교회에 대한 관용적이고 협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5. WCC총회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나. 실질적 차원의 준비

1. 금명간 WCC 제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다. 이 준비위원회는 WCC 가맹교단인 4개 교단, 즉 예장통합, 기장, 감리교, 성공회를 비롯하여 복음주의 권 교회, 오순절 교회권 등 한국교회 전체를 망라하고 로마 가톨릭교회까지 참여하는 범 기독교 교회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2. 한국 준비위원회는 교회뿐 아니라 정부, 사회, 타종교까지도 서로 협력하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적이고 민족적이고 범사회적인 틀을 가져야 한다.
3. 북한교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4. 중국교회와 대만 그리고 일본교회 등 동북아시아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좀 더 광역적으로 아시아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는 것이 좋다.
5. 부산지역에서는 부산이 총회의 실질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전국적 차원의 준비위원회와 더불어 부산지역의 준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한국 준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준비에 참여해야 한다.

다. 개교회적 차원의 준비와 참여

1. 에큐메니칼 운동은 WCC의 전유물이 아니다. 에큐메니즘은 “하나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이다. 에큐메니칼 비전은 성서적 비전이다. WCC는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이 시대의 교회의 구조의 하나이다. 따라서 개교회는 WCC총회를 계기로 “하나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비전, 성서적 메시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령

을 다시 새기는 차원에서 성경공부, 예배, 특별 강연 등을 통해 에큐메니즘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

2. 칼빈은 하나의 교회를 ‘함께 호흡한다’는 의미의 “Pia Conspiritio”란 말로 표현했다. 한국교회는 WCC 총회를 통해 세계교회와 함께 호흡하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3. 개 교회가 세계교회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 여러 나라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 신앙고백, 찬송, 오늘의 선교와 봉사의 모습을 자세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

4. WCC총회에는 물론 총대들만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앞서 말한 대로 예배, 이슈마당, 자원봉사, 방문자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열린 프로그램과 기회가 많이 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총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고 세계교회를 경험할 수 있다.

맺는 말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에큐메니칼 운동을 해 온 교회이다. 과거에는 ‘장.감.성.’ 즉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가 늘 함께 복음을 증거 해 온 전통이 있다. 장로교회의 경우는 1907년 독노회 구성 시, 한국교회 신앙고백 채택, 7인의 한국인 목사 안수와 더불어 세계개혁신교회연맹(WARC)에 가입했으므로 최초부터 에큐메니칼 교회임을 천명한 셈이다. 한국교회는 이제 WCC총회를 준비하고 주관하는 경험을 통해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세계 교회가 하나 되는데 큰 기여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이해를 한국교회라는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서 세계적, 우주적 지평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WCC총회가 그들의 잔치가 아니라 그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One Universal Church of Jesus Christ)의 신앙증언과 신앙축제가 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가 한국의 부산에서 개최되는 의미³⁹⁾

임희국 목사(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신학)

1. 2013년 WCC 제 10차 부산 총회는 시대적 요청

세계교회협의회(WCC) 제 10차 총회의 개최장소가 대한민국 부산의 벅스코(BEXCO)로 확정되었다. 오늘의 세계화(global) 시대는 ‘세계 속의 한국’과 ‘한국 속의 세계’를 동시에 상정하게 하는데, 이러한 때에 2013년도의 WCC 부산 총회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전제할 수 있다. 한국의 부산에서 WCC 총회가 열린다는 것은 적어도 세계 110개국, 349개 교회/교단, 5억 6000만여 그리스도인의 눈과 귀와 발걸음이 한국과 부산으로 집중될 것이다. 항구 도시 부산에서 전 세계 오대양 육대주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교제를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 시민사회의 성장을 동시에 일구어냈고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고 있기에, 한국이 국제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또한 세계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교회부흥을 이룬 한국 교회이기에 이 교회가 세계 교회를 섬기는 시대적 과제를 우리는 의식한다.

2. 1950년대 한국 장로교회에 대한 정확한 기억과 바른 인식을

2009년 9월 16일 서울 잠실에서 열린 'WCC총회 유치감사예배'에 교계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고,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의장 등 3부 요인들도 참석했으며, 대통령이 영상축전을 보냈다. 그러나 WCC총회 유치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목소리도

39) 이 글은 ‘사단법인 21세기 포럼’이 개최한 포럼(2010년 4월 15일(목),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발제한 원고를 조금 수정한 것이다. 포럼의 제목이 “WCC, 어떻게 볼 것인가?”였다.

그 즈음에 쏟아져 나왔다. 반대 여론이 연말(年末)에 더욱 거세어졌다. WCC 부산 총회의 개최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교계의 입장을 두 가지 점으로 압축할 수 있다. 1) 50여년 전의 경험, 즉 과거 1950년대 장로교회 교단분열의 아픔이 기억 속으로 되살아난다는 것이다. 그 당시의 총회가 WCC에 대한 찬반으로 양분되어 다투다가 교단이 1959년도에 ‘합동’과 ‘통합’으로 분열되었다는 기억이다. 교단분열의 아픈 기억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기에 WCC에 대하여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 그 이후로도 WCC에 대한 신학적 비판이 일관되게 전승되어 왔다. 비판자들은 WCC의 신학노선이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이며 이것은 성경과 배치되는 인본주의”라고 비판해 왔으며 더욱이 ‘교회론’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러한 비판을 지지하는 이들은 WCC의 신학이 ‘(보수적) 개혁교회의 성경중심 신학정체성’과 대립한다고 보았다.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negative)인 관점에 바탕을 둔 기억과 입장을 겹쳐히 경청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정확한 기억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1959년에 교단이 분열된 까닭과 과정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본다. 그때 어느 편이 정말 옳았는지 지금 와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뜻은 결코 아니며, 다만 당시의 역사적 실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혹시라도 왜곡되고 오해된 내용이 있다면 이것을 바르게 잡고, 또 그때 받은 상처가 아직도 아픔으로 남아 있다면 서로서로 감싸주며 함께 치유하자는 의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1950년대 WCC에 대한 한국 장로교회의 논의는, 당시의 교단신문인 <기독교공보>를 검토해보면, 195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5월 24일자 <기독교공보>에는 “에큐메니칼에 대한 총회(의) 기본노선(을) 총회 정치부가 (담화문을 통해) 해명”했다는 기사가 있다. 이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는 바는, 이때 교단의 총회 안에서 WCC에 대한 찬반논쟁이 활발했다는 점이다. 이 시점의 총회는 그 당시 두 달 뒤에 열리는 WCC 제 2차 총회(1954년 미국 에반스톤)에 총대를 파송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였다. 이러한 때에 WCC에 대한 찬반논쟁이 격화되었는데, 논쟁의 핵심은 WCC가 “전 교파를 합동하는 (초대형) 단일교회를 목표”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그러자 총회 정치부는 담화를 통하여 “WCC의 근본정신은 각 교파의 신조통일을 의미함이 아니요 각자의 신조를 존중하면서 연합 사업을 함으로써 각 교파의 친선과 사업협동을 도모함에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들 총회에서 대표를 파송하는 것은 우리가 고립주의를 택하지 않는 증거요, 또 성경유오설과 에큐메니칼 거부를 건의하기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이간 붙이기 좋아하는 무리들의 선전이다. 우리 총회의 기본 노선은 신조신경을 단일화시켜 교파를 초월하려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거부한다는 것이다. (...) 에큐메니칼 운동을 신조까지 단일화 시키는 교회통일운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들의 견해인 것이다.”(〈기독교공보〉, (1954.5. 24)) 해명의 요지는 WCC가 단일교회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교회/교단들의 친선과 사업협동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는바 “WCC가 단일교회를 목표로 한다.”는 일부 교계 인사들의 주장을 해소시켜 주는 증언(답화문)이라고 본다.

이와 함께 우리는 1954년 그 당시 장로교회의 교단분위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교단 지도자들은 모든 힘을 다 기울여 교단의 단합을 위해 노력했고, 그러면서 최근 수년 동안 3개로 분열된 교단(고려신학교측(고신), 조선신학교측(기장), 총회신학교측)의 재결합을 시도하고자 했다. 특별히 고신과의 재결합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때문에, 고신과의 결별원인이 신사참배의 죄과를 제대로 회개하지 못한 점에 있다고 자성(自省)하면서 그 죄를 통회자복 하고자 이원영 목사를 제 39회 총회(1954년)의 총회장으로 추대했다. 그는 일제의 신사참배강요 및 황민화정책을 철두철미 거부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경북 안동의 안기교회)를 강제로 사임하고 노회(경안노회)에서 면직당하는 고난을 감내해야 했다. 1938년부터 1945년까지 그는 4차례 옥고를 치르며 극심한 고문을 당했고, 8·15광복을 경북 경산 경찰서 유치장에서 맞이했다. 출옥목회자이며 ‘산 순교자’로 존경받은 그는 사경회를 인도하며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강요로 말미암아 무너진 교회들을 재건했다. 그는 출옥성도들과 연대하였으며, 신사참배의 죄를 범한 교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러한 그가, 분열된 장로교회의 재결합을 갈망하는 지도자들의 열망을 받아들여, 제 39회 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그의 주관으로 총회는 “신사참배 취소성명서”를 발표했다.⁴⁰⁾ 이 취소성명서 안에는 분열된 장로교회들의 재결합과 화해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분열된 장로교회들의 재결합은 성사되지 않았고 또한 WCC에 대한 총회의 논쟁도 진정되지 않았다. 1956년 제 41회 총회는 ‘에큐메니칼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 이듬해의 총회(제 42회)에서 ‘에큐메니칼연구위원회’(위원장 한경직, 서기 정규오, 위원 전필순·유호준·황은균·박형룡·박병훈·안광국)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총회는 1948년 WCC 제 1차 총회(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김관석 목사가 참석하고서 귀국하여 보고함으로써 WCC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또한 총회

40)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39회 총회는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외교회에서 회집한 제27회 총회결의인〈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숭선여행하고 추히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충후 황국신민으로써 적성을 다하기로 기합〉의 성명에 대해 그 결의는 일제의 강압에 못 이긴 결정이었으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범한 것임을 자각하고 남부대회가 신사참배 회개운동을 결의 실행했으며 남북통일 총회가 아니었던 고로 금번 남북이 통일된 본 총회는 이를 취소하고 전국교회 앞에 성명함”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 39회 회의록』 (1954): 263)

는 제 2차 총회(미국 에반스톤)에 김현정·명신흥 목사를 대표로 파송했다. 그리고 연구 위원회는 총회가 “친선과 협조를 위한 에큐메니칼 운동에 (이제까지처럼) 앞으로도 계속 참가하기로 하며 단일 교회를 지향하는 운동에 대하여는 반대하기로 태도를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1954년의 정치부 담화와 동일하게- “WCC가 단일교회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보고서와 함께 총회의 입장이 정리가 되었다. 그 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은 당시 교단에서 영향력이 큰 목회자와 신학자들이었다.

1957년의 장로교회 총회가 에큐메니칼운동에 관하여 결론적인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959년에 교단이 또다시 분열되었다. 이번에는 ‘합동(승동측)’과 ‘통합(연동측)’으로 나뉘어졌다. 분열되는 과정에서 연동측은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저들이(승동측) 주장하는 대로- ‘용공, 신(新)신학, 단일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화평과 통일을 위해서 WCC에 **대표파송을 정지하기로 한다.**”고 결의했다. 반면에 승동측은 “WCC를 영구히 탈퇴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을 반대하기로 한다.**”고 선포했다. 이와 더불어 승동측은 “그동안 홍보해오던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용공, 신신학, 단일교회 지향)를 더욱 강조하며 홍보했다. 6·25전쟁을 겪어 본 반공국가에서 용공이미지는 적대감을 조성하는 최고의 무기였다. 신신학을 이단시하는 한국교회의 정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단일교회를 지향한다는 그릇된 홍보는 한국인의 당파심을 자극했고, 여기에서 하나 더 얹어서 천주교회와도 합하자는 것이라고 홍보하였다. 이렇게 하여 에큐메니칼 운동을 이단시하고 적대시하게 했다.”(김광현 목사(경북 안동교회 담임목사, 연동측)의 증언) 이에 대하여 연동측은 “WCC에 대한 견해 차이로 총회가 분열하기까지 했고, 그렇게 분열된 총회의 화합을 위하여 (미국) 남 장로회 선교부가 탈퇴를 제안했으니, 그 제안을 받아들여 **WCC에서 탈퇴하겠다.** 그러나 승동측의 요구대로 **에큐메니칼 운동을 전폐할 수는 없다.** 만일 에큐메니칼 운동을 전폐하게 되면 WCC에서의 탈퇴는 물론이고 국내에 있는 모든 연합 사업(대한성서공회,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교육협회, 기독교방송,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기독교학생회 등)을 중단해야 하며, 심지어는 내한 장로교회 선교부까지 거절해야 하므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전폐를) 수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동측/통합교단은 제 44회 총회(1959년)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용공도 아니고, 신신학도 아니며, 더욱이 단일 교회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지만 분열된 장로교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이 단체에서 탈퇴하기로 한다.”고 결의했다.⁴¹⁾ 이 결의대로 통합측은 합동측과의 관계복원을 위하여 곧바로 WCC에서 탈퇴했고, 그러다가 1969년에 다시 가입하였다.

4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제 44회 회의록』 (1959), 160.

이제, 1950년대 당시의 역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WCC의 현장을 통해 ‘단일교회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거기에 보면 “WCC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교제’ (fellowship)”라고 새겨져 있다. 즉, 교회들의 코이노니아/교제이며 초대형 단일교회를 지향하지 않는다(“not to build a global "super-church"”)고 분명히 명시해 놓았다.

그러면, WCC가 말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1951년에 WCC 중앙위원회는 WCC가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발표했다(“The Church, churches and WCC: the ecclesiological significance of WCC”). 교회란 신약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의 전”을 뜻하며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주후 381년)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의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라고 밝혔다.⁴²⁾ 이것은 교회의 통일성(Unity)을 뜻하는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교회들을 전제로 하고 그 다양한 교회들이 지향하는 통일성을 뜻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의 통일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교제/코이노니아를 뜻한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1993년 WCC의 ‘신앙과 직제위원회’ 역시 세계 모든 교회들이 공동으로 고백하는 ‘사도적 신앙’을 확인하며 교제/코이노니아를 추구한다고 했다. ‘코이노니아’란 신약성경과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의 글에서 밝힌 것으로서 “성만찬, 공동체, 연합, 참여, 사귄, 나눔, 연대성”을 뜻한다(1993년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제5차 ‘신앙과 직제위원회’ 세계대회).

이러한 신학작업을 바탕으로, WCC의 회원으로 가입된 세계 교회들 역시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을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서 교제/코이노니아/통일성을 추구하고 있다. 즉, 가시적 통일성을 추구하고 있다. ‘가시적’이란 표현은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로 표현된 사도적 신앙을 온 세계 다양한 교회들이 함께 고백하는 가운데서 이 교회들이 하나의 협의체(WCC)를 만들어서 세상(오이쿠메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는 뜻이다.

한국 장로교회들의 공동 신앙유산의 원조인 칼빈도 동일한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1541년 -독일 레겐스부르크(Regensburg)에서 가진 신앙대화(Religionsgespräch) 모임 직후에 쓴 글에서- 교회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백성의 모임(에클레

42) 참고: “세계교회가 고백해야 할 하나의 신앙고백”(Confessing the One Faith on the Apostolic Faith as it is confessed in the Nicene-Constantinopolitan Creed(381), Geneva: WCC, 1991), 세계교회협의회 역음/이형기 옮김(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119 이하.

시아)인데, 그 백성은 참되고 보편적인 사도적 신앙의 가르침에 따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의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부르심을 입었다고 보았다. 칼빈이 언급한 ‘하나’는 조화의 일치(condordia)를 뜻한다.

3.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적 정체성은 ‘성경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칼 운동

한국 장로교회의 정체성은 ‘성경기독교’에 있다. 120여년의 한국교회사를 살펴보면 성경기독교가 그 중심에 있다. 성경을 배우는 사경회(查經會, Bible Class)를 바탕으로 한국 교회가 형성되었다. 토착인(한국인) 교회지도자들은 대다수 성경을 배우는 사경회에서 선발되고 양성되었다. 1890년 선교사 기포드(Gifford)가 언더우드(Underwood)의 집에서 시작했다고 전해지는 사경회는 한국인들의 천성과 기질에 잘 맞아떨어졌다. 성경배우기는 “배움을 갈망하는 천부적 기질이 있는” 한국인들 누구나 ‘재미있게’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사경회가 발전하여서 자연스럽게 신학교 설립으로 귀착되었다(〈평양 장로회신학교 요람〉(1916년 간행)). 선교사들은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토착인 교회지도자들을 ‘목사후보생’으로 ‘선발’했다.

성경기독교의 역사적 출발점은 선교사들이 상호 협력하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일궈낸 성경번역 사업에 있다. 선교사들이 ‘재한상임성서위원회’(The Permanent Bible Committee in Korea, 1887년 4월 발족)를 조직했고, 또 ‘상임성서실행위원회’(1893년 5월)를 조직하여서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서 한국 교회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범주에서 ‘하나의 우리말 성경’을 발간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되었다는 뜻이다. 이 뿐 만이 아니었다. 1905년에는 장로교의 내한 선교회와 감리교의 내한 선교회가 연합하여 선교잡지 〈The Korea Mission Field〉를 발간하였다. 장로교의 〈그리스도 신문(1897년 4월 창간)〉과 감리교의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1897년 2월 창간)〉를 한데 합쳐서 〈대한 그리스도 신문〉으로 발간했다. 1908년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공동으로 ‘합동찬송가’를 출간했다. 1907년도를 중심으로 전개된 대각성부흥운동의 기간(1903-08년)에도 여러 교단/교파 선교사들의 상호협력이 긴밀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성경기독교를 형성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오늘날 -WCC 부산 총회를 앞두고- 깊이 새겨들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 땅에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시작되었고 또한 하나의 성경을 발간하면서 발전해 나갔다는 사실이다.

한 걸음 나아가서, 내한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하나의 단일 개신교(기독교)를 만들고자 시도했다. 장로교와 감리교 등의 교파들을 하나의 교단으로 일치시키려고 했다. 이

를 위하여 ‘재한 개신교 선교부 공의회’(The Gen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가 조직되었다. 하나로 합쳐질 단일 교회/교단의 명칭을 “대한예수교회”로 정해 두었다. 이를 향한 단계로서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학교와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또 주일학교 공과(교재)와 찬송가 그리고 선교잡지(〈The Korea Mission Field〉)도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그러나 단일 교회/교단을 조직하려는 시도가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1911년에 그 이름을 ‘재한 개신교 선교부 협의회’(The Fed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로 바꾸었다. 이름을 바꾼 까닭은 선교사들이 단일 교단을 조직하려던 시도를 포기하고 그 대신에 여러 교단들의 협력과 연합에 힘을 쏟기로 한데 있었다. 이런 양식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진행되다가, 오늘날 NCK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전신인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Korean National Christian Council)가 조직되었는데 1924년 10월 24일 새문안 교회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된 단체는 다음과 같았다 : 조선예수교장로회, 미감리교연회, 남감리교연회, 미국 남·북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미국 남·북감리교회의 선교부, 영국성서공회, 조선기독교청년회(YMCA), 캐나다연합교회 선교회,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조선주일학교연합회, 조선예수교서회(기독교서회, 기독교여자절제회 등).

정리하자면,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성경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출발했으며, 그 정신이 상호협력과 연합 운동으로 구체화 되어서(예, 주일학교 운동) 교회부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 에큐메니칼 정신이 일제의 황민화정책(신사참배강요)으로 크게 억압당하다가 신사참배강요에 굴복한 이후에 -그 정신의 맥이 끊어지다시피- 크게 약화되었다고 본다.

8·15광복 이후에 다시 출발하게 된 장로교회는 신사참배의 죄를 제대로 통회자복하지 못한 채 그 문제 때문에 교단 분쟁과 분열상황에 휩싸였다. 그러한 와중에 WCC에 대한 찬반논쟁이 일어났다.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신사참배강요에 대한 굴복은 교단 분열의 씨앗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WCC와 에큐메니칼운동에 대한 논쟁의 씨앗도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한국 교회는 2013년도에 개최되는 WCC 총회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역사를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돌이켜 보면, 한국 교회의 성격과 정체성이 초창기부터 성경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계승되다가 1930년대 중반 이후에 일제의 황민화정책의 시행으로 억압당했고 거기에서 신사참배강요에 굴복한 이후부터 그 정신의 맥이 끊어지다시피 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WCC의 부산총회를 맞이하게 된 한국 교회는 그 에큐메니칼 정신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혹자는 WCC의 신학이 “(보수적) 개혁교회의 성경중심 신학정체성”에 대

립된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힐 수 있는 바는 WCC가 개혁신교회의 신학적 체성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WCC는 그 헌장에 명시된 대로, “성경을 따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다양한) 교회들의 교제/코이노니아”이다. 한국 장로교회의 교단들은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칼빈 개혁신교회의 전통을 공동의 신앙유산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WCC는 그 전통유산과 조금도 대립하지 않는다.

4. 제언

① 2013년도에 개최되는 WCC의 부산총회는 그 무엇보다도 반세기 이상 분열되어 온 한국 장로교회 교단들의 일치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여기에서 뜻하는바 일치는 화해하고 교제(코이노니아)를 나누는 일치(unity)이며 단일교단으로의 일치(uniformity)가 결코 아니다.

② 한국 장로교회들의 일치(unity)는 약 100여 년 전에 형성된 본래의 신앙정신을 회복하는 일이고, 이것은 초창기 한국 장로교회에서 형성된 성경기독교 중심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회복하는 일이라 볼 수 있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유산을 회복하는 것은 신사참배 죄과에 대한 회개와 연결된다고 본다.

③ 제 10차 WCC 총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한국 교회의 실상과 부흥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일은 세계 기독교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맞물려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계 기독교가 빠른 속도로 달라지고 있다. 지난날에는 유럽과 북미의 교회가 세계 기독교의 중심축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중심축을 그곳에서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유럽의 국가교회가 나날이 쇠퇴하며 또 북미의 주류 교단들이 쇠퇴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종종 듣고 있다. 이 현실에 관하여 WCC 제 9차 총회(2006, 포르토 알레그레)가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⁴³⁾ 이러한 세계 기독교의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흥하고 성장한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계 기독교와 더불어 ‘나누고 섬기는’ 때가 되었다. 세계 교회를 위한 한국 교회의 나눔과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한국 교회의 응답이며 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한국 교회의 책임이다. 한국 교회는 지금 오대양 육대주 세계 교회를 섬기도록 요청받고 있다.

④ ‘섬기는 교회’의 실천이 요청되는데, 교회는 그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인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섬김의

43) 참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에큐메니칼위원회 엮음, 『21세기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8), 282.

사역을 한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요 3:16) 속에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제자의 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를 돌보는데,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세상이 변화되는바 성령님의 능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정의-평화가 온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부록)

*대구지역 초창기 장로교회의 역사, 오늘의 에큐메니칼운동(협력과 연합)의 뿌리⁴⁴⁾

대구지역에서 시작된 선교사역을 되돌아보면, 초창기의 선교사들은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세웠다. 아담스의 선교사역을 살펴보면, 그는 1897년 대구에 도착한 직후에 거리와 시장으로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다. 쪽 복음을 팔고 사랑방에서 오순도순 복음을 전하였다. 시장에서 성경(쪽 복음) 700권을 팔았다.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조사 김재수와 함께 대구 근교를 두루 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했고, 장날을 찾아 시장에서 전도 서적을 팔았다. 그의 부인 넬리는 남자 아이들을 모아서 찬송을 가르치고 성경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러한 사역에 결실이 맺혀서, 1899년의 선교보고에 따르면, 그동안 기독교 신앙인이 된 사람들이 약 20명가량 되었다. 이 가운데서 세례교인 2명 학습교인 5명이었다. 로즈의 기록에 따르면,⁴⁵⁾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의 수가 1897-98년에 2명이었고, 1898-99년에 20명이었다. 20명 가운데서 1명이 세례를 받았고 5명이 학습을 받았다. 1899-1900년에는 3명이 세례를 받았고 6명이 학습을 받았다.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공동체를 이루었고, 그러고 나서 예배당 건물을 지었다. 대구 최초의 교회인 대구제일교회(당시 “남문안 예배당”)가⁴⁶⁾ 1897년에 창립되었는데,⁴⁷⁾ 이때 건물은 없었고 신앙공동체만 있었다. 약 10년이 지난 다음

44) 아래의 글은 필자가 대구지역 초창기 장로교회의 역사에 관하여 서술한 논문의 일부이고, 그 논문은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논문집 <장신논단 제 33집>(2008)에 실렸다.

45) 위의 책, 180.

46) 대구제일교회의 초창기에 붙여진 이름이 다양했다. 이재원에 따르면, 첫 이름은 ‘야소교회당’, 그 다음 ‘남문안예배당’, ‘감영예배당’, ‘성안예배당’, ‘대구읍예배당’으로 불리다가 ‘-예배당’과 ‘-교회’가 혼용되었다. 경상노회록에 공식 기재된 공식이름은 ‘남문안(내)예배당(교회)’과 ‘대구읍예배당(교회)’이었다. 한일합방이후에는 ‘남성정예배당(교회)’로 바뀌었고, 1930년대 세 번째 교회(붉은 벽돌)를 짓고 ‘제일예배당’으로 고쳤다. 그런데 이미 초창기부터 선교사들이 The First Church라고 불렀다 한다. 이것은 아마도 이 교회에서 “제 2교회(서문교회)(1912)”와 “제 3교회(남산교회)(1915)” 등이 계속 분립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재원, 『대구장로교회사연구:1893-1945』, 83-84; 이재원, 『대구기독교역사논문집』, 61-63. 선교사들은 이 교회를 Central Church라 부르기도 했다.

47) 『대구제일교회백년사: 1893-2003』, (대구제일교회, 2004), 96-105. 대구제일교회의 창립연도에 대하여 이재원이 연구하였는데, 창립연도가 1897년 11월 1일이라고 고증하였다. 이날에 선교사 아담스 일행이 대구에 도착한 즉시 예배드렸다고 한다. 이재원, 『대구장로교회사연구:1893-1945』, 90-96; 이재원, 『대구기독교역사논문집』, 1-8.

에야 비로소 교회건축이 시작되었다. 창립당시에 한국인 신자는 김재수 한 사람 뿐이었고, 이 숫자는 향후 3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가 1900년 봄에 서자명이(의료선교사 존슨의 조수이자 전도인) 세례를 받아서 한국인 신자가 2명이 되었다. 그 해 7월에는 정완식과 김덕경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4명이 되었다. 1901년부터 교인수가 급증했다. 여성 20명 남성 25명이 예배를 드렸다. 1902년과 1903년에 교인 수가 100명으로 늘어났고, 1904년에는 150명, 1905년에는 225명, 1906년에는 500명, 1907년에는 800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예배당 건축이 시급한 과제로 다가왔다. 1907년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여 그 이듬해(1908)에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갔다. 그런데 여름(8월)에 태풍이 몰아쳐서 건물에 폭삭 무너져 버렸다. 망연자실해야 할 상황에서, 교인들의 신앙이 오히려 더욱 강해졌다. 예배당 건축을 다시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다. 시계, 반지, 은장구, 머리에 꽂고 있던 비녀를 바치고, 심지어는 머리카락을 잘라 달비까지 팔아서 현금했다. 이렇게 제일교회가 부흥함에 따라 분가(分家)형식으로 교회를 분립해 나갔다.⁴⁸⁾ 가장 먼저 1912년에 서쪽으로 분립되었는데, 그 교회를 “서(西) 교회(The West Church)” 또는 “제 2교회(The Second Church)”라고 불렀다. 이 교회가 오늘날 서문교회이다. 그 다음 1915년에 남쪽으로 분립되었는데, 그 교회를 “남(南) 교회(The South Church)” 또는 “제 3교회(The Third Church)”라고 불렀다. 이 교회의 첫 담임목회자는 선교사 브루엔(Bruen, 부해리)였고, 특이한 점은 여성 주일학교를 시작했다. 제 3교회인 남산교회는 설립되자 마다 크게 부흥하였는데, 1930년대에 교인수가 1,000명을 넘었고 이에 교회건축을 하였다. 담임목사도 한국인 목회자 이문주였고, 첫 담임목사 브루엔은 계속 협동목사로 일했다. 네 번째는 북쪽으로 분립되었는데, 1915년이래로 기도실로 모이다가 1921년 정식으로 칠성정교회가 창립되었다. 목회자는 인노절(G.H. Winn)였다. 다섯 번째 분립된 교회는 중앙교회였고, 여섯 번째는 동쪽으로 분립되어서 동웅정교회가 창립되었다. 이리하여 동서남북 사방으로 제일교회가 분립되어 여러 교회들이 창립되었다.

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점은 대구지역의 모든 장로교회는 그 뿌리가 하나라는 점이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교파별로 분산되어 분립된 상태인데, 그 뿌리는 하나라는 것이다. 이 점이야말로 지역의 장로교회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48) 대구제일교회에서 분립된 교회들의 창립일에 대한 기록은 해당 교회의 서술마다 제각각이다. 이 점에 관하여 이재원 선생이 문제의식을 갖고 자세히 정리했다. 이재원, 『대구기독교역사논문집』, 25-46.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선교의 통합적 과제와 전망

한국일 목사(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학)⁴⁹⁾

서 론

논문의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 본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의 신학적 성격과 그에 따른 역할을 먼저 언급하고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교단의 신학적 위치는 진보적 교단과 보수적 교단 사이의 중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체 한국교회 관점에서 볼 때 두 입장의 배타적 관계에서 오는 단절을 중재하고 화해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본 교단은 공식적으로 한국기독교협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에 소속된 회원교회로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향하지만 목회와 선교활동의 실제에 있어서 교계 지도자 및 일반 목회자와 교인들은 대부분 복음주의적 방향을 선호하여 따르고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정신에 대하여 한국교회 70년대 독재정권이 “용공단체”나 사회질서와 안정을 파괴하는 급진적 혁명세력으로 오도하고 단죄했던 왜곡된 이해를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⁵⁰⁾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의 대부분은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하여 부정적일 뿐 아니라 선교와 에큐메니칼 운동은 서로 별개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선교는 복음적 교회의 활동이며 에큐메니칼 운동은 단지 사회참여 활동만을 지향한다는 이중적 도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소개와 논의가 활발치 못한 탓도

49)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신학박사,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부교수(선교신학)

50) 박영호는 “WCC 운동비판”이라는 저서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신학적 좌경화, 혼합주의적 연합운동, 용공주의적 활동으로 비판하고 있다. 박영호, WCC 운동 비판,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84-99

있으나 정식 문서를 통한 올바른 인식이 아니라, 구전으로 왜곡되게 전해 듣고서 부정적 인식에 그치게 된 것이 한국교회가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하여 냉랭하게 반응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선교에 관한 공식 문서와 학자들의 글을 통해 왜곡된 인식을 교정하는 것이 선교학의 시급한 학문적 과제라 할 수 있다.⁵¹⁾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적 기원을 보면, 교파 주의적 선교활동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선교현장의 요청에서 시작⁵²⁾되었으므로 그 효시부터 선교와 분리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교회 선교는 복음주의 노선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 복음주의의 신학적 입장이나 흐름과는 달리 대체로 근본주의적 성향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며 실천은 중시하는 반면 그에 대한 신학적, 선교학적 성찰을 소홀히 함을 나타낸다.

본고에서는 선교와 관련하여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편견을 시정하여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선교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구조를 극복하고, 복음주의의 선교를 에큐메니칼 선교정신으로 조명할 때 선교가 세계와 역사 속에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며 역동적일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선교의 기원이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지면상 다루지 않는다. 에큐메니칼 선교라 함은 세계교회협의회 기본 방침을 따르면서 발표된 신학문서의 방향과 정책에 맞추어 선교활동을 추구하는 입장을 말한다. 복음주의란 에큐메니칼 입장에 대해 비판적이고 대응적인 신학과 선교를 추구하며 1974년 로잔대회에서 자신들의 신학과 선교의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입장을 가리킨다.⁵³⁾

1.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선교의 쟁점들

선교신학의 차이에 따라 두 입장은 선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떤 항목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지만 그렇다고 선교의 모든 면에서 차이를 갖는

51) 이런점에서 에큐메니칼 운동과 그 정신을 문서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알리는 일에 이형기 교수의 공헌이 크다고 하겠다. 그는 학문적 관심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실천적 관심으로 에큐메니칼 문서들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52) J.A.Mackay, Eumenics, 민경배역, 에큐메닉스, 대한기독교서회 1966, 9; 27

53) New Directions in Mission And Evangelization1.

BasicStatements

1974-1991,Ed.

ByJ.A.Scherer,StephenB.Bevans,S.V.D,Maryknoll,NewYork1992

것은 아니다. 또한 두 입장의 차이점은 항상 부정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한 면으로 치우쳐 나타나는 각 입장의 극단적인 선교이해를 상호 보완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갖는다.⁵⁴⁾ 그러므로 선교이해의 차이에 근거한 쟁점들은 각 입장의 주장이면서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문제들을 선교학적으로 논하기보다는 선교현장을 염두에 두고 직면하게 되는 갈등과 쟁점들을 소개함으로 논쟁거리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1) 선교의 개념의 편협성과 포괄성: 증언과 참여

선교이해의 범위가 현대 선교학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로 등장한다. 선교는 복음 전도만을 언급 하는가 혹은 사회적 책임을 함께 선교의 내용에 포함하고 있는가? 만일 사회적 책임을 선교내용으로 수용한다면 사회 봉사활동은 단지 전도의 길을 열어주는 선교의 전단계의 수단인가 아니면 그 자체도 선교활동으로 간주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선교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문제이며 이러한 질문들은 구원론과 동시에 인간론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활동의 관계를 선교에서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전자는 선교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후자는 선교의 부수적인 내용인가? 선교활동이 지나치게 넓게 확장되는 것에 대한 “범선교주의”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도 중요한 쟁점으로 나타난다.

둘째 선교지를 규정하는 기준이다. 과거에는 서구지역은 기독교 국가로서 서구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며 비서구지역만이 선교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선교지는 어느 한 지역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토대에서 미전도 종족선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한 선교모형과 개념들이 선교의 전체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가?

2) 선교의 목표: 개인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실현

선교의 내용과 관련하여 목표설정: 선교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의 영혼구원인가? 인간의 영혼은 육체와 구분되는 특별한 존재론적 가치와 특성을 지니는가에 대한 신학적 인간론의 문제가 선교의 내용이나 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교회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그 과제로 삼는다면 그것은 선교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

또한 선교의 목표에서 우선순위 문제가 쟁점이 된다. 영혼구원과 인간의 전인적 구

54) D.J.Bosch는 그의 저서 “Witness to the world”에서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신학과의 대화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D.J.Bosch, Witness to the world. The Christian mission in theological perspective, London1980

원과 사회를 변혁시켜가는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가? 복음주의 관점에서 사회참여적 입장을 정리한 그랜드 래피즈(Grand Rapids) 보고서(1982)는 사회참여가 선교의 필수적 과제인 것을 인정하지만 영혼구원이 논리적으로 우선된다 라고 말한다.⁵⁵⁾ 그러나 존 스토틀은 우선순위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기도 한다.⁵⁶⁾

3) 선교와 교회: 교회중심의 선교(Missio ecclesiae)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현대선교에서 선교의 주체와 활동의 장과 관련하여 교회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선교학적 해명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선교의 주체로 인식되었으며 선교하는 교회의 신앙경험과 신학자체가 선교활동의 내용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선교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교회의 선교적 역할은 축소되거나 약화되지 않는가?⁵⁷⁾

과거의 선교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교회개혁과 성장을 중요시하는 교회중심적 선교였다면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교에서 교회와 세계의 관계를 어떻게 규명해야 하는가? 교회는 선교의 목표인가 아니면 도구인가? 교회를 구약의 방주나 도피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타당한가? 오늘날 교회의 정치참여는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나 그 방식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선교적 활동영역을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할 때 죄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서 죄 이해의 범주에 따라 회심의 영향력의 범주가 제한되거나 또는 확대된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하는 문제: 최근에 그리스도인은 “God’s People”로, 교회 밖의 구원의 대상자들을 “Peoples of God”으로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구분의 의미와 기준은 무엇인가?

4) 선교와 문화: 한 복음과 다양한 문화

특별히 타문화 선교에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편협한 신앙을 가질수록 문

55) Evange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A Evangelical Commitment, Lausanne Committee for World Evangelization and the World Evangelical Fellowship, 1982, 24

56) John R.W. Stott,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서정운 역, 현대의 기독교 선교, 대한기독교서회 1982, 37

57) H.-W. Gensichen, Grundfragen der Kirchwerdung in der Mission, in: EMZ 1951, 34, 37

화에 대한 부정적 이해나 반문화적 태도를 취하게 되며 문화변혁적 차원을 강조한다.⁵⁸⁾ 그러나 문제는 선교사 자신이 속한 문화의 어두운 면은 보지 못하고 타 문화만을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⁵⁹⁾ 다양한 문화를 접해보지 못한 한국 교회는 이전의 서구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문화우월주의(Ethnocentrism)에 빠지는 우를 범하기 쉽다. 그러나 문화가 활동하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그 사회 속에서 이해해야 하며 문화에 대한 신학적 조명을 통해서 복음이 문화와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필요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⁶⁰⁾

복음이 다른 문화에 전해져 바르게 정착하는 과정에 대한 선교학적 성찰로서 토착화 또는 상황화에 대한 올바른 선교학적 이해가 필요하다. 보수적 시각에서는 복음이 문화를 변혁시키는 면에 강조를 둔다. 그러나 문화가 담지 하는 해석학적 기능(문화해석학)을 주목해야 한다.⁶¹⁾ 즉 복음이 다양한 문화를 만나게 되면서 복음자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게 되고 또한 타자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선교사와 선교지의 관계를 상호 배움과 상호변혁의 새로운 관계로 설정하게 한다.

5) 선교와 종교: 증언과 공존 그리고 대화

선교 현장이나 현대 선교학에서 첨예하게 논쟁이 되는 것이 기독교와 타종교의 관계에 대한 이해이다. 신학적 성향에 따라 타종교를 사탄이나 우상숭배라고 정죄하는 배타주의 입장에서부터, 타종교는 기독교와 진리에서 차이가 없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종교가 같은 신을 지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종교에 대한 신학적 이해에 따라 기독교는 타종교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또한 기독교와 타종교간 대화문제는 현대선교학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는 대화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모든 대화가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는가? 대화의 신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대화와 증언의 관계는? 선교에서 대화가 갖는 위치는 무엇인가 등의 문제들을 풀어가야 한다.

58) 연변에서 유학 온 한국교포에 의하면 한국선교사들은 초기에는 자신(현지인)들의 습관이나 생활방식을 무조건 바꾸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10년 정도 된 선교사들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연변에서 온 학생과의 대화에서.

59) 과거 서구교회 선교사들이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선교현지 문화만을 비판적으로 대하던 태도에 대해서 월로우뱅크 보고서에서 자성적 반성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복음과 문화. 복음과 문화에 대한 월로우뱅크 신학협의회 보고서, 조종남 편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TVP), 1993, 74

60) 이형기, 1996년 살바도르 세계선교와 복음전도대회(CWME)에 대한 소고, in: 하나님 나라와 선교, 서정운 명예총장 은퇴기념 논문집, 대한기독교서회 2001, 191-208

61) WCC, On Intercultural Hermeneutics, in: New Directions in Mission And Evangelization3,185-195

오늘의 세계상황은 전에 없던 종교간 갈등과 충돌로 인해 인류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종교의 차이가 유혈충돌을 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는 타종교와 함께 세계평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해야 한다.⁶²⁾ 배타 주의적 입장에 서있는 선교단체나 선교사들은 타종교를 적으로 간주하고 영적 투쟁의 대상으로 선포한다. 영적투쟁 자체를 부인하지 않더라도 타종교를 영적전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가? 이러한 태도가 성경적인가? 또한 오늘의 상황을 고려할 때 평화의 문제는 다만 정치적 차원에 속한 문제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개인의 내면적 평화에 제한되는가? 타종교 혹은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과의 평화로운 공존의 문제를 선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6) 선교와 협력관계: 교파주의 선교와 에큐메니칼 연대

오늘의 선교는 더 이상 선교사 중심의 일방적 형태로 진행하기 어렵다. 일방적 형태의 선교는 이전의 서구제국주의와 문화우월주의의 소산이다. 또한 세계 모든 지역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열세하지만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다. 19세기에 수행되었던 교파 주의적 선교형태는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늘날에도 선교현장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⁶³⁾

타문화권 선교사들은 현지 교단에 소속되거나 적어도 그들과 상호존중의 협력관계 안에서 선교활동을 해야만 한다. 그러한 협력관계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파송되는 선교사 차원에서 협력관계는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 선교현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후원교회의 기대나 요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복음주의 입장의 전통적 선교이해와 에큐메니칼의 협력선교를 현장에서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특히 협력교단을 찾기 어려운 지역(교회가 없는 곳, 개신교가 극히 열세한 남미나 러시아 지역 등)에서 협력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협력관계와 관련하여 진정한 상호성을 가로막는 이전과 다른 양상의 문제가 선교현장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식민주의 시대에는 선교지에 대한 선교사의 몰이해와 일방적인 부정적 판단이 문제가 되었다면, 현대선교에서는 선교지 교회들이 자신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놓고 선교사에게 현지에 동화하라는 식의 역차별 현상도 종종 나타

62) 한국국방연구원자료(2000.3.1)에 의하면 세계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상황에서 종교적 요인으로 인한 분쟁이 50%가 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앙일보 2001년 5월15일,40판

63) 한국교회는 아직 이러한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개 교회중심의 선교양상을 띄고 있으며 타 문화권에 한국교회 이름을 붙이고 선교의 열매로 자랑스러워 하는 세계선교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교 현상들이 공공연하게 수행되고 있다.(필리핀, 러시아 지역, 참고: J.P.Brown, 한국선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선교와 신학 2001. 제8집,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132-136)

난다. 이것은 선교지 교회의 주체적 자의식이 지나치게 나타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7) 회심과 개종의 문제: 회심의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선교의 필수적 사항인 회심과 개종은 현대 선교 상황에서 예민한 문제로 다루어진다. 자칫하면 개종을 제국주의시대의 유산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음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회심과 개종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문제는 회심의 동기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회심과 개종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개종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회심사건 없는 개종자의 숫자만을 강조하게 된다. 또한 진정한 회심은 회심자의 자유로운 양심의 상태가 보존되었을 때 가능하다.⁶⁴⁾

에큐메니칼 협력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남미의 천주교 지역과 정교회가 지배하는 러시아 지역이다. 기독교의 다른 교파 교인들을 선교사의 교파로 개종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예민한 주제이다. 이것은 기존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려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선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음주의 입장은 정교회나 천주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타종교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선교활동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 에큐메니칼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들을 개종시키기 보다는 협력관계 속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진지함과 열심을 회복하도록 협력하며 동시에 명목상의 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권유할 수 있다. 여기에서 종종 기득권을 주장하는 기존교회와 선교사간에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

2. 선교개념이해: 특징과 문제점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입장을 기초하고 있는 신학적 차이에 따라 선교에 대한 이해가 공통적인 부분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첨예하게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교회의 복음주의 선교이해는 세계복음주의 입장과 다른 면도 갖고 있다. 그것은 대부분 복음주의 입장을 표방하는 한국교회의 선교이해가 신학적, 선교학적 성찰을 거쳐 세계복음주의 입장과 신학적으로 조율하지 않은 채 이전의 개념들에 천착하거나 한국 상황에서 연유한 독자적, 주관적 경험들에 더 많이 의존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교회의 주관적 경험에 근거한 복음주의 선교이해를 불가피하게 세계복음주의

64) 한국일, 선교와 회심, 선교와 신학 제9집(2002),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37-62

입장에 비추어 언급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한다. 복음주의 선교이해는 1974년 세계 복음주의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공식적으로 천명한 “로잔언약”(The Lausanne Covenant)을 중심으로 하고, 에큐메니칼 선교는 1982년에 발표한 문서(“Ecumenical Affirmation: Mission and Evangelization”)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복음주의 선교의 특징

복음주의 선교의 내용은 에큐메니칼 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술하기에 용이하다. 왜냐하면 복음주의 신학은 전통적인 내용을 재확인하며 그것을 새로운 사조와 흐름으로부터 고수, 보전하려는 방어적 사고와 태도로 그 내용을 전개하기 때문이다. 복음주의 선교의 입장은 휘튼선언문(1966), 프랑크푸르트 선언문(1970), 로잔언약문(1974), 마닐라 선언문(1989)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⁶⁵⁾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복음주의 선교학자 도널드 맥가브란이 작성한 현대복음주의의 선교신학⁶⁶⁾과 로잔언약문을 중심으로 그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성서의 절대적 영감 및 권위성:

성서는 만물에 나타나 보이는 일반계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특별계시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다. 그 진실성과 권위에 손상이 없다. 이 진리의 적용은 특정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나 진리 그 자체는 항상 동일한 것으로 남는다.

(2) 영혼과 영생에 관한 교리

인간은 한 육체에 들어 있는 영원불멸의 영혼으로 이해한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며 누구도 타락의 결과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스스로 자력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죽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영원한 구속이다. 복음주의 신학은 전 인간이 자동적,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보편 구원론을 배격한다. (결과적으로 복음주의 선교는 영혼구원의 우선성과 절대성을 강조하게 된다)

65) New Directions 1, 253-314

66) Arthur F. Glasser & Donald A. McGavran, Contemporary Theologies of Mission, 고환규 옮김, 현대선교신학(서울: 성광문화사, 1995. 4판), 187-210

(3) 유일한 중재자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외에 인간이 구원 받을만한 어떤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는 유일한 중보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그 신앙이 그들을 구원하는데 충분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멸망을 확신한다. 물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신(?)과의 사림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으나 그 과정은 감추어져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복음전도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다.

(4) 전도와 영혼구원의 긴급성

교회의 선교를 거의 전도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전도는 불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필수적 행동으로 간주된다.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권면하며 설득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결단에 이르도록 초대해야 한다. 전도는 대화나 세상 안에서의 봉사적 책임과 구별되는 특별한 행위이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 중에 전도가 최우선적이어야 한다. 선교에서 서구교회의 주도적 역할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면서 동시에 신생교회의 새로운 참여를 인식하고 있다. 전 세계를 전도지역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복음주의 선교에서는 선교사 파송지역을 선별하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⁶⁷⁾ 전도를 위해 교회간의 일치와 협력을 강조하나 “복음주의적 단체들은 구조적인 일치(structure unity)보다 영적인 연합(spiritual unity)”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E.L. Stockwell)

(5) 교회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사람들을 인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 창설하신 것이다. 교회는 여러 가지 과제들 중에 이 세상을 복음화 하는 선교의 사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교회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사람들을 불러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전도의 일에 최우선적 목적을 두어야 한다. 복음전파와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는 도구로 부름 받은 교회는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교회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67) 이러한 현상은 미전도종족에 선교활동을 집중하는 선교전략에서 나타난다.

(6) 복음화와 종말

예수님이 친히 육체로 다시 오시는 재림은 복음주의 선교의 중요한 교리이다. 예수의 재림은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의 날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현실적 통치가 실현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다. 성경의 증거(마24:14)에 따라 땅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그러므로 재림약속은 세계전도에 박차를 가하는 동기가 된다. 재림으로써 이 세상에서의 거짓된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은 거부된다. 복음주의 선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도에 주력함으로써 예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믿는다.

(7) 성령론

세계선교는 인간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실행된다. 선교의 결과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선교에서 성령은 교회를 세우고, 파송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회개의 결단으로 이르게 하는 선교의 영이다.

맥가브란의 복음주의 선교신학은 대개 로잔언약의 내용과 일치하며 특히 교회성장에 역점을 두는 반면, 로잔언약을 통해서 복음주의 선교의 가장 큰 전환점을 가져온 5항의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강조하지 않았다. 맥가브란은 이 점에 있어서 로잔언약 이전의 복음주의 입장에 충실하게 서 있으며 그 선교신학을 반영하는데 그쳤다고 볼 수 있다.

타종교와의 대화에 관하여 선교의 현실적 문제로서 그 필요성을 언급하지만 복음 선포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전인적 구원에 대해서도 교회의 사회봉사적 차원에서 사랑의 실천인 구제행위(social service)를 언급하지만 사회구조적 변화를 요청하는 사회적 행위(social action)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며, 막 8:36절 말씀(“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에 의존해 인간의 영혼구원에 강조점과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사회개혁은 필요한 것이지만 복음화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구원의 결실이며 복음전파와 함께 수행해야 할 선교의 내용으로 이해하지는 않는다.

2) 복음주의 선교실제의 문제점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한국교회의 선교실제는 이러한 세계복음주의 선교의 입장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것은 일관된 선교 신학적 뒷받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신학적 요인들에 영향 받으며 수행되는 선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교회는 거의 복음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다. 선교의 실제적인 문제를 복음주의 선교신학에서 비롯한 신학적 요인과 신학외적 요인에 기인한 비신학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선교 신학적 요인

선교이해의 편협성: 선교의 초점을 주로 개인의 영혼구원과 교회개척 및 성장에 두기 때문에 선교현지의 사회, 역사, 전통, 문화 등 선교활동의 기본구조를 인식하는 거시적 안목을 갖지 못하고 그로 인해 선교지 사람들과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로잔언약과 마닐라대회 문서에 이미 전인적 선교가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한 영혼구원, 교회와 세계를 분리한 교회중심의 선교 형태에 머물러 있어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와 세계문제에 대한 책임적 인식과 실천력이 약하다.

(2) 협력정신과 실천의 부족

자기중심적 배타적 선교소명의식: 한국교회의 선교적 열정은 독자적 소명의식에 근거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양교회로부터 한국교회로 옮겨왔다”, “세계선교의 마지막 주자” 같이 종말의식과 함께 선교를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의식은 종종 인간의 선교활동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조급한 종말의식과 결부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세계선교를 주도한다는 잘못된 자기중심적 소명의식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현지교단과 협력하기보다는 독자적 선교회를 설립하여 현지교단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현지 목회자들을 빼내옴으로 현지교회를 분열시킨다는 비판도 받는다.

(3) 배타적, 공격적 선교전략의 맹목적 추종

선교전략이나 구호선정의 부적절성: 소수의 선교 단체들이 주로 선교동원과 후원을 위해 지나치게 선동적, 전투적인 정책과 자극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현상을 보인다. 선교적 분별력이나 선교학적 성찰보다는 감정적인 접근을 통해서 주로 선교를 충동적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⁶⁸⁾

68) 예를 들면, 복음주의 선교단체들이 제시하는 선교전략으로 “여호수아-갈렙 프로젝트”, 역라마단 기도, 영적(전쟁)지도(약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지역을 지리적으로 구분)등이 있다.

행동주의: 한국교회 선교의 가장 큰 약점은 장기적 안목이 결여된 일회적 이벤트성의 프로젝트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사업항목을 결정할 때 현지사정에 적합하고 필요한 것이기보다는 후원교회가 원하는 것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4) 효과적 선교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부재: 파송교회 중심으로 선교활동이 진행된다 보니 선교현장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한 기본 자료를 갖추지 못한 채 직접 선교현장에 뛰어드는 일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선교현장 리서치에 의한 정확하고 깊은 지식이나 정보 없이 주먹구구식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5) 선교사 파송과 관리의 구조적 문제

교단선교부가 교단이름으로 파송만 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비전 문화, 인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거의 선교사의 개인적 역량에 의존되므로 개인에 따라 그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한국 후원교회의 직접적인 현지 선교활동 간섭: 후원교회의 영향과 선교방향이 선교사를 통해 현지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럴 때 타문화 선교를 국내 목회의 연장으로 이해하게 되므로 후원교회 목회사역의 연장이나 복사형태를 취하게 된다. 현재 개교회 중심의 후원구조에서는 선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후원교회의 간섭을 배제하기 어렵다.

3. 에큐메니칼 선교의 특징과 비판점 - 복음주의 선교가 비판하는 에큐메니칼 선교의 문제점:

에큐메니칼 관점에서 복음주의 선교의 의미를 고찰하기 전에 먼저 복음주의 신학이 에큐메니칼 선교에 대하여 비판하는 소리를 들어보자.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선교학자인 도날드 맥가브란은 다음과 같이 비난하고 있다.⁶⁹⁾

- 1) 에큐메니칼 운동은 복음전파와 교회를 무시하고 단지 사회참여만을 강조한다.
- 2) 에큐메니칼 선교는 개인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절대무오한 계시의 필요성도, 하나님과의 긴급한 화해의 필요성도 부인하며

69) 위의 책, 3-5장

복음을 알지 못함에 기인한 손실을 부인한다.

- 3) 에큐메니칼 운동은 사회정의를 강조하면서 하나님과의 화해보다는 인간환경의 조건들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 4) 에큐메니칼 선교는 모든 종교의 구원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 5) 에큐메니칼 선교는 수직적 관계보다 수평적 관계를 더 중시한다.

또한 “프랑크푸르트 선언”(1970)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독일의 대표적인 보수주의 선교학자 피터 바이엘하우스는 그의 한 논문에서 에큐메니칼 선교에 대하여, 에큐메니칼 선교는 선교의 본질인 복음전파를 외면하고 구원의 개념을 정치적 해방, 사회적 정의, 여성해방과 인종의 평등한 권리, 다른 종교와 이념을 가진 사람과의 형제애로 대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에큐메니칼 선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전통적 의미의 구원관을 벗어나서 정치, 사회적 혁명으로 대치하고 있다고 비난한다.⁷⁰⁾

복음주의 입장에서 에큐메니칼 선교에 대한 비판점들을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 관점으로 집약할 수 있다.

- 1) 복음전도에 무관심하고 사회-정치적 참여만 강조함으로 죄에 대한 회개와 영원한 구원을 소홀히 한다.
- 2) 하나님의 선교를 주장하면서 개인의 인격적 회심이나 교회개혁 및 성장의 중요성은 간과한다.
- 3)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면서 따라서 회심이나 개종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선교를 대화로 대치한다.
- 4) 교회의 모든 활동을 선교로 이해함으로 “범선교주의”에 빠지게 된다.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 중 극단의 일각에서 이와 같은 주장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에큐메니칼 문서에 나타나는 중심 내용들이 아니다. 에큐메니칼 선교를 이해할 때 소수의 극단적 주장들을 견지하면서 발표된 문서를 통하여 올바른 이해를 얻어야 할 것이다.

4. 두 입장의 화해와 상호보완적 선교이해: “에큐메니칼 관점에서 복음주의 선교의 의미확대”

70) P.Beyerhaus, Krise und Neuaufbruch der Weltmission. Vortraege, Aufsätze und Dokumente, Bad Liebenzell 1987, 56-58;72-79

냉전시대의 유산인 에큐메니칼 운동(세계교회협의회)에 대한 부정적 이해와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의 배타적 대립구조를 넘어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화해와 상호보완의 관계 안에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는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각 입장의 차이와 독특성을 통해서 선교에서 놓치기 쉬운 점을 강조하게 될 뿐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선교의 포괄적 과제를 보다 풍부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다.⁷¹⁾

에큐메니칼 운동은 그 발생기원으로 볼 때 선교와 분리되지 않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선교활동을 위해 현장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에큐메니칼 관점에서 선교를 이해할 때 크게 두 가지 사실이 강조된다. 첫째, 선교는 교회의 일치와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모든 세계 교회들의 공동의 증언과 실천을 통해서 수행된다. 둘째, 선교는 개인적 사건이나 교회 내부적 일이 아니라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목회와 선교활동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은 많은 경우에 신학적인 것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신학적 인식의 전환이 교회와 선교사역의 실천에도 새로운 변혁을 가져올 수 있음을 자각할 때 신학적 접근의 필요가 절실히 요청될 것이다. 에큐메니칼 관점에서 복음주의 선교를 성찰할 때 선교에 대한 관점과 인식의 전환을 위한 선교 신학적 접근이 무엇인지, 또한 선교현장에서 요청되는 변화가 무엇인가를 앞에서 다른 쟁점과 복음주의 선교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모색해보고자 한다.

에큐메니칼 선교에 관한 문서로 1982년에 공식적 입장을 표명한 “Mission and Evangelism—An Ecumenical Affirmation”과 1987년 동수의 복음주의신학자와 함께 작성한 “Stuttgart Consultation”, 1998년 제8차 하라레 총회를 앞두고 발표한 “Mission and Evangelism in Unity Today”를 근거로 하여 복음주의 선교의 의미를 조명하려 한다.

1) 선교개념 이해의 확장

선교는 복음전도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교회의 포괄적인 사역이다. 한국교회는 선교를 주로 복음전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비기독교 사회인 우리의 경험을 고려할 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탈 기독교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과

71) D.J.Bosch, L.Newbigin, H.-W.Gensichen, J.Verkuyl 등이 이러한 통합적 관점에서 선교학에 관한 저술을 하고 있다.

거의 선교위임을 수행했던 서구사회에서도 재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복음 선포의 긴밀한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사람들을 교회로 다시 모이도록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복음전도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에게 듣게 하며 인격적 회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선교의 핵심적 사항이다.

그러나 전도적 관점에서만 선교를 이해하면 선교의 목표가 전도를 통한 개종, 그 결과 교회가 성장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러한 개념에서는 복음전도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교회개척으로 축소되어진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기 때문이다. 선교는 개인구원이나 교회성장의 범주를 넘어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창조하려는 본래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⁷²⁾ 여기에서 교회의 선교적 과제와 책임 속에 사회봉사적 역할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선교란 복음전도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교회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적 과제는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 삶을 통해서 구현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춘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뿐 아니라 행위와 삶으로 직접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다. 말씀선포와 함께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배고픈 자를 친히 먹이시고, 사회의 중심에 편입되지 못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므로 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봉사)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74년 로잔에서 개최된 세계복음주의 대회에서는 이 두 가지 역할이 본질적인 것과 부가적인 것으로 구별되지 않고 둘 다를 교회의 필수적이며 본질적인 의무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봉사적 측면이 약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신앙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종종 영혼과 육체, 개인과 사회, 구속과 창조, 은혜와 자연, 하늘과 땅, 칭의와 정의, 신앙과 행동을 분리하여 전자를 본질적인 것, 후자를 부가적인 것 또는 전자를 우선적인 것 후자를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따르게 되면 교회의 사회봉사는 선교의 실천에 있어서 언제나 이차적인 것으로 뒷전에 머물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웃은 그의 영혼만을 사랑해야 하는 육체 없는 영혼이 아니고, 육체의 보살핌만을 요구하는 영혼 없는 육체도 아니며, 사회로부터 고립된 영

72) H.-W.Gensichen, Glaube fuer die Welt, Guetersloh 1971, 101-162. 겐지헨은 선교의 목표를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서 다루고 있다.

육의 존재도 아니다”라는 존 스토틀의 말에 주목해야 한다.⁷³⁾ 여기에서 교회의 사회봉사를 자신의 실천과제로 포함할 수 있는 선교이해, 즉 통전적 선교이해에 기초할 때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수행이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게 된다.

2) 전 세계의 선교 현장화

선교는 어떤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고 전 세계를 하나님의 선교현장으로 인식해야 한다. 과거의 서구교회 중심적 선교는 지리적으로 서구사회에서 비서구사회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서구사회는 이미 복음화 된 기독교 사회이며 이 교도들이 살고 있는 비서구 사회만이 선교 현장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3년 멕시코대회에서 “6대륙에서의 선교”라는 주제를 선언하면서 이와 같은 일방적인 선교구도가 바뀌게 되었다. 지금까지 세계선교를 주도해 오던 서구사회가 더 이상 기독교 사회가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탈기독교 사회”(Post-Christentum) 혹은 “기독교 이후의 사회”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는 더 이상 서구사회에서 비서구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복음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즉 서구사회는 재복음화 운동(Re-Evangelization)을 전개해야 하며 과거에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던 신생 교회들이 이를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 서구교회는 점점 비어가고 있는 현상을 심각하게 자성하며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⁷⁴⁾ 물론 이러한 관점에 대하여 아직 세계선교를 위한 역량을 가진 서구교회가 자기 지역에 몰두함으로 미전도지역의 선교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들린다.

이 구조에 대한 오늘의 세계선교 상황으로의 적용은 서구와 비서구 사회에서 선교사 파송국가와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국가와 교회 사이의 상호 배움과 협력관계를 제안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세계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함을 인식하고 제각기 소유하고 있는 선교적 자원을 모아 효율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선교를 수행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 순수한 복음전도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지역이 있으며 반대로 폭 넓은 의미의 선교적 접근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 기독교 지역이었던

73) J.R.W.Stott, 현대의 기독교 선교, 40

74) 필자는 독일에서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윤리학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교회 감독인 볼프강 후버, 독일 카톨릭의 영향력 있는 학자와 현재 추기경인 발터 카스퍼의 서구사회와 독일의 재복음화와 신앙의 회복을 강조하는 발언과, 그리고 최근에 윈스터 대학교 교회사 교수인 마틴 브레히트 교수의 독일에서의 교회의 부흥이 요청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유럽의 교회들은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실천을 자국이나 해외 선교지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정작 자국 내의 기독교 신앙과 교회는 미약해져 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듣는 복음전도를 통한 교회의 성장과 “재복음화”의 측면이 강조,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편협한 선교이해로 인해 주로 복음전도와 교회성장 측면에 집중하면서 신앙을 사회적 차원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영적, 피안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신생 교회들은 선교의 폭 넓은 이해와 그 의미의 역사적, 세계적 구체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3) 다양한 문화 속에서 선교: 선교와 문화

선교는 다양한 문화들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서구 국가들이 세계를 지배하던 19세기 식민지 시대의 선교는 서구문화 우월주의가 반영되던 시기였다. 서구문화가 기준이 되어 선교현장의 문화를 평가하고 판단하였다. 선교현장의 문화는 대부분 미개하거나 야만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며 기독교에로의 개종은 선교사의 문화형태까지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제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신생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서구 제국주의의 문화적 획일주의와 정복주의가 비판을 받게 되었으며 모든 문화를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것으로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선교현장에서 경험하는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들이 인정되고 존중을 받게 되었다. 다양한 문화는 복음의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풍성한 의미를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⁷⁵⁾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만나는 에큐메니칼 모임에서 서로의 차이들을 통해 성경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다양하고 풍성한 면들이 드러났다. 물론 복음이 새로운 문화를 만나면서 그 내용의 순수성이 혼잡케 되는 현상은 경계해야 하지만 복음이 선교현장에서 가장 풍성하고 견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문화적 상황에 진실하게 뿌리를 내릴(성육신화)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⁷⁶⁾ 여기에서 선교는 선교사와 그의 문화를 절대화하는 일방적인 형태가 아니라 타문화 속에서의 신앙경험을 존중하는 쌍방향적인 사건으로 이해된다. 그럴 때 선교는 상호이해와 존중, 배움의 과정이 된다.

75) Authentic Witness within each Culture, Section I:

Conference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 (Salvador,Bahia,Brazil,1996),IRM,Oct, 1995

76) A. Walls, The Gospel as Prisoner and Liberator of Culture, in: J.A.Scherer & S.B.Bevans, New Directions in MissionandEvangelization3,FaithandCulture, Maryknoll,NewYork,1999,17-28

4) 기독교와 타종교 간의 대화: 선교와 종교

선교에 있어서 타종교에 대한 배타 주의적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사랑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기독교인은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하며 이것을 선교의 책임과 과제로 수용해야 한다. 평화로운 공존자체가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닐지라도 종교의 차이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오늘의 세계현실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것이다.⁷⁷⁾ 선교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갈등 속에서도(바울의 경우, 모슬렘 사회에서의 선교) 실천되어야 하지만 평화로운 공존관계 일수록 더욱 효과적으로 바르게 수행되어진다. 더욱이 다양한 인종, 문화,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아시아 상황에서 평화로운 공존을 실현하는 것은 기독교 선교의 전제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기독교와 타종교간 대화가 필수적이다. 대화는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하셨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 기간 동안 누구와도 차별 없이 대화를 나누셨다. 특히 당시에 천대 받고 소외당했던 사람들과 대화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셨던 대화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는 복음 선포가 언제나 일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히 대하셨으며 상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말씀하셨다. 선교에서 대화를 언급함은 선교가 일방적이거나 강요적 방식이 아닌 상호 인격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상호존중의 태도에서 진행되는 것임을 가리킨다.

타종교와의 대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는 대화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혼합주의나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거나 더 나아가 복음 선포를 포기하고 선교를 대화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에 근거한다. 그러나 진정한 대화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화는 상대방에게 경청하는 동시에 자신의 신앙에 대한 증언을 병행, 포괄한다. 에큐메니칼 대화의 문서 어디에도 대화에서 복음증거를 포기하거나 기독교에로의 초청을 대화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발견할 수 없다.⁷⁸⁾ 대화는 새로운 공동체와 인류를 위한 공동의 봉사에 참여하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회심을 포기하고 오직 대화만을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적 대화와(틸리히, 종교다원주의자)는 분명하게 구별된다.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인과 대화할 때 그 대화는 선교의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선교를 실천하는 한 형태로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종교적 갈등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화는 상대방에 대한 편

77) J.A.B. Jongeneel and J.M.van Engelen, Contemporary Currents in Missiology, in: Missiology. An Ecumenical Introduction. Ed. By F.J.Verstraelen, A.Camps, L.A.Hoedemaker, M.R.Spindler, GrandRapids,Michigan,1995,438-457

78) 한국일, 증언과 대화. 기독교와 타종교간의 대화에 관한 연구, 선교와 신학 제7집(2001),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143-172

견을 불식하여 서로에 대한 보다 바른 이해를 얻고, 나아가 인류의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요청되는 것이다.

5)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수행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의 선교적 책임은 교회가 단지 말로만 복음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교회로 인해 변화시켜가는 것이다. 그것은 선교의 궁극적 목적이 교회자체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선교는 사회로부터 분리된 교회로서가 아니라 사회 속으로 뛰어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자세에서 행해진다.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나 세상 안에 존재하며 세상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세상을 선교의 장으로 받아들인다. 여기에서 교회와 세상을 중세시대의 성과 속의 이분법적 구도로 구분하는 도식은 지양된다. 세상은 도피해야 할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소명의 영역이며 선교의 장이다. 교회의 선교적 과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수행은 교회의 공신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것은 교회의 선교활동의 기초가 된다. 교회의 선교에서 개 교회들의 보이는 부분과 함께 전체 한국 교회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요하다. 교회의 선교활동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전체 교회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때이며 사회적 공신력을 얻을 때이다.

70-80년대 한국교회는 각 교회적으로 열심히 전도활동을 했고 동시에 소수의 진보적 성향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정의실현을 위해 앞장서서 불의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보였는데 이것은 특히 청년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였다. 이러한 이미지는 복음적 교회들의 선교활동을 도왔고 한국교회의 성장에 보이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공신력은 전도활동의 기초이다. 공신력을 상실하게 되면 전도의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몇 년간 계속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나타난 교회들의 부정적 이미지는 교회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을 많이 손상시켰다. 결과적으로 개신교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왔으나 반면에 가톨릭은 배나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선교의 두 차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 하는 일(마28:19-20)과 함께, 이 세상에 복음의 가시화, 즉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야 함을 암시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선교적 차원이 복음증거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포괄하게 될 때 선교의 효력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교회는 구제와 자비를 행하는 사회적 봉사(social service)와 때로는 잘못된 제도와

구조약을 개선하려는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으로 선교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세계복음주의 협의회는 1974년 로잔에서 회합을 갖고 선교의 개념을 과거의 전도적 측면으로만 이해하던 입장에서 사회책임을 전도와 함께 선교의 내용으로 천명하기에 이르렀다(로잔협약 5항).⁷⁹⁾ 이러한 교회 인식의 변화는 교회의 선교적 책임이 전도의 영역 뿐 아니라 사회봉사와 행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도 선교의 의무로 함께 주어졌음에 대한 자각에 기인한다.

6) 전인적 생명의 회복과 전 피조세계의 보전과 지속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대안적 삶의 태도:

선교는 인간의 전인적 생명과 전 피조세계의 올바른 질서회복을 포함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로움은 인간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하는 동시에 환경오염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환경문제는 이제 세계 어느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일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자연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문명의 발전은 도리어 인류를 파국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교회는 생명의 포괄적 의미를 인식하고 누구보다도 환경보존에 앞장서야 한다. 인간의 그칠 줄 모르는 탐욕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회복하는 것은 곧 인류의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의 선교적 과제이다.

환경과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의 방식(Lifestyle)을 바꾸어야 한다. 과거 가난했던 시절에는 가능한 한 더 많은 것을 소유하여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제는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⁸⁰⁾ 그것은 할 수 있지만 스스로 덜 쓰고 안 쓰는 절제된 삶의 방식이다. 즉 피조세계의 보전을 위해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인류의 생존을 지탱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삶이란 검소한 삶, 단순한 삶, 절제하는 삶, 스스로 불편함을 선택하여 문명의 이기가 주는 역기능을 최소화 하는 자세,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눔을 행하는 삶의 방식들이 교회에서부터 강조되어 사회로 확산되어가야 할 것이다.

7) 상호협력관계

79) 복음주의 관점에서 이 주제에 관한 자료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In Word and Deed, Evange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LausanneCommitteeforWorldEvangelization World Evangelical Fellowship, 1985

80) L.Boff, Ecologia Mundializacao Espiritualidade. A emergencia de um novo paradigma, 김형섭 옮김, 생태신학, 가톨릭출판사 1996

선교는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원을 모으고 나누는 협력관계 안에서 함께 수행하는 것이다. 오늘의 선교 상황에서 복음주의나 에큐메니칼 선교를 막론하고 세계 모든 교회는 동반자적 협력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선교사의 가장 큰 어려움은 동료 선교사들과의 불화로 지적된다. 선교현지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한 선교사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 선교사들 간의 협력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선교사들 간에 불필요한 경쟁심, 폐쇄적인 성격, 파벌의식, 권위의식, 선교사 자신의 협력선교에 대한 관심과 의지의 부족, 지나친 교파주의, 파송 교회나 후원기관의 선교에 대한 에큐메니칼 의식의 결여 등이다. 그러므로 먼저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현지 교단이나 선교회, 한국의 (파송)교단이나 선교회가 협력관계를 맺고 선교협정을 맺은 후 현지교회의 필요를 따라 선교지를 결정하고 선교사를 선정하여 훈련하고 파송한 후 철저히 현지 교회와의 협력 하에 선교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⁸¹⁾ 그렇게 해야 선교가 정상적인 채널로 이루어져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선교가 되고, 또한 선교사가 현지교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선교사 개인에 따라 선교활동이 좌우되는 현상을 피하고 선교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세계선교부와 에큐메니칼 협력관계를 다루는 창구가 일원화 되거나 적어도 긴밀한 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선교사가 파송되기 전 선교사 훈련과정에서 에큐메니칼 운동과 선교협력의 목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하여 선교협력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에큐메니칼 협력관계에서 보면, 선교는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현지 교회 사이에 상호주체성의 존중과 문화와 형태의 차이에 근거한 다양한 기독교 신앙의 경험과 차이의 인정, 그리고 상호배움과 상호변혁을 위한 개방성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교현장의 상황에 따라 협력관계가 실현되기 어려운 현지상황을 고려하여 개척선교형태도 역시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문화권이나 공산권지역(중국, 베트남), 개신교 약세지역으로서 협력관계 교단을 찾기 어려운 나라(천주교가 지배하는 남미상황, 힌두교가 강력한 네팔 등), 혹은 교회가 없는 곳(미전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야 할 지역적 특수상황에서는 협력관계의 근본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또는 교단의 위임을 받은 선교사가 현지교단과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

현지교회와의 협력관계에서 재정후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일관된 정책이 있어야 한다. 현지교회에 대한 재정후원이 현지교회의 자립기반을 박탈하고 선교사 의존적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기반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81) 서성민, 한국장로교 선교의 협력, 선교와 신학 제8집(2001)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9

8) 교단의 선교정책과 파송구조의 개선

선교는 파송만이 아니라 선교를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후원하는 구조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 한국교회가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는 많지만 그 선교활동을 효율적으로 바르게 수행토록 하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선교사들은 교단 파송 선교사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개 교회 파송 선교사의 특성을 지닌다. 그것은 개교회가 교단을 통해서 파송하고 후원하며 선교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감독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후원교회가 선교현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극단적인 경우에 후원교회 당회장에 의해서 선교사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한다. 한국교회 선교의 가장 큰 취약점은 선교사를 파송만 하고 충분한 관리와 돌봄이 없다는 것이다. 한 선교사의 말을 빌리면, 선교사는 선교현장에서 고아처럼 되든가, 아니면 특수부대 요원처럼 자신이 스스로 싸워서 생존하여 영웅이 되거나 도태되든가 하는 두 가지 길 중의 하나라고 한다.⁸²⁾ 선교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돌보며 돌아온 후의 사역까지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파송하는 교회, 후원자, 교단, 선교사가 연합하여 함께 수행할 때 바른 선교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선교사 관리에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개 교회나 교단의 선교부로는 그 많은 선교사를 돌보기에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다양한 제안을 종합하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관, 후원하는 기관, 수용하는 기관 사이의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룰 때 한국교회 선교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선교사 선발과 파송은 선교부가, 후원은 후원교회가, 현지에서의 선교사 관리와 배치는 현지 선교부가 담당하는 것이다. 후원교회나 목회자의 영향력이 선교지에 직접적으로 행사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선교에 대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선교 단체들은 선교사 관리와 보호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기도와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관리는 전문적인 선교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교회의 현 선교사 파송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화된 선교단체의 경험을 배우거나 그들과 협력하는 것이 현재의 개교회 중심의 선교구조를 개선하는 길이 될 것이다. 선교사 파송과 관리구조의 갱신을 위해서 최소한 지역별 선교행정 담당자제도를 신설하여 현지 선교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일관된 선교정책 실현과 선교사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교단선교부)

한국교회 선교는 개교회의 선교열정과 재정적 후원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82) 임종표 편집,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는 한국선교의 반성과 그 준비, 한인 선교사 지도력 개발회의발간, 1999, 175

후원교회의 지속적인 열심을 보존하되 현장에 대한 산발적이며 직접적인 영향으로 야기되는 선교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후원교회의 목사와 선교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후원교회)

한국교회의 보다 나은 미래의 선교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신학교의 선교학 교육과정과 선교사 훈련과정에서 세계선교동향과 선교현지의 상황을 반영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교단선교부, 선교학자, 현지 선교사회간에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가 형성되어야 하고, 선교정책에 대한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선교학적 성찰과 반성을 통해 올바른 선교정책을 마련키 위한 위의 기관들의 정례모임이 필요하다.

결 론

신생교회로서 한국교회의 놀라운 성장과 활발한 해외선교 활동은 복음적 신앙의 열심에서 비롯되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영생을 약속하는 구원의 확신과 성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복음전파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열심은 복음주의 신앙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적 열정 배후에 있는 자기중심적 배타주의의 편협한 신앙의 역기능을 외면할 수 없다. 복음주의 신앙을 에큐메니칼 관점에서 조명하면 그 본래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복음주의 신앙의 개인주의와 교회중심주의에 치우친 편향성을 극복하고 그 의미의 구체성, 역사성, 세계사적 지평을 회복하여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가도록 부름 받은 세계를 향한 선교적 책임을 수행하려는 것이다.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선교의 통합적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선교사역의 장을 교회중심으로부터 세계지평으로 확대
- 2) 선교사 파송교회 중심의 일방적 선교형태에서 선교사(파송교회)와 선교현지 사이의 상호존중과 상호 배움, 상호변혁의 과정으로서의 선교
- 3) 갈등과 분열에서 협력과 일치의 에큐메니칼 정신을 회복
- 4) 오늘의 상황에서 직면하는 민족, 종족, 종교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충돌 상황을 진지하게 수용하면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선교활동
- 5) 에큐메니칼 연대와 협력활동: 교회와 선교사간의 일치와 협력을 위해서 먼저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지 교회의 상호주체성 인정, 각 문화전통의 차이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이해와 형태의 다양성과 차이 존중, 상호 배움과 상호변혁
- 6) 전 피조세계의 올바른 질서와 생명의 회복을 지향하는 창조세계의 보전 선교활동.

이를 위해서 자기 경험을 절대화 하는 비대화적 경직성, 다른 입장을 정죄하는 배타적 극단주의, 교회 상황의 대중성을 무시하고 신학을 현학적으로 만들어가는 소수의 엘리트주의 등은 피해야 할 것들이다.

본 교단 선교사들의 역할은 교단의 신학적 성향으로 볼 때 선교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신학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신학적 넓이와 유연성은 선교현지의 진보적 토착교회와 보수적 신학을 배경으로 한 선교사간에 중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필리핀에서와 남미에서 본 교단 선교사들은 합동교단의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현지교단소속 교회들과 보수 성향 선교사들 사이의 마찰과 긴장관계를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 여기에 본 교단이 복음주의적 신앙에 기초하면서 에큐메니칼 관점의 넓은 지평에서 선교적 의미를 확장하여 실천해야 할 고유한 사명이 있다.

최근 WCC에 대한 비판에 대한 역사적 고찰⁸³⁾

정병준 목사(서울장신대학교, 역사신학)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회가 2013년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총회를 한국의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이후, 한국교회는 해묵은 WCC 찬반논쟁이 재현되었다.

WCC 총회를 유치한 측에서는 WCC 한국총회는 아시아에 주어진 얻기 힘든 기회를 얻은 것이며, 세계교회를 한국으로 초대하는 것인 만큼 한국교회가 가능한 넓게 연합하여 이 행사를 치루기를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영성, 헌신, 성장, 선교의 역량, 한국교회가 타종교들과 평화적으로 공존해온 경험,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공헌들을 모아 세계 교회와 공유할 기회로 삼자고 호소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 총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의 흐름을 이해하고 기왕에 WCC와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오해들을 불식시키는 계기를 삼고 싶어 한다.

반면, WCC 총회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WCC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사회구원론, 인본주의적 성경관, 선교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용공적인 정치행위를 했기 때문에 WCC 총회를 수용할 수 없고, 반대운동을 하거나 같은 시기에 다른 세계적인 집회를 계획하겠다고 까지 언급하였다.

세계적으로 복음주의자 지도자들과 에큐메니칼 지도자들은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교회의 선교가 영혼구원을 위한 것이며 사회참여를 배재할 수 없다는 통전적 선교개념으로 수렴되고 있고, ‘세계기독교포럼’(World Christian Forum)이라는 대화의 광장에서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서는 양자 사이에 양립할 수 없는

83) 이 글은 <기독교연합신문>2009년 11월 18일자 11월 26일자 양일에 걸쳐 기고되었던 원고를 기초로 하였다.

날카로운 각이 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WCC에 반대하는 신학적 정체성을 지닌 분들의 입장에서는 WCC 총회가 단순한 “이웃집 잔치”가 아니라 불쾌하고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WCC 총회 장소가 ‘서울’과 ‘부산’ 중에서 후자로 결정된 것도 사정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필자의 견해로는 WCC에 대한 한국교회 일각의 비난은 학문적 연구나 실제적 사실에 근거하기 보다는 한국장로교회의 분열의 경험과 반(反)WCC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에서 WCC를 비판하는 주장들을 읽어보면 많은 경우에 WCC의 공식문서나 학문적인 주장들을 제대로 연구하고 비판하지 않고 과거로부터 전래된 이야기가 확인 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WCC에 대한 비난은 순수하게 신학적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었다. 미국의 극우 근본주의 단체였던 국제기독교협의회(ICCC: 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의 WCC에 대한 흑색선전, 한국의 극단적인 냉전상황, 교권 다툼과 교단분열, 유신과 제5공화국 치하에서의 국가-교회 관계라는 복잡한 함수 관계들이 얹혀서 악화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WCC에 대한 비난도 바로 이러한 비난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한국교회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대립의 평행선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WCC가 무엇인지?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채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따라 서로를 적대시 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가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WCC를 비난하는 근거들에 대해 나름대로 응답하려고 하며 그 근거들이 정당한 것인지 검토하려고 한다.

1. 칼 맥킨타이어와 국제기독교협의회의 반(反)WCC 활동과 한국교회 분열에 끼친 영향

미국의 근본주의자이며 극우 반공주의자였던 칼 맥킨타이어(Dr. Carl McIntyre, 1906~2002)는 1948년 WCC 창립에 반대하기 위해 ICCC를 창립하고 일평생 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한국 안에서 WCC 반대운동을 조직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고 그가 제공한 ICCC 자금은 한국교회 안에서 반(反)에큐메니칼 운동과 교회분열에 크게 영향력을 주었다.

1962년 그가 쓴〈WCC와 ICC의 차이〉를 보면 지금 한국교회의 일부에서 WCC를 비난할 때 사용하는 논리가 대부분 매킨타이어로 부터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⁸⁴⁾

	WCC란?	ICCC란?
창 설	1948. 8 네덜란드	1948. 8 네덜란드
회 원	현대주의자, 복음주의자, 유니테리언, 그리스정교회, 공산주의자	복음주의적 개신교인들 신앙의 순수성과 온전성을 유지
목 표	하나의 에큐메니칼 교회를 추구	20세기 종교개혁운동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자들, 기타로부터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방어
신 조	간단한 신앙진술	성경무오, 삼위일체, 동정녀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무죄, 대속적 죽음, 육체적 재림
공산 주의	임원회와 중앙위원회 안에 공산당	공산당이 WCC를 통해 악마적 세계적 음모를 실현하는 것을 발견
교회 일치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를 교회연합의 대의로 잘못 사용	일치는 영적인 것, 주님 재림 때까지 기다릴 것
하나님 나라	세계 사회주의를 통해 실현	영적인 질서
정치 문제	국제관계위원회(CCIA)를 통해 정부와 UN 등 정치압력 행사	정치는 교회사역이 아니다.

이상의 주장에서 ICC는 WCC가 단일교회를 추구하고, 용공적이고, 사회구원을 주장하고, 정치에 개입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WCC는 단일교회를 추구하는가?

WCC는 110개 국가에 속한 349개 교회와 교파들의 협의체로서 약 5억 6천만의 기독교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동방정통교회의 대부분과 영국성공회, 침례교회, 루터교회, 감리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및 다수의 개혁교회들, 연합교회와 독립교회들, 오순절교회들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교회협의회 헌장은 그 정체성에 대해

84)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http://www.carlmcintire.org/booklets-wccVicc.php>.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계교회 협의회란 성경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의 친교(Fellowship)이다. 그러므로 세계교회 협의회는 한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한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려고 노력한다.⁸⁵⁾

WCC 헌장은 그 회원의 자격을 특정 교파의 신조에 두지 않는다. 사도신조와 니케아신조에 근거하여 성경과 삼위일체 신앙을 교회의 연합의 기초에 두고 있다. 교파들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치(God-given-unity)를 추구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국교회의 일부가 비판했던 대로 단일교회 운동이 될 수가 없다.

3. WCC는 용공적인가?

1951년 7월 22명의 국회의원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WCC 단체이고 용공단체라고 성명서를 낸 사건이 있었다. 그 배후에는 막 장로교 분열을 경험한 교단의 일부 인사들이 있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직후, WCC는 7월 9~15일 토론토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한국 상황과 세계질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북한군의 남침에 대처해서 유엔이 한국에서 경찰행동을 해줄 것을 촉구했고, 그 결과 유엔군의 참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WCC 회원교회들은 한국을 구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상황에서 WCC 용공발언은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모함이며 흑색선전이었다.

그 후 1956년 프린스턴 신학교 교장 존 매케이(John MaKay)가 미국 NCC 안에서 중국교회의 재승인을 제안한 일이 다시금 용공논란을 불러일으켰고, 1959년 통합과 합동의 분열 때도 WCC 용공시비가 재현되었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당시에다 각종 관 주도 집회와 예비군 훈련 등에서 WCC와 교회의 산업선교를 용공으로 매도하였다.

85) “What is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http://www.oikoumene.org/en/who-are-we.html>

그러나 역사가 흐른 지금, 구소련이 붕괴되었고 WCC 용공논쟁은 역사적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 WCC용공론을 사용하여 반대파 교회를 용공으로 몰았던 비신사적 관행은 반성해야 할 점이다.

4. WCC는 사회구원만을 주장하는가?

WCC는 창립이후 영혼구원과 사회구원을 통전적으로 다루어왔고 1990년대 이후에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도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WCC가 사회구원을 과도하게 강조한 때는 1960년대였다. 마틴루터 킹과 케네디의 암살, 월남전, 남미와 제3세계 국가 안에서 군부독재정권들의 폭압 등이 그 시대적 배경이었다. 그러나 1973년 방콕 총회 이후, WCC 내부의 복음주의 계통의 신학자들의 영향으로 개인구원과 사회참여의 조화와 균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4년 ‘로잔언약’ 역시 교회의 사회참여를 강조한다.

우리는 사회참여에 소홀히 해온 것과 때때로 복음전도와 사회적 관심이 상호 배타적이라고 생각해 온 것을 회개한다. 비록 사람과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고, 사회적 행동이 전도는 아니고, 정치적 해방이 구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와 사회정치적 참여가 모두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을 확증한다. ...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불의한 세상 한복판에서 알려야 하고 확장시켜야 하고 실현시켜야 한다.⁸⁶⁾

그 이후 복음주의 운동과 에큐메니칼 운동 사이에는 구원의 통전성을 향한 수렴이 나타나고 있다. WCC는 정의와 평화, 생태계 보전과 같은 참여를 강조하지만 사회구원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5. WCC는 정치 단체인가?

기독교 신앙은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다. 18-19세기 영미권의 복음주의 운동은 복음전도뿐만이 아니라 노예제도철폐, 교도소개혁, 노동시간 단축, 어린이 노동금지,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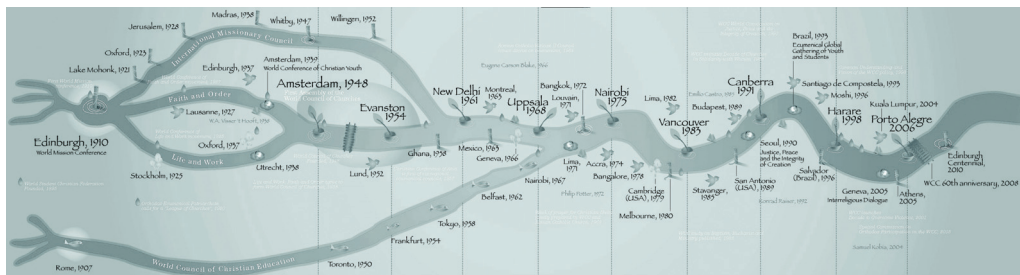
86) “Christian Social Responsibility”, The Lausanne Covenant, 1974 in J. A. Scherer and S. B. Bevans, ed., *New Directions in Mission & Evangelization 1*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 1992).

성들의 참정권 운동 등 사회변혁으로 발전했다. WCC는 사회의 불의와 부정의 문제를 선교의 과제로 삼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했고, 독재국가들의 인권탄압에 반대했고, 우리나라의 민주와 인권운동을 지원했고, 한국교회 통일운동에도 징검다리를 놓아주었다. 현재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위한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WCC의 이러한 행동은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부터 정치집단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정권을 내세워 인종차별을 정당화 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WCC가 아프리카 민족회의(ANC)에 무기를 지원했다고 흑색선전을 했다. 사실은 남아공정부는 ICC의 매킨타이어에게 WCC를 비난하도록 재정을 지원했다. 1975년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WCC총회가 열렸을 때, ICC는 WCC총회를 방해하려고 하였으나 케냐정부는 인종차별정책으로 수많은 흑인들을 살육한 남아공정부의 지원을 받는 ICC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6. WCC는 선교에 무관심한가?

WCC의 뿌리는 1910년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World Missionary Conference)까지 소급된다. 이 선교운동은 1921년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로 발전했다. 1차 세계대전이후 기독교 세계는 전쟁으로 분열된 현실을 우려하며 1925년 스톡홀름에서 사회참여를 다루는 <삶과 봉사 운동(Life and Work)>을 조직했다. 그 후 교회들 사이의 교리적 다양성 속에서 일치성을 추구하는 <신앙과 직제 운동(Faith and Work)>이 1927년 로잔에서 출발했다. 1948년 “삶과 봉사”와 “신앙과 직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WCC를 창립했다. 그 후 국제선교협의회(IMC)는 1961년에 WCC에 가입을 하였다. WCC는 선교, 봉사, 신학이라는 세 운동의 합류가 되었다.



WCC의 선교론에 대한 비판은 19세기 서구주도형의 선교방식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19세기는 선교에 있어서 “위대한 세기”였지만 서구식민주의, 문화제국주의,

백인우월주의라는 어두운 측면이 있었다. 서구 식민지를 경험했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 안에서 기독교 선교는 어려움을 겪었다.

1971년 동아프리카 장로교회 총무 존 가투(John Gatu)는 제3세계 교회가 서구교회의 보호를 벗어나 자신들의 미래의 방향을 결정할 시간을 갖기 위해 5년 간 선교사들을 본국으로 송환해 달라는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주장했다.⁸⁷⁾ 모라토리움은 선교 중지 요청이 아니라 삼자교회가 되기 위한 시간을 요청한 것이었다. 1972년 WCC의 “에큐메니칼 자원나눔”(ESP)은 ‘모라토리움’ 보다는 선교사 파송과 재정지원이 양교회의 상호책임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동반자 관계(partnership in mission)를 발전시켰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일부 단체들은 WCC가 ‘모라토리움’을 결정했고 그것이 선교무용론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WCC는 선교하는 교회가 현지의 문화를 존중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타종교를 억압하거나 국가나 다른 권력의 힘을 사용하거나, 경제적으로 유혹하여 강제로 개종하는 선교정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에 위반되는 것으로 분명히 반대한다.

7. WCC는 다원주의를 표방하는가?

WCC는 로마 가톨릭을 제외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주류교회들의 협의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CC를 다원주의 혹은 혼합주의라고 비난하게 된 근거는 WCC가 지난 45년 동안 전개 해 온 “종교간 대화 프로그램”때문이었다. WCC는 종교간 대립으로 벌어지는 많은 폭력과 유혈 사태를 중지시키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WCC는 신학협의회 안에서 신학자들과 종교전문가들의 대화에 충분한 학문적 자유를 제공한다. 그 후 오랜 시간의 협의를 통해 공식입장을 발표한다.

WCC는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WCC는 「읍살라 총회보고서」(1968)에서 타종교인과의 대화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명시했고, “타종교인들과 이데올로기와의 대화지침”(1979)에서는 기독교를 “타종교나 이데올로기로 해석”하는 “혼합주의”의 위험성을 주의하도록 경계하고 있다.

다른 종교인과 대화를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독특성(유일성)을 부인하는

87) 같은 해 필리핀 감리교회의 에메로토 낙필(Emerito Nacpil) 역시 같은 주장을 하였고, 1974년 제3차 범아프리카 교회협의회(AACC)도 ‘모라토리움’을 요청했다. Gerald H. Anderson, “모라토리움”,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사전 I」,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서울: 한들출판사, 2002)

것도 아니며,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헌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다른 종교인에 대한 진정한 기독교적인 접근은 인간적이며, 인격적이고, 적절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대화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를 모르는 이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예수님을 아는 자라도 그의 제한되고 왜곡된 지식선포를 바로 잡는다는 것을 믿는다.⁸⁸⁾

그러나 한국교회의 일각에서는 WCC의 공식문서와 입장을 사용하지 않고 신학협의회에서 주장되는 개인들의 주장을 WCC 입장이라고 비판한다. 또 한편 “WCC 공식입장은 다원주의가 아니라고 해도 WCC 안에 다원주의자들의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한다. 그 논리에 따르면 신학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장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말아야 하며, 종교 간의 대화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8. WCC는 교회를 분열시켰는가?

한국교회 안에는 WCC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주장이 강하게 남아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세계 곳곳에서 WCC가 교회분열을 일으킨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WCC에 대한 찬반 논의가 장로교회와 성결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교회 내부의 문제였고 WCC가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니었다. 그 후 한국의 장로교회는 100개가 넘는 교단으로 분열되었는데 반(反)에큐메니칼 교단 내부에서 일어난 분열이었다. 그 과정에서 ICCS 자금은 여러 번의 장로교회 분열에 개입했고 성결교의 분열에도 개입되었다. 한국교회의 분열은 신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교권 투쟁과 지방색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 그런데 교회분열의 책임을 WCC 신학으로 돌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역사적인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비판과 교정에 대해 개방적이어야 한다. WCC는 완벽하지 않고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어떤 교단과 교회 집단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비판을 할 때는 진지한 연구와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대로 한국교회 일각에서 WCC를 비판하는 내용들은 1950년대부터 내려오던 경험의 전수와 전해들은 이야기들의 연장과 확대 재해석이다. 이런 비판은 한국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비판하는 주체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게 될 뿐이다.

88) 세계교회협의회, 이형기 역, 『세계교회협의회 역대총회 종합보고서』(한국장로교출판사), 263쪽.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정경호 목사(영남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

들어가는 말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총회가 2013년 부산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는 우리 한국교회의 영광이요 기쁨이며 이를 계기로 그 동안 한국교회에 임해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널리 증언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아시아와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계교회협의회를 한국에 유치하게 된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 한국교회는 개 교회 중심을 극복하여 함께 연대하여 아시아와 지구촌세계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세계교회협의회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이며 동시에 오늘날 지구촌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반(反)생명적이며 반(反)평화적인 요인들이 무엇인지도 심도 있게 연구하여 할 것이며, 한국교회는 아시아와 지구촌세계를 향하여 어떠한 섬김과 나눔과 봉사와 선교를 할 것인지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선 세 가지 주제에만 역점을 두어 언급하고자 한다. 그것은 첫째, 세계교회협의회가 함께 모여 읽고 음미하는 성서공부이며; 둘째, 세계교회협의회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분석해보고 그들이 부르는 찬송의 의미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며; 셋째, 세계교회협의회가 하나님의 생명평화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 WCC와 성서연구: 한스-류디 웨버 박사의 몸으로 읽는 성서

1971년부터 세계교회협의회 성서연구 교제를 만든 사람은 스위스 개혁신교회의 목사인 한스-류디 웨버 박사인데 그는 세계교회협의회 성서연구 책임자로서 적어도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의 방법은 철저하게 연구하여야 하며, 둘째로 성서 그 당시와 오늘의 우리들이 서로 대면하고 만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셋째, 그 말씀의 뜻을 마음 속 깊이에서 명상하여야 하며, 넷째로 그 말씀을 통해 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성서연구의 방법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그것은 첫째, 성서의 내용을 단지 눈으로 읽어 내려가는 눈으로 읽는 성서연구요, 둘째는 눈으로 읽은 성서말씀을 마음으로 읽는 성서연구이며, 셋째는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은 성서를 몸으로 실천하는 데 역점을 둔 성서연구방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의 몸으로 읽는 성서연구 방법은 성서연구와 함께 그림, 시, 음악,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십자가이해, 교회역사, 지구촌세계 이야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성서를 입체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다양하게 이해한 성서의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몸으로 실천하게 하는 것이 그의 성서연구의 가장 큰 특징이며 WCC의 오늘의 성서공부의 한 방법인 것이다.

1. 성서연구 I: 현대인들을 위한 초청장(마태복음 27: 45-54)

선교란 교회가 파송한 선교 동역자들이 담당한 선교활동이나 또는 개인이나 조직을 회개시키거나 부흥시키는 전도운동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선교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서에 나타난 초대교회나 그들의 신앙공동체를 보면, 그들이 고백한 신앙의 내용에 따른, 철저한 신앙의 삶을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십자가 신앙은 부활신앙과 함께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된다. 한스-류디 웨버 박사는 성서공부를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기에 그 초청에 응답하며 참여해보자.

(1) 연구: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독특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하여 공통된 점들을 찾아보자. 첫째,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함께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둘째,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2) 그 당시와 오늘의 대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오늘의 십자가

첫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당시의 사회, 정치, 문화 그리고 당시의 종교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생각보자.

둘째, 오늘에 있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자.

셋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생명을 죽이고 마는 생명 죽음의 종교·사회·정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개인주의, 경쟁주의, 소비주의, 물신주의,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 그리고 오늘의 사회와 세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반생명적·반평화적인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적 대안은 어떤 것일까?

(3) 명상: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첫째, 한스-뤼디 웨버 박사의 "성 금요일 정오에"(On a Friday Noon)란 책에 나오는 여러 다양한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몸소 십자가를 짊어지신 희생의 영성을 명상해보자.

둘째, 수난 주간에 교회에서 부르는 어떤 찬송이 가장 나에게 은혜를 주며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가?

셋째, 오늘의 인간과 세계를 위협하는 생명 죽음의 반생명적이며 반평화적인 일들은 어떤 것일까?

넷째, 나에게 예수님의 수난을 생각게 하는 시. 그림,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예수님의 절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그곳의 사람, 그곳의 나라들을 잘 알고 있는가? 오늘의 우리 교회는 그곳을 향하여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4) 실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난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한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운 나머지 집으로 돌아와서 한, 행동은 어떤 것일까?

- | | |
|------------------|------------|
| 1) 배신을 한다. | 2) 부인한다. |
| 3) 집에 돌아와 잠을 잔다. | 4) 도망쳐버린다. |

- 5) 절망한다.
- 6) 불평한다.
- 7)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
- 8) 고향으로 돌아가 옛 직업으로 돌아간다.
- 9)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 속 깊이에서 생각하며 예수의 제자 됨을 굳게 다진다.

만약 나 자신이 당시 그 제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위의 아홉 가지 중에서 나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우선순위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자.

- 1)
- 2)
- 3)

2. 성서연구 II: 2010년 WCC 기도 주간의 말씀을 통해 본 생명평화 성서연구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의 지축을 뒤흔들었던 세계대전을 두 번씩이나 맞이하였다. 그 후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크고 작은 국제적 전쟁의 문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천 만명의 난민들의 문제, 경제적 가난으로 인한 살인적인 빈곤의 문제와 부채의 문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과 환경난민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시시각각으로 위협하고 있는 질병들의 문제 등이 있음을 본다. 이러한 오늘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며 바라시는 생명평화가 충만한 세계와는 정 반대의 모습으로써 반생명적이고도 반평화적인 오늘의 사회요 세계인 것이다.

오늘날 지구촌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생명평화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평화의 주제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내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즈음에 WCC와 온 회원교회가 2010년 기도주간에 사용할 말씀묵상을 누가복음 24장 1-48절로 선정하였고 구약의 말씀을 연결하여 묵상하게 하였다. WCC가 선정한 성서의 말씀을 열어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말씀 안에서 세상이 들어오고 동시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함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생명이 충만하고 온전한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함을 깨닫게 한다.

- (1) 첫째 날 말씀: 생명평화가 충만한 신앙(시편, 104: 1-24, 눅 24:1-5)
- (2) 둘째 날 말씀: 우리의 삶의 이야기(시편 98, 눅 24:13-17a)
- (3) 셋째 날 말씀: 신앙의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남(삼상 3:1-10, 눅 24:13-19a)
- (4) 넷째 날 말씀: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감사와 축제(신 6:3-9, 눅 24:17-21)
- (5) 다섯째 날 말씀: 고난을 통한 신앙의 증언(사 50:5-9, 눅 24: 25-27)

- (6) 여섯째 날 말씀: 말씀에 대한 신실한 봉사(사 55:10-11, 눅 24:28-35절)
- (7) 일곱째 날 말씀: 새로운 신뢰와 희망(욥 19:23-27, 눅 24:36-40절)
- (8) 여덟째 날 말씀: 이웃과 사회와 세계를 향한 환대(창 18:1-8, 24:41-48절)

이상에서 볼 때 WCC는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은 물론 이웃과 사회와 지구촌 세계를 치유하여 생명이 충만한 세상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사업을 세계교회와 함께 연대하여 이룩해나가고자 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II. WCC와 기도, 찬송 그리고 예배

1. WCC의 기도

(1) 기도 1 (첫째 날 말씀묵상 후 드리는 기도, 2010)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과 실천이라는 신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믿음과 삶을 살아온 것을 뉘우칩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께서 주신 생명을 충만한 생명 되게 하는 생명의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생명을 온전한 생명 되게 하는 일과

그 모든 생명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 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리시는 생명평화가 충만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려고 다 집합니다. 우리에게 힘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문을 수정 보완하여 개재함)

(2) 기도 2 (여덟째 날 말씀묵상 후 드리는 기도, 2010)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무한한 환대”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을 신음하는 이웃과 세상을 위해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들과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들을 환대함으로써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

해를 내려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으로 전쟁이 있는 곳, 난민이 있는 곳, 살인적인 가난이 있는 곳,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자연재앙과 환경난민이 있는 그 곳의 모든 낯선 이들에게 환대의 손길로 섬기고 나누며 봉사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모든 생명공동체 속에 정의와 평화와 충만한 생명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생명평화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원문을 수정 보완하여 개재함)

(3) 기도 3: 세계교회협의회 9차 총회 주제 기도문

2006년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열린 제9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의 주제 기도문은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켜주소서"였다. 이 기도는 생명을 위협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고난 받는 생명의 부르짖음 분열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환경파괴, 빈곤, 인종차별, 계급제도(카스트), 전쟁과 대량학살에

은혜의 하나님,

당신과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 가운데 당신께로 돌아갑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선을 위해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끄러운 종이었음을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남용하고 오용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분열로 인해 서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환경파괴, 빈곤, 인종차별, 계급제도(카스트), 전쟁과 대량학살에 대항하여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하는 일에 종종 실패하였습니다.

우리는 폭력의 피해자일 뿐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상황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사랑의 분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단숨에 무너뜨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용서에 힘입어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천지만물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물의 울음소리와 공기의 울음소리, 땅의 울음소리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착취당하고 소외되고 학대당하며 희생당하는 이들의 외침을 들으시옵소서.
 주여,
 빼앗기고 침묵을 강요당하고 인간 존엄성을 박탈당하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옵
 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이,
 진리를 왜곡하고 기만하는 범죄와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화해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기억을 왜곡하는 이들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의 울음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윤리적인 성실함에 다다르게 하는 모든 권능의 근원으로 인도하옵소서.

(4) 기도 4: WCC 제9회 총회 개회예배 기도문 ‘아시아를 위한 기도’

고대문명의 발상지, 인류의 반이 살고 있는 아시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콜롬보와 마닐라, 자카르타 거리에서 구걸하며, 흐느끼며 다니는 집 없는 어린이들
 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춘에 팔려 고통 받는 캄보디아의 수백 명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스리랑카와 미얀마에서 추방당한 수백 만 명의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방콕 홍등가의 여성들을 위하여,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의 이주노동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애쓰다 죽임을 당한 필리핀의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동티모르의 내전으로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진해일로 상처 입은 남아시아의 이웃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트남 전쟁 중 납용된 고엽제로 인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베트남의 아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낮은 보수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는 중국과 캄보디아, 태국의 공장 노동자들을 위

하여 기도합니다.

억압받고 박해받는 인도의 불가촉천민(달릿)을 위하여 그리고 기아로 허덕이는 아프 카니스탄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분단의 세월 속에서 상처 입은 한반도와 여전히 긴장 상황 속에서 있는 동아 시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도쿄의 심각한 자살 증가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존엄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애쓰는 이들이 주님의 변화시키시는 은혜에 힘입어 귀한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의로우신 주님, 저희 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2010년 세계를 위한 WCC의 기도

주간	나 라	주 간	나 라
1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27	볼리비아, 칠레, 페루
2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큐아타,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예멘 이란, 이라크	28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3	사이프러스, 그리스, 터키,	29	코스타 리카, 엘 살바도르, 니과라과 파나마
4	알제리아, 리비아, 모로코, 튀니시아	30	벨리제, 과테말라, 혼도라스, 멕시코
5	덴마크, 핀란드, 아이스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31	카라비안 해에 속한 아이티, 쿠바 외 13개 나라
6	아일랜드, 영국	32	캐나다, 미국
7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33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8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말타	34	태평양 군도의 피지, 파푸아 뉴기니 외 10개 나라
9	독일, 프랑스	35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10	오스트리아, 스위스, 앤도라 모나코, 산 마리노, 리탄스테인	36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11	미얀마, 태국	37	알바니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유고슬로비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12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38	불가리아, 헝가리, 로마니아

주간	나 라	주간	나 라
13	중국, 홍콩, 마카오	39	벨라루스, 몰도바, 러시아, 우크라이나
14	브루나이, 말레시아, 싱가포르	40	알메니아, 아젤바이잔, 조지아
15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41	아프카니스탄, 카자스탄, 키르기즈사탄 , 타지키스탄, 투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16	일본, 한국, 북한, 대만	42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17	소말리아, 디보오티	43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18	에리트레아, 에디오피아	44	인도양 군도에 속한 코모로스, 마다가스카스외3개나라
19	수단, 우간다	45	브룬디,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20	케냐, 탄자니아	46	콩고공화국, 가봉, 사오코메프린스피
21	말라이, 잠바이	47	카메론, 중앙아프리카, 에콰토리아 규니아
22	보스와나, 짐바브웨	48	브루키나 파소, 차드, 말리 마우리타니아, 나이즈
23	레소토, 남미비아, 남아프리카 스와질랜드	49	리베리아, 시엘라 레오네
24	앙골라, 모잠	50	캡 베르데, 감비아, 규니아, 규니아비사우, 세네갈
25	브라질	51	베닌, 코테 디보레 토고
26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52	가나, 나이지리아

2. WCC 찬송,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찬송

WCC나 WARC와 같은 세계교회기구들이 부르는 찬송들을 세계교회 각 나라에서 불리는 찬송들이기에 찬송을 통해 세계교회를 만나며 찬송을 통해 그들을 위해 기도드릴 수 있으며 찬송을 통해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찬송가인 "오소서 오소서"란 짧은 찬송을 통해서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로 들어오고 한국교회는 찬송을 통해 세계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아프리카 가나의 찬송 "다나세"란 찬송을 그들이 북을 치며 춤추면서 드리는 감사에
배 때에 즐겨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이다.

감사해 감사해 우리 모두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 우리 모두 감사해
사랑과 은혜 주시니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 우리 모두 감사해

쿠바의 찬송 가운데 "여기 모인 우리"란 찬송은 언제든지 손에, 손잡고 부를 수 있
는 찬송이지만 축도 후에 결단의 찬송으로 회중들이 부르기도 한다.

여기 모인 우리 함께 하나 되어서
손에, 손잡고 나가세 손에, 손잡고 나가세
손에, 손잡고 나가세

필리핀의 교회 "아시아를 위한 찬송"은 우리 모두에게 생각하게 하는 찬송이며 그
내용이 큰 감동을 주기도 한다.

“아시아의 나라 고난 받는 이들
정의를 외치며 위로손길 비네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사명 주셔서
상처 돌보며 섬기게 하소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찬송 중에 "성령이여 우리에게"란 찬송은 간단하면서 힘 있는
찬송이기도 하다. 이는 성령의 능력이 인종갈등, 종족갈등, 내전, 빈곤의 문제, 질병의
문제들 위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평화가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요 찬송인 것이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소서
함께 임하소서

이렇듯이 찬송을 통해 세계교회를 접하며 그곳의 사회경제정치 그리고 종교적인 현실을 알게 되며, 그들 신앙공동체의 간절한 소망을 바라보며 섬기고 봉사한다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인 것이다.

III. WCC, 생명평화의 세상을 향하여

한반도의 생명평화를 위한 WCC

WCC는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에도 진지하게 대처하면서 남북의 교회가 함께 만나 화해하는 길을 모색하였으며 바로 이것은 통일을 향한 지름길임을 인식하였다. WCC 내에 있는 국제문제위원회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정의에 관한 협의회’(Consultation on Peace and in Justice in Northeast Asia)이란 모임을 주관하여 1984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본의 ‘도잔소’에서 열렸다.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해를 입어 한 백성이 된 65명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아시아, 태평양, 중동, 남아메리카, 동서 유럽, 북아메리카 지역 등 20개국”에서 참석하여 이루어진 이 회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한국교회와 해외교회들이 함께 본격적으로 협의한 최초의 국제회의로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 결과로 나온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전망-도잔소 협의회 보고서와 건의안’(일반적으로 ‘도잔소 보고서’라 함)은 한국교회 통일운동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선언이 담고 있는 중요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화해의 복음의 구체적 실천 결과요 목표라는 점, 2. 평화통일은 남한 교회안의 일방적 선교과제가 아니고 남북한 교회 쌍방의 공동과제라는 점, 그리고 이와 함께 북한 또는 북한교회의 고립화가 아닌 개방화를 통한 비판적 협력을 강구했다는 점, 3.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단순히 남북한만이 아닌 세계교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점,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해 우리의 해외 교회들이 북한방문 및 접촉을 통해 노력하되 반드시 한국교회의 주체적 참여와 사전사후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위해 세계교회협의회의 총괄적 조정을 결정한 점”등으로 요약된다. 이 회의의 역사적인 중요성은, “도잔소회의 이후 1985-89년의 5년간은 이 회의의 결의와 건의사항들이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유대 속에서 실천되는 기간이었다”고 평가되는데서도 잘 나타난다.

이러한 WCC의 국제문제위원회의 노력으로 1986년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스

위스 글리온(Glion)에서 역사적으로 처음 남북교회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남북 교회의 대표들이 “평화에 대한 기독교적 관심의 성서적·신학적 기반”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제 1차 글리온회의”로 불리는 이 만남은 북한의 “조선기독교 연맹의 4인 대표”와 WCC회원교회 및 남한의 “한국기독교협의회”를 대표하는 6인 대표단을 포함한 22명이 참석하였다.

양측 대표단은 분단 40년에 걸쳐 성장해 온 남북한 간의 이데올로기 면이나 사회경제 체제상의 많은 차이들을 인식하면서 자신들이 속한 나라 안에서 장벽을 무너뜨리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새롭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데 있어 행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 재확인하였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주례자인 미국 NCC의 드웨인 엡스(Dwain C. Epps) 목사가 회중으로 하여금 서로 화해와 평화의 표시를 나누도록 초대했을 때 일어났다. 가벼운 악수로 시작한 흐름은 이내 따뜻한 포옹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모든 이들을 감격하게 했다. 이 첫 만남은, 성만찬을 나누고 민족애를 확인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음을 한국교회사에 남겼다. 그것은 곧 세계교회협의회가 한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며 또한 세계교회는 한국의 통일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 뒤 남북교회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제 2차 글리온 회의’는 1988년 2월 서울에서 KNCC의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의 선언’과 4월 인천에서 ‘세계기독교 한반도 평화협의회’가 있는 후, 11월 23일-25일까지 역시 스위스 글리온에서 ‘제 2차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협의회’로 열렸다. 이들은 예배와 교제, 성경연구와 성만찬을 같이 하고 평화통일의 여러 선교적 과제들을 토의하였다. 회의는 “NCC 평화통일 선언을 지지하고 1995년을 통일희년으로 함께 선포했으며, 매년 8.15 직전 주일을 ‘평화통일주일’로 정하고 ‘공동기도문’을 채택”했다. “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이 공동기도문은 한민족의 ‘한의 외침’을 이렇게 대신한다.

“그들은 외세의 점령과 제국주의의 고통을 견디어 왔습니다. 그들은 동족상잔의 엄청난 파괴와 잔인한 전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잘못 아닌 민족분단에 의해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언제까지 남과 북의 동포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그들이 서로 자유롭게 만나지 못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그들의 운명이 외세와 남들의 이념 때문에 좌우되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의 존엄

을 빼앗기고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자유와 정의와 평화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까? 오! 주여 우리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제 2차 글리온 회의’ 후 1989년에 이르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회의 만남과 세계교회와의 유대는 계속되어 1990년 12월 2일-4일의 ‘제 3차 글리온회의’가 개최되어 남북교회는 다시 만났다. 이 모임에서 남북교회는 상호방문, 남북당국 간 상호불가침선언 채택 촉구, 사업추진 실무기구 등 9개항에 달하는 ‘희년 5개년 공동작업 계획’에 합의하여 남북 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역할을 해낸 것이다. 이렇게 남북의 평화와 상생 나아가서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한 WCC는 오늘날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우리나라 뿐 만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의 생명평화를 위한 WCC

오늘의 세계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 상호조화, 상호균형, 화해, 나눔, 통일, 사랑, 자비, 평화를 외면한 채, 경제세계화라는 거대한 물결에 휩싸여 사정없이 떠내려가고 있다. 오늘의 지구촌 세계는 무엇보다도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서로 싸우며 갈등하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경쟁하듯 물질을 쌓아나가는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서로 미워하며 분열하는 세계 곧 생명 죽음의 세계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들은 작게는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한반도를 비롯하여 절대 빈곤의 아시아와 지구촌의 세계를 바라볼 때, 전쟁과 내전으로, 난민으로, 살인적인 절대 빈곤과 부채로, 자연생태계 파괴와 그로 인한 지구의 기후변동과 그로 인한 자연재앙 및 환경난민의 문제와 비인간화된 폭력과 마약과 질병 등으로 지구적 생명공동체는 신음하고 절규하고 있는 심각한 세계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한반도와 아시아와 지구촌 세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모두가 누릴 온전한 생명(full humanity)이요, 생명의 안전함(security of life)이며 충만한 생명(life in fullness)이기에 지구촌의 온 세계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생명을 위협하며 평화를 방해하는 죄성의 사슬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해야 하는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렇기에 세계교회협의회(WCC)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귀중한 생명들을 앗아가는 모든 죄성들을 극복하여 평화를 생명이 온전하고 풍성한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지구촌의 현실을 어떠한가? 오늘날의 세계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6억 명 이상의 어린이가 하루 수입 1달러도 안 되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다. 결국 그들은 영양 실조에다가 열악한 환경과 함께 병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 수 없으므로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의 생명에겐 치명적이어서 가난과 질병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음을 말해 준다.

유니세프(UNICEF)가 펴낸 “2005 세계 아동 현황 보고서-위협 받는 어린이들”이란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어린이 10억 명이 한 가지 이상 결핍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10억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영양·식수·위생·보건·주거·교육·정보 등 7 개 분야에서 적어도 한 종류 이상의 심각한 결핍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유니세프는 이러한 “어린이 빈곤”은 못 사는 나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난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과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까지의 어린이 빈곤 상황을 비교해 보면, 핀란드·독일·이탈리아 등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 나라에서 오히려 나빠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니세프는 이 같은 빈곤 탓으로 세계 어린이들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밖에 지난 200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9 개 분쟁 지역이 발생해, 199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난민의 수는 52개 나라에서 2500만 명으로 1990년대 중반에 비해 줄어들지 않았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또 현재 전 세계에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어린이라고 보고 한다. 유니세프는 특히 이 같은 실정으로 보아 전 세계 국가들이 밀레니엄 선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애쓰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모든 나라가 어린이들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힘주어 주장하였다.

오늘의 지구촌의 세계를 주목해 보면 특히 우리 한반도를 비롯하여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아시아 속에는 생명이 짓눌려있거나 생명이 찢겨지고 부수어져버린, 생명 죽음의 현실이 오늘 우리들의 목리를 조아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생명들이 바그라짐 속에서 탄식하며 구원과 참 생명을 갈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로마서 8장 22절). 이러한 생명 죽음의 현실이야말로 얼마나 반신적(反神的)이며 반신앙적(反信仰的)인 것이다.

나가는 말

2013년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의 주제가 평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산에서 열리는 총회이지만 이는 아시아에서 열리는 총회이기도 하기에 아시아의 생명 죽음의 현실은 물론 지구촌세계의 생명 죽음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인식하여야 한다.

그것은 전쟁이요, 전쟁으로 파생되는 반인간적인 난민의 문제이며, 가난한 남반구 세계의 살인적인 빈곤의 문제, 경제 세계화로 인하여 경제적 혜택을 마음껏 누리는 북반구 세계와 절대빈곤의 남반구 세계와의 빈부의 양극화 문제, 무차별적인 개발로 인하여 야기된 자연생태계파괴와 그에 따른 기후변화 및 자연재난과 처참한 환경난민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질병들이야말로 생명 죽음의 현실인 것이다. 그렇기에 세계교회협의회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지구촌, 그 속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공동체의 평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는 아시아와 지구촌세계를 향해, 하나님이 그리시는 생명평화가 충만한 세상을 향하여 섬기고 봉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부록)

Da n'ase, da n'ase Ghana

Da n'a - se, da n'a - se, Da On-ya-me - a -
 Dan-ret Gott, ja, dan-ret ihm, dan-ret - un-ferm
 Give thanks to our God, - to our give thanks to our
 Gra-cias a Dios, gra-cias gra-cias - al Sen-
 감 사 해 감 - 사 해 우리 모 두 감 사

1. se, se, E - fi - se O -
 Gott, Gott, Sei-ne Gut und
 God, God, For his kind and
 or, or, El Sen - or -ness esta
 해 해 생 명 과 평

ye n'a do - e do - o - so - oo,
 Gnad wah-ret e - wig - lich, - -
 grace does en - dure for e - ver,
 bueno y su gracia por siem-pre esta.
 화 주 시 니 감 사 - 해

D.C.

성령이여 우리에게 (Wa Wa Wa emimimo) 아프리카

성령 이여 우 리 에 - 게 능력 으로 임 하 소 -
 Wa Wa Wa E mi mi mo Wa Wa Wa A-lag-ba
 come, O Ho-ly Spi rit come, Come, al-migh-ty Spi-rit

서 함 께 임 하 소 서 -
 ra Wa - O wa - o wa - o -
 Come, come - come - come - -

여기 모인 우리

Cuba / 정경호 역



Ven - gan ven - gan to - dos ven - gan le - van-
 1.여 기 모 인 나 오 리 한 게 어
 2.우 리 하 나 되 어 는 사 명



- he - mo - mos E - di - fi - que - mos jun - tos e - di - fi - que - mos
 는 어 나 E 에 손 잡 고 나 세 e 에 손 잡 고
 가 지 고 생 명 과 평 화 위 해 생 명 과 평 화



jun - tos e - di - fi - que - mos jun - tos
 나 세 는 에 손 잡 고 나 세
 위 해 생 명 과 평 화 위 해 나 가 세

오소서 오소서

1

이건용



1. 오 소 서 오 소 서 정 의 의 임 금



우 리 가 한 몸 이 루 게 하 소 서

2.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3. 오소서 오소서 창조의 임금

In the Lands of Asia

Words : Salvador T. Martinez, Philippines

정경호 역



1. In the Lands of A - sia, peo - ple are op - pressed;
 2. In the lands of A - sia, tears fall on dry faces;
 3. In the lands of A - sia, fear and ter - ror reign
 1. 아 시 아 의 나 라 고 난 받 는 이-를
 2. 아 시 아 의 나 라 눈 물 있 는 사-람
 3. 아 시 아 의 나 라 천 쟁 있 는 나-라



man - y cry for jus - tice, beg - ging for some sol - ace.
 chil - dren, men and wo - men, hun - gry, dy - ing hope - less.
 peo - ple long for true peace in the light of your face.
 경 의 를 의 치 며 위 로 손 길 비 네
 꿈 - 주 리 며 - 족 어 가 고 있 네
 당 신 을 향 하 여 참 된 평 화 비 네



O God, let your mis - sion — fill your chil - dren's vi - sion,
 하나 님 우 리 에 게 꿈 과 사 평 주 셔 셔



to heal the suf - fer - ing and help the strug - gling
 상 처 를 보 며 섬 기 게 하 소 셔

세계교회협의회(WCC)와의 만남이 세계선교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김동선 목사(호남신학대학교, 선교신학)

1. 들어가는 말: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란?

세계교회협의회는 “성경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고백하고,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름 받은 공동의 소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교회들의 친교이다”(헌법 중에서).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세계’와 ‘교회’와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세계(오이쿠메네, 하나님의 집)

(1) 에큐메니칼(oecumenical 혹은 ecumenical)이란 세상을 가리키는 헬라어 ‘오이쿠메네’의 형용사이다. 그러므로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집’인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오이코노미아)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오이코노모스)가 되어 ‘하나님의 집’인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운동을 말한다.

(2) 모든 지역교회는 자신의 교회가 속한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가령 광주광역시 양림동에 위치한 양림교회는 양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선교할 책임이 있다. 교회가 기본적으로 교회가 속한 동네 이름을 따르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선교적 책임 때문이다. 노회 역시 행정구역을 따라 나누어진 다(예: 전남노회, 순천노회 등). 본 교단의 명칭에 ‘대한’이라는 지역명칭이 들어가는 이유도 본 교단이 우리 민족의 복음화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3) 과학의 발달로 세상이 좁아지고 국가들 사이에 왕래가 잦아지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국제적인(international)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특정한 국가에 속한 교회로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다. 따라서 특정한 국가에 속한 교회가 국제적인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서로 연대하여 협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ecumenical이란 international에 대한 교회적 용어라 할 수 있다.

2. 교회(에클레시아)

(1) 예수님께서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선교적 사명을 주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에 대해 사도행전 9장 31절은 명령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이렇게 진술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에클레시아)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교회’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2)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이름대신, 이미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에클레시아’란 고대 그리스·로마의 시민총회를 가리키는 용어였지만, 황제가 소집한 회의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그 뜻은 훨씬 명확해진다. 황제가 필요한 말을 전달하게 위해 전령을 각지로 보낼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소집할 수도 있다. 이때 소집된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 반드시 황제의 명령을 지킬 것을 요구 받는다.

(3) 초대교회가 자신들을 에클레시아로 불렀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비록 여러 지역에 흩어져있을지라도 모든 교회는 한 분이신 하나님에 의해 부름 받은 하나의 교회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나오는 여러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이 단수로 사용되었다.) 둘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교회는 지역에 대한 선교적 사명을 가진다.)

3. 협의회(Council)

(1)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한다. 이 고백은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임을 고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은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세상에 대한 책임의 틀 안에서 각각 자신의 지역에 대한 선교적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의미도 포함한다. WCC는 교회가 함께 모여 협의하는 “협의회”이다. 그러므로 WCC가 어떤 교회를 지배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상위교회(supper church)가 아니며, 모든 교회는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일치’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섬길 수 있도록 부름 받은 공동체이다.

(2) 현재 WCC에는 거의 모든 동방정교회와 주요 개신교의 대부분 교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주요 개신교란 지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주로 “Church of (혹은 in) + 나라 이름”을 가진 교회를 말한다(예: The Church of Scotland, The Church of South India 등). 연합교회의 경우 “United Church of (혹은 in) + 나라 이름”의 형태로 불린다(예: The United Church of Canada). 때때로 연합 중인 교회를 강조하기도 하는 데 이때는 united 대신 uniting을 사용한다(예: 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등). 한국교회와 같이 여러 교파가 공존하는 지역에서는 “Church of (혹은 in) + 나라 이름” 앞에 교파 이름을 붙인다(예: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세계교회협의회는 “교회”들의 모임이므로 선교단체(예: 대학생선교회, 예수전도단 등)는 회원이 될 수 없다.

(3) 1998년 WCC의 제안으로 세계그리스도인포럼(Global Christian Forum)이 시작되었다. 포럼은 WCC와 로마가톨릭, 그리고 세계복음주의연맹(WEA: World Evangelical Alliance) 등 세계 모든 교회와 기구들이 오랫동안 일치를 가로막은 여러 장벽을 넘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아시아교회협의회(Christian Conference of Asia), 아시아가톨릭주교회의(Federation of Asian Bishops' Conferences), 그리고 아시아복음주의연맹(Asian Evangelical Alliance) 등이 서로 대화하고 있다.

4. 본 교단과 WCC

(1) 오늘날 모든 개신교 교회가 WCC를 통해 교류하는 것은 아니다. 개신교 교회를 에큐메니칼운동에 참여하는 교회(편의상 개신교A로 분류)와 에큐메니칼운동에 반대하

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교회(편의상 개신교B로 분류)로 나누어본다면, 본 교단의 경우 총회의 기본적이고 공식적인 입장은 개신교A에 속하나, 대부분 지역교회의 입장은 개신교B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우리는 본 교단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지금까지 양적(numerical) 성장에 치우친 ‘좁은 교회론’으로 인해 질적(qualitative) 성장을 게을리 한 나머지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못했음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지역교회를 하나로 묶고, 또 다른 교단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역사와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유기적(organic) 성장에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못해왔다.

(3) 한국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본 교단의 위상을 생각해볼 때, WCC 총회 유치는 행사자체의 의미를 넘어 개교회중심의 이기심이 낳은 교회의 여러 위기적 요소를 극복하고, 한국교회의 하나 됨을 향한 일치운동을 촉진하고, 한국교회가 비 서구지역 교회를 대표하여 세계교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다.

II. 간략하게 살펴본 세계선교의 역사

1793년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케리가 인도에 첫 발을 디딘 후 200여년이 지났다. 많은 학자들은 19세기를 “교회 확장”의 시기, 그리고 20세기를 “교회 일치”의 시기로 구분한다. 이 와중에 WCC는 근대선교운동을 배경으로 태동되었다. 지난 역사를 약 50년 단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윌리엄 케리 이전의 선교

(1) 종교개혁(1517년) 이후 개혁교회는 신도들의 역동적인 삶보다는 국가교회의 틀 안에서 순수한 교리를 더 강조하였다. 교회의 관심은 주로 유럽의 다른 지역에 개신교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었으며, 오랫동안 가톨릭신도를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2) 시간이 흐름에 따라 17세기 정통주의 개신교의 바른 교리에 대한 집념과 생동감 없는 형식주의,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강조한 계몽주의와의 만남은 경건주의라는 새로운 운동의 반발을 야기했다. 경건주의 운동은 올바른 교리보다는 영적인 생활, 교회적 구조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 이론보다는 실제적 경험을 강조하였다.

(3) 경건주의 선교는 신앙의 경험과 이에 합당한 바른 생활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었다. 경건주의 선교는 식민지에 세워진 국가교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선교가 식민정부의 임무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2. 1800-1850년 (윌리엄 케리부터 19세기 중반까지)

(1) 경건주의가 근대선교의 문을 열었지만, 일반적으로 개신교의 영역이 기독교 세계 바깥으로 크게 확장된 때는 근대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케리 이후였다. 침례교선교회(Baptist Missionary Society)가 파송한 케리가 인도로 간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개신교 선교는 19세기 들어 ‘위대한 세기’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활발하게 해외선교 사역을 수행하였다.

(2) 이 시기에 선교회에 속한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일에 주력하였으며, 현지인들도 선교사들이 전해준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속한 교파교회에 안주하였고, 복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질문하지 못하였다. 선교사들 사이의 협력선교 역시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3. 1850년-1900년 (19세기 중반부터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까지)

(1) 19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서구 열강은 활발하게 식민지 쟁탈전에 참여하였다. 식민지 정부는 선교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였다. 선교회 역시 선교지의 사회구조가 바뀌기를 원했으며, 서구의 사회구조가 그 대안이라 생각했다. 많은 선교 사업이 식민지 정부의 도움을 받아 선교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선교부의 힘은 강화되었으나, 현지교회의 반발 역시 커져가고 있었다.

(2) 시간이 지날수록 선교의 내용은 변질되었다. 19세기 중반, 선교는 이미 국가, 문화, 교회분열, 그리고 물질과 타협하고 있었다. 백인 선교사들의 선민의식과 선교지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은 선교부의 현지 교회에 대한 우월감으로 연결되었다. 선교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영혼구원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3) 19세기의 세계선교는 전반적으로 교파주의 색채를 강하게 띤 교회확장의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파와 선교회(현재의 선교단체와 구별되어야 함) 사이에 협력

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시기였다. 이 시기에 창설되기 시작한 교회와 교파의 연합운동은 분열된 선교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무관하지 않았다. 성공회의 램버스 주교대회(1867), 유럽과 북미의 루터교회회의(1868), 개척교회(장로교회)의 세계개척교회연맹(1875), 미국감리교감독교회총회(1876)와 감리교대회(1881), 회중교회연합회(1891), 침례교세계대회(1905) 등은 19세기가 교회확장의 시기였을 뿐 아니라 동시에 교회일치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한 시기였음을 보여주었다.

(4) 같은 시기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는 서구교회가 이식한 여러 식민지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였고, 그들은 서구교회가 전해준 교파주의를 극복하고 서로 협력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성경을 공유한 교회의 분열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교회일치와 협력선교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4. 1900년-1950년 (에든버러대회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1) 20세기 들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식민지교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였다. 특별히 1910년 에든버러에서 열린 세계 선교대회 이후, 교회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세계교회의 틀 안에서 서구교회와 더불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선교부와 현지교회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서구교회의 부권주의(paternalism)를 비판하고 지역교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2)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은 현지교회를 민족교회로 탈바꿈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서구교회에 의한 복음화는 서구화와 식민지화를 동반했으며, 교회는 자연스럽게 식민지정부 편에 선 기구로 인식되었다. 식민지정부에 대항하여 민족주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교회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요구를 교회 안팎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현지교회가 민족교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교회 연합운동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현지교회의 연합운동은 서구교회의 연합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3) 이 시기에 서구교회도 큰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교회는 스스로 세상 안에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심각하게 질문하였다. 러시아혁명은 세계를 복음화 하려던 교회의 낙관론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과정을 통해 “종말론”과 “교회론”은 크게 변화하였다. 즉 국가교회의 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종말론은 전천년주의적인 사고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교회론은 교회의 세상

안에서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5. 1950년-현재(제2차 세계대전 이후)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황은 급변하였다. 식민지국가들이 차례로 독립하면서 서구교회와 과거 식민지교회는 협력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의 어머니-딸의 관계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교회는 자매-형제의 관계로 이해되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불리는 세계교회의 일치운동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 아니라 세상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통전적 선교가 강조되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응답하려는 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고백하였다.

(2) 선교는 교회일치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현지교회에서 연합운동이 일어나고, 이러한 운동이 서구교회의 연합운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과거에 복음을 전했던 서구교회와 복음을 받았던 현지교회 사이에도 동등한 차원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합운동은 세계교회협의회(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1948)를 태동시켰다. 그러나 동시에 과거의 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세계복음주의연맹(WEA: World Evangelical Alliance, 1951)을 중심으로 단결을 도모하였다.

(3) 현지교회의 주도권을 배제한 선교가 비판을 받는 큰 흐름 가운데서도, 전통적인 선교를 고집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선교단체가 등장하였다. 이들 중 특히 1950년대 후반부터 소개된 국제대학생선교회(CCC), 예수전도단(YWAM),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BF) 등의 선교단체는 70년대 이후 한국교회의 성장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선교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복음주의자들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복음화대회”를 개최하였다. 제2차 대회는 필리핀 마닐라(1989)에서 열렸고, 그리고 제3차 대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2010)에서 열릴 예정이다.

(4)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교회의 선교 상황은 에큐메니칼 노선과 복음주의 노선으로 날카롭게 양분되었고, 양 진영의 협력을 요구하는 산발적인 제안이 있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와해되기 시작한 1980년대 말부터 보다 분명히 들어난 양 진영 사이의 상호이해의 흐름은 오늘날 제도적인 틀 안에서 보다 진지한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5)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1세기 들어 세계교회는 더욱 큰 틀에서 협력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1910) 100주년 기념대회를 앞두고 에큐메니칼 진영과 복음주의 진영이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복음주의 진영의 대표 기구라 할 수 있는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이 세계교회협의회(WCC)와 로마가톨릭(바티칸)과 더불어 현지교회와의 협력뿐 아니라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의 효과적인 만남을 위해 공동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관해 논의하는 등 가시적인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이 기구들은 세계그리스도인포럼(Global Christian Forum)을 통해 협력하여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

III. WCC와 CWME(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

WCC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세계선교운동과 깊은 연관을 맺어왔을 뿐 아니라 크게 영향을 끼쳐왔다. 1910년 에든버러에서 열린 세계선교대회 이후 세계교회는 국제선교협의회(IMC: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를 조직하여 세계선교를 함께 논의하였고, 1961 WCC와 합병한 후에는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CWME: Commissi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CWME는 세계교회가 선교에 관해 함께 논의하는 주요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1.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와 국제선교협의회(IMC)

(1) 1910년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세계선교대회(World Missionary Conference)가 열렸다. 윌리엄 케리가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에서 1810년 전 세계 모든 교파의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선교의 비효율성과 교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전체협의회를 열어 서로 협력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한지 정확히 100년이 지난 뒤였다. 그동안 성경번역사업, 연합교회설립 등 실질적인 협력이 진행되었고, 국제적인 규모의 여러 선교대회가 개최되었지만 에든버러 대회는 완전히 교파를 초월하여 에큐메니칼적인 협력 선교를 논의한 첫 번째 선교대회였다. 에든버러 대회는 참된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사(선교회) 사이의 협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2) 에든버러대회를 기점으로 세 기구가 등장했다. 협력 선교를 위한 국제선교협의

회(IMC: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1921),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생활과 실천’(Life and Work: 1925), 그리고 교회 일치를 위한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 1927)가 창설되었다. 이 중에서 국제선교협의회는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상호협력을 논의하는 기구였다. (1948년 ‘생활과 실천’과 ‘신앙과 직제’가 합쳐져 세계교회협의회로 발전하였다.)

(3) 국제선교협의회 첫 번째 모임이 1921년 미국의 레이크 모호크에서 열렸다. 복음을 전해준 선교부와 현지교회와의 관계가 논의되었고, 서구교회의 부권주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제2차 국제선교협의회(예루살렘, 1928)에서는 선교부와 현지교회의 긴장이 보다 극명하게 표출되었다. 현지교회 지도자 양육을 위한 신학교육 문제가 중요한 안건으로 제기되었고, 현지교회로 힘을 이양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되었다. 제3차 국제선교협의회가 1938년 인도 탐바람에서 열렸을 때 사정은 많이 달라졌다. 이 시기에 선교의 주도권은 선교회로부터 현지교회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4차 국제선교협의회가 캐나다의 휘트비에서 열렸다(1947). 이때 기성교회와 신생교회의 대표들은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하나의 선교를 위해 함께 부름 받았음을 확인하였고, ‘대위임령’을 수행하기 위해 부름 받은 동반 자임이 선포되었다.

(4) 1952년 빌링겐(Willingen)에서 열린 제5차 국제선교협의회는 전혀 새로운 선교 신학의 틀을 제공하였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공동체인 교회는 승리 주의나 정복자적인 태도가 아닌 섬김과 봉사의 태도로 선교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선교의 주체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으로 이해되었다. 빌링겐 대회 이후 ‘교회의 선교’(missiones ecclesiae) 개념은 차츰 약화되었고, 반면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신학은 점점 강화되었다. 이후 열린 아프리카 최초의 독립국인 가나의 아크라(Accra, 1957) 대회에서는 선교에 대한 이해를 세상을 향한 교회의 전 사명으로 그 지평을 크게 확대하였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대등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고백하였다.

2. 세계선교와전도위원회(CWME)

(1) 국제선교협의회는 제3차 WCC 총회 때 WCC에 통합되었고(1961), 그 명칭을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로 변경하였다. 국제선교협의회가 WCC에 통합된 이유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이 교회의 세상에 대한 책임 문제와 나누어질 수 없다고

고백했기 때문이었다. 이 고백은 세상의 모든 교회는 형제자매의 관계 속에 있으며, 따라서 선교는 현지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그 곳에 교회가 없는 듯 일방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다.

(2) 국제선교협의회가 WCC와 합쳐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소위 복음주의 노선을 표방하면서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었다. 이들은 현지교회와의 협력보다는 독자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를 확장하는 선교활동을 계속하였고, 교회의 일치를 주장하는 에큐메니칼 노선의 교회와의 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960년대 이후 나타난 에큐메니칼 노선과 복음주의 노선의 대립은 이러한 분열의 결과였다.

(3) 국제선교협의회가 세계교회협의회에 통합된 후 첫 번째 CWME 대회가 “하나님의 선교와 우리의 과제”란 주제로 멕시코시티에서 열렸을 때(1963), 참가자들은 교회 밖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선교의 주요 과제라고 확인하였다. 1972-1973년 방콕에서 “오늘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CWME 대회가 열렸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과 동일시되었다. 교회와 세상의 간격이 철폐되었고, 선교적 소명은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응답하는 행위로 이해되었다. 1980년 멜본에서 CWME 대회가 열렸을 때, 참가자들은 선교의 초점은 인간 삶의 전체적인 해방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고백하면서, 통전적 선교를 강조하였다. 통전적 선교의 강조는 선교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였다. 다음 CWME 대회는 1989년 미국 산 안토니오에서 열렸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선교”라는 주제로 열린 복음전도를 특히 강조하였다. 참석자들은 복음이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도의 의미를 새롭게 찾은 대회라고 평가하였다. 20세기의 마지막 CWME 대회는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열렸다(1996). 살바도르 대회는 통전적 선교를 넘어 새롭게 떠오른 선교와 문화와의 관계를 중심 주제로 다루었다. 새로운 천년의 첫 대회는 2005년 아테네에서 열렸다. “성령이여 오셔서 치유하고 화해하게 하소서”란 주제로 열린 대회는 오순절교회와 은사운동의 흐름을 과감히 수용하면서 치유목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IV. WCC의 선교/전도 이해

WCC의 세계선교와전도위원회(CWME)를 통한 선교에 관한 공식 성명서는 1982년에 발표된 “선교와 전도: 에큐메니칼적 확언”이며, 새로운 천년을 맞으면서 2000년에

이를 보충하는 연구문서인 “일치를 통한 오늘날의 선교와 전도”를 발표하였다. 이 두 문서를 중심으로 살펴본 WCC의 선교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다.

1. 선교(mission)와 전도(evangelism)

(1)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와 ‘전도’라는 용어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두 용어는 구별해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2) “선교”는 무엇보다 통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예배와 봉사 등의 교회활동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포괄적인 행위를 가리킨다.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 또 전 피조물과의 교제를 통해 완전함과 화해로 인도하는 치유 역시 선교의 범주에 포함한다.

(3) “전도”는 선교가 가진 다른 측면을 배제하진 않지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보다는 교회 바깥의 개인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과 제자직으로 초대하는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춘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2. 지역교회의 중요성

(1)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지역교회를 심고 확장하는 일은 기독교선교의 핵심이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의 쇠퇴에 대한 위기의식이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교회의 부흥을 향한 선교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2) 지역교회의 쇠퇴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과는 별도로, 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를 회피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보았던 비복음적인 요소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 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과 더불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다는 현실 역시 심각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3)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스스로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성령의 인

도에 따라 언제든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자신을 맡겨야 한다. 이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자신의 공동체를 향해 끊임 없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며 안 된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3. 지역교회의 선교적 사명

(1) 비록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지역교회를 심고 확장하는 일이 기독교 선교의 핵심이기는 하지만, 기독교 선교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는 과정과 연결되어야 한다. 선교는 사람들을 삶의 충만함으로 초청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과정은 결코 교회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2)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은 개인을 회개로 부를 뿐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로 연결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이 진실로 완전히 인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사죄의 은총이 인간관계와 사회구조의 갱신을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 사회정의를 향한 교회의 선교는 궁극적으로 화해와 치유의 사역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3) 지역교회가 세계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교회를 둘러싼 본국의 상황 안에서 심각하게 요구되는 선교적 참여를 통해 먼저 자신을 증명하고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세계선교는 지역교회의 선교적 열망을 해외로 이식하는 차원에서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선교는 지역교회가 그 지역 안에서 주어진 선교를 신실하게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경계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행위이다.

4. 일치와 협력을 통한 세계선교

(1) 최근 수십 년 동안 세계교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협력선교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현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는 모습이며, 그 결과 교회의 선교에 대한 신뢰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분열은 교회의 선교와 상관없이 진행되지만, 분열된 교회는 교회의 세상에 대한 증거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2) 교회가 이미 존재하는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인력과 재원을 양 교회의 동등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서로 의논하여 합의하려는 상호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 일치와 협력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교회 상호간에 힘의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 역시 계속 지적되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몸을 선교의 양식으로 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성만찬적 선교가 더욱 요구된다.

(3) 적지 않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선교방법을 이미 존재하는 현지교회와 상관없이 결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현지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자신의 교회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얼핏 보면 열정적인 선교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복음을 가로막는 행위이며, 따라서 복음전파에 악영향을 주기도 하며, 나아가 복음을 위태롭게 만들기도 한다.

V. 나가는 말: WCC 총회가 세계선교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역사적으로 한국교회는 선교정책의 부재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고, 그나마 선교정책에 대한 반성을 시작한 것은 ‘한국교회100주년기념대회’를 준비하면서부터였다. 본 교단의 경우 67회 총회(1982)에서 “총회의 선교신학”과 “총회 선교정책”이라는 문건을 통해 총회의 선교신학이 세계교회의 선교운동과 흐름을 함께 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왔음을 반성하였다. 이러한 반성은 “한국교회100주년 선교대회선언문”(1984)에 반영되어 세계교회 선교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교회의 일치와 연합에 협력한다는 선언으로 이어졌다.

이후 현지교회와의 협력에 대한 당위성은 계속 강조되었고, 73회 총회(1988)에서는 세계교회와의 협력문제를 담당하던 ‘세계선교위원회’와 해외선교의 제반업무를 담당하던 전도부의 ‘국제선교위원회’를 하나로 묶어 세계선교부를 만들기로 결의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은 81회 총회(1996)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선교신학지침”과 “우리의 선교신학”을 통해서도 재확인되었고, 87회 총회(2002)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총회는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현장에서 이미 세계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현지교회와 협력할 것을 천명하면서 기존의 선교사들이 협력선교로 전환하도록 세계선교부에 권면하였고, 세계선교부 역시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최소한 본 교단의 외형적인 선교신학과 선교정책은 현지교회와의 협력선교를 원칙으로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지교회와 긴밀히 협조하며 선교해야 한다는 총회의 입장과는 달리 실제 선교현장에서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의 세계선교는

처음부터 선교신학과 선교정책과는 무관하게 지역교회의 복음전파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면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한국교회에서 선교는 세계교회의 선교적 현실과는 동떨어진 지역교회의 확장이라는 매우 좁은 시야 속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었다. 선교사들도 총회와의 관계보다는 자신을 파송한 교회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의 요구와 맞물려 동일한 지역에서 여러 명의 선교사들이 뒤엎혀 경쟁하는 현상도 자주 발생하였다. 이런 와중에 협력선교의 부재는 한국교회 선교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로 끊임없이 지적되곤 하였다.

이러한 지역교회 중심의 선교는 총회의 실제적인 선교정책의 운용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현재 상황에서 미루어볼 때, 현지교회와 협력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지역교회의 영향력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오랫동안 총회는 교회성장을 중심으로 한 교세확장을 지향해 왔으며, 지역 교회 역시 그러한 틀 안에서 선교를 이해해왔기 때문이다.

이상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WCC 총회 유치는 한국교회, 특히 본 교단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세계선교에 다음과 같은 부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 지역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WCC는 선교의 출발점을 건강한 지역교회로 이해하고, 세계선교는 지역교회의 건전한 성장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교회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선교함으로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서의 풍성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접근은 오늘날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할 충고라 생각된다. 한국교회에게 WCC 총회가 하나의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지역교회가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세계교회라는 보다 큰 틀 안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지역교회를 확장하는 세계선교의 부작용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세계 교회는 현지교회의 존재를 인식하고 현지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선교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동의한다. 여기에 비하면 아직 대부분의 한국의 지역교회는 현지교회의 존재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선교적 열정을 표출하고 있다. 세계교회가 현지교회의 중요성을 인식할 즈음인 20세기 초,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복음을 받은 지 20여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교회를 주체적으로 세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907년 독노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

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WCC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한국교회에게 현지 교회와 협력하여 선교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3. 비서구지역 교회를 대표하여 세계교회에 대한 공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교회의 중심축은 이미 서구에서 비서구로 이동하였고, 세계교회는 과거 어느 때 보다 비서구교회가 세계교회에 공헌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들어가는 말”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직 본 교단을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교회일치 운동에 적극적이지 못한 “개신교B”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WCC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본 교단으로 하여금 “개신교A”로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도울 것이며, 더 나아가서 비서구지역 교회의 유기적인 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교단은 이미 1989년 8월 서울에서 열린 제22차 세계개혁신교회연맹(WARC) 총회를 통해 교단의 위상을 크게 높였지만, 지역교회의 활발한 참여가 뒷받침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2013년 부산에서 열릴 WCC 총회는 지역교회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본 교단을 포함한 한국교회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신앙과 직제(Faith & Order) 운동의 역사적 실체, 그리고 그 지속적인 신학적 대화의 의의

이승갑 목사(한일장신대학교, 역사신학)

I. 들어가는 말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는 무엇인가?”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이하 WCC)는 “신앙과 직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시도하면서 먼저 “기독교는 교회들⁸⁹⁾의 분열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기독교는 그 시작부터 “하나의/ONE” 교회를 고백해 왔지만,⁹⁰⁾ 그 역사가 보여 주듯이, 사실상 수많은 교회들로 나뉘어져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뉨(분열)의 원인들은 지리적, 문화적, 또는 교리적 이유 등에서 찾아질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분열들 가운데 일부는 차라리 어떤 건강한 다양성을 나타낸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이 역사적 이유에서든 또는 문화적 이유에서든, 분열들 가운데 일부가 어떤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다고 강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WCC가 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고,⁹¹⁾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는 나뉜 상태, 즉 분열된 기독교의 삶(현실)을 같은 기독교인들의 눈으로 만족스럽게 바라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분명 그것은 결코 옳은 일도 아니며 가능한 일도 아니다.

89) 여기서 “교회”는 기독교의 각 종파 및 교단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종파라는 말 대신 교회라는 말을 쓰고자 하니, 독자들의 이해를 바란다.

90)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엡 4:4-6)

91) <http://www.oikoumene.org/who-are-we/organization-structure/consultative-bodies/faith-and-order/what-is-faith-and-order.html>

무엇보다 우리가 기독교 교회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하나의 나뉘지 않은 몸에서 찾고자 하고, 그리고 그것이 과연 옳다면, 교회는 결코 분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것처럼, 기독교의 분열을 치유하거나 그것을 막고자 하는 열망은 그 분열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되었다. 그러나 WCC에 따르면, 적어도 지난 20세기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보여주는 바, 그 치유의 시도들은 두 가지 서로 상호 보충적인 형태들을 보여주었다. 그 하나는 “함께 토론하는 것”(discussing together)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함께 일하는 것”(doing together)이었다. 말하자면, 그 “함께 일하는 것”이 삶과 봉사(Life and Work) 운동에 해당한다면, “함께 토론하는 것”은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신앙과 직제(Faith & Order) 운동의 과제였던 것이다. 한 마디로 다시 말하자면, 삶과 봉사가 순수하게 실천적인 방향 위에서 일들을 지향했다면, 신앙과 직제는 신학적-이론적 관심들을 다뤄 온 것이다. 그러나 WCC가 확인해 주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들 두 가지 활동 영역들, 즉 함께 행동하는 흐름과, 함께 관심들을 토론하는 흐름이 그 성격상 “상호 보충적”(complementary)이라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한편으로 신학을 함께 토론하는 것이 결국 기독교인들의 행동과 실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함께 행동하는 것 역시 함께 토론한 결과들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⁹²⁾

이 글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즉 신앙과 직제의 역사적 흐름 안에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한 걸음 나아가 그 현재적이고 지속적인 과제들을 밝히며, 결론적으로 그 지속적인 신학적 대화의 의의를 숙고하는 동시에 신앙과 직제 운동의 미래를 조명하는데 있다.

필자는 이 글의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WCC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앙과 직제를 소개하는 몇몇 글들(아래 참고)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거기에는 먼저 WCC가 올려놓은 공식적인 소개의 글들, 그리고 과거 신앙과 직제에 오랜 기간 참여한 에큐메니칼 지도자들의 개인적 숙고의 글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필자의 독창적인 학문적 연구 결과물이 아니며, 필자가 주관적인 생각들은 거의 추가되지 않았다. 사실상 WCC 관련 자료들에 기초하여 신앙과 직제를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글임을 독자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 필자가 이 글의 성격을 이와 같이 의도한 이유는,

92) 종교개혁 이후 서방 교회에 친숙한 것으로서 “믿음과 행위들” 사이의 이분법은 그 자체로서 질문의 여지가 있으며 문제성을 가진다. 1948년 WCC의 탄생이 삶과 봉사, 신앙과 직제 두 운동의 병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러한 이분법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 "Faith and Order yesterday, today, tomorrow," by Metropolitan JOHN (Zizioulas) of Pergamon.

이번 기회에 WCC가 신앙과 직제의 역사와 활동에 대해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을 가급적 액면 그대로 이해하고, WCC 지도자들의 경험적 숙고에서 오는 판단들과 평가들에 함께 귀 기울여 보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II. 신앙과 직제 위원회(Commission on Faith and Order)의 목적,

구조, 운영 방법

이 단락에서는 신앙과 직제 운동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기에 앞서, WCC가 정의하는 바,⁹³⁾ 신앙과 직제 위원회(Commission on Faith and Order)의 목적, 구조, 운영 방법을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1. 목적(AIM)

WCC는 신앙과 직제 위원회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한다.

신앙과 직제 운동은 WCC에서 절대 필요한(integral) 부분이다. 신앙과 직제 운동의 목적(AIM)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것으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하나 됨을 선포하고, 교회들을 가시적 일치의 목표로 초청하는 것”(to proclaim the onenes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and to call the churches to the goal of the visible unity)이다. 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주요 수단은 교회들을 분열시키는 이유들인 신학적 질문들을 다루는 연구 프로그램들(study programmes)이다.

다시 말하자면, 신앙과 직제 운동의 사명은 이것이다. 즉 교회들을 신학적 대화(theological dialogue)의 장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교회들로 하여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들의 일치(unity)를 확인하고자 할 때 직면하게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하도록 돕고, 또한 그들이 그 일치의 확인(affirmation)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가능한 길들(various and possible roads)을 모색하고, 또한 그 길들을 확대하도록 돕는 것이다.

2. 구조(STRUCTURE)

93) “Commission on Faith and Order,”

<http://archives.oikoumene.org/query/Detail.aspx?ID=40906>

WCC는 신앙과 직제 전체(plenary) 위원회의 구조(structure)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저 신앙과 직제 위원회 회원은 120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전 세계로부터 온 남녀들로, 목회자, 평신도, 학자, 교회지도자를 망라하고 있으며, 각자 자신의 교단의 추천을 받아 온 사람들이다. 신앙과 직제 위원회는 WCC 회원이 아닌 몇몇 다른 교단들의 정회원 자격과 참여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the Roman Catholic Church)도 비록 WCC의 회원은 아니지만 신앙과 직제의 정회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 안에서 30 회원들이 신앙과 직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ssion)를 구성하며, 그들은 거의 매 18개월 마다 모임을 갖고, 신앙과 직제 연구 프로그램들을 인도한다.

신앙과 직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것은, WCC가 창설된 1948년 이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비교적 낮은 비율에 그쳤던 정교회회원들과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교회들의 대표들이 각각 20%와 40% 이상으로 증가했다. 한 때 위원회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여성 대표들이 지금은 전체 회원의 거의 30%에 이르고 있다. 특히 위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1968년 이후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공식적으로 12명의 회원을 파견하며, 신앙과 직제의 모든 연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 운영 방법(METHOD)

WCC 인터넷 홈페이지의 소개에 따르면, 신앙과 직제 위원회가 기독교의 나침에 관련된 질문들에 접근하고 연구하는 주된 운영 방법(method)은 다음과 같다.

신앙과 직제의 운영은 주로 전 세계에 걸쳐 조직, 개최되는 회의들(consultations)을 통해 이루어진다. 신앙과 직제 위원회 회원들은 그밖에 초대된 교회 회원들과 함께 작게는 열 명에서 크게는 수 백 명에 이르는 크기의 그룹들로 모인다. 크기에 상관없이, 그룹들은 대화 과정을 계속하면서, 피차 자신의 교회의 권위를 다른 교회보다 우월하게 주장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다양한 기독교 전통들로부터 온 확실히 넓은 범위의 대표자들에 의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과 효용성을 가지는 문헌들과 연구 문서들을 만들어 낸다. 대부분의 문서들은 또 다른 연구와 논평을 기대하면서 각 교회들로 보내진다. 이 과정에서 모임들을 총괄하고 그 결과들을 출판하는 일은 제네바에 있는 WCC 본부의 신앙과 직제 사무국의 책임이다.

그밖에도 신앙과 직제의 모임들이 보여주는 특징들은, 무엇보다도 회원 각자가 보여주는 자신이 소속된 신앙 전통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헌신이며, 동시에 교회의 일치에

대한 비전과 과제에 향한 깊은 열정과 헌신이다. 참석자들은 기독교의 분열들(divisions)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때 그들이 직면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힘쓰며, 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 많은 기독교의 일치(unity)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많은 기회들(opportunities)을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모든 대화의 과정은 공동의 기도와 예배(common prayer and worship)에 의해 뒷받침되고 지지된다.

III. 신앙과 직제 운동의 간추린 역사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한 중요하고 항구적인 운동으로서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 운동은 그 상대 역할을 수행한 삶과 봉사(Life and Work)를 위한 운동, 그리고 국제선교협의회(the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와 함께 1910년부터 1948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첫 번째 국면을 형성했다. 말하자면, 1910년 개최된 에딘버러(Edinburgh) 세계선교대회(World Missionary Conference, WMC)는 장차 에큐메니칼 숙고와 실천적 행동의 세 가지 주요 흐름들을 출현시킨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 세 가지 흐름들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의 논리적 구조상의 지속은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로 봐야 할 것이며, 그것의 취지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상호협력과 공동의 증거를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1925년 스톡홀름에서 시작된 삶과 봉사 운동은 하나의 새로운 인식의 결과이며 도구로서, 그 새로운 인식이란 교회들은 “세계 역사에서 한 새로운 시대의 사회, 정치적 도전들에 공통으로 응답하도록 초청받았다”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신앙과 직제 운동이 출발한 배경에도 교회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깨달음이 있었다. 즉, “공통된 기독교 증언과 실천적 상호협력의 목표는 이러한 공통된 과제들의 실현을 막는 장벽들을 극복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깨달음이다. 게다가 이 신앙과 직제 운동은 하나의 더 깊은 인식으로부터 왔는데, 그 인식이란, “기독교의 분열이라는 고통스러운 역사적 현실은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17:21)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기도에 반하는 증거이다”라는 인식이었다(Gassmann).

신앙과 직제 운동의 시작은 한 마디로 이와 같았다. 즉, 바야흐로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가 끝나자마자, 미국에서 개최된 (성공회) Protestant Episcopal Church의 1910년 대회가 “신앙과 직제에 관련된 질문들을 숙고하기 위한” 하나의 세

세계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협력위원회를 임명할 것을 결정했다. 바로 이때부터 과거 역사를 극복하고, 신앙, 삶, 증거에 있어서의 일치로 향한 길을 준비하기 위한 신학적 분투(struggle)로서의 신앙과 직제 운동은 에큐메니칼 운동에 있어서 한 중요하고 항구적인 요소가 된 것이다(Gassmann).

또한 당시 몇몇 다른 교단들도 비슷한 결정들을 내렸지만, 그러나 그들이 꿈꾸는 세계적 규모의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책임은 1920년까지 지속되게 될, 새롭게 임명된 위원회에 맡겨졌다. 마침내 신앙과 직제 세계대회를 위한 한 준비모임이 제네바에서 개최되었고, 브렌트(Charles H. Brent)가 주도한 이 모임은 거의 80개 교회들 대표가 기독교 일치에 관한 그들 각자의 입장들을 교환하고, 하나의 국제적이고 교파를 초월한 지속 위원회를 만든 최초의 사건이 되었다.

이어서 추가적 준비과정을 거쳐, 마침내 1927년 제1차 신앙과 직제 대회가 스위스의 로잔(Lausanne)에서 개최되었다. 127개 정교회, 성공회, (종교)개혁교회, 자유교회 등을 대표하는 400명 이상의 참석자들이 브렌트(Brent)를 의장으로 모였고, “대회 안에서의 근본적 일치들의 명백한 차원과 여전히 남아 있는 불일치의 중대한 사항들을 확인하였다(to register the apparent level of fundamental agreements within the conference and the grave points of disagreement remaining).” 로잔 대회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되는데, 즉 “우리는 우리가 서로 일치하는 사항들과 우리가 서로 다른 사항들을 숙고하기 위해 모였다.” 말하자면, 로잔대회에서 교회들은 그들의 교리적 입장들(즉 그들의 신앙 고백들)을 서로 모아놓고(제시하고), 그들이 어디에서 일치하며 어디에서 일치하지 못하는지를 비교하였던 것이다.

위의 “비교론적”(comparative) 방법은 1937년 에딘버러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대회에까지 계속되었다. 이 비교론적 방법을 기초로 하여 기존하는 일치들과 차이들이 지적되었고, 보고서들에서 요약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차이들 배후에 있는 가능한 유사점들을 찾는 시도가 있었고, 그 차이들의 비중을 평가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Gassmann이 지적하는 대로, 그런 차이와 유사점을 확인하려는 노력들이 항상 동일한 결론들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WCC가 창설된 1948년 이후부터, 신앙과 직제 운동의 과제들은 WCC 안에 있는 신앙과 직제 위원회에 의해 수행되었다. Yngve Brilioth가 이끄는 새 위원회가 1952년 스웨덴의 룬트(Lund)에서 제3차 세계대회를 개최하였고, 바야흐로 지금까지의 비교론적 방법으로부터 하나의 공통된 성서적, 기독교적 기초로부터 논쟁적 이슈들에 접근하는 하나의 “신학적 대화(theological dialogue)의 형식”으로 나아갔다. 말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WCC 창설이라는 새로운 에큐메니칼적, 신학적 상황은 신앙과 직제로 하여금 “비교의 방법”에서 “대화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다

(Gassmann). 이 새로운 신학적 대화의 방법은 “그리스도-중심적”(Christ-centered)으로 불리어졌으며, 그것은 하나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었다. 이제 요구되는 일은 그리스도,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들의 기독교적 삶의 중심으로 간주하는 일이었다. 바로 룬트 세계대회(3차)는 이러한 변화를 나타냈으며,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 바야흐로 신학적 숙고와 교환은 주로 성서(Holy Scripture)라는 공통된 기초 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공통의 기초는 머지않아 성서와 전통을 포함함으로써 확대되었다. 또한 신학적 숙고와 의견교환은 공통된 기독교적 틀 안에서 행해졌으며, 그러한 틀 또한 최근에 와서 90년대 이르러서는 “삼위일체론적” 틀과 방향으로 재차 확대되었다.⁹⁴⁾

1963년 캐나다의 몬트리올(Montreal)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대회(의장 Oliver Tomkins)는 적어도 다음 두 가지의 중요한 사항들을 확인했다. 첫째, 성서 자체는 이전에 우리가 허용했던 것보다 더 다양하다. 둘째, “성서만으로”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말하자면, “성서와 전통은 교회의 신앙의 분리될 수 없는 원천들이다.”

오랜 휴지기를 거쳐 1993년 스페인의 산티안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에서 개최된 제5차 신앙과 직제 세계대회는 특히 신앙과 직제의 앞으로의 활동을 개괄하면서, “신앙, 삶, 그리고 증거에 있어서 코이노니아를 향하여”(Towards Koinonia in Faith, Life, and Witness)라는 계획적인(programmatic) 주제를 내걸었다.

IV. 신앙과 직제 운동의 성과: 발전들과 주제들

1. 외적 성취로서의 주목할 만한 발전들

에큐메니칼 운동 안에서의 한 “운동”(movement)으로서의 신앙과 직제는 주목할 만한 성취들을 통해 발전해왔으며, 또한 그 관심사들로서의 주제들에서도 극적인 변천을 보여준다. 이러한 외형상의 발전들과 내용상의 주제들의 변천은 신앙과 직제 운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 주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Zizioulas가 지적하는 것처럼, 신앙과 직제의 구체적 정체성은 WCC의 구성(1948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면서도 그 정체성은 끊임없이 재-확인(re-affirmation)과 재-정의(re-definition)를 필요로

94) 그러나 Gassmann에 따르면, 여전히 비교의 요소들은 남아있었다. 왜냐하면 대화는 서로 다른 기독교 전통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Gassmann이 말하는 신앙과 직제에서의 에큐메니칼적 대화의 본질은 이것이다. 즉 하나의 전통이 가진 풍부한 내용을 함께 재발견하고 명확히 한 후에 가시적 일치를 향해 가는 길에서 그들에게 기대되는 삶의 갱신을 위해 그 연구된 전통을 다른 교회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하는 정체성이다.⁹⁵⁾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신앙과 직제는 무엇이며, 또한 특히 에큐메니칼 운동의 다른 확언들과 활동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신앙과 직제가 아닌지”가 절대적으로 분명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정교회 전통의 교회들이 동의하고, 뿐만 아니라 대체로 폭넓은 동의가 이루어지는 바는, 무엇보다도 신앙과 직제는 대체로 비교론적 신학의 의미로 이해되는 신학적 논쟁(theological debate)의 기반이 되어왔다는 점이다. 또한 널리 동의되어지는 바는, 현재까지 신앙과 직제의 구체적인 과제는 기독교의 일치를 증진시키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룬트(1952년) 대회 이후부터 비교교회론으로부터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옅살라 총회(1968년)에서 “수평주의”(horizontalism)로 불리어진 것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신앙과 직제의 정체성을 혼란으로 밀어 넣기에 충분했다. 말하자면, 특히 Zizioulas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기되어야 한다. 즉, 신학이 더 이상 비교론적 방식으로 이해될 수 없다면, 에큐메니칼 상황에서 신학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신학의 목적이 그 최종적 분석에서 단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반응해야 할 교회의 과제에 봉사하는 것이라면(수평주의에 대한 강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직제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것이라고 할 때, 그 중요성은 어디까지에 이른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오늘날 WCC의 과제가 지나치게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는 것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되는 상황에서, WCC의 우선성의 순서에서 신앙과 직제의 위치는 과연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하는가?

위의 질문들은 신앙과 직제가 직면한 새로운 구조 안에서의 자신만의 특정한 정체성 확립에 관한 문제였다. Zizioulas의 회고에 따르면,⁹⁶⁾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의 기간(대략 1968-1970)에 두 가지 일들이 관련되어 일어났는데, 하나는 WCC의 구조개편과 신앙과 직제를 소위 "Unit I"로 통합시킨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 따라 신앙과 직제의 풍부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나머지 WCC 활동과 유기적으로 관련시키는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신앙과 직제는 새로운 구조 안에서 자신의 특정한 정체성을 유지함으로써 그 존재이유를 지켜가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또한 성령, 칼케돈 공의회, 예배, 협의회들 등에 대한 연구들이 당시로서는 신앙과 직제의 의미 있는 성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WCC 차원의 더 광범위한 활동에서는 그 나름의 길들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에큐메니칼 진전을 위한 도구로서 협의회적 성격(conciliarity)의 관념의 부침이 있었다.

한편, 신앙과 직제의 활동에 있어서 뒤를 이은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발전들을 지적한다면, 먼저 정교회(Orthodox Church)가 신앙과 직제를 강하게 지원하고 나섰다

95) Zizioulas, "Faith and Order,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I. The Heritage.

96) Zizioulas, "Faith and Order,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I. The Heritage.

사실이 중요하다. 그 배경을 이해하면, 정교회는 특히 “수평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무엇보다도 에큐메니칼 운동의 본래의 신학적 주제였던 “교회의 일치” 이슈와 신학 일반을 보호하는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것으로, 훨씬 더 중요한 사항은, 로마 가톨릭교회가 신앙과 직제에서 정회원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그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과로 시작된 것이지만, 후에 가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며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된 사실이다. Zizioulas에 따르면, 신앙과 직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참여한 것이 주는 영향은 “심리적인 것과 신학적인 것 모두”(both psychological and theological)⁹⁷⁾를 포함한다. 즉, 심리적으로 말해서, 정교회를 포함한 많은 회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참여가 가지는 의미를 평가할 때, 그들이 하나의 적으로 간주했던 것, 즉 수평주의에 반대해서 교회의 일치 이슈와 신학의 이슈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강화시킨 결과로 간주하였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신학적으로도, 신앙과 직제의 아젠다와 WCC에 대한 영향이 위의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게 확인되는 점이 더욱 더 분명해졌다.

2. 내적 성취로서의 주요 주제들

한편, 주제들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몇 가지 의미 있는 성취들이 있었다.

20세기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신앙과 직제 운동과 신앙과 직제 위원회는 실로 광범위한 범위의 신학적 이슈들을 다루어 왔다. 그러한 신학적 이슈들에는, 예를 들어, 세례, 성만찬, 안수 받은(ordained) 목사의 직에 대한 이해와 실행, 교회와 교회의 일치(unity)에 대한 개념들, 다른 종파 성도들 간의 성찬식(intercommunion), 성서와 전통, 신조들과 신앙고백들의 역할과 의의, 여성안수, 교회 일치를 위한 노력들에 미치는 소위 비-신학적 요소들의 영향 등이 포함된다.

한편 위와 같은 논쟁적인 이슈들 외에도, 신앙과 직제는 교회들에게 공통적인 관심사이며, 이미 존재하는 그들의 교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근본적일 수밖에 없는 주제들을 지속적으로 채택하여 왔다. 예를 들어, 예배와 영성, 오늘을 위한 기독교의 희망, 양자간, 그리고 다자간 대화들(bilateral and multilateral dialogues) 사이의 상호-관계 등이 그것이다.

더 넓은 에큐메니칼 운동 안에서, 그리고 WCC의 구조의 한 부분으로서 신앙과 직제 위원회는 자신의 과제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향의 일들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교회들을 돕고자 하는 하나의 집중된 신학적 노력 안에서 수행해 왔다. 즉 그 몇 가지 방향들이란, 1) 교회들이 그들의 분리시키는 교리적 차이

97) Zizioulas, "Faith and Order,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I. The Heritage.

들을 극복하는 일, 2) 다양한 신학적 통찰들과 삶의 형식들을 상호 갱신의 원천으로 공유하는 일, 3) 나아가 그들의 공동의 사도적 전통을 다시 사용하고 표현하는 일에서 교회들을 신학적으로 돕고자 하는 일이 그것이다. 이 모든 노력들을 통해 신앙과 직제 회원 교회들이 추구하는 공통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시적 일치(the visible unit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를 확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서 교회들은 인류와 모든 피조세계의 구원과 변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믿을만한 표징과 도구가 되도록 부름 받고 있다. 그러한 확신과 헌신을 가지고 신앙과 직제는 교회들 사이의 근본적으로 변화된 관계들을 향해, 그리고 그들의 충만한 (적어도 그들의 증가하는) 일치를 표현하기 위해 취해 온 많은 발걸음들에 각기 중대한 기여를 해 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다시 한 번 앞에서 소개된 Zizioulas의 글을 토대로 하여, 말하자면 그 글에서 제시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신앙과 직제가 경주해 온 신학적 노력의 주요 결과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교회의 일치: 1950년 WCC 중앙위원회는 “교회, 교회들, 그리고 WCC”에 대한 토론토 성명서(Toronto statement)를 채택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WCC는 “슈퍼 교회가 아니며, 결코 슈퍼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 성명서는 “WCC에서의 회원 자격은 교회 일치의 본질에 관한 한 특정한 교리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토론토 성명서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WCC가 교회의 일치를 표방하지만, 그 안에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관한 의견의 차이들이 존재한다”고 했다. 어떤 회원들은 어떤 형태로든 가시적 일치가 본질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회원들의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하나의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의 보편적 영적 교제이며, 따라서 가시적 일치는 비본질적이며 또는 심지어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들에 따르면, “에큐메니칼 전체 관점은 이러한 모든 이해들이 서로 역동적인 관계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토 성명이 채택된 이후, 교회의 일치 이슈는 계속해서 WCC의 아젠다에 올랐으며, 특히 신앙과 직제 위원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일치의 본질”에 계속해서 주목하였다. 무엇보다도 WCC 총회들이 교회의 일치에 관한 주요 성명서들을 작성해 왔다.

그 일치의 모델들을 4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유기적(Organic Unity): 신앙과 직제 운동의 역사적 목표는 “모든 회원의 궁극적인 충성이 그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몸 전체에 주어지는, 즉 그와 같이 연합된 교회이다.” 그 고전적 진술이 뉴델리 총회(1961년) 보고서에 작성되었다. 즉 처음으로

뉴델리 총회에서 토론토가 선언한 “잠정적 중립성”(provisional neutrality)을 넘어서는 하나의 시도(즉, “각 장소에서의 모두”)가 이루어졌다. 1968년 옹살라 총회는 뉴델리의 비전을 확장하여 “공동의 삶과 증언의 하나의 참으로, 보편적이고, 에큐메니칼적이며, 협의회적 형태를 강조함으로써” 교회 일치의 보편적 차원을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옹살라 총회는 “일치가 획일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초기의 주제를 다시 부각시켜, 다양하고, 포괄적이며, 인류의 일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의 보편성(catholicity)의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다.”

② 협의회적 교제(Conciliar Fellowship): 1975년 나이로비 총회는 뉴델리와 옹살라의 강조들을 결합하였는데, “하나의 교회는 그들 자신이 참으로 일치된 지역 교회들의 협의회적 교제(conciliar fellowship)로 생각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즉 나이로비 총회는 지역 교회와 가시적 일치를 강조하여 가시적 일치된 지역 교회들로서의 교회의 일치라는 역사적 정의를 내림으로써 에큐메니칼 운동과 WCC의 비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러한 비전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이슈들을 위해 일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말하자면 그들은 교회 구조, 직제, 성례전, 그리고 신앙고백 등에서 일치를 이루려는 그들의 노력들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밴쿠버 총회(1883년)는 우리가 추구하는 “교제”의 성만찬적 본질을 강조한 것이다.

③ 화해된 다양성(Reconciled Diversity): 화해된 다양성은 오늘날의 신앙 고백적 차이들이 가지는 합법성과 따라서 그것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차이들과 고유한 신앙 고백적 정체성들은 그저 “단순하게 보존되고 변화를 허용하지 않은 채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분열적인 성격을 상실하고 서로에게 화해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의 주목할 만한 영향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에큐메니칼 현장으로 들어 온 것이었다. 1960년대 이르러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전 세계의 에큐메니칼 모임들과 대화들에서 한 주요 참석자가 되었다. 비록 다양한 전통들이 서로의 만남들을 통해 불가피하게 변화에의 도전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파적 유산들이 교회의 다양성의 합법적 측면들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정체성들과 구조들이 보존되는 것은 허용되었지만, 무엇이 일치에 있어 본질적인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신학적 수렴이 강조되었다.

④ 연대 안에서의 일치(Unity in Solidarity): 신앙과 직제 운동에 참여해 온 Paul Albrecht는 신앙과 직제의 초기 슬로건인 “교리는 분열시키고, 봉사는 일치시킨다”는

것에 관해 많이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일치가 합의된 신앙 진술들 보다는 세계의 선교적 필요들에 응답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려는 공동의 의지에 더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델에 따르면, 근본적 분열(나뉘임)은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압제자들과 압제당하는 자들 사이의 괴리이다. 이러한 모델에 따르면, 적어도 우리가 세계가 거절한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일치되어 있는 것이다.

2) **BEM**: 신앙과 직제 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들을 조직함으로써 이미 연합되어 있고 또한 연합하고 있는 교회들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다. 또한 매 2년마다 "Survey of Church Union Negotiations"(교회 연합 교섭들에 대한 연구)를 발간한다. 특히 1982년 이후 신앙과 직제의 활동은 “1982 세례, 성만찬, 직제”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BEM) 문서와 관련한 전례 없이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토론과 의견수렴의 과정을 통해서 이전의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널리 알려졌다. 이 과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신앙과 직제 위원회는 소위 리마(Lima) 텍스트에 대해 교회들이 보내 온 거의 200개의 공식적 응답들에서 제기된 몇 가지 주요 핵심 사항들을 다룰 것이다.

3) **사도적 신앙의 신조적 고백**: 사도적 신앙에 대한 신조상의 고백이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왔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루터교 신학자들에 의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누구보다도 교리를 교회의 교부들과 에큐메니칼 공의회들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진지하게 고려해 달라고 하는 정교회의 관심을 만족시킨 것이다. 우리가 모든 교회가 받아들이는 하나의 신조로 동일한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한 우리는 참으로 하나가 될 수는 없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 이상의 신조들로 동일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열어 놓는다. 그러한 질문은 해석학에 대한 더 많은 작업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과 직제의 새로운 세대 신학자들 앞에 놓인 하나의 과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적어도 WCC 안에 있는 나머지 기독교인들에 의해 하나의 신앙고백으로 거부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동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 하나의 중요한 시작이 되었다.

4) **코이노니아**: 바야흐로 에큐메니칼 신학에서 한 핵심적 관념인 코이노니아의 주제가 등장했다. 먼저 캔버라 총회(1991년)가 더욱 encompassing 개념인 코이노니아(koinonia)로 나아갔는데, “충만 안에 있는 교회”를 묘사하기 위해 교회의 4개의 고전적 표지들, 즉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그리고 사도적인”을 명백하게 열거했다. 이 주제의 중요성과 합의들은 1993년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열린 신앙과

직제 세계대회에서 보고된 시작된 신앙과 직제 활동의 통합시키는 중심을 형성한 한 연구, 즉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 주제에 대한 하나의 포괄적인 교회론 연구의 틀 안에서 말해졌다. 산티아고 대회의 주제는 “Koinonia in Faith, Life, and Witness” 이었는데, 여기서 ‘신앙’이란 복음과 니케아-콘스탄티노플(381)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사도적 신앙이요, ‘삶’이란 BEM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기독교적 삶이요, ‘증거’는 교회의 복음 선교와 사회봉사 및 창조세계의 보전을 말한다. 말하자면, 코이노니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류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친교하게 될 종말론적으로 완성된 코이노니아를 바라보는 것이다.

V. 오늘날 계속되는 주요 이슈들

지난 한 세기 동안 신앙과 직제는 수많은 이슈들을 논의해 왔는데, 그 모든 이슈들은 결국 교회들이 그들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확인한 이슈들로서, 말하자면 자신들을 다른 교회들로부터 구별하게 만든 논쟁점들이었다. 예를 들어, 은총의 본질, 세례, 성만찬, 직제에 대한 이해, 교회의 본질, 그리고 서로 다른 종파 성도들 간의 성찬의 본질 등이 그러한 쟁점들이었다. 이들 모든 이슈들, 그리고 그밖에 많은 다른 이슈들이 결과적으로 소위 “경계표지(또는 경계석)들”(boundary-markers)이 되었다. 즉 그 경계표지들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슈들은 교회들/공동체들을 서로 대립시켜 정의했으며, 경계들을 협상하려 하고, 각 교회가 알고 있었던 지평의 범주들을 넘어서까지 보려고 하는 충동을 억누르는 기능을 했다. 여기서는 오늘날 신앙과 직제가 여전히 탐구하고 있는 경계(boundary) 역할을 하는 쟁점들을 역시 신앙과 직제 위원회(Commission on Faith and Order) 인터넷 홈페이지 공식 문서를 번역함으로써 소개해 본다.

1. 교회론(Ecclesiology)

하라레 총회(8차, 1998년) 이후로 신앙과 직제는 많은 이슈들을 연구해 오고 있는데, 그것들은 이전의 작업으로부터 온 것이며, 교회들이 교제를 향해 나아가기 전에 말해질 필요가 있는 질문들에 대한 교회들의 인식들로부터 온 이슈들이다.

리마 문서에 대해 교회들이 보내 온 180개의 응답들로부터 무엇보다도 분명했던 것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하나의 토대가 되는 교회론적 이해가 BEM 문서에 명백했었다고 하는 하나의 인식이다. 그러므로 BEM 이후, 그리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의 제5차 신앙과 직제 세계대회 이후시기를 보내면서 신앙과 직제는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연구하는데 크게 집중하였다.

신앙과 직제 위원회는 교회론에 대한 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하나의 초안 문서를 만들었다. 사용된 방법론은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신학적으로 결정하고, 또한 그 경계를 규정하는 이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었다. 이들 이슈들은 그들 교회들이 충만한 교제 또는 일치에 관계들로 나아갈 수 있기 전에는 타협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타협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된 이슈들이었다.

이러한 활동 방법은 차후의 불일치들 배후에 있는 성서적, 신학적 자원들(들)로 돌아가는 것을 포함하는데, 특히 BEM에서 사용된 방법들을 가져왔다. 특히 성서적 근거들로 감으로써 교회들로 하여금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고, 경계들을 협상할 수 있게 만드는 구분들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그러한 구분들에는 episcopate와 episcopacy(감독제도), 또는 사도적 계승과 사도적 전승 또는 anamnesis(기념)에 대한 강조와 그와 관련된 성서학 전통의 회복 사이의 구분들이 포함된다. 또한 그러한 구분들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찬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임재와 같은 이슈들을 둘러싼 더 큰 일치의 가능성을 열었다.

초안 문서 "The Nature and Purpose of the Church" (Faith and Order Paper No. 181)가 완성되었을 때, 그것은 최초의 논평을 위해 교회들, 신학 위원회들, 교회 회의들, 그리고 그밖에 적절한 기구들에 보내졌다. 본질적이고 유익한 평가들을 담은 대략 40개의 응답들이 있었고, 그 문서는 재-초안 작업의 과정을 거쳤다. 물론 그 응답들에서 지역에 따라 그리고 교파에 따라 불균형이 있었지만, 그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무엇보다도 정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이슈들을 극복하기 위한 제안들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많은 주의가 기울여졌다.

재-초안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최초의 문서에서 어쩌면 충분히 취급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이 그 나름대로 연구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일련의 회의들이 계획되었고, 1999-2004 기간에 걸쳐 다음과 같은 회의들이 실행에 옮겨졌다.

그 회의들은 다음과 같다.

1차 회의: "교회론과 선교"

2차 회의: "교회는 성례전적 본질을 가지는가?"

3차 회의: "권위와 권위적 가르침"

4차 회의: "교회 안에서 여자와 남자의 공동체에서의 목회와 안수"

2. 세례

신앙과 직제가 여전히 연구하고 있는 두 번째 경계(boundary) 이슈는 다른 아닌 세

레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의 세례는 특정하지만, 동시에 보편적인 현실에서의 세례이다. 그러나 교회들은 서로의 세례를 피차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해 왔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세례를 베푸는 교회들과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교회들 사이에 오랜 긴장들이 존재해 왔다. 또한 세례를 일회성의 사건으로 보는 교회들과 그것을 기독교인으로서의 삶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교회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긴장이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세례 신학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의 예전적 예배들을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생각에 이르렀는데, 즉 사실상 그러한 연구가 각 교회가 실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며, 그리고 세례가 어느 정도까지 목회, 공동체 식탁에의 참여, 그리고 교회 공동체들의 인정을 위한 기초가 되는지를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BEM에 대한 이전의 연구는 새로운 관계들로 들어가는 많은 교회들을 가져 왔다. 이들 관계들에서 매우 분명한 것은 BEM에 있는 세례에 대한 단락이 서로의 회원자격과 교회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어떤 연합된/연합하는 교회들은 복수의 세례 행위들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몇 가지 요소들이 성인들의 첫째 세례의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이것은 유아 세례를 실행하는 교회들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성인 세례가 모든 교회들에서 더 많은 현실이 되는 상황을 가져 왔다.

3. 해석학

모든 교회들은 자신들의 신학과 이해가 성서,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들이 성서를 해석하려는 지속적인 시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성서와 전통에 대한 한 주된 동의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신앙과 직제 제4차 세계대회(1963)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바로 이 해석의 문제에서, 그리고 교회들이 공통된 해석들에 도달할 수 없다는 문제에서, 교회들 사이의 경계들이 여전히 확고하고, 각각의 공동체는 서로 대립하여 자신을 정의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과거 해석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Treasure in Earthen Vessels" 보고서(Faith and Order Paper No. 182)가 출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성서와 전통, 그리고 confessionality의 해석학을 보려는, 그리고 구전과 상징들의 이슈를 연구하려는 시도로 계속되었다. 교회들의 해석은 단지 말뿐인 해석이거나 복음의 말들로 된 표현만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상징들, 몸짓들, 단어, 예배, 그리고 음악으로 확인되는 해석이다. 이것들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로 하여금 교제

의 해석학을 향해 나아가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들은 또한 어느 정도까지 경계 표지들(boundary-markers)의 증거인가?

4. 신학적 인간학

과거 하라레 총회에서 신학과 직제 위원회는 신학적 인간학과 관련된 이슈들을 연구하도록 요청받은 바 있다. 그것은 공동체 정체성, 인간의 성(Sexuality),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생명-윤리 등과 같은 질문들에 접근하기 위한 어떤 신학적 틀을 제공하기를 바라는 기대에서 비롯되었다.

일련의 회의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인격의 본질에 집중되어 있어왔으며, 특히 오늘날 진행되는 사회적, 과학적 발전들로부터 오는 인간 정체성에 대한 이해에 던져지는 도전들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하나님의 형상에 이러한 연구는 하나의 공통된 이해에 도달하려는 시도로서 인간이 더 이상 대상들로서가 아니라 주체들로서 대우받는 틀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틀을 사용하여 교회들은 윤리적, 그리고 또 다른 신학적 질문들에 더욱 잘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WCC 측은 기대한다.

5. 인종적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 그리고 일치성을 위한 추구

부다페스트에서 모인 상임위원회(1989)에서 신앙과 직제는 인종적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 그리고 교회의 일치 문제를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전 세계에 걸친 갈등들과 충돌들은 국가들 사이의 국제적 갈등들 보다는 국내적 인종적 갈등들에 더 관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교회들은 자신들이 이들 인종적 갈등들의 양쪽 진영 모두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렇게 된 데는 20세기 초 만들어진 선교지 분할 정책(comity)⁹⁸⁾ 동의들의 한 결과일 수 있는데, 그것에 따르면, 교회들은 각자 특정한 지역들에서 선교지를 가지기로 동의했었다. 결과적으로,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지도는 교회들 사이에서 “금이 그 어졌다.” 그것은 교회들 상호간에 경쟁이 아니라 상호-협력의 정신에서 각자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사람들에 관계하고자 한 것이었다.

각자의 공동체들이 가진 서로 다른 경험들을 연구하는데 있어 각기 서로 다른 유형

98) 1900년 뉴욕 카네기 홀에서 개최된 “뉴욕 에큐메니칼 선교 컨퍼런스”(New Ecumenical Missionary Conference)에서 선교단체나 교단별 경쟁이나 불협화음을 막기 위해 상호 중복 투자 금지, 선교사간 상호 존경, 과도한 경쟁 지양, 타 교단 교인들에 대한 포교활동 금지, 같은 지역에 선교구 설치 금지 등이 제안되었다.

론들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계약에 대조되는 포로의 유형론, 주인에 대조되는 희생자 유형론, 그리고 땅의 이슈 등이 그것이다. 땅은 어떤 한 민족에게 소유될 수 있는가? 땅은 어떤 한 민족에서 돌봄을 위해 주어진 것인가? 이것은 관계들의 의미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등의 질문들이 다루어져 왔다.

인종적 정체성 연구는 특히 피지, 스리랑카, 수단 등 갈등 상황들에 있는 교회협의들과의 상호협력, 그리고 아일랜드에 있는 한 에큐메니칼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포함했다.

교회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들 자신의 관점에서 민족주의, 인종성, 일치를 연구하게 될 성서학자들, 신학자들, 사회학자들과의 두 차례 회의들을 통해 이 계획은 더 진전될 것이며, 또한 지역의 자체-연구들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진행될 것이다.

6. 예배

한편 지금까지 신앙과 직제 활동의 한 중심 부분은 예배의 본질에 대한 연구였다. 그 연구의 초점은 세례에서 성만찬으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예배의 본질로 옮겨졌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날 신앙과 직제 위원회가 예배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은 단지 에큐메니칼 사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들을 위한 것이며, 그들이 그들 자신의 예배 전통들을 경계들과 지평들을 넘어서고자 시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다. 지난 십 여 년 동안 일련의 예배 워크숍들이 계획되었다. 한 예배 자료 센터는 교회들이 함께 에큐메니칼 적으로 예배하기 위한 하나의 전통을 수립하는 여러 방법들, 그리고 서로의 자원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보여준다.

the Pontifical Council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와 함께 신앙과 직제는 기독교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the Week of Prayer for Christian Unity)을 위한 자료들을 제공한다. 이것은, 그리고 다른 예배 자료들의 공급은 회중들의 삶에서 WCC 자체가 그 존재를 드러내고, 영향을 미치는 아마도 가장 명백한 장소이다. 매년, 한 특정한 지역에 있는 한 지역 그룹이 기도 주간을 위한 하나의 초안, 일련의 예배 행사들을 준비하도록 초대된다. 그 초안은 신앙과 직제, 그리고 the Pontifical Council의 대표들과의 더 폭넓은 논의를 위해 상정된다. 그런 다음 하나의 텍스트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들 자신의 특정한 상황에 적응시키도록 보내진다.

하라레 총회 이후 한 특별위원회가 WCC에의 정교회 참여를 연구했다. 그 특별위원회가 확인한 많은 이슈들이 신앙과 직제가 연구하는 질문들에 관련되었다. 즉 교회론, 세례, 공동 기도가 그것이다. 보고서를 제출하면서(2002) 중앙위원회는 신앙과 직제를

초대하여 교회들과 WCC 자체의 삶 사이의 관계들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 중심이 되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분석하도록 했다.

VI. 신앙과 직제 운동의 의의와 전망

1. 신학적 대화로서의 신앙과 직제의 의의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정리해 본 신앙과 직제 운동의 의의를 평가해 보아야 한다. 특히 Gassmann의 글을 통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Gassmann은 신앙과 직제가 남긴 영향을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측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근접한 방법들로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름대로 있다고 말한다.

1) 신앙과 직제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위한 방향과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추구하는 일치”를 묘사하고자 노력한다(Gassmann-6). 신앙과 직제 운동에서 이미 일치가 이 운동의 목표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교회 일치의 목표가 어떻게 기술되어야 하는가? 그 표현의 전제들, 형식들, 그리고 구조들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 역사 전체를 통해 신앙과 직제는 그 자신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즉 그 자신의 일의 지시적 지평으로서의 교회 일치의 개념들과 모델들이다. 여기서 일치의 개념들의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1937년 에딘버러 세계대회에서는 기독교 일치의 몇 가지 개념들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기술하였다.

나. 1961년 신앙과 직제는 WCC를 위해 교회의 일치에 대한 역사적 진술을 준비했고, 그것은 WCC 뉴델리 총회(1961년, 3차)에 의해 채택되었다. 신앙, 선포, 성례전, 기도, 그리고 신자들과 목회자들, 증거와 봉사의 상호 수용을 포함하는 하나의 충만하게 헌신된 교제 안에서 각각의 그리고 모든 장소들에서의 모든 세례 받은 자들의 일치에 대한 강조를 통해, 그 진술은 모든 미래의 활동을 위한 하나의 널리 수용된 기초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뉴델리 개념은 각 지역에 모든 교회들의 유기적 연합으로 일컬어진다.

다. 위의 뉴델리 개념은 “스스로 참으로 연합되어 있는 지역 교회들의 협의회적 친교”의 개념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으며, 그것은 서로 다른 차원들에서의 협의회적 모임들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이 개념은 1973년 살라망카 신앙과 직제 회의의 보고서에서 제안되었고, 1975년 WCC 나이로비 총회(5차)로 넘겨졌다.

라. 뉴델리와 나이로비 진술들의 기본 요소들은 1991년 캔버라 총회(7차)의 “코이노

니아: 선물과 소명으로서의 교회의 일치”에 대한 진술에서 다시 말해졌다. 그러나 이 진술은 “일치”에 비교되는 더욱 풍부하고,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의미 때문에 지배적인 관점으로서 코이노니아 개념을 도입한다. 교회들의 충만한 교제의 목표는 “모든 교회들이 서로에게서 그 충만 가운데 있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고 사도적 교회를 인정할 수 있을 때 실현될 것이다.”

2) 신앙과 직제는 교회들 사이의 분열들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그러한 이슈들에 그 신학적 작업을 집중해 왔다(Gassmann-7). 말하자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주요 이슈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본래의 사명에 따라, 신앙과 직제는 지금까지 지난 역사를 세례, 성만찬, 직제, 그리고 교회의 이슈들에 집중하였다. 첫 번째 세 가지 이슈들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일치들과 수렴들이 1982년 BEM(세례, 성만찬, 직제) 문서를 구성했는데, 이 문서는 실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에서 가장 널리 배포되고, 논의되며, 또한 응답들이 주어지는 문서이다. 또한 많은 상황들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에큐메니칼 문서이다.

3) 최근에 와서 신앙과 직제는 공통의 관심의 이슈들에, 그리고 교회들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교제를 더욱 표현하는 주제들에 점점 더 주목해 왔다(Gassmann-9).

4) 양자간, 그리고 다자간 대화는 상호 보충적이다(Gassmann-10).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진전의 일환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에 합류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기독교 세계 공동체들과의 국제적 양자 대화들을 가장 적절한 에큐메니칼 방법으로 선택했다.

5) Gassmann에 따르면, 신앙과 직제의 신학적 작업은 교회들로 하여금 상호간에 변화된 구조적 관계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기초, 단계들, 그리고 결정들을 준비하도록 도왔다(Gassmann-11). 이러한 변화된 구조적 관계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교회 연합들, 연합하는 교회들, 교회연합협의체들, 충만한 교제 또는 충만한 교제를 목적으로 하는 성찬 참여와 현재의 협상들에 대한 일치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구조적 변화들이 실현되지 않은 곳에서도, 신앙과 직제란 성취한 신학적 일치들과 수렴들(convergences)은 교회들 사이에 더 나은 상호 이해와 많은 형태들과 태도들로 보여지는 교제에 의미심장하게 기여했다. 이제 변화된 관계들은 많은 교회들 사이에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로마 가톨릭 교회이다. 이것은 20세기 교회사의 흐름에서 널리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신앙과 직제에서의 신학적 대화는 교회들의 사고와 삶에 있어서 상호 풍성함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더 넓은 기독교

교 전통의 신학적 통찰들과 영적 경험들이 신앙과 직제 대화들에서 재-발견되었고 재-사용되었으며, 참여 교회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러한 통찰들과 경험들이 채택되고 교회들 사이에서 공유되어 온 곳에서, 신학적, 신앙 고백적 입장들과 교회들의 삶이 더욱 개방되었고, 풍요해졌으며, 갱신되었고,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가까워졌다.

2. 앞으로의 과제

끝으로 Zizioulas의 글⁹⁹⁾과에서, 특히 그의 결론적인 언급들을 토대로, 그리고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 신앙과 직제의 미래를 제안하는 Anastasia Vassiliadou의 글을 토대로 신앙과 직제에게 요구되는 앞으로의 몇 가지 과제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앙과 직제는 신학적 활동이며,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그것은 언제나 모든 전통들로부터 오는 최상의, 그리고 가장 창조적인 신학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그러나 Zizioulas가 덧붙여 강조하기를 원하는 것은, “신학적”이란 말이 더 이상 어떤 “닫혀 있고 자급-자족의 학문분야를 가리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학은 그 경계선들을 개방해야 하고, 문화에 대한 의미 있고 관련성 있게 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Vassiliadou는 신앙과 직제가 그것의 관점을 보다 확대시킴으로써 우리의 교회적 정체성이 가진 다른 “동일하게 중요한” 측면들과 관련해 더욱 포괄적일 것을 제안한다. 말하자면, 신앙과 직제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의 신학적 활동이지만, 선교, 문화, 그리고 인간 삶, 피조세계, 교회의 성례전적 차원에까지 더욱 의미가 있고 관련이 있는 신학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Vassiliadou의 의견에 따르면, 탈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신앙과 직제'라는 타이틀 자체는 시대에 뒤떨어진 "현대의" 활동이라는 인상을 준다. 말하자면, 그 관심을 관념들, 교리적 믿음들, 제도적인 종교 기관의 구조 등에 국한시키고 교회적 신비의 전 영역에까지 미치지 못한다.

2) 교회의 일치가 신앙과 직제 활동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즉, 신앙과 직제는 계속해서 모든 근본적 측면들, 말하자면, 구조, 직제, 성례전 등에서, 가시적 일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편, 여기서도 Zizioulas가 강조하는 바는, 그 가시적 일치가 인간의 삶에 관련이 없는 일치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간에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포함된다. 그 일치는 세계를 향해 종말론적인, 말하자면

99) “Faith and Order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by Metropolitan JOHN (Zizioulas) of Pergamon, prepared for a Faith and Order consultation with Younger Theologians held at Turku, Finland, 3–11 August 1995.

궁극적인 희망과 의미를 제공하게 될 일치이어야 한다. 그 일치는 인간의 실존과 문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치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분열시키는 전통적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일치들은 또한 세계의 삶에 더욱 광범위한 중요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역시 Zizioulas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작금의 더욱 더 명백해져 가고 있는 생태학적 위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일치는 비-인간 세계에 대한 관심까지 포함해야 한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신앙과 직제가 그 노력들을 강화시켜야 할 목표인 교회의 가시적 일치는 그 모든 근본적 측면들(신앙, 구조, 선교, 직제, 성례전 등)에 있어서의 일치만이 아니고, 인류에게 확대되는 일치만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생태계)를 포함하는 일치이어야 한다(Vassiliadou).

3) 우리는 전통에 대한 해석학적 재-수용이라는 도움을 받아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하나의 공통된 해석을 성취하는데 우리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여기서 Zizioulas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수용의 관념이 앞으로 신앙과 직제의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오직 이런 맥락에서, 몬트리올 대회가 제안한 전통과 전통들 사이의 진정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4) 코이노니아 개념이 모든 신앙과 직제 연구들에서 하나의 공통된 도구로 되어야 하며, 이것은 WCC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Zizioulas에 따르면, 코이노니아야말로 “교리”(doctrine)를 기독교에서 새로운 분열들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로 점차 등장하고 있는 주제인 “윤리”(ethics)와 연결시킬 수 있는 관념이다. 복음주의적 근본주의자들은 “윤리적”인 것이 무엇이며 또 무엇이 아닌지를 결정하기 전에, 코이노니아에 근거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의 근본적 측면들에 근거한 윤리를 실천에 옮길 준비가 되어야 한다. 즉, Zizioulas에 따르면, 바로 그 존재에 있어서 코이노니아로서의 하나님은 여전히 실천에 옮겨지지 않은 많은 윤리적 함의들을 가진다. 코이노니아 관념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로 본질 보다 는 인격을 가리킨다. 여기서 Zizioulas는 다음과 같은 희망을 피력하고 있다. 즉 때가 되면 신앙과 직제는 한편으로 삼위일체와 기독교 교리, 다른 한편으로는 윤리적 이슈들이 모두를 함께 모으는 개념으로서 인격의 관념을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교회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해 교회의 일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다.

5) Zizioulas는 교회론의 주제가 계속해서 신앙과 직제 아젠다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회론이야말로 많은 양자 간 대화들을 지배하는 주제

이며, 그 열매들이 신앙과 직제에 의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이 주제에서 코이노니아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지역 교회와 “가톨릭” 교회와의 관계가 극도로 중요해졌다. 교회론은 교회의 구조, 직제 등의 질문들에 관련된 주제인데, 오직 코이노니아 개념의 도움을 통해서만 이러한 문제들이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Zizioulas는 교회론이 폐쇄적인 신학적, 또는 “교회적” 문제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주장한다. 인간의 차원뿐만 아니라 “우주적” 의미에서 세상에 대한 교회의 관계가 설명을 기다리는 측면이며, 이것은 다시 한 번 코이노니아 개념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그 존재 이유가 교회 자신이나 인간만을 위한 것에 있지 않으며, 전체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이콘이 되는 것이며, 종말론적 실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6) 끝으로 위에서 언급한 젊은 세대의 관점을 강조하는 Vassiliadou는 자신의 관심은 교회의 일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신학적 방법론의 문제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특히 성령론, 즉 성령의 결정적인 역할에 많은 강조를 두는 전통으로 왔음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에큐메니칼 운동이 보여 준 교회일치의 추구는 그 주도적인 방법론적 원리는 기독교론과 그리스도 중심주의였다. 물론 최근의 에큐메니칼 논의들에서 교회의 전통의 삼위일체론적 차원의 재발견에 큰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코 기독교론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기독교론에 대한 더욱 깊고 새로운 이해로서 성령론에 의해 조건 지워진 기독교론이 오늘날 변화하는 세계의 도전들에 우리의 신학으로 하여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Vassiliadou는 이렇게 질문한다. 어떻게 하면 신앙과 직제의 활동을 우리 시대의 변화들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생명을 부여하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교회의 일치의 차원을 지구화, 상황화, 그리고 심지어 고백주의에까지 관련시킬 수 있겠는가?

이 단락을 마치기 위해 다시 한 번 Vassiliadou의 문장을 빌려온다.

우리 시대의 도전들을 더 직접적으로, 더 의미 있게 직면하기 위해서, 신학과 일치 추구를 오늘 우리의 세계의 상황에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일치는 단지 신학적 일치들에 기초하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인간의 삶(실존), 문화, 그리고 환경, 말하자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세계에 영향을 가져야 한다.

VII. 글을 마치며

에큐메니칼 운동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WCC가 작성한 CUV("Common Understanding and Vision") 문서가 인정하는 대로,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기관들 가운데, '에큐메니칼 운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불확실성, 모호성, 그리고 심지어 혼동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에큐메니칼'이란 말이 기독교 일치를 위한 추구, 선교와 복음증거의 전 세계적인 과제에 있어서 공동의 증거, 봉사와 섬김에의 헌신, 그리고 정의와 평화의 증진에의 헌신 등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오늘우리가 살펴 본 신앙과 직제는 교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며, 이들 교파들의 신학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복음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사도적 신앙에서 그 통일성을 찾는 것이다.

신앙과 직제 운동은 WCC에서 절대 필요한(integral) 부분이다. 남녀 구분 없이 실로 경험과 명성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엄청난 양의 공동의 신학적 작업이 더 충만한 코이노니아를 향해 진행되어 왔다. 특히 로마 가톨릭교회와 몇몇 오순절 교회들의 공식적 참여를 통해 신앙과 직제는 명실상부한 하나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가시적 표징이 되었다. 또한 BEM과 교회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더욱 최근의 연구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전 세계에 걸친 기독교의 종교적 삶의 스펙트럼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대로, 실로 많은 발걸음들이 있어 왔고, 그리고 교회들 간의 관계들은 개선되어 왔다. 분명 에큐메니칼 운동이 처음 꿈꾸고 기대했었던 분열된 교회들 사이의 상호 존중과 사랑은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기독교의 비극적이고 부끄러운 분열의 역사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으며, 교회의 가시적 일치와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의 회복은 여전히 성취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다. 분열들은 지속되고 있고, 분열의 현실은 기독교의 선교와 증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화해와 일치는 여전히 긴급히 요구된다.

우리의 작은 우주의 미래는 하나의 화해된 세계, 하나의 일치된 기독교에 달려 있다. 기독교의 미래는 하나의 건강한 에큐메니즘에 의존한다. 그리고 에큐메니즘의 미래는 하나의 새로운, 그리고 갱신된 신앙과 직제의 활동에 크게 달려 있다.(Vassiliadou)

(주요 참고문헌)

“Commission on Faith and Order,”

<http://archives.oikoumene.org/query/Detail.aspx?ID=40906>

“What is Faith and Order?”

<http://www.oikoumene.org/who-are-we/organization-structure/consultative-bodies/faith-and-order/what-is-faith-and-order.html>

“Commission on Faith and Order.”

<http://www.oikoumene.org/who-are-we/organization-structure/consultative-bodies/faith-and-order.html>

Gassmann, G[ünter]. (Former Director, Faith and Order Secretariat) “What is Faith and Order?” Prepared for a Faith and Order consultation with Younger Theologians held at Turku, Finland, 3-11 August 1995. (아래 Gassmann으로 표기)

Metropolitan JOHN (Zizioulas) of Pergamon. “Faith and Order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Prepared for a Faith and Order consultation with Younger Theologians held at Turku, Finland, 3-11 August 1995. (아래 Zizioulas로 표기)

Tanner, Mary. (Moderator, Faith and Order Commission) “What is Faith and Order?” Prepared for a Faith and Order consultation with Younger Theologians held at Turku, Finland, 3-11 August 1995. (아래 Tanner로 표기)

Vassiliadou, Anastasia. (studied theology in Greece at the University of Thessaloniki and in the United States, worked as an intern with the Faith and Order team) “The future of Faith and Ord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w generation.” Prepared for 75th Anniversary of Faith and Order (August 2002). (아래 Vassiliadou로 표기)

한국교회와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

김용복 목사 (아시아태평양생명학 연구원)

1. 전환기에 선 세계기독교운동

21세기 지구상의 기독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적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이시대의 징조를 보면 세계기독교가 카이로스적인 시운에 직면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교회는 이런 세기적 변화 속에서 세계교회협의회 10총회를 마지하게 되었다. 이 역사적 사건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고 세계기독교의 중차대한 전환기에 한국교회가 중요하게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교단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교회의 차원에서 그 의의와 과제를 생각하여 보려고 한다. 우선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구조적요인들을 고려하려한다.

〈우리의 입지〉

최근 우리교단에서는 생명 살리기 10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은 아직 미흡하고 설익고 어설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장의 목회자들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이 선교 프로젝트가 실천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1990년 “예수그리스도는 세상의 생명이다”는 신앙고백을 가지고 “정의·평창 조질서의 보전”이라는 세계대회(World Convocation on 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를 치렀다. 그러나 이 대회는 아직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생명체들을 총체적으로 위협하고 생면질서 자체를 교란하는 세력들이 강하게 부각되는 이 마당에 예수그리스도는 세상의 생명이라는 신앙고백과 그 선교적 의미를 다시 음미할 필요를 강하게 느낀다.

(가) 지구제국의 출현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지구적으로 가장 막강한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이 군사질서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전멸 할 수도 있는 무기체제와 전략전술을 보유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가장 방대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미국에 자리를 잡은 세계자본은 경제적으로 세계시장을 잔악하고 있다. 문화적으로도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체제를 통하여 지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나) 지구시장체제

영미와 서방세계에 자리하고 있는 지구자본은 근대적 산업화를 통하여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국제금융체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경제적 무한성장과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초국적기업들에 제약 없이 부여하고 있다. 이 시장은 경제성장과 번영이라는 명분아래 지구자원을 소진하고 있으며 그 이윤추구는 투기적이며 탐욕의 공용처럼 한이 없다. 이로 인하여 빈부격차는 물론 빈곤과 기아와 질병으로 인한 인간의 죽음과 생태계의 오염과 파괴가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

(다) 지구과학기술체제

근대 산업혁명이라 서구에서 시작된 과학기술의 발전은 놀랄만하다. 이것은 지구문명을 과학기술문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 과학기술체제는 지구제국체제, 지구시장체제, 지구정보커뮤니케이션 질서와 공생하면서 전지구적으로 생명질서를 근본적으로 와해하고 있다. 이 과학기술은 생명질서를 인식론적으로 객관화하고 공학적으로 도구화하여 모든 사물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조작하며 심지어는 생명질서를 대체하는 가상의 공간을 창조하고 외곽하며 정복하는 결과를 자아내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인공지능, 전자기술, 인조생명공학기술을 수렴 통합하여 초인간적 존재를 창조하여 새로운 문명에 진입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적 생물체와 인간존재는 모호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라) 지구적 문화질서

지구적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질서와 전자기술은 이 시대의 의식, 의지, 감성, 영성을 지구적으로 장악하고 지배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들의 고유한 의식, 의지, 감성, 영성의 고유한 정체성과 다양성이 붕괴되고 획일화되고 동화되는 문화

적으로 지구화되는 현실을 마지 하였다. 따라서 고유하고 창조적인 생명문화를 위하여 필수적인 창조적 인식, 고유한 가치의 실현, 고유한 예술, 고유한 성성을 보전하는 것이 점점 어렵게 되고 있다.

위에 간단히 서술한 지구적 과정은 우주의 생명질서에 역사초유의 도전할 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존재자체와 그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세계기독교는 그 미래를 위한 진로를 모색하는 카이로스적 시운을 맞이하고 있다. 이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여 것은 유엔을 중심한 세계정부기구들과 G-7의 서장국기들, G-20의 중진국들, 초국적 기업들, 지식인 공동체인 대학과 연구소들, 그 외의 시민단체들이 맹렬히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세계 기독교가 세계종교로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10차 WCC 총회는 이런 의미에서 향후 10년 동안에 지구의 미래 따라서 세계기독교의 진로를 위한 중대한 좌표를 설정하게 될 것이다.

(마) 세계의 지정학적 구도의 중요한 변화는 동북아시아가 중심의 하나로 부각되고 이 경향은 2020년 즉 WCC 총회후 7년 쯤 되면 세계경제로 보나, 세계군사적 역학관계로 보나, 교통과 물류와 교류로 보나, 커뮤니케이션등 문화적 지평으로 보나 동북아시아가 그 구심을 형성할 것이며 우리민족회 한반도는 이 중심소용돌이에 처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서구중심의 세계가 상당부분 변혁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문화권, 동북아시아의 생태권, 동북아시아의 생명권은 전 지구적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2. 한국교회의 역사적 좌표설정

한국기독교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 시대적 부름에 응답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유산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가) 한국교회는 강력한 신앙적 기초를 가진 공동체로서 활력이 있는 교회로 알려져 있다. 한국교회의 성장과 저력은 물론 교회성장위한 노력이 출중하였지만 이는 민족사 안에서 민족독립과 개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디아코니아와 억압받고 가난하게 된 자들의 권리를 위한 인권신장, 최근에는 민주주의와 민족통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

신적 공헌을 통하여 민족사회의 공신력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한국교회의 유산과 자산은 세계교회들이 부러워하는 부분이다.

(나) 한국교회는 고도로 교육받은 지식인 공동체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일반 사회에 비하여 교육열이 강하고 교육성취도가 높은 사실이다. 성직자나 평신도를 망라하고 그들의 교육수준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우리는 많은 인적, 지적, 신앙적, 선교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자원은 지구적 차원에서 신학적, 선교적, 전문적 Reorientation과 활성화를 통하여 세계기독교운동에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2만 명에 가까운 해외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데 이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신학적 선교적 Reorientation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선교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유휴 최고등교육을 받은 신학자들의 국제적 활용도 중요한 몫을 하게 될 것이다.

(다)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4대강국의 틈바귀에 끼어있는 민족의 지정학적 위치에 처하여 있다. 지난 세기반 동안 4대강국의 치열한 패권각축전, 냉전체제와 전쟁, 이제는 미국의 주도하에 그리고 4대강국의 지정학적 구도가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와 외교, 경제를 비롯한 모든 관계가 트이고 미국과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우방에 속하여 있어 한국은 전 방위적인 교류와 관계설정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남북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는 날 우리는 초유의 역사적 지평이 열리고 전 방위적인 선교의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역할과 관련하여 6자교회협의과정(Six Party Conciliar Process of Churches)의 시발을 도모한 적이 있다. 우리는 중국과 전 사회주의권에 있는 아시아 교회들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의 교회들을 초청하여 동북아 선교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항구적으로 협의 관정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번 WCC 총회가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라) 한국교회는 디아코니아의 역적 기반과 실력과 실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국내에서도, 대 이북관계에서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주 등 제삼세계에 대하여서도 디아코니아의 사역을 하여왔다. 한국교회는 디아코니아 전문 인력과 재력을 통하여 국내외 전 세계적으로 희생당하고 상처당하는 생명체들을 위한 생명디아코니아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디아코니아사역을 위한 인재육성과 배치는 한국교회의 세계선교의 차원을 질적으로 고양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디아코니아 선교는 한반도에 상생질서를 구축하는 일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상생 생명질서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마) 한국기독교는 기독교국가적 환경에서 살지 않았다. 한국기독교공동체는 아시아의 종교공동체들과 이념집단과 공존하여온 경험이 있다. 이 부분에서 한국교회가 부족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시아종교가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21세기는 종교 간에 그리고 종교를 초월한 에큐메니칼 지평이 요청된다. 한국기독교는 삼일운동에서, 인권운동에서, 디아코니아운동에서, 초 종교적 지평을 경험하여 왔다. 이것은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다. 이러한 현실은 지역교회에서 많이 경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1세기 에큐메니컬운동은 초종교적 지평을 요청하고 있다. 이점에 있어서 서구교회는 한계가 있다. 아시아의 교회, 아프리카의 교회들과 협력하여 초종교적 거대 에큐메니즘(Macro-Ecumenism)의 지평을 열어야 할 것이다.

3. 2020년의 동북아시아와 한국교회의 선교적 행보

(가) 동아시아가 지구적 차원에서 주축을 이루는 시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정학적 차원에서 4대강국의 군사적, 지장학적 만남과 대립이 밀도 높게 진행되어 왔으며 향후 10년 동안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첨예 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이 문제는 구가권력과 국가권력들의 이해관계에만 맡길 수 없다. 예수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는 세상(Pax Imperium)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한국기독교공동체는 이 평화사역의 중심에 서야 할 것이다.

(나) 동북아시아는 공동의 Ecosphere, Biosphere를 보유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서 생태계는 상생질서를 형성하여야 한다. 한국교회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동산이라는 신앙고백을 가지고 있다. 우리민족은 仙界와 같은 상생질서의 문화와 종교들의 생명지혜를 유산으로 가지고 있다. 우리교회는 한반도에 신천신지 새 메시아통치의 비전을 심어왔다. 한국교회는 한반도 뿐 아니라 동아시아에 생명질서를 상생질서로 구축하는 데 촉매적인 역할을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다) 2020 동북아시아는 세계경제의 Global Hub이 될 것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동북아 경제구역설치를 논하고 있으며 세계금융의 센터가 이 지역에 자리 잡을 것이며 세계시장의 물류유통의 주축이 될 전망이다. 한국교회는 생명경제의 비전을 가지고 경제적 상생을 위한 국내적, 남북 간,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역을 선교적 사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세계에큐메니컬운동의 경제선교 정책은 서구중심으로 구사되어 왔다. 한국교회는 성경에 기초한 상생 경제적 비전을 가지고 생명경제의 사역을 개척하여야 할 것이다.

(라) 동북아시아는 2020에 즈음하여 세계 교통 통신의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다. 특히 가상공간의 지식유통과 커뮤니케이션은 실제공간과 같이 치열한 적자생존의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전개될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문화공간을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생명의 예술을 풍요롭게 하며, 생명의 지혜를 발굴하고 배우며, 생명의 신비와 심연을 보전하는 생명문화선교를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민족 문화적 생명문화유산을 연구발굴하고 전승하며 이를 성경의 생명 신앙: 예수그리스도는 세상의 생명이다 는 고백과 접목하여 사생질서를 구축하는 선교적 과제를 수행할 것이다. 이 비전은 일본에는 일어로, 중국에는 중어로, 러시아에는 노어로, 미국에는 영어로 교신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현지교회들과 상호 협력하여 상상생질서를 위한 선교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4. 한국교회와 WCC

(가) 한국교회의 일치과제

한국교회는 분열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개교회주의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인물중심, 파벌주의, 지역주의 등의 사회적 요인에 의한 분열이 심하다. 최근에는 한국교회의 분열이 정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띠고 있다. 신학적인 요인은 여기에 가미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크게 보면 한국개신교의 분열 분리는 넘지 못할 벽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일치의 과제는 복음주의 교회들과 소위 에큐메니칼교회들의 교류와 일치가 가장 큰 과제로 보각된다. 특히 장로교회들의 일치는 아주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WCC 총회를 계기로 한국교회의 일치된 모습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천주교회의의 협력관계, 한국종교들과의 연대는 한국교회가 개발해야할 에큐메니칼 과제라고 생각한다.

(나) 한국교회와 정치권관의 관계

한국교회의 전통이나 한국헌법이나 “정교분리”가 원칙이다. 한국교회는 정권으로부터의 자유를 전통으로 지행하였고 정권을 이용하는 교회지도자는 항상 정당성을 확보하

지 못 했다. 이것은 보수나 진보를 막론하고 그렇다. 종교와 교회는 정체성과 자유는 종교적으로 선교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점에 있어서 헌법의 정교분리는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고 이것은 정권의 지배에 의하여 신앙적 양심과 선교의 자유가 제어 되지 않음을 말한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한국교회의 신앙적, 선교자유 전통은 중요한 좌표가 될 수 있다. 서구교회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정교유착의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제3세계의 교회들은 한국교회의 전통에서 배울 것이 많고 생각한다.

(다) 한국어는 에큐메니칼 언어

WCC 총회를 계기로 하여 언어정책의 변화가 요청된다. 한국어를 잠정적으로 WCC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중국어, 일어, 인도네시아어든 아시아언어를 WCC공식 언어화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동북아의 에큐메니컬운동은 5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어)가 필수적 요건이다. Cyber Space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와 소통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에큐메니컬운동은 한국의 어느 지역교회에서도 행동의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에 응답할 수 있는 새로운 에큐메니칼 커뮤니케이션을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라) 새 시대 에큐메니칼 지도력 육성

한국교회는 초교파적으로 70명 + 300명의 젊은 한국 에큐메니칼 지도자(성직자와 평신도, 남과 여)를 새 세대를 위하여 훈련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WCC 총회는 이러한 기회를 주고 있다. 동시에 한국교회는 WCC와 협력하고 세계교회들과 협력하여 Global Ecumenical Institute of Theology (동아시아 50명과 세계 100명) 2단계2주 +3주를 설립하고 세계적으로 새 세대의 에큐메니칼지도자 육성을 출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 한국교회와 민족 디아스포라

한국민족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고 그 약 50%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선교적 요인일 수 있다. 또한 지구화의 결과로 노동자들이 자기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일자리를 구하여 이주 노동자가 되고 고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으로 이주하는 여성들이 수가 늘어나는가 하면 그들이 현지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가정이 세계도처에서 급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주노동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민족들의 디아스포라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음을 말하여 준다.

사도해전에 기록된 유대인 디아스포라도 로마제국 하에서 일어난 민족들의 디아스포라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사도바울에게는 이들이 특별한 선교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WCC 10차 총회를 계기로 하여 민족 디아스포라, 기독교디아스포라공동체 문제가 지구적 차원에서 논의 될 수 있으며 한국민족/기독교디아스포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역시 한국교회가 선취권을 가지고 선교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바) 세계적 에큐메니칼연대전략의 구축

세계기독교의 미래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교회들의 협력에 달렸다. 이 과정을 위하여 남쪽중심의 새로운 에큐메니칼연대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동북아시아 교회들의 협력과정은 중국, 일본,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있는 교회들을 포괄하여야 할 것이다. WCC 10차 총회를 앞두고 협의 과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Asia-Africa 교회들의 협력과정은 Africa-Asian Ecumenical Space 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 지역에 세계기독교가 확장되고 세계기독교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AAPACALA(South) 교회들의 협력과정은 Africa, Asia, Pacific, Caribbean and Latin American 교회들을 포괄하여 전 남부교회를 말한다.

(4) 유럽과 북미주의 교회들의 협력과정

(5) North와 South에 있는 교회들의 협력과정

지금까지 세계교회의 협력은 서구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1) 세계기독교인구의 대다수가 남쪽에 있고 2)남쪽의 기독교회들은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3) 서구의 신학적, 신앙적 들은 지구적 현실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4)기독교의 미래설정도 지극히 서구 중심적이다.

(사) 한국교회의 친절과 Koinonia

WCC 총회에는 되도록 많은 대표들을 기독교의 가정과 교회에 초대하여 그리스도안에서의 친교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훌륭한 사랑의 나눔을 체험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세계교회협의회를 위한 친교와 코이노니아를 토대로 한 민박전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아) WCC 10차 총회는 아시아의 총회이다.

1960년에 뉴델리에서 열린 총회이후에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이다. 아시아 교회들은 한국총회를 아시아의 총회로 보고 지지하고 후원하였다. 특히 중국교회와 일본교회, 필리핀 교회는 한국총회에 거는 기대가 클 뿐 아니라 많은 총대들이 한국총회를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 필리핀을 방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교회로서는 정치적인 여건이 허락하는 한 총회의 일부를 북한의 평양에서 개최하는 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최소한도 Pre-assembly Meeting이나 총회전 후에 북한을 공식 방문하는 것의 가능성을 탐색하여야 할 것이다.

(자) 21세기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선교 좌표설정

한국교회의 선교좌표를 생명과 평화에 초점을 맞추자. 이를 위하여 본 교단은 생명 살리기 10년 프로그램을 격상하여 구체적인 과제를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1) 생명신학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것은 한국교회사와 한국현실 속에서 실천되는 생명사역의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2) 한국적 생명 예배의식개발이 필요하다. 이 과제는 한국의 예술을 토대로 하고 한국의 문화적 유산과 지혜를 토대로 하여 이루 질 수 있다.

(3) 생명디아코니아 구축의 관제는 이미 사회적 디아코니아 뿐 아니라 생태적 차원에서의 디아코니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4) 지역에서 생명선교 실천과제는 이미 현장에서 상당부분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5) 생명평화선교운동의 전개와 연대확대는 교회적 차원 뿐 아니라 교회관련 생명평화운동단체, 나아가서 일반 시민 단체들이나 타종교의 활동을 포함하는 연대의 지평을

열고 그들의 경험을 수렴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내적 지평을 넘어서 동북 아시아 그리고 세계적인 지평을 여는 연대이어야 할 것이다.

5. 나가는 말

세계에큐메니칼운동과 세계의 교회들은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위하여 지도적 역할을 함으로서 봉사하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미국과 같은 제국세력의 배경을 가진 것도 아니고 세계자본의 배경을 가진 것도 아니다. 정확하게 보면 한국교회가 이런 권력과 금력의 배경이 없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겸허하게 세계교회들과 선교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세계기독교의 미래를 위하여 선교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교회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과제

- 코이노니아의 악수를 하라-

장 상 박사(전 이화여대총장, 신약학)

1. 제사장 전승과 예언자 전승

구약성서에는 크게 보아 두 개의 전승이 있다 : 제사장 전승과 예언자 전승이다. 제사장 전승은 성전예배가 핵심이며 제사장들이 중심역할을 담당한다. 제사장의 역할은 기존구조와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예언자 전승에는 조직이나 제도는 없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개인에 의해서 수행된다.

예언자는 위기의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제사장 전승의 타락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적 발전을 선포하고 예언한다. 예언자들의 활동은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치유의 기능이 있다. 이는 위기의 성격에 따라 심판일 수도 있고 개혁과 갱신일 수도 있다. 제사장 전승은 보수적인 반면 예언자적 전승은 개혁적이다. 그러나 성전예배가 타락하였다 해서 성전예배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며, 예언자 전승만으로는 구약신앙을 대변할 수 없다.

구약시대는 이 두 전승의 종말과 함께 마감된다. AD 70년 유대전쟁에서 로마군에 의한 예루살렘성전 파괴와 더불어 성전제사는 종말을 고한다. 그것은 제사장 전승의 종말을 의미하며 그 후로는 회당이 성전예배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회당제도는 예루살렘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었던 바빌론 포로시대부터 이미 시작되었다(에스라 8:15, 느헤미야 8:2, 9:1). 회당제도에서는 제사장들이 아닌, 평신도 주로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었고, 회당 예배의 핵심은 제사가 아니라 율법이었다. 초대교회의 예배 형식은 회당의 것을 많이 채용하였다.

예언자전승도 구약의 말라기를 끝으로 종말을 맞는다(B.C. 450경). 누가에 의하면

세례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다(눅 16:16).

2. 예수 시대

예수의 오심과 더불어 옛 계약의 시대는 끝이 나고 새 계약의 시대가 열린다. 예수의 사역이 모세, 엘리야, 이사야 같은 예언자 선상에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눅 4:17-21; 마 17:2) 예수는 스스로 예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예언자 이상이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 만이 옛 계약을 새롭게 완성한 유일한 대제사장이며(요 17:19f) 그는 완전한 희생으로써 단 한 번에 드러진 제물이라는 신학도 발견된다(엡 5:2, 히 9:14). 그는 만민의 속죄를 위해 친히 희생제물이 되었고, 그 희생은 다시 반복되지 않는 사건으로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다.

예수의 사랑의 두 계명

누가에 의하면 예수의 첫 번 설교인 회년 설교는 나사렛 회당에서 있었다(눅 4:14-21). 예수의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구약의 613개의 계명이 두 계명으로 수렴된다(신 6:4, 레 19:18). 이 계명은 공관복음서에 모두 보도되고 있다(막 12:28-34, 마 22:34-40, 눅 10:25-37).

예수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사랑의 두 계명을 제시한다. 마가복음에서 질문자는 서기관이나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서는 율법학자이다. 마가복음서의 분위기는 긍정적이고 우호적이거나 다른 두 복음서에서는 자못 적대적이며 부정적이다. 마가복음서의 관심은 “첫째 계명이 무엇인가?”이며 마태복음서는 “위대한 계명”이다. 누가복음서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는 영생을 얻는 처방계명에 관심을 둔다.

세 복음서의 기술은 조금씩 다르나, 공통된 것은 세 복음서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계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의 관계를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두 계명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마가복음서는 “이것들보다(복수)”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계명이 함께 가장 큰 계명이다. 마태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와 같으니” 라는 언급에서 나타나는 대로 먼저 언급된 계명과 후에 언급된 계명이 다 같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마태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강조한다.

누가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사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번역해야 한다. 사랑하라는 동사는 하나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동일한 계명인 것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은 나란히 언급되나,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각기 대등하고 독립된 의미와 중요성과 권위가 부여된다. 동시에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계명으로 밀접한 내적 연결에서 그 완결된 의미를 지닌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실한 이웃 사랑은 불가능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두 계명은 서로 구별되나, 분리해서 실천할 수가 없다.

3. 교회의 시대

누가의 글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의 신학은 구속사 신학이며 구속사적 틀(구약시대, 예수시대, 교회시대)이 분명하다.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다. 예수의 교훈은 교회 공동체 생활의 핵심이 되었다. 사랑의 두 계명이 예수의 교훈대로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고 실천이 되었는가는 별 문제이다. 교회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더 우선권을 주기도 하고, 또는 “이웃을 사랑하라”에 무게를 두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 두 계명이 “함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

예루살렘 사도회의

사도회의 개최의 배경: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사도회의는 기독교 최초의 정상회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된 이래 교회는 팔레스타인을 넘어 빠르게 헬라세계로 뻗어갔다. 일반적으로 최초의 교회는 우선 유대인 동족을 위한 선교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방인들의 구원은 세상 종말 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직접적 구원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유대인을 위한 선교는 대체로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이방인을 위한 선교는 상상 이외로 생명력 있는 선교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성공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유대적이 되어야 하는가? 그들에게 할례 및 유대교의 제의적 규례와 음식법 준수를 부과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이념적으로, 실제적으로 매우 심각하였다. 유대인들의 민

족적 자부심은 뿌리 깊은 선민의식과 관련되어 감정적 차원을 지니고 있었다. 이방사도로 지칭하는 바울까지도 유대인을 “첫째”로 여기는 경향이 발견된다. 아직도 성전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던 흩어져 있는 소위 예루살렘 유대인들/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지만 구원은 모세의 율법을 떠나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물론 베드로에게도 바울의 신앙처럼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전부였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수천년의 전통을 잊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유산에 대한 애착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므로 유대교 전통과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이방인들에게 새 이스라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염려했고 저항했다.

특히 할례는 이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의무였던 것처럼(행 2:10)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이방인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극단적인 우익에 속한 자들이 있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엄격한 입장을 지닌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는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이와 같이 이념적 측면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수용하기 매우 어려웠던 것 같이, 또한 바울을 비롯한 이방선교의 차원에서도 할례는 심각한 문제였다.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위해 필요 충분함으로 타협이 불가능하며, 할례는 복음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실제로 초대교회의 선교적 측면에서 할례나 음식법의 부과는 상당한 어려움을 제기했다. 유대인 입장에서 할례가 유대교의 이방선교에 있어서 심각한 걸림돌이었듯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선교의 실질적인 장애물이 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점이 선교 초기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소위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팔레스타인 유대인 그리스도교회와 이방인 그리스도교회, 베드로가 중심인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이 중심인 이방인교회 간에 긴장과 갈등이 있었고, 분열의 조짐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관한 보도: AD 49년경에 예루살렘에서 개최되었던 최초의 사도회의에 대한 기록은 갈 2:1-11과 행 15:1-29에서 발견된다. 갈 2:1-11은 사도회의의 주역으로 참석했던 바울에 의한 보도이다. 사도회의 이후 4-5년이 경과된 시점 49년 경,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목적에서 쓴 기록이다. 반면 행 15:1-29은 정상회담 이후 30여년이 경과된 시점에, 제 3자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그 시대 교회의 역사

적, 신학적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전자에서는 교회의 일치와 연합의 계기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바울의 역할이 돋보인다. 후자에서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영성과 “선교의 의미”를 명백히 하고 있다.

바울의 보도(갈 2:1-10)

바울은 기독교 최대의 신학자인 동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한 기독교를 헬라세계로 몰고 간 주역으로서, 기독교의 세계화의 길을 연 최대의 선교사이다. 더 나아가 그는 초기 기독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주도한 최초의 에큐메니칼 사도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바울사도에게는 그의 선교활동을 어렵게 하는 세 가지 약점이 있었다. 우선 그의 사도직 권위가 도전 받고 있었다. 바울은 지상의 예수를 따르지 않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도 않았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의 적대자들은 그의 사도직의 정당성,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다. 그는 소위 “자칭 사도”라는 것이다.

동시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예루살렘의 12사도와는 달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것이 아니므로 복음의 온전성이 의심받았다(갈 1:18-24 참고).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주력하며, 율법이나 할례로부터 자유한 복음을 전하였다. 따라서 바울의 선교의 정당성이 문제시 될 수밖에 없었다.

갈 2:1-11은 바울이 AD 53-4년 전후로 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바울은 여기에서 예루살렘 사도회의 자체를 보고하기 위한 것 보다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자신의 위치와 입장을 변호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그것은 초대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한 바울의 신학적 노력과 직결된다.

바울의 선교와 신학을 꿰뚫고 있는 2대 관심사는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요약될 수 있는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일치와 연합이었다. 이 두 핵심적 관심 또는 과제를 지키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는 생명을 다하도록 수고, 투쟁, 헌신했다.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교회와 이방인 그리스도교회 내의 분열의 위험성을 상당히 염려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 그리고 이방세계에서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제출하였다. 바울은 그의 사도직의 권위를 의식하듯 누구의 강요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시”로 인해서 이방선교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으며, “유력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으나 “사사로이” 하였다는 것을 부자연스러울 만큼 강조한다.

그 결과 “소위 유력한 자들”(예루살렘 사도들)은 바울이 이방세계에 전한 복음에 전혀 이의가 없었으며, 오히려 베드로를 사도로 삼으신 이가 자신에게도 역사하사 이방

인의 사도로 삼았다고 바울은 자랑스럽게 기술하고 있다. 말하자면 바울의 사도직의 권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온전성, 바울의 선교의 정당성이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친교의 악수”가 이루어졌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베드로와 바울의 ‘코이노니아’의 악수(갈 2:9-10): 예루살렘 교회 기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오른 손을 주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의미의 화해, 일치 또는 친교를 상징하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지만, 한편이 다른 한편에게 오른손을 주는 행위로 상징되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예루살렘 기둥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오른 손을 주면서 동등하게 여겼는가?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는 오른 손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기둥들이 우월한 위치를 인정하는 관계였는가?

당시 헬라사회에서 오른 손($\delta\epsilon\grave{\xi}\ \alpha\varsigma\ \delta\iota\delta\omicron\nu\alpha\iota$)은 서약, 또는 상호계약 체결을 상징했다. 친교로 번역된 코이노니아($\kappa\omicron\iota\nu\omega\nu\iota\alpha$)의 의미는 다양하나 대체로 나눔, 협력, 참여, 동반자를 뜻한다. 친교의 오른손을 준 행위는 회의에 참석한 자들이 대등한 동역관계의 계약을 맺는 일이며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에서 표현되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연합하여 전파하는 공동의 목적을 인정하는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의미한다.

복음전파에서 선교대상 및 영역의 구분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이 합의는 사실상 예루살렘 사도회의 이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사도회의는 이 사실을 신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방사도들은 사도회의 이후 예루살렘 교회와의 일치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코이노니아의 악수는 단일교회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인정, 존중, 협력하는 일치와 연합, 파트너십을 이루는 상징적 행위였다.

코이노니아의 악수로 상징된 계약의 두 번째 내용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모금사업의 과제였다. 이것은(10절) 계약에 첨가된 요구가 아니라 계약자체의 일부였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예루살렘 사도들의 요청은 그 앞에 “ $\mu\ \acute{o}\nu\ \omicron\ \nu$ ”이 강조됨으로써 그것 외에는 다른 요구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

헌금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사도행전 11:30에 나오는 기근구호와 동일한 것인가? 또는 정기적 헌금인가?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이란 누구인가? 바울과 바나바도 예루살렘 기둥들에게 어떤 특별한 요청을 했는가? 이들의 요구가 동역관계의 동등성을 저해하거나 악화시킨 것은 아닌가? 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바울은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일은 본래 열심히 하던 일이라고 강조한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헌금의 신학적 의의를 설명한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 보았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이방인들의 의존적 위치를 보여준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던 “신령한 것”을 함께 나누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대등하게 나누는 자들이 되었으며, 그것은 은혜인 동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진 자들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금을 하여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사도회의 참석자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와 협력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바울은 교회일치의 최종적 과정은 바울과 바나바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지도자들이 속한 교회의 구성원들에게도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금과정에 많은 오해와 반대, 어려움이 있었다. 처음에는 열성적이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열성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바울은 헌금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여 모금을 계속하였다. 헌금에 대한 바울의 헌신은 그가 친히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는 계획을 세우고 신변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무릅쓰고 전달 과제를 수행하는 데서 알 수 있다.

누가의 보고 (행 15:1-29)

상황의 심각성: 열광적이고 극단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다.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준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여서 소위 보수적인 유대인 그리스도교 지도자와 “자유 주의자들”인 이방인 그리스도교 지도자가 함께 검토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모일 필요가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로서의 권위가 아직 있었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주도하고 있었다.

민주적인 해결의 장: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온 안디옥 교회 일행을 맞이했다. 그리고 청청과 소통과 논쟁이 이루어지는 공개적인 회의가 개최되었다.

지도자들의 영성: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상당한 논쟁이 있었으나 베드로와 야고보의 지도력에 의해 이 회의의 역사적인 결과가 성취되었다.

베드로의 호소: 베드로는 자신의 사도됨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택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 고넬료의 회심사건을 회상(11:11-18)했다. 고넬료 가정의 회심사건에서 베드로는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대인의 전통적 기준이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았다.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는 공정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치 않으시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감동적으로 호소한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믿음 이외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베드로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어깨에 올려놓은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을 저주한 예수님의 교훈을 상기시킨다.

이방인들은 오직 신앙과 세례에 의해서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교인들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다(11:1-8, 18 참조) 그것은 갈라디아서 2:11-14에서 나타나는 대로 안디옥에 예루살렘의 극보수주의자들이 나타나자 베드로, 바나바 등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중단하는 유감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담대하게 베드로를 공개 비난하는 사건이 있었다.

야고보의 지도력: 야고보는 마치 회의의 의장처럼 보인다. “내 말을 믿으라” 말만 아니라 그에게서 지도자의 실천적인 지혜와 용기를 발견한다. 그는 토론 끝에 회의가 수용한 것을 요약하며 선교의 의의는 “한 백성”을 이루는 것이라는 핵심적인 개념을 제시하면서 베드로의 입장을 옹호한다.

“한 백성”이란 대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해 사용하였으나(아모스 9:11-12, 70인 역, 예레미야 12:15, 이사야 45:21) 야고보는 하나님의 백성인 새 이스라엘, 곧 교회에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의미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 들어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말라”는 권위 있는 권면과 함께 실천적 결론을 제시한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준수를 부과하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요구는 기각되고 할례준수의 요구 대신 4개의 실천적 금령이 채택된다. 행 15:31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교회에서 보낸 권면 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기록되었다.

1964년 전 역사상 최초로 개최되었던 사도회의의 과정, 결과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이나 집단의 임의적 개입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보고, 청정, 토론이 가능한 “회의”라는 합리적 기제를 선택한 것은 기독교 교회의 민주적 과정의 기초가 되었다. 당사자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교회인 안디옥 교회 양측의 참여를 통한 합의과정을 거침으로써 신뢰성이 보장 되었다.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의 발생의 진원지였으므로 모교회로서의 어느 정도 권위가 있었고 지도력 행사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강압적이거나 종속, 지배적인 것이 아니라, 권고, 의견제안 등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상황으로 나타난다.

지도자들의 영성: 모든 사회적, 인간적 걸림돌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는 영성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과 헌신이 돋보인다. 또한 선교의 주역은 하나님이시며, 사도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천명한다.

교회일치와 선교영역의 확대: 바울의 이방선교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코이노니아의 악수를 통해 예루살렘교회와 이방인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교회와 이방인교회의 일치와 선교협력의 길이 열렸다. 따라서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사도행전의 중심인 15장에 기록되었다.

행 1장-14장에는 유대인에 대한 선교와 관심이 발견되나 행 16장-28장에서는 이방 선교에 대한 선교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사도행전 15장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사도들의 근거지, 거점 역할의 위치를 행사하지 않는다. 사도회의를 기점으로 선교의 축의 변화가 발생한다. 예루살렘이 주도하던 선교는 바울주도의 선교로 바뀌고 예루살렘교회는 퇴조한다. 유대교의 테두리를 넘어 팔레스타인 밖의 이방세계로의 본격적인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그리스도교 선교영역의 획기적 확대가 이루어진다. 로마 세계로의 진출을 비롯하여, 세계의 그리스도교로 가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를 벗어나는 진통의 필연적, 상징적 사건이다.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볼 때 만일 복음의 진리가 수호되지 않고 이방선교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유대인 그리스도교는 유대교 안의 하나의 소종파로 타락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교회의 일치가 수호되지 않았더라면 이방인 그리스도교회는 복음의 역사적 전승으로부터 이탈되면서 헬레니즘 사회의 비역사적인 밀의종교의 형태로 타락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세계 그리스도교회 연합운동의

효시로서 하나님의 교회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신학은 코이노니아 신학이며, 바로 에큐메니칼 신학의 핵심이 코이노니아 신학인 것이다.

4. 세계 기독교의 미래와 한국교회

21세기의 현실: 21세기는 희망의 시대로 기대됐으나 오히려 위기의 시대로 화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전개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경제세계화의 등장으로 시작된 21세기는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 생태계 위기, 자원 고갈과 기후변화, 종교간 갈등과 충돌, 영적·정신적 혼돈 등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동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다.

500여 년 전 세계의 중심은 지중해였고 유럽의 시대였다. 그러나 세계의 중심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겨가고 있다. 대서양 중심시대가 미국의 시대라면 태평양 중심 시대는 동북아시아의 시대이다. 오늘날 유럽은 침체되어 있고 미국은 최상/최강의 정점은 지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의 부상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21세기 기독교의 현실: 기독교를 세기 별로 특정 짓는다면 19세기는 선교의 세기였으며 20세기는 성장의 세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21세기는 어떤 세기가 될 것인가? 우선 세계교회의 지형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세계의 중심이 유럽이었듯이 기독교의 중심도 한 때는 유럽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서 분명한 것은 유럽과 북미대륙에서 기독교의 교세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 수는 감소하고 사회엘리트층은 교회를 이탈하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외면하면서 교회의 문화 사회적 영향력 감소뿐 아니라 교회자체의 지속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신흥 교회의 성장은 괄목할만하다. 비서구 기독교의 비율이 75%에 이른다.

2011년 미국교회협의회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도 교세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통적 교단들의 교인수가 감소하는 반면 비전통 교단의 교회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오순절 계통 교회, 복음주의 교회의 성장은 타교단과 비교해 볼 때 주목할 현상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21세기 세계 기독교의 미래를 위한 제언: 시대마다 문제가 있다. AD 50년대 초대 교회에서 유대인교회와 이방인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위험이 심각하였듯이 오늘날 세계 교회도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크게 봐서 세계 교회는 에큐메니칼 그룹과 에반젤

리칼 그룹이 있다. 지역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이 두 그룹이 조화롭게 지내기도 하지만 긴장과 갈등으로 에너지 소모적인 측면이 농후하다.

21세기의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큐메니칼 그룹과 에반젤리칼 그룹의 코이노니아의 악수를 통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 에큐메니칼과 에반젤리칼을 어떻게 특징지을 수 있을까? 반드시 일치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어떤 경향성은 말할 수 있다. 구약성서의 제사장 전승과 예언자 전승에 비추어보면 에반젤리칼은 제사장 전승에 가깝고 에큐메니칼은 예언자 전승에 가깝다. 예수의 사랑계명에 비추어 보면 에반젤리칼은 하나님 사랑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에큐메니칼은 이웃사랑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고 말하면 지나친 것인가?

1948년 창립된 WCC는 20세기 후반 들어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의 일치와 공동선교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가장 중심적인 국제기구이다. 동시에 회원교회 안팎으로부터 상당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WCC의 메시지와 활동은 확실히 예언자적 증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WCC의 10차 총회주제인 정의, 평화, 생명이 잘 증언하고 있다. 에큐메니칼에서 말하는 일치란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구조적인 일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일치”를 의미한다.

WCC는 달리 표현하면 교회의 에큐메니칼 코이노니아이다. 에큐메니칼은 ‘ὁ κόσμος ἐν ἡμῖν’(만물이 거주하는 세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것은 전 세계적이며 지구적인 것을 의미한다. 교회의 일치는 전 세계적 일치, 연합, 협력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인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의 차원에서 볼 때 교회들의 친교영역은 광범위하며 에큐메니칼하다. 바꾸어 말하면 에큐메니칼 코이노니아이다. 구약성서에서 제사장 전승과 예언자 전승이 각기 그 역할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완적이며 어느 한 전승이 약화, 쇠퇴될 때 구약 시대는 끝이 났다. 예수의 교훈을 공관복음서 기자들이 조심스럽게, 성실하게 기록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계명은 구별은 되나 분리 불가능한 것이다.

21세기 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에큐메니칼과 에반젤리칼의 코이노니아의 악수에서 새로운 동력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에반젤리칼이 에큐메니칼과 분리될 때 하나님의 선교는 미완성이며 하나님의 주권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에큐메니칼이 에반젤리칼과 분리될 때 에큐메니칼의 노력은 공허해질 수 있다. 21세기 기독교의 방향과 동력의 발견은 에큐메니칼과 에반젤리칼의 코이노니아 악수에 있으며 에큐메니칼은 에반젤리칼을 품고 에반젤리칼은 에큐메니칼을 품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실상은 어떠한가?

한국교회도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사회에서는 교회가 상당한 비난을 받고 있다. 분열과 사회적 신뢰, 도덕적 신뢰의 결여, 복음보다 물질이 우선시되는 것과 같은 물량주의 물질주의의 팽배가 위협수위로 다가가고 있다. 한편 한국교회는 서구교회에 비하면 생동감이 있는 공동체이다. 예배에 열심이며, 기도예 열심이며, 성서를 읽는 교인들이 많으며, 선교정신이 살아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분명히 세계 기독교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이와 같은 성찰에 비추어 한국교회를 위한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WCC 총회는 준비과정에서부터 일치와 협력의 과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에큐메니칼과 에반젤리칼의 코이노니아의 약속의 역사적 순간을 기대하는 것이다.

에큐메니칼 교회가 예언자적 경향성이 강하다면 에반젤리칼 교회는 영성적 경향이 강하다고 특징지을 수 있다. 영적 전승과 예언자적 전승이 분리될 때 교회는 약해지며, 일치 협력할 때 교회는 강해진다. 유럽교회의 쇠퇴의 원인의 하나는 지나치게 예언자적 역할에 의존하여 영적 전승의 약화를 초래했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비 서구교회는 신학은 약하고 에큐메니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나 영적 전승이 강하다는 것이다.

동북아 시대에 세계 기독교의 중심적 역할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 세계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한국교회는 분명히 중심에 있다. 한국교회 역사에는 유감스럽게도 에큐메니칼 운동의 본질에 대한 많은 오해와 왜곡이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경청과 소통의 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WCC는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지도자들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교회는 이런 과제에 감사하며 이런 과제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WCC 제10차 총회 일정표

날짜 시간	10/30 (수)	10/31 (목)	11/1 (금)	11/2 (토)	11/3 (주일)	11/4 (월)	11/5 (화)	11/6 (수)	11/7 (목)	11/8 (금)
08:30 09:00	등록	기도회	기도회	기도회	한국교회 예배참여	기도회	기도회	기도회	기도회	기도회
09:15 10:15	/ 오리엔 테이션	성경공부	성경공부	한국교회 들과 함께하는 평화관련 에큐메니 칼 순례		성경공부	성경공부	성경공부	성경공부	위원회 보고
10:15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10:45 12:15	개회예배	총회주제	아시아 지역회의			선교관련 전체회의	연합관련 전체회의	정의관련 전체회의	평화관련 전체회의	폐회 전체회의 or 보고
12:15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14:00 15:30	개막식	전체회의	전체회의			마당 프로그램 (워크숍)	마당 프로그램 (워크숍)	마당 프로그램 (워크숍)	마당 프로그램 (워크숍)	파송예배
15:30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16:00 17:30	회장 및 총무 보고	에큐메니칼 대화	에큐메니칼 대화	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	에큐메니칼 대화	에큐메니칼 대화	위원회 보고	위원회 보고	WCC 중앙위원 회
17:30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18:00 19:30	총회주제 전체회의	고백적 회의	지역별 회의	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	선거	위원회 보고	위원회 보고	고해 회의	
19:45 20:15	기도회	기도회	기도회			기도회	기도회	한국교회 와 만찬	기도회	X
20:30	저녁	저녁	저녁			저녁	저녁 (위원회)	및 기도회	저녁 (중앙위 원회)	X